

최종보고서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

2023.7.31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7.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 동 철

■ 연구진

■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

KDI 연구진	이 영 옥	KDI 연구위원 (연구총괄)
	이 승 희	KDI 연구위원 (제3장)
	권 형 준	KDI 전문위원 (제4장)
	한 영 은	KDI 전문연구원 (제2장)
	이 수 은	KDI 전문연구원 (제2장)

목 차

요 약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1절 노인빈곤 현황 및 연구 필요성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점	6
제3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책	8
1. 기초연금	9
2. 노인일자리	11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13
제2장 고령층의 소득·자산 현황	20
제1절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	20
1. 자료 및 방법	20
2.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	22
제2절 농가의 소득 및 자산 현황	37
1. 관련 문헌	37
2. 자료 및 방법	38
3.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 현황	41
제3장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방법	52
1. 선행연구	52

2. 자산의 소득화 분석	57
제3절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 빈곤 현황	61
1.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	61
2.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64
3. 노인 빈곤층 구성	70
4. 소득, 자산, 소비지출 비교	71
5.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비교	80
6. 생계 유지 가능 기간	85
제4절 자산의 연금화에 기반한 노인 빈곤 현황	88
1. 노인 빈곤층의 자산 현황	88
2. 자산의 연금화 분석	91
3. 주택연금	100
제4장 소득 · 자산 고려 시 노인 빈곤 지표 국제 비교	105
제1절 LWS DB의 활용	105
제2절 자산의 포괄소득화 고려한 노인빈곤율의 국제 비교	106
제3절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 빈곤층 구성의 국제 비교	114
제4절 순자산의 연금화를 고려한 노인빈곤율의 국제 비교	121
제5절 소득 · 자산 결합분포의 국제 비교	12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8
제1절 소득 ·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지표 필요성	128
제2절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130
참고문헌	133
■ 부록	137

◆ 표 목 차

<표 1- 1> 노후준비여부 및 준비방법	4
<표 1- 2> 고령 가구주 가구 자산유형별 비중	5
<표 1- 3>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10
<표 1- 4>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10
<표 1- 5> 노인일자리 예산지원 기준	12
<표 1- 6> 노인일자리 실적 추이	12
<표 1- 7> 주택연금 인지 수준	15
<표 1- 8> 주택연금 이용 의향	16
<표 1- 9> 주택연금 비이용 의향 이유	17
<표 2- 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변수들 기초통계치	21
<표 2- 2> 소득분위별 분포	24
<표 2- 3>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	25
<표 2- 4>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경상소득 구성	26
<표 2- 5> 자산분위별 분포	29
<표 2- 6>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30
<표 2- 7>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 상세	31
<표 2- 8>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가구 기준)	33
<표 2- 9>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개인 기준)	34
<표 2-10>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34
<표 2-11>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34
<표 2-12>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35
<표 2-13>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35

<표 2-14> 65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35
<표 2-15> 65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36
<표 2-16> 7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36
<표 2-17> 7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36
<표 2-18> 2021년 농가경제조사의 주요 변수들 기초통계치	39
<표 2-19> 소득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42
<표 2-20> 소득분위별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43
<표 2-21> 자산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45
<표 2-22> 소득분위별 농촌 노인가구의 자산 구성	46
<표 2-23> 소득분위별 농촌 노인가구의 자산 구성 - 상세	47
<표 2-24> 농촌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	49
<표 2-25> 농촌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49
<표 2-26>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50
<표 2-27> 농촌 65~74세 노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50
<표 2-28> 농촌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50
<표 3- 1>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부채 항목 분류 체계	62
<표 3- 2> 계층 내 소득, 자산, 소비지출 격차(전체 노인)	79
<표 3- 3> 빈곤층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소득, 자산, 소비(전체 노인)	82
<표 3- 4> 빈곤층 자산, 부채 현황(전체 노인)	90
<표 3- 5> 근로 연령층과 노인층의 균등화 자산, 부채 현황	93
<표 4- 1> LWS DB 분석에 사용한 기준별 소득의 정의와 분석대상 국가	106
<표 4- 2> LWS 9차 DB를 활용한 9개국의 소득, 포괄소득 등 기준소득별 빈곤율	108
<표 4- 3> LWS 10차 DB를 활용한 8개국의 소득, 포괄소득 등 기준소득별 빈곤율	109
<표 4- 4> LWS 11차 DB를 활용한 4개국의 소득, 포괄소득 등 기준소득별 빈곤율	111
<표 4- 5> LWS 9-11차 DB를 활용한 소득 및 소득자산소득별 빈곤분석 결과요약	112
<표 4- 6> LWS 9-11차 DB를 활용한 노인 빈곤층의 구성	115
<표 4- 7> LWS 최신시점 자료를 활용한 연소 노인(65~74세) 빈곤층의 구성	120

<표 4- 8> LWS DB의 주요 자산 변수의 구성	121
<표 4- 9> LWS 최신 DB기준, 순자산의 연금화 빈곤율 현황	124
<표 4-10> LWS 최신 DB기준, 가구주 연령 기준별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	125
<표 4-11> LWS 최신 DB기준, 고령가구주 가구의 연금소득 비중 및 노인빈곤율	127

◆ 그 림 목 차

[그림 1- 1]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추이	1
[그림 1- 2] OECD 노인빈곤율과 근로연령층 빈곤율 비교	2
[그림 1- 3] OECD 고령층의 소득구성	3
[그림 1- 4] 소득·자산을 고려한 빈곤층 비교	8
[그림 1- 5] 주택연금 보증건수 및 연금지급액 추이	14
[그림 1- 6] 농지연금 가입건수 추이	18
[그림 2- 1] 소득분위별 분포	24
[그림 2- 2] 자산분위별 분포	28
[그림 2- 3] 소득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41
[그림 2- 4] 자산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44
[그림 3- 1]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63
[그림 3- 2] 포괄소득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64
[그림 3- 3] 포괄소득 근로 연령대 빈곤율	65
[그림 3- 4] 포괄소득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66
[그림 3- 5] 포괄소득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67
[그림 3- 6] 포괄소득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67
[그림 3- 7] 소득·자산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70
[그림 3- 8] 노인 빈곤유형별 구성(전체 노인)	71
[그림 3- 9] 노인층 평균 소득(전체 노인)	74
[그림 3-10] 노인층 평균 자산(전체 노인)	74
[그림 3-11] 노인층 평균 소비지출(전체 노인)	75
[그림 3-12] 노인층 평균 포괄소득(전체 노인)	75

[그림 3-13] 노인층 평균 소득(연령대별)	77
[그림 3-14] 노인층 평균 자산(연령대별)	77
[그림 3-15] 노인층 평균 소비지출(연령대별)	78
[그림 3-16] 노인층 평균 소득(전체 노인)	83
[그림 3-17] 노인층 평균 자산(전체 노인)	84
[그림 3-18] 노인층 평균 소비(전체 노인)	84
[그림 3-19] 노인층 평균 포괄소득(전체 노인)	85
[그림 3-20] 생계 유지 가능 기간(유동, 금융 자산)	87
[그림 3-21] 생계 유지 가능 기간(순자산)	87
[그림 3-22]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92
[그림 3-23]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95
[그림 3-24]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95
[그림 3-25]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96
[그림 3-26]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97
[그림 3-27]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98
[그림 3-28]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98
[그림 3-29]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99
[그림 3-30] 순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100
[그림 3-31]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102
[그림 3-32]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103
[그림 3-33]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104
[그림 3-34]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104
[그림 4- 1] 소득·자산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107
[그림 4-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	113
[그림 4- 3]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한국 19년도 기준)	116
[그림 4- 4]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한국 16년도 기준)	117
[그림 4- 5]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최신시점과 한국 '16, '19, '21년도 기준)	118
[그림 4- 6]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LWS 9차 및 한국 '16, '19, '21년도)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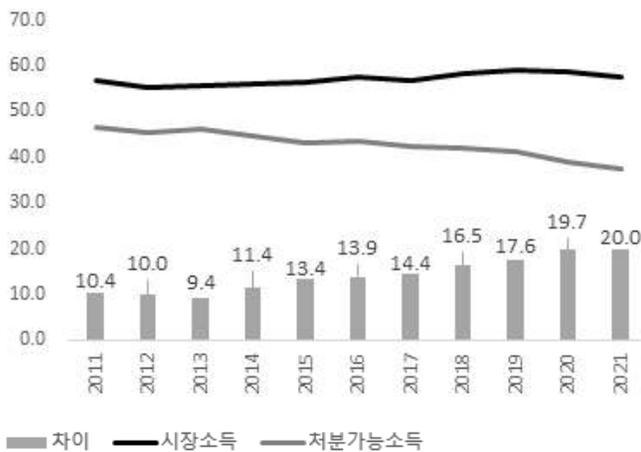
[그림 4- 7] 연소 노인(65~74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최신연도 및 한국 '16, '19, '21년도)	120
[그림 4- 8] 기준소득 대비 주요 순자산 연금화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	123

요 약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11년 46.5%에서 '21년 37.6%로 지난 10년 동안 8.9%p 감소(그림 1)
 -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정채 또는 소폭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기초연금 확대, 공적연금 수급 증가 등 공적이전소득의 역할 확대가 그동안의 노인 빈곤율 감소에 주요하게 작용
 -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 13.1%(‘18년, 65세 초과 기준)와 큰 차이를 보임.

[그림 1]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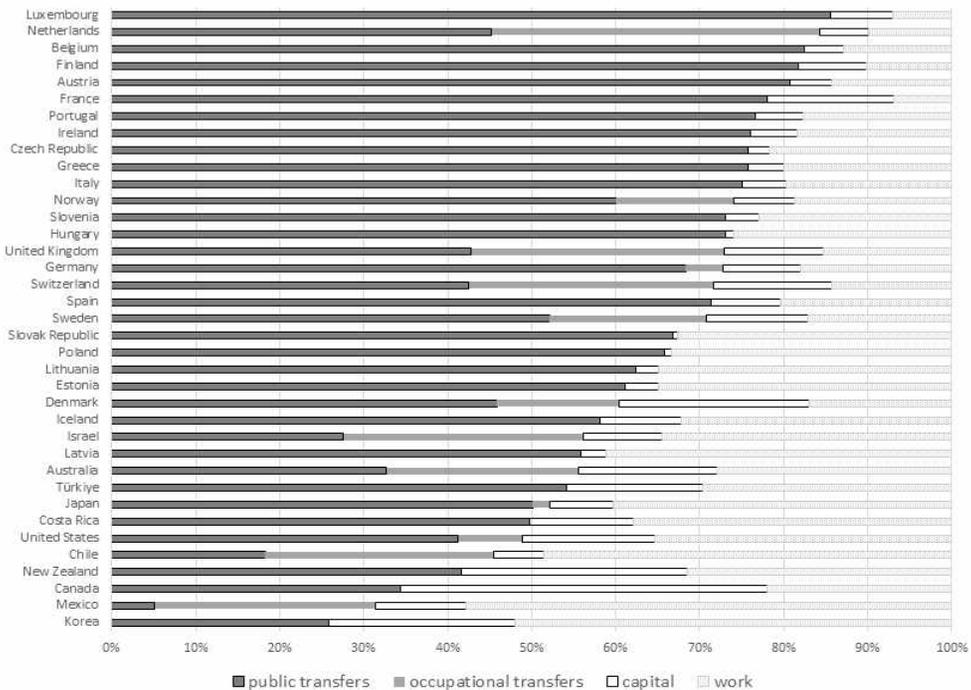


자료: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2011~2021.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은 고령층 대상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에서 크게 기인(그림 2)

- 65세 초과 고령층의 소득 중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public transfers)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5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공적이전소득과 함께 직역연금의 비중까지 합한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음.
- 대신 노동소득의 비중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
- 결국 현 고령층 대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게 관찰
 - 국민연금의 도입시점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늦고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도 넓어 현 고령층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음.
 - 또한, 고령층 대상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수준

[그림 2] OECD 고령층의 소득구성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2021.

-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개인 및 가구는 자산축적 등 다른 노후준비대책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소득만으로는 실제 경제적 상황 판단 한계
 - 또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노후준비방법으로 연금소득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응답된 반면, 금융자산, 부동산 운용 등 자산에 기반한 노후준비 비중이 높게 응답됨.
 -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준비를 했다는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에서는 49.7%로 가장 높게 관찰되며, 부동산 운용에 의한 노후준비가 되어있다는 비중은 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관찰됨.
 -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구의 자산유형별 비중을 국제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이 82.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으로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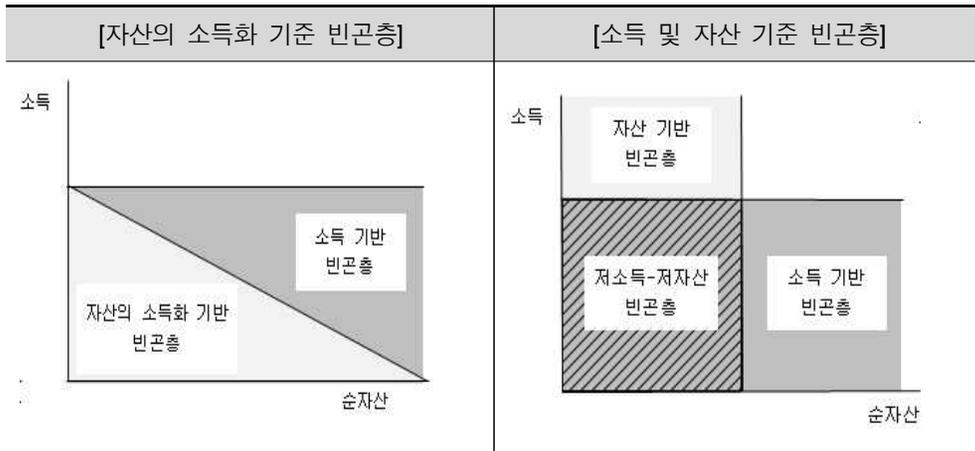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함께 자산을 고려하여 노인빈곤을 분석하고자 하며,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자산의 소득화 방식 적용
 - 고령층의 자산축적 비중이 비교적 높다면 소득만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소득 기준 빈곤율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경제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노인빈곤 분석

- 자산의 소득화 방법으로는 포괄소득화와 연금화를 고려
 - 포괄소득화는 자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귀속임대료 등 자산을 통한 암묵적 소득을 포함하는 포괄개념인 반면, 연금화는 보유자산을 소모하여 소득을 마련하는 방식
 - 포괄소득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산 소모 여부
 - 현 고령층이 연금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소득화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금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산활용정책 하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
 - 포괄소득화는 포괄소득을 추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고 연금화는 기대여명이 짧은 고령층의 자산환산소득을 과대추정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모두 고려

□ 또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유형별 소득환산방법을 달리 적용

-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자산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유량으로 전환하기 힘든 자산들 (자동차, 기타 고가 내구재 등)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 보유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치중된 점을 고려하여 자산을 부동산과 그 외 자산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며, 부동산자산도 세부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 자산유형별로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소득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토지, 건물), 기타 실물자산 등 자산의 특성별로 연금화, 임대료화 등 다른 소득환산방법 적용
- 이와 함께 보완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빈곤을 각각 정의하고 저소득-저자산 노인 빈곤가구를 살펴봄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여 분석

[그림 3] 소득-자산을 고려한 빈곤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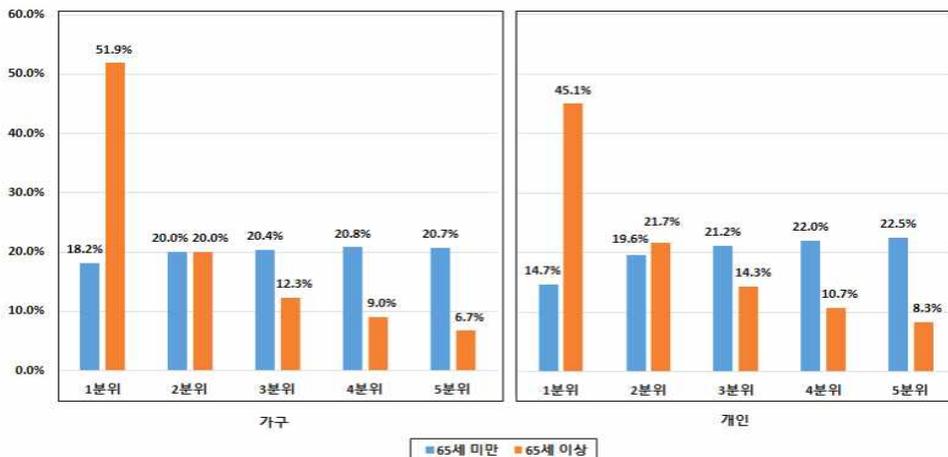


주: 본 연구에서는 자산유형별 소득화 방식을 달리하나, 그림에서는 전체 순자산에 대한 소득화로 표시.
 자료: 안서연(2020)을 기반으로 저자 수정.

제2장 고령층의 소득·자산 현황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 분석
 - 소득은 2021년 연간(2021. 1. 1~12. 31),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2년 3월 31일 기준
 - 소득 및 순자산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 수치 활용
 - 농가경제조사와 비교를 위해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 모두에서 소득과 자산을 분석
-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소득1~2분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고령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비중이 커짐(그림 4).
 - 가구 단위 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경우, 소득1~2분위로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는 비중이 고령가구는 71.9%로 65세 미만 가구(40.5%)에 비해 그 비중이 크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 가구의 비중 증가
 - 고령가구의 경우 소득1분위가 51.9%, 소득2분위가 20.0%인 반면, 65세 미만 가구의 경우 각각 18.2%, 20.0% 수준
 -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의 경우, 37.5%가 소득1분위, 23.5%가 소득2분위에 해당하고, 75세 이상 가구의 경우 71.2%가 소득1분위, 15.5%가 소득2분위에 해당

[그림 4] 소득분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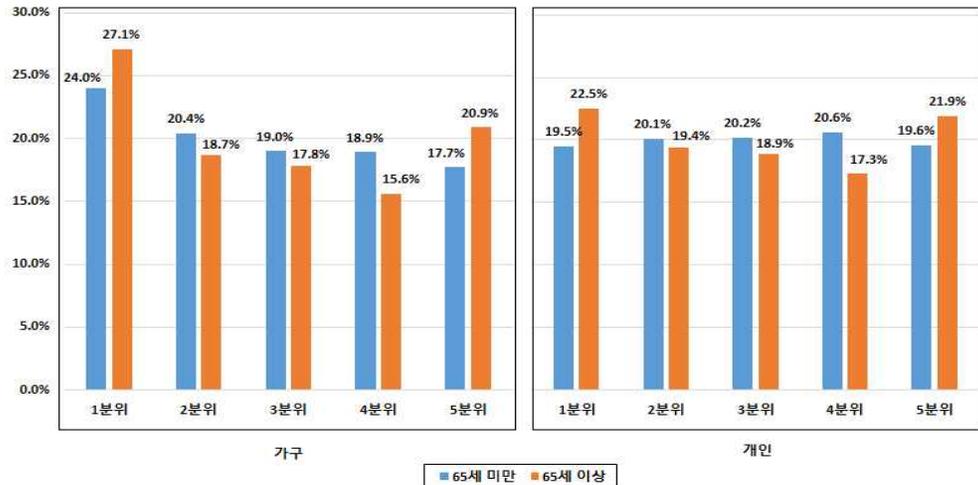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위별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개인 단위 분석에서 소득1~2분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66.8%로 상당히 크며 가구 단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 가구 비중 증가
 - 고령층의 경우 소득1분위가 45.1%, 소득2분위가 21.7%인 반면, 65세 미만 비고령층의 경우 각각 14.7%, 19.6% 수준
 - 65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층의 경우, 34.6%가 소득1분위, 24.5%가 소득2분위에 해당하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각각 58.8%, 18.0% 수준

□ 순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자산분포는 비고령층의 자산분포와 크게 차이하지 않음(그림 5).

- 가구 단위 분석에서 자산 1~2분위 저자산층에 속하는 고령가구의 비중은 45.8%, 비고령가구 44.4%로 두 수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자산의 경우에도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저자산가구 비중이 증가하나,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하지는 않음.
 -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의 경우, 22.1%가 자산 1분위, 18.5%가 2분위에 해당
 - 75세 이상 가구는 35.8%가 자산 1분위, 22.1%가 2분위에 해당

[그림 5] 자산분위별 분포



주: 순자산 기준 분위별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개인 단위 분석에서도 자산 1~2분위 저자산층에 속하는 고령층은 41.9%, 비고령층은 39.6%로 유사
- 소득-자산 결합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저소득-중·고자산 유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표 1)
 - 처분가능소득 1~2분위, 3분위, 4~5분위를 각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순자산 1~2분위, 3분위, 4~5분위를 각각 저자산, 중자산, 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소득-자산 결합분포를 살펴봄.
 - 가구 단위 분석에서 전체 가구 및 고령가구 모두에서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 고령가구 중 저소득-저자산 유형이 40.3%로 가장 높은 비중
 - 저소득-저자산은 전체가구 29.2%, 65세~74세 31.5%, 75세 이상 52.1%
 - 다음으로 고령가구에서는 저소득-고자산 가구의 비중이 19.0%로 높게 관찰됨.
 - 반면, 전체 가구에서는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비중이 더 높게 관찰되고 있음.
 - 개인 단위 분석에서도 가구 단위 분석과 유사하게 저소득-저자산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저소득-고자산의 비중도 상당히 큼
 -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유형 35.1%, 저소득-고자산 19.3%
 - 고령층은 소득은 낮으나 보유자산이 많은 저소득-고자산 비중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 파악을 위해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높음을 시사

<표 1>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

	전체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저소득-저자산	29.2%	23.8%	40.3%	35.1%	31.5%	28.7%	52.1%	43.3%
저소득-중자산	8.1%	7.4%	12.7%	12.6%	12.0%	11.9%	13.5%	13.4%
저소득-고자산	9.9%	8.8%	19.0%	19.3%	17.4%	18.6%	21.0%	20.2%
중소득-저자산	7.8%	8.1%	3.4%	3.9%	4.0%	4.5%	2.5%	3.3%
중소득-중자산	4.2%	5.0%	2.7%	3.2%	3.8%	4.0%	1.2%	2.2%

	전체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중소득-고자산	6.2%	6.9%	6.3%	7.1%	8.4%	8.4%	3.5%
고소득-저자산	7.8%	8.1%	2.1%	2.9%	3.1%	3.7%	0.9%	1.8%
고소득-중자산	6.4%	7.7%	2.5%	3.2%	3.9%	4.2%	0.7%	1.9%
고소득-고자산	20.5%	24.4%	11.2%	12.9%	16.1%	16.1%	4.7%	8.6%

주: 처분가능소득 1~2분위는 저소득, 처분가능소득 3분위는 중소득, 처분가능소득 4~5분위는 고소득, 순자산 1~2분위는 저자산, 순자산 3분위는 중자산, 순자산 4~5분위는 고자산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농가에서 고령층 비중 및 빈곤율이 높으나 토지 등 자산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기에 「2021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별도로 분석한 결과, 농촌 고령가구의 54.5%가 저소득이나 중-고자산을 보유한 가구유형에 해당(표 2)
 - 농촌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며, 소득 및 자산분포 분석시 5분위 경계값은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가계금융복지조사 수치 활용
 - 소득 및 자산분포를 살펴보면, 농촌 노인가구의 74%가 소득 1~2분위인 반면, 자산 1~2분위 비중은 22%에 불과하여 앞선 전체 노인가구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저자산 비중이 낮게 관찰되고 있음.
 - 소득-자산 결합분포를 살펴보면, 농촌 노인가구 중 저소득-고자산 가구 비중이 34.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며, 저소득-중자산 가구의 비중도 20.2%로 앞선 전체 노인가구 분석결과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소득은 낮지만 자산 규모가 상당한 농촌 고령가구 비중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특히 농가에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큼을 시사

<표 2> 농촌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

(단위: %)

	농촌 전체가구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저소득-저자산	18.1	19.4	23.9
저소득-중자산	18.0	20.2	23.4
저소득-고자산	30.6	34.3	37.1

	농촌 전체가구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중소득-저자산	2.3	1.6	1.9	1.1
중소득-중자산	3.7	3.5	5.0	1.2
중소득-고자산	8.5	8.1	9.6	6.1
고소득-저자산	1.6	1.1	1.4	0.5
고소득-중자산	3.7	2.2	2.7	1.4
고소득-고자산	13.4	9.6	12.5	5.3

주: 처분가능소득 1~2분위는 저소득, 처분가능소득 3분위는 중소득, 처분가능소득 4~5분위는 고소득, 순자산 1~2분위는 저자산, 순자산 3분위는 중자산, 순자산 4~5분위는 고자산으로 분류;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3장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 본 연구는 자산을 유형별로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을 분석하였고, 자산의 소득화 방안으로는 포괄소득화와 연금화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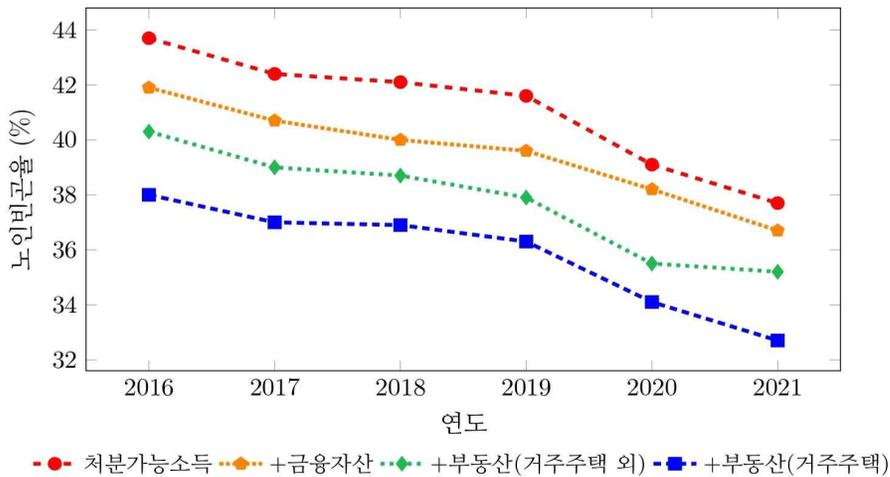
1.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빈곤 현황

- 포괄소득은 자산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소비할 수 있는 가치의 총합
- 포괄소득은 실제 소비한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소비할 수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실제 벌어들인 소득 뿐만 아니라 귀속임대료와 같은 암묵적인 소득 등도 포함
 - 귀속임대료는 자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자가에 대해 월세 가구와 같이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
 -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주거 서비스를 위한 지출만큼 다른 분야에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유 주택의 귀속임대료를 포괄소득에 포함
 - 포괄소득은 자산을 소모하지 않고 자산의 소득화된 가치를 소득에 포함하여 고령층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평가

- 자산을 유형별로 포괄소득화하여 노인빈곤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거주주택 부동산, 거주주택 외 부동산,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포괄소득화
 - 포괄소득을 이용하여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함으로써 자산을 보유하는 현 상황 하에서의 소득-자산 기준 노인빈곤을 분석하고자 함.
 - 연금과 같이 자산을 소모하지 않고 단순 소득화하였다는 점에서 자산을 활용하여 산출된 노인빈곤율의 상한으로 볼 수 있음.
 - 거주주택 부동산과 거주주택 외 부동산은 귀속임대료화하고 금융자산은 이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유형별로 포괄소득화

- 자산유형별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는 거주주택 부동산, 거주주택 외 부동산, 금융자산 순으로 높게 관찰(그림 6)
 - 금융자산을 소득화하였을 때는 약 2%p,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소득화하였을 때는 약 4%p, 거주주택을 소득화하였을 때는 약 6%p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가 나타남.

[그림 6] 자산유형별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보유자산을 유형별로 포괄소득화하여 합산한 전체 노인빈곤율은 기존의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보다 7~8%p 감소하나, 여전히 30% 이상으로 높은 수준(그림 7)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간의 격차는 약 7~8%p

- 연령대별 분석 결과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자산을 고려한 경우 빈곤율이 감소
-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빈곤율은 '16년 35.7%에서 '21년 30.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하지만 자산의 소득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대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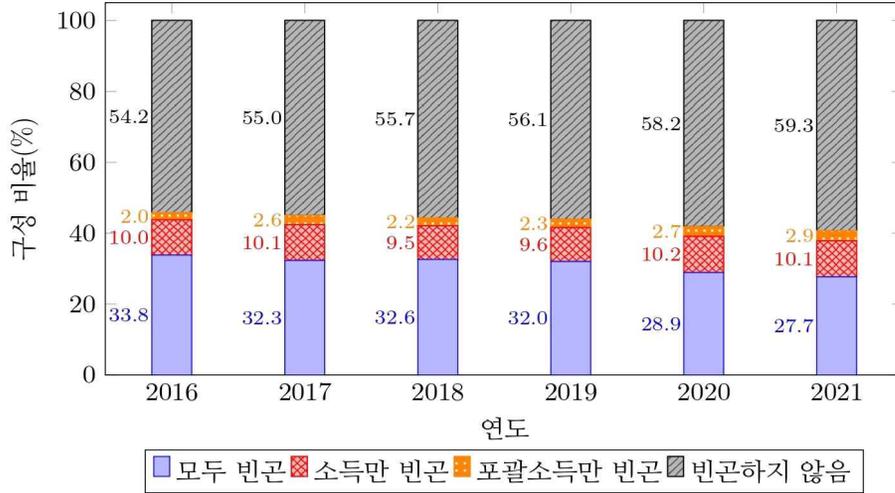
[그림 7]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체 노인의 약 40%가 소득 기준 빈곤층에 속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모두 이용하는 포괄소득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했을 때 전체 노인의 약 10%는 빈곤하지 않음(그림 8).
 - 전체 노인의 약 40%가 소득 기준 빈곤층에 속하지만 10%는 소득 기준으로도 빈곤하고 포괄소득 적용 시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어, 자산을 소득화하였을 때 소득 기준 빈곤노인 중 약 25%는 빈곤하지 않음을 보여줌.
 - 포괄소득을 이용하였을 때 소득 빈곤 노인 중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저소득-고자산)을 적절히 제외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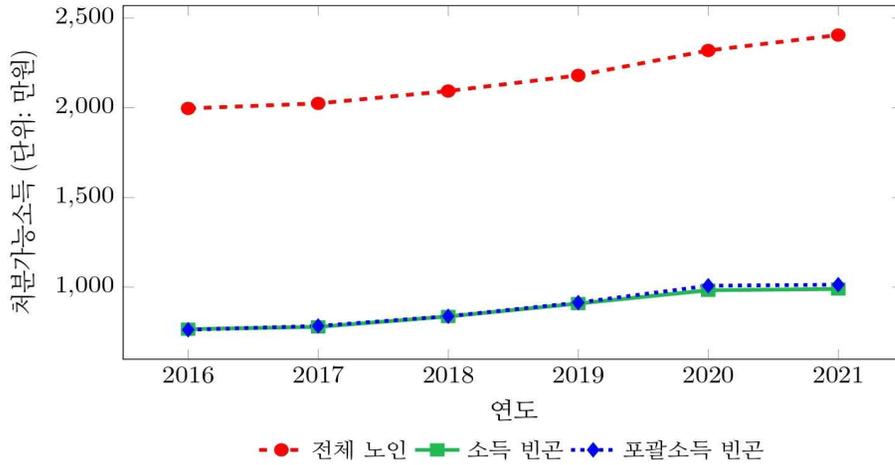
[그림 8] 노인층의 빈곤유형별 구성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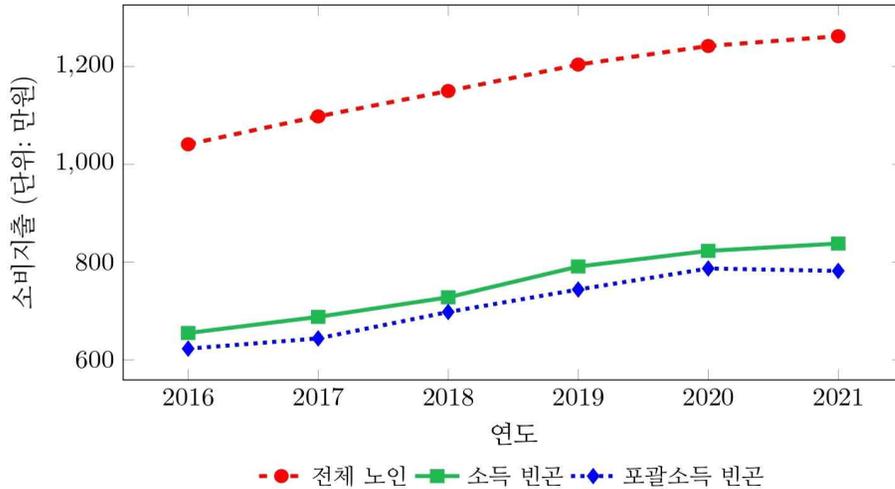
- 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을 비교해보면,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은 유사하나 자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포괄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 내의 자산 격차는 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 내의 격차보다 적게 나타남(그림 9~11).
 - 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 모두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 평균 소득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소비 또한 전체 노인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
 - 소득 빈곤층과 포괄소득 빈곤층 간 평균적인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는 유사하나 보유 자산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남.
 - 포괄소득 빈곤층의 자산 구성 비율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약 1:3의 비율이지만 소득 빈곤층과 전체 노인에게서는 그 비율이 약 1:5
 - 보유 자산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두 빈곤층 간 소득, 소비지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고령층이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
 - 고령층 내 소득과 소비지출 격차는 두 빈곤층 모두에서 크지 않지만 자산에서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남.
 - 소득만을 이용해 도출된 소득 빈곤층에서는 자산을 중심으로 강한 이질성이 나타나기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을 다시 분해할 필요성

[그림 9] 노인층 평균 소득(전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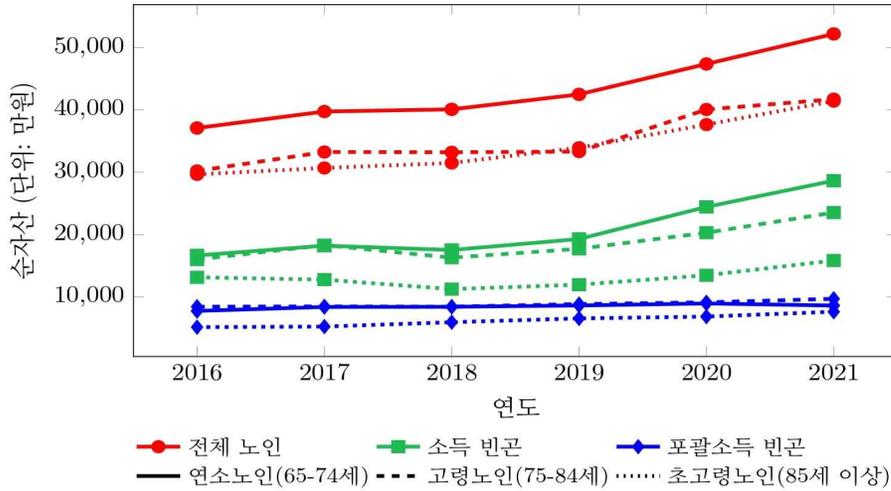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0] 노인층 평균 소비지출(전체 노인)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1] 노인층 평균 자산(전체 노인)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득 충격이 왔을 때 소득 없이 자산을 소모하여 빈곤선 수준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기간을 추정해보면, 포괄소득 빈곤층은 소득 빈곤층과 전체 노인에 비해 생계 유지 가능 기간이 짧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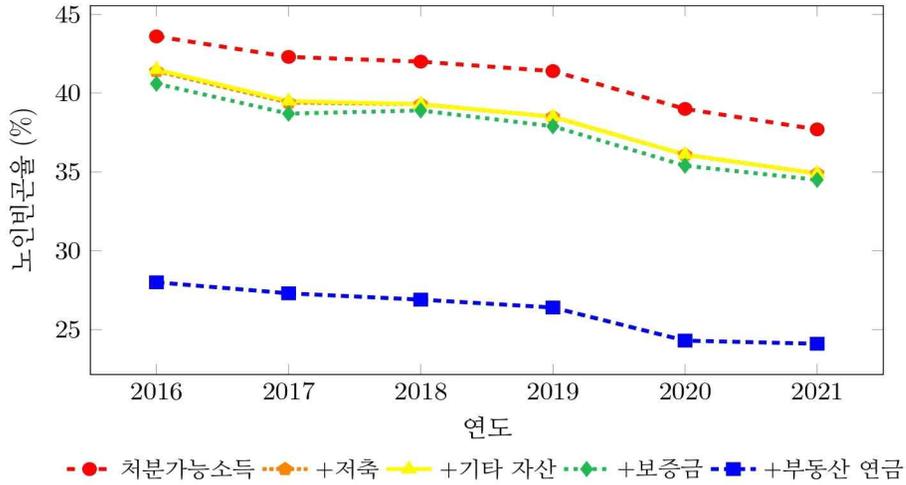
-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만을 이용하여 생계 유지 가능 기간을 추정하였을 때 전체 노인 평균은 약 1.5년(≈18개월), 소득 빈곤 노인은 약 0.6년(≈7개월), 포괄소득 빈곤 노인은 약 0.4년(≈5개월)으로 나타남.
- 전체 순자산을 이용하여 생계 유지 가능 기간을 추정한 결과 전체 노인은 약 9.6년, 소득 빈곤 노인은 약 5년, 포괄소득 빈곤 노인은 약 2.3년으로 나타남.

2. 자산의 연금화에 기반한 노인빈곤 현황

□ 자산을 포괄소득화하여 산출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3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이 보유한 자산을 연금화 등으로 소모하여 소득화하지 않는다면 빈곤율이 여전히 높게 집계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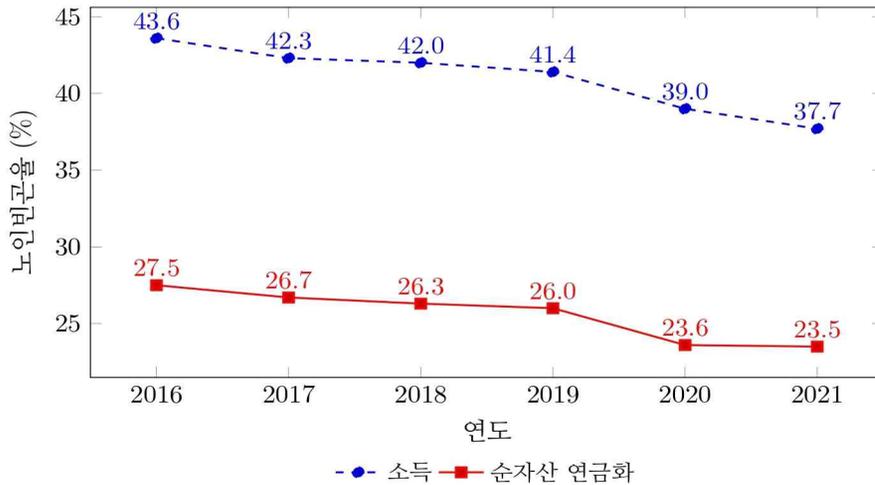
- 정부에서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화에 기반하여 노인 빈곤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체 가구의 자산 연금화 적용 시 자산유형별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부동산과 저축은 노인빈곤율을 각각 12%p, 3%p 감소시키지만 그 외 자산의 효과는 미미함(그림 12).
 - 자산을 유형별로 연금화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저축, 기타 자산(기타 금융, 기타 실물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전월세보증금, 실물자산 중 부동산) 순으로 연금화하는 것을 가정함.
 - 연금화의 효과는 자산 규모와 비례하기 때문에 노인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저축을 연금화하였을 때 효과가 두드러지고 그 외 비중이 작은 자산의 경우 효과가 미미함.
 - 저축만을 연금화하였을 때는 평균 3%p 정도의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였고 부동산만을 연금화하였을 때는 평균 12%p 정도의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21년에 저축만을 연금화하면 노인빈곤율이 37.7%에서 33.7%로 줄어들고 부동산만 연금화하였을 때는 빈곤율이 37.7%에서 25.4%로 감소함.
- 전체 가구의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노인빈곤율을 분석해보면, 노인빈곤율은 23~27%대로 관찰됨(그림 13).
 - 자산 유형별 빈곤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한 유형별로 순서대로 연금화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의 모든 순자산 연금화를 가정하여 분석
 - 전체 가구의 모든 순자산을 연금화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은 2016년 27.5%에서 2021년 23.5%로 소득 빈곤율에 비해 14~16%p 감소함.
 - 전체 순자산을 모두 소모한다는 다소 강한 가정 하에서 분석 결과,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짐.

[그림 12] 자산유형별 자산의 연금화에 따른 누적 노인빈곤율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3] 순자산의 연금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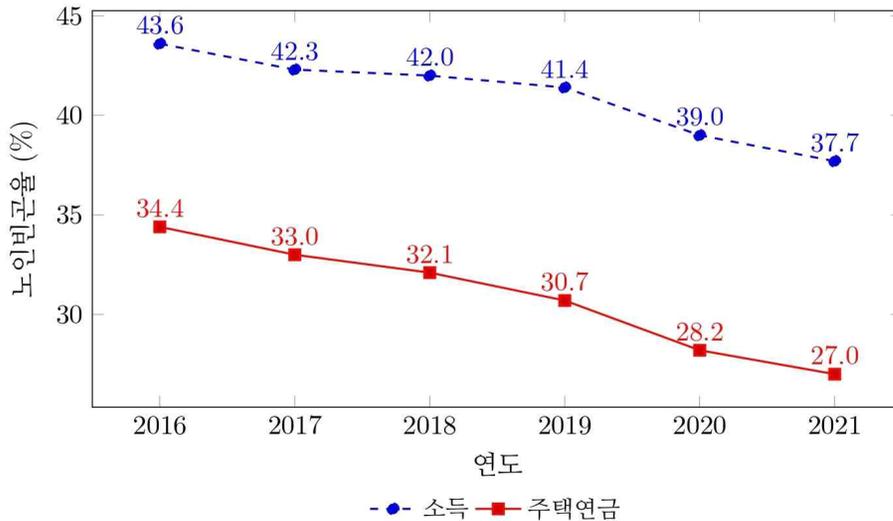
- 자산 활용 시 노인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자산유형은 거주주택 부동산이기에 전체 주택 보유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적용에 따른 노인빈곤율은 9%p 감소하여 '21년 기준 27.0% 수준(그림 14)

- 일반주택 기준 중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며, 가입 주택가격 상한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현재 가입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지가 기준 9억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소득-자산 기준 노인빈곤율 계산 시 주택연금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주택 또한 소득화 대상이기에 공통의 연금화 방식 적용
- 전체 주택 보유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가정 하에서 노인빈곤율은 매해 약 9%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 가정 하에서 노인빈곤율은 27.0%로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30.6%)보다 낮은 수치임.
- 주택연금 가입 강제화와 같은 강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고령층이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고 특히 이 고령층은 거주 환경도 불안정하기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그림 14]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4장 소득·자산 고려 시 노인빈곤 지표 국제비교

-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Luxembourg Income Study)의 LWS DB(Luxembourg Wealth Study Database)를 이용하여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지표의 국제비교를 수행
 -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자산의 포괄소득화와 자산의 연금화 방식, 두 가지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율을 국제비교함.
 - 자산의 포괄소득화에서는 자산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소득화를 간소화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환산한 귀속임대료와 이자비용으로 소득을 구성
 - 자산의 연금화에서는 부동산자산 및 그 외 자산들을 포괄하는 순자산을 연금화하는 방식 적용
 - LWS DB에서 처분가능소득이 가용한 OECD 국가 중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준소득을 구성할 수 있는 9개국을 대상으로 함.
 - 분석국가는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등 9개국
 - 단, 이자비용이 불가용한 국가가 분석대상 9개국 중 6개국이나 되는 관계로 이자비용 삭감 없이 귀속임대료 합산만 적용한 소득·자산 기준소득의 결과도 추가함.
 - LWS DB 9~11차를 활용하여 분석시점은 각각 9차는 2012~14년도, 10차는 2015~17년도, 11차는 2018~20년도로 최신 차수로 올수록 분석대상 감소

- LWS DB(9~11차)를 이용하여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하여 노인빈곤율을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보다 개선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개선과 악화가 혼재(표 3)
 - 한국의 경우, 2013~21년도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대비 6.5%p~7.9%p 수준 개선
 - 포괄소득에서 귀속임대료와 이자비용 변수가 모두 가용한 3개국 중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자산의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보다 개선되는 반면 이탈리아는 오히려 악화됨.
 - 단,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의 증가폭(%p)은 비노인의 증가폭보다는 작음.

- 자산의 포괄소득화 적용 시 이자비용이 가용하지 않아 귀속임대료만 고려한 경우, 호주,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칠레는 노인빈곤율 수치가 개선되는 반면,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악화됨.
- 핀란드의 경우, 자산의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이 9차 기준(2013년도)으로는 개선되었으나, 10차 기준(2016년도)에서는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표 3> LWS 9~11차 DB를 활용한 소득 및 소득자산소득별 빈곤분석 결과요약

LWS DB 차수	대상 국가수	본 연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처분가능+귀속임대료' 기준의 포괄소득		'처분가능+귀속임대료-이자비용' 기준의 포괄소득		
		빈곤율 개선	빈곤율 악화	빈곤율 개선	빈곤율 악화	이자비용 변수 불가용
9차	9개국	호주,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10차	8개국	호주, 독일, 미국, 영국, 칠레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칠레
11차	4개국	호주,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노르웨이	-	미국, 영국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자산의 포괄소득화 적용 시 빈곤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를 초과하여 10% 전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표 4, 그림 15)
 - 자산의 포괄소득화 적용 시 노인빈곤율 감소효과는 7%p 전후로 호주, 칠레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관찰
 - 호주, 칠레의 경우 노인빈곤율 감소효과가 11%p 전후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높게 관찰되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1~2%p 수준으로 매우 낮거나 오히려 자산의 포괄소득화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증가하기도 함.
 - 하지만 다른 비교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수치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자산의 포괄소득화 적용 이후에도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30%를 초과하여 10% 전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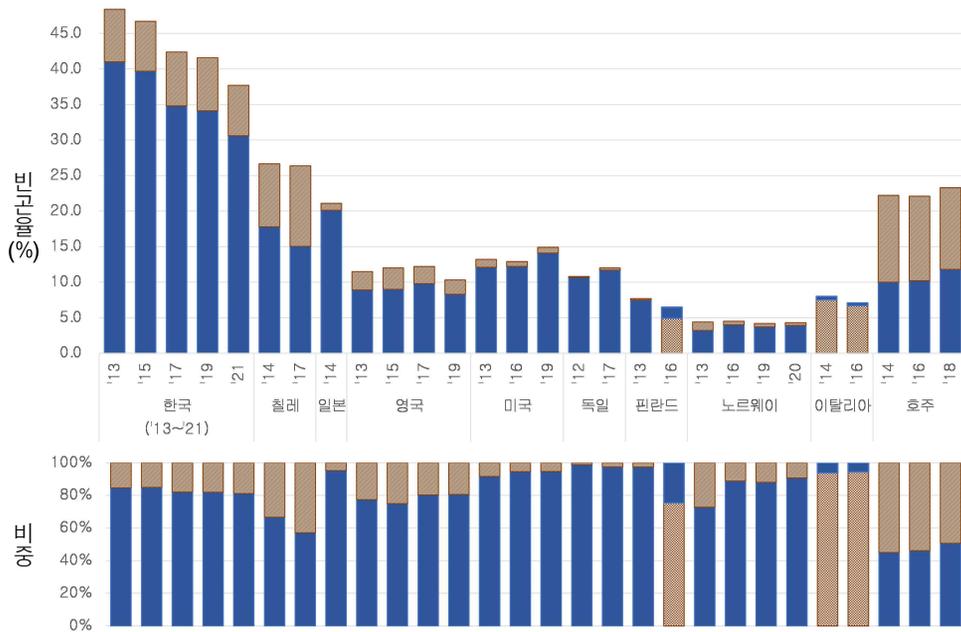
<표 4> LWS 10차 DB를 활용한 자산의 포괄소득화 적용에 따른 노인빈곤을 비교

(단위: %, %p)

국가 (기준시점)	기준소득		
	본 연구 기준		
	처분가능(A)	처분가능+귀속임대료(①) [①-A]	처분가능+귀속임대료-이자비용(②) [②-A]
한국 ('17)	42.4		34.8 [-7.6]
호주 ('16)	22.1	11.5 [-10.6]	10.2 [-11.9]
이탈리아 ('16)	6.7	7.4 [0.7]	7.1 [0.5]
노르웨이 ('16)	4.5	5.3 [0.9]	4.0 [-0.5]
독일 ('17)	12.0	11.7 [-0.3]	좌동
핀란드 ('16)	4.9	6.5 [1.5]	좌동
미국 ('16)	12.9	12.2 [-0.7]	좌동
영국 ('17)	12.2	9.8 [-2.4]	좌동
칠레 ('17)	26.4	15.0 [-11.3]	좌동

주: 1) LWS DB의 일부 국가는 소득 변수에 결측(영국 '15 처분가능소득 1.19%; 미국 근로소득 0.08%, 처분가능소득 0.22%; 이탈리아 처분가능소득 0.004%)이 있으며, 이는 모수에서 제외하여 빈곤을 계산함.
 2) 영국 '19의 경우, LWS DB 소개에서는 10차로 적시되어 있으나, METIS 시스템 기준 11차로 분류.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한국의 수치는 2016-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5] 처분가능소득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의 노인빈곤을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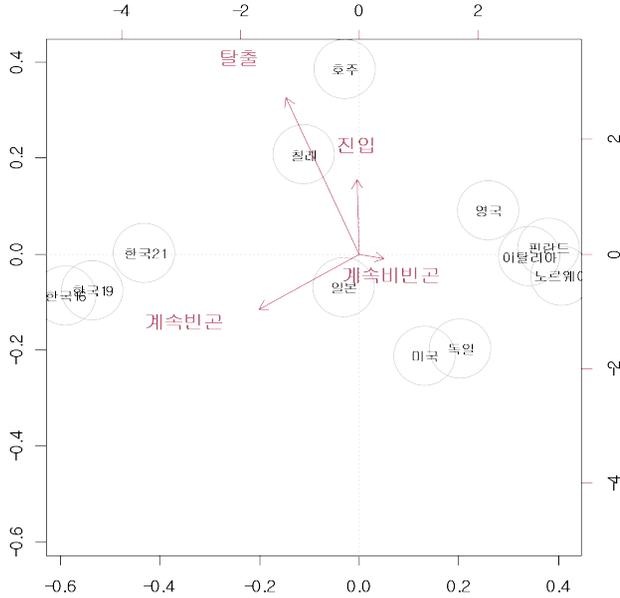
주: 기준소득(처분가능소득) 빈곤율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라 빈곤율이 개선된 경우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아래 파란막대와 윗 붉은 사선 막대의 전체 길이에 해당하며, 포괄소득화 빈곤율은 아래 파란막대 길이임. 반대로, 기준소득 빈곤율 대비 포괄소득화 빈곤율이 심화된 경우(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이탈리아 '14)의 기준소득 빈곤율은 아래 붉은 막대(벽돌 무늬) 길이에 해당하며, 포괄소득화 빈곤율은 거기에 윗 파란막대 길이를 더한 전체 길이에 해당.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국의 '16, '19, '21년도와 LWS DB의 최신시점 기준 노인 빈곤층 구성을 대응분석의 도식화(그림 16)로 검토하면, 한국은 LWS DB 9개국과 매우 다르게 노인 빈곤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하며, 2016년도에서 '19년도, '21년도로 오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냄.
 -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2원 교차표의 행 프로파일(row profiles)을 저차원 공간(통상 2차원)에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노인 빈곤층 구성 현황 분석에 활용
 - 한국은 비교 대상 8개국과 매우 다르게 계속비빈곤 대비 계속빈곤과 소득빈곤탈출의 비중이 높은 현황인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계속빈곤 대비 탈출 및 진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자산을 고려하였을 때의 빈곤 변동성이 다소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6]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

(최신시점과 한국 16, 19, 21년도 기준)



- 주: 1) LWS DB의 최신연도 기준: 노르웨이 20, 영국 19, 미국 19, 호주 18, 독일 17, 칠레 17, 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일본 14년도임.
 2) 소득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인구는 빈곤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 일본 14(15.6%), 영국 19(0.01%).
 3) 붉은 색 화살표로 표시한 열(column) 범주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소득·자산 소득기준 4가지 빈곤 유형으로 괄호 안 용어로 축약하여 도식화.

		포괄소득 기준	
		빈곤	빈곤하지 않음.
소득 기준	빈곤	모두 빈곤(계속빈곤)	소득만 빈곤(탈출)
	빈곤하지 않음.	포괄소득만 빈곤(진입)	빈곤하지 않음.(계속빈곤)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7, 2020,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두 번째 방식으로 자산의 연금화에 기반하여 노인빈곤율을 국제 비교한 결과,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자산의 포괄소득화 적용 경우보다 크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1년 23.6%로 크게 감소하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표 5, 그림 17)
 - 노인층 및 비노인층을 포함하는 전체 가구에 대해 자산의 연금화를 적용
 - 자산의 연금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감소효과는 우리나라, 호주, 칠레에서 15%p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5%p 이내로 상대적으로 작게 관찰되나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개선정도보다는 대부분 크게 나타남.

- 호주와 칠레의 노인층의 경우 총소득 대비 연금소득 비중이 낮고 저소득 비중이 높으나, 저소득-고자산 비중이 높아 자산유동화에 따른 빈곤감소효과가 크게 관찰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1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인 37.7%에서 자산의 연금화 적용에 따라 23.6%로 크게 감소하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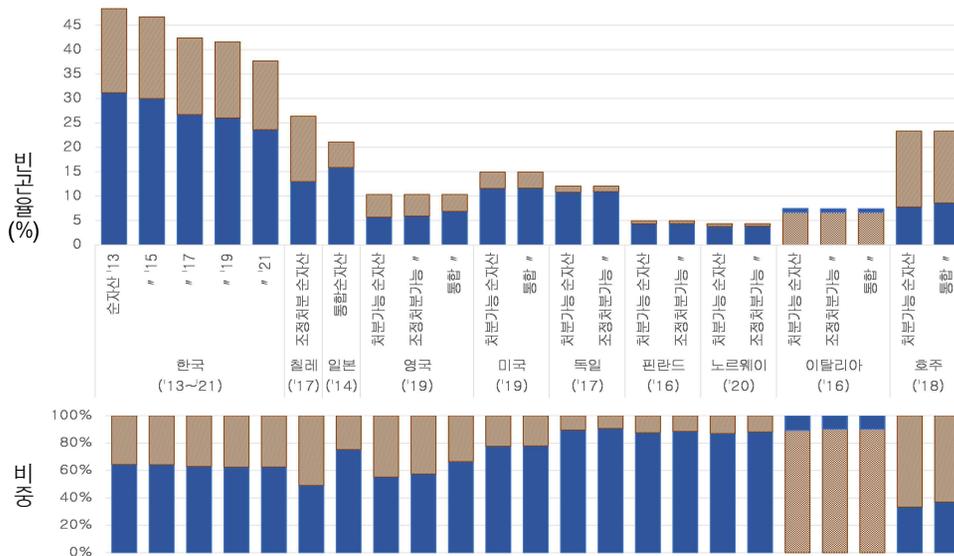
<표 5> LWS DB를 활용한 자산의 연금화 적용에 따른 노인빈곤율 비교

(단위: %, %p)

	한국 ('21)	칠레 ('17)	일본 ('14)	영국 ('19)	미국 ('19)	독일 ('17)	핀란드 ('16)	노르웨이 ('20)	이탈리아 ('16)	호주 ('18)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A)	37.7	26.4	21.1	10.3	14.9	12.0	4.9	4.3	6.7	23.3
연금화 적용 노인빈곤율(B)	23.6	13.0	15.9	5.7	11.6	10.8	4.3	3.8	7.5	7.8
차이(A-B)	14.1	13.4	5.2	4.6	3.3	1.3	0.6	0.6	-0.8	15.5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한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7] 기준소득 대비 주요 순자산 연금화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



주: 기준소득(처분가능소득) 빈곤율 대비 순자산별 연금화 빈곤율이 개선되는 경우, 기준소득 빈곤율은 아래의 파란막대와 위 붉은 사선 막대의 전체 길이에 해당하며, 순자산 연금화 빈곤율은 아래 파란막대 길이임. 반대로, 기준소득 빈곤율 대비 순자산 연금화 빈곤율이 심화된 경우(이탈리아)의 기준소득 빈곤율은 아래 붉은 막대(벽돌 무늬) 길이이며, 순자산 연금화 빈곤율은 거기에 위 파란 막대 길이를 더한 전체 길이에 해당.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한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개인의 물질적인 삶의 질은 소득, 자산, 소비로 평가할 수 있기에 이들 중 하나만을 이용하여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함.
 - 자산의 소득화나 연금화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 소득 기준 빈곤 노인 중 약 20~30%는 자산을 함께 고려했을 때 빈곤하지 않음.
 - 2021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7.7%인데 반해 자산을 소득화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30.6%로 7.1%p 감소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을 가정하여 연금화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27.1%로 10.6%p 감소
 - 소득 기준으로 빈곤했으나 자산을 활용한다면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 고령층이 소득 빈곤 노인 중 20~30%(전체 노인의 약 7~10%) 정도 되는 것을 의미함.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층을 식별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면 정책 지원이 시급한 고령층 대상 지원이 불충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소득·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 지표로 소득과 자산 각각의 차원에서 빈곤선을 설정하여 빈곤층을 식별하고 각각의 차원에서 정의된 빈곤층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 한계에 유의할 필요
 - 소득과 자산 각각 차원에서 빈곤층을 나누었을 때 소득 빈곤층과 자산 빈곤층의 교집합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면 빈곤층을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합집합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면 빈곤층을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음.
 - 소득 빈곤층과 자산 빈곤층의 교집합은 공적이전의 필요도가 높은 극빈곤층으로 정의해볼 수 있음.
 - 한편, 저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노인을 빈곤층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가령 고소득·저자산의 경우 자산이 적어 생계 유지를 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노인들을 빈곤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노인빈곤 정의 시 자산을 소득화하여 소득과 소득화된 자산을 이용하여 빈곤층을 새로 정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포괄소득화는 자산 유형별로 어떠한 소득화 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빈곤층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각 소득화 방법마다 한계가 존재하기에 어떠한 소득화 방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선인지에 관해서는 합의가 어려운 한계
 - 한편, 주택연금 등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자산을 연금화하여 재정지원 빈곤층과 소득 빈곤층의 교집합은 정부의 자산 활용 정책 하에서도 계속 빈곤한 노인 빈곤층으로 볼 수 있음.

- 자산을 이용하여 저소득 고령층 중 저자산, 고자산 고령층을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 필요
 -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의 경우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에 집중하여 공적이전지원의 효과성 제고

- 저소득-고자산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정책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유인 제공이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감안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현 고령층의 주택과 토지 중심 자산구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김도형 외, 2016)
 -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 인지도 제고 필요
 - 주택연금의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저소득 고령층에서 주택연금 가입, 혜택 등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으며 이용의향도 낮게 관찰되고 있음.
 - 한편, 주택연금 활성화 시 정부의 재정 부담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노인가구 대상 지원 시 지원자격 및 지원수준 판단에 있어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기존 정책에 기반 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창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저소득·저자산 노인 대상으로는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한 소득지원 재설계를 통해 노인빈곤해소 효과성 제고 필요
 - 소득과 자산이 모두 낮은 취약노인가구에 집중하여 공적이전지원의 빈곤감소 효과를 높일 필요
 - 현재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재정부담이 클 뿐 아니라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지원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낮으므로 이를 재구조화하여 보다 취약노인 대상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필요
 - 또한, 보유 주택이 없고 전월세보증금만 있는 저소득 고령층이 많기에 이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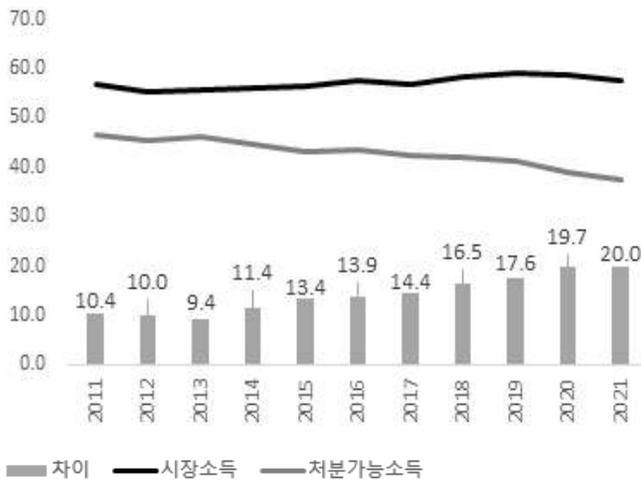
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1절 노인빈곤 현황 및 연구 필요성

-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11년 46.5%에서 '21년 37.6%로 지난 10년 동안 8.9%p 감소(그림 1-1)
 -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정채 또는 소폭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기초연금 확대, 공적연금 수급 증가 등 공적이전소득의 역할 확대가 그동안의 노인 빈곤율 감소에 주요하게 작용
 -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 13.1%('18년, 65세 초과)와 큰 차이를 보임.

[그림 1-1]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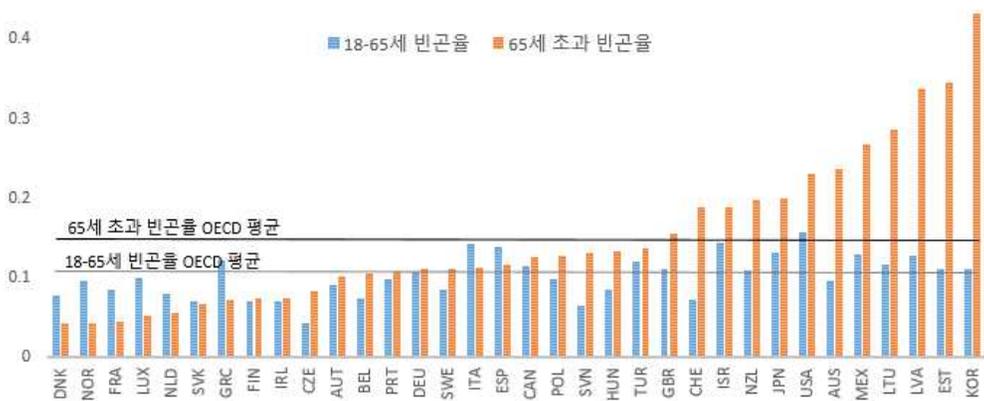


자료: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2011~2021.

□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연령집단 간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그림 1-2).

- 18-65세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10.6%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
- 반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과도 큰 차이를 보임.
- 이에 따라 노인빈곤율과 근로연령층 빈곤율 간의 차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현저한 수준

[그림 1-2] OECD 노인빈곤율과 근로연령층 빈곤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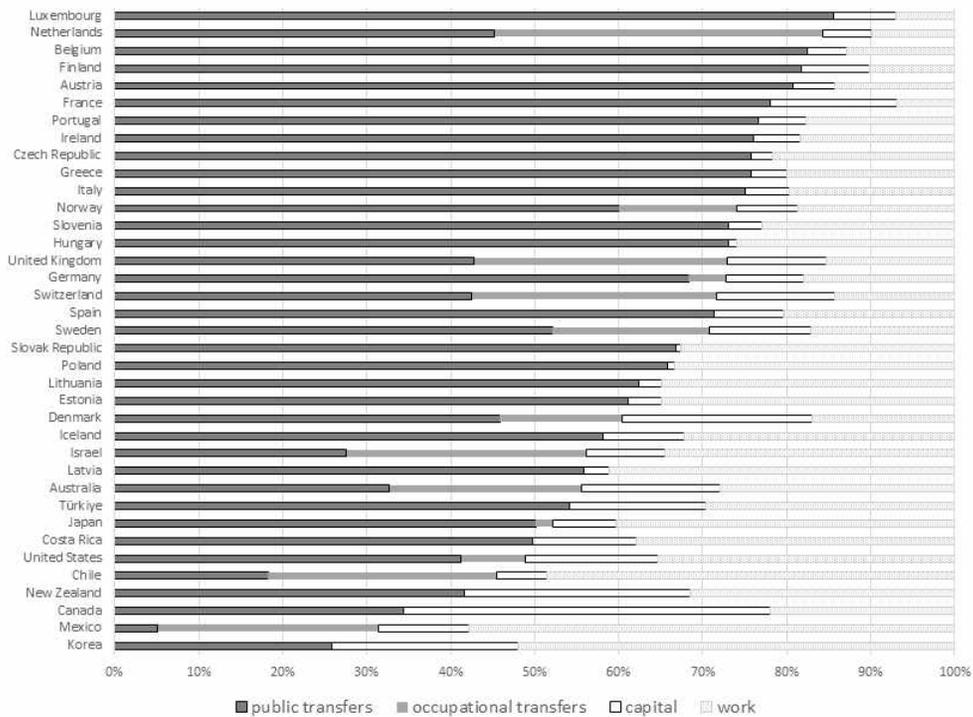
주: 대부분 2018-19년 자료 기반.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2021.

□ 이러한 차이는 고령층 대상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에서 크게 기인(그림 1-3)

- 65세 초과 고령층의 소득 중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public transfers)이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5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또한, 공적이전소득과 함께 직역연금의 비중까지 합한 수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게 관찰됨.
 - 퇴직연금 가입이 (반)강제되고 있는 네덜란드, 호주, 칠레, 영국 등에서 occupational transfers의 비중이 상당
- 대신 고령층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

- 결국 현 고령층 대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도입시점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늦고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도 넓어 현 고령층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음.
- 또한, 고령층 대상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수준

[그림 1-3] OECD 고령층의 소득구성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2021.

- 실제 노후준비방법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비중이 낮게 관찰되는 반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운용을 통한 노후준비 비중이 높게 관찰
-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

해 조사하며, 준비방법에 대해 주된 방법과 부차적 방법을 조사(표 1-1)

- 60세 미만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노후준비 비중이 낮게 관찰되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서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7%에 불과함.
- 노후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게 관찰되며 특히 60세 미만에서는 70%를 넘으나, 고령층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준비 비중이 낮아져 75세 이상에서는 51% 수준
 - 다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60세 전후에서는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준비 비중이 70~75% 수준으로 고령층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다음으로 높게 관찰되는 노후준비방법으로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자산이 꼽히며, 연령이 높을수록 관련 비중이 높아져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에서 49.7%로 가장 높게 관찰됨.
- 또한, 고령층에서 부동산 운용에 의한 노후준비가 되어있다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게 관찰되고 있는데, 75세 이상에서는 19%, 60-74세에서는 13.3% 수준

<표 1-1> 노후준비여부 및 준비방법

(단위: %)

	준비하고 (되어)있음	국민 연금	직역 연금	사적 연금	주택 연금	퇴직 급여	예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30-44세	75.4	72.1	9.4	20.3	2.0	16.2	37.0	7.9	10.4	0.1
45-59세	79.7	74.9	9.2	21.3	4.8	15.6	37.8	9.8	5.8	0.2
60-74세	71.1	69.6	10.6	13.5	5.8	8.3	47.1	13.3	2.5	0.4
75세 이상	42.7	50.9	13.3	9.6	7.9	5.8	49.7	19.0	1.2	0.1

주: 노후준비방법은 주된 방법 및 부수적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21.

- 현 고령층 대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개인 및 가구는 자산축적 등 다른 노후준비대책을 강구했을 가능성
 - 공적소득지원의 역할이 크지 않기에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하여 자산보유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그림 1-3]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층 소득 중 자본 기반의 소득(capital)의 비중이 22.1%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9.9%와 비교적

큰 차이

- 또한, <표 1-1>에서 고령층의 노후준비방법으로 연금소득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반면, 금융자산, 부동산 운용 등 자산에 기반한 노후준비 비중이 높게 관찰됨.
- 특히, <표 1-2>의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구의 자산유형별 비중을 국제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이 81.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으로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1-2> 고령 가구주 가구 자산유형별 비중

(단위: %)

	총자산 대비 비중		
	부동산자산	기타 실물자산	금융자산
한국('22.3)	82.4	2.7	14.9
호주('18)	67.9	10.2	21.8
이탈리아('16)	75.8	10.7	13.4
노르웨이('20)	65.8	6.1	28.0
독일('17)	73.0	9.7	17.3
핀란드('16)	71.4	3.8	24.8
미국('19)	38.7	19.1	42.2
영국('19)	60.4	15.7	23.9
일본('14)	51.2	0.0	48.8

주: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주 가구 대상.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한국의 수치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노후준비 및 노인빈곤 파악에 있어 소득과 함께 자산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고령층의 자산축적비중이 비교적 높다면 소득만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소득 기준 빈곤율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여전히 현 고령층 대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 1-1>에서 보듯이 후기고령층의 57.3%는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기에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취약한 고령층 현황을 파악하며, 보다 효과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노후준비 및 노인빈곤 파악에 있어 소득과 함께 자산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고령층의 자산축적비중이 비교적 높다면 소득만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소득 기준 빈곤율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여전히 현 고령층 대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 1-1>에서 보듯이 후기고령층의 57.3%는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기에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취약한 노인 대상 현황을 파악하며 보다 효과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점

- 소득 이외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빈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다차원적으로 평가되는 빈곤을 단일 지수화하는 방법 활용
 - 빈곤은 다차원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소득 이외에도 자산, 주거,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하고자 함.
 - 빈곤이 소득 이외에 자산 등을 활용하여 다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단일한 지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는 여러 연구에서는 저량인 자산을 유량인 소득으로 환산하여 빈곤 파악(Wolff and Zacharias, 2009; Brandolini et al., 2010; 정지훈·김주현, 2014; 안서연, 2020)
 - 다른 방법으로 소득, 자산, 주거, 여가, 건강 등 다차원에서 빈곤여부를 평가하여 단일 가중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원 선택, 차원별 빈곤선 설정, 가중치 선정

등에 대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윤석명 외, 2017; Maasoumi and Racine, 2016).

- 한편, 단일 지수화가 아닌 각 차원에서 정의된 빈곤집단의 교집합(예: 저소득이고 저자산인 그룹) 또는 합집합(예: 저소득이거나 저자산인 그룹)을 빈곤층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는 빈곤층을 각각 과소/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소득-자산 기반 노인빈곤을 분석하고자 하며,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자산의 소득화 방식 적용

- 경제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노인빈곤 분석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전체를 소득화함으로써 소득-순자산가치를 이용하여 빈곤 측정(Brandolini et al., 2010; 정지훈·김주현, 2014; 안서연, 2020)
- 한편, 자산의 형태와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산의 소득화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Wolff and Zacharias(2009)은 부동산자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득화 방식을 달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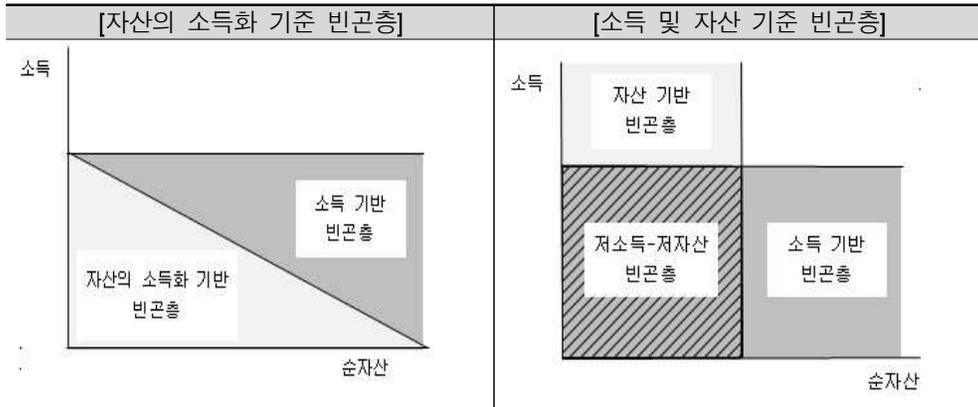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유형별 소득환산방법을 달리 적용

-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자산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함으로써 유량으로 전환하기 힘든 자산들 (자동차, 기타 고가 내구재 등)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또한, 순자산을 연금화하는 방식의 경우 기대여명이 짧은 고령층의 자산환산소득을 비고령층에 비해 과대추정할 우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 보유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치중된 점을 고려하여 Wolff and Zacharias(2009)와 같이 자산을 부동산과 그 외 자산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며, 부동산자산도 세부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 전체 순자산을 연금화하는 기존 방안 이외에 자산유형별로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소득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토지, 건물), 기타 실물자산 등 자산의 특성별로 연금화,

임대료화 등 다른 소득환산방법 적용

- 이와 함께 보완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빈곤을 각각 정의하고 저소득-저자산 노인 빈곤가구를 살펴봄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여 분석

[그림 1-4] 소득-자산을 고려한 빈곤층 비교



주: 본 연구에서는 자산유형별 소득화 방식을 달리하나, 그림에서는 전체 순자산에 대한 소득화로 표시.
 자료: 안서연(2020)을 기반으로 저자 수정.

제3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책

- 현 세대 노인빈곤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 자산의 유동화 등의 정책 활용
 - 현재 고령층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소득이 필요
 - 이를 위해 현금지원 확대, 공공일자리 기회 제공, 자산유동화 기제 도입 등 소득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지원 시행
 - 각각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을 도입·확대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지원들도 시행되었으나, 이는 현재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라기 보다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써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

1.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 기반의 비기여연금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기여식(non-contributory) 소득지원으로 재원조달은 조세로 이뤄짐.
 -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007년 국민연금 2차개혁과 맞물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김도형 외, 2016).

- 도입 이후 기초연금 급여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월 30만원 수준
 - 2007년 7월 만 70세 이상 노인의 65%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확대
 - 급여는 국민연금 A값의 5% 수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8.4만원 지급
 -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급여액이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인상됨.
 - 부부수급가구,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감액적용
 - 이후 급여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월 30만원으로 인상
 - 2018년 9월에는 월 25만원, 2019년 4월부터는 소득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규모는 '15년 9.7조원에서 '21년 18.8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급여액 인상이 시행된 '18년 이후 재정규모 증가세가 크게 관찰됨(표 1-3).
 - 고령화 추이에 따라 수급자 수는 '15년 450만명에서 '21년 597만명으로 32.7% 증가
 - 수급자 수와 함께 기초연금 급여액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규모는 '15년 9.7조원에서 '21년 18.8조원으로 7년 사이에 두 배 가량 증가
 - 특히, 급여액 인상이 연달아 시행된 '18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의 연간 증가율이 10%를 상회

<표 1-3>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만명,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 수	435	450	458	487	513	535	566	597
지급액 (전년 대비 증가율)	6.8	9.7	9.9 (2.1)	10.5 (6.1)	12.0 (14.3)	14.8 (23.3)	16.7 (12.8)	18.8 (12.6)

주: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시행; 각년도 12월 말 기준; 금액은 급여집행액 결산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합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1년 기초연금」, 2022.

□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확대는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극빈 고령층 대상 지원의 충분성에 있어 한계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16년부터 '21년까지의 공적이전소득별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급여액 확대와 함께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완화효과도 확대됨(표 1-4).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소득에 각 공적이전소득을 더하였을 때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비교해 빈곤율이 감소하는 정도를 분석
- 기초연금액이 확대된 2018년부터 기초연금의 노인가구 빈곤율 감소효과가 1%p 증가하여 시장소득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과 비교해 노인가구 빈곤율을 4.7%p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됨.
 - '16년과 '17년에는 기초연금의 노인가구 빈곤율 감소정도가 3.4%p였던 것에 비해, '18년부터는 4.7%p 전후로 증가
- 하지만 기초연금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다 빈곤한 노인가구 대상 지원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심각하게 관찰됨(이영욱, 2021).

<표 1-4>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단위:%, %p)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A)	57.3	55.8	57.5	57.8	57.1	55.3
■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기준빈곤율(B)	40.8	38.6	38.4	37.3	35	32.9
■ 공적이전소득 빈곤감소효과(A-B)	16.5	17.2	19.1	20.5	22.1	22.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적연금	10.4	10.8	12.1	11.8	11.5	10.9
•기초연금	3.4	3.4	4.7	4.5	4.7	4.8
•양육수당	0	0	0.1	0	0.1	0
•장애소득	0.1	0.1	0.1	0.1	0.2	0.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금	0.3	0.4	0.3	0.4	0.4	0.2
•근로자녀장려금	0.2	0.5	0.3	0.9	1	0.5
•기타정부보조금	1.5	1.5	1.8	1.7	1.7	1.9
•고용보험·산재보험급여					0.3	0.4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7	1.7

주: 공적이전소득별 빈곤감소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A)에서 시장소득에 해당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 기준 빈곤율을 차감한 값.

자료: 이영욱(2022).

2. 노인일자리

-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소득을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은 유형별로 자격대상이 다르나 만 60~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 활동역량, 가구구성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고려
 -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가지며, 사회참여 및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노후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을 포함(김문정 외, 2021)
- 노인일자리는 유형별로 일자리 유형, 자격대상 등이 상이하며, 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성격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비중이 높음(표 1-5, 1-6).
 -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상 참여대상이며,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월 27만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가구의 소득을 보완하는 복지형 일자리사업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소득보충 기회 제공
 - 민간형 일자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단 운영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년에는 노인인구의 9% 수준이 참여하며, 예산규모(지방비 제외)는 1.2조원 정도(표 1-6)

- 노인빈곤 대응, 노인들의 사회참여 장려 등 고령화에 따른 여러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인일자리 대상 및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은 '16년 43만명에서 '20년 77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인 849.6만명 대비 9.1%가 참여
 - 여러 유형 중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16년 33만명에서 '20년 58.5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참여인원 대비 76~84%로 대다수를 차지
 - 민간형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형 일자리 증가추이에 미치지 못하여 참여비중은 감소
- 이에 따라 예산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16년 0.4조원에서 '20년 1.2조원으로 세 배 가량 확대

<표 1-5> 노인일자리 예산지원 기준

(단위: 원)

		활동비(월)	부대경비(연)	참여기간	합계(연)
공공형(공익활동)		270,000		평균 11개월	3,150,000
사회서비스형		594,000		10개월	7,931,000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2,670,000		연중	2,670,000
	취업알선형	-	(지자체보조)150,000	연중	150,000

주: 부대경비는 시장형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의 경우 사업비로 활용; 사회서비스형 합계는 주휴 및 연차 수당 연 1,485천원을 포함; 각 사업별 국고보조율은 50%(서울 30%).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3.

<표 1-6> 노인일자리 실적 추이

(단위: 억원,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4,035	5,232	6,367	9,228	12,168
인원(계)		429,726	496,200	543,926	684,177	769,605
공공형	공익활동	290,625	359,932	405,134	504,206	554,101
	재능나눔	40,163	44,714	52,153	47,367	30,710
사회서비스형		-	-	-	23,548	45,764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77,734	64,573	54,585	66,972	68,729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업알선형	12,557	17,039	20,067	27,718	53,439
시니어인턴십	6,730	5,268	5,686	7,349	15,547
고령화친화기업	1,545	1,100	1,468	1,344	1,315

주: 예산은 추경 포함, 지방비 제외.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동향」, 2021.

□ 노인일자리란 일자리 기회 제공을 통한 소득증대에 따라 빈곤완화효과가 제한적으로 관찰되며, 건강 및 사회관계 개선의 사회적 효과 기대

- 노인일자리 성과평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소득증가에 따라 빈곤율 감소효과가 관찰되는데, 노인일자리에 신청하였으나 미참여한(대기) 노인집단과는 달리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집단의 빈곤율은 2.6~3.3%p 감소(강은나 외, 2017; 김문정 외, 2021)
- 다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중이 전체 노인의 8.4%로 참여규모가 한정되기에 전체 노인빈곤율 완화효과는 0.3~0.6%p로 미미(손병돈 외, 2019)
- 이와 함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관계에서 개선효과가 관찰(이석원 외, 2014; 강은나 외, 2017; 김문정 외, 2021)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주택연금은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평생연금소득과 평생거주를 보장

- 주택소유자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 자격을 가짐.
-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종신 또는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담보주택에서의 종신거주가 보장됨.
-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소득기반이 없으나 주택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 대상 주택자산의 소득화를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지원

□ 노후소득보장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 대상 및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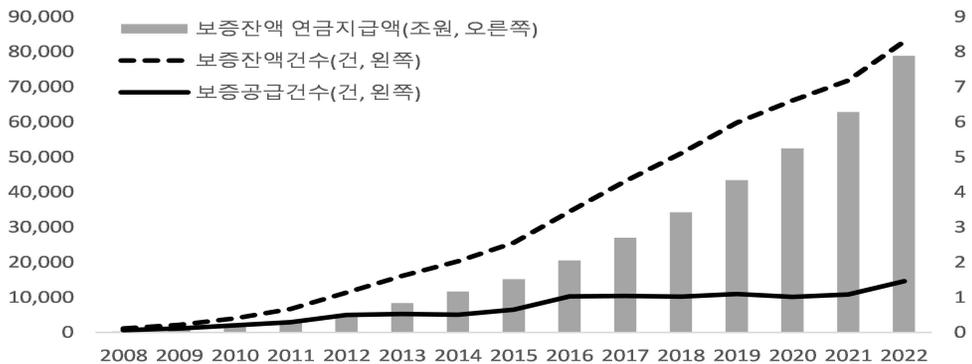
- '07년 7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가구 대상 주택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점차 대

- 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자격이 있음.
- 도입 시에는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기준이 9억원으로 확대되고, '20년 12월부터는 시가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 가입가능한 주택 대상이 확대됨.
-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가 주택자산에 대해 월지급금을 증액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16년 1.5억원 미만 주택 대상 도입하였으며, '22년에는 이를 2억원 미만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주택연금 보증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지원가능대상 대비 이용률은 1% 수준

- 주택연금 신규 보증공급 건수는 '11년까지 연 3,000건 미만이었으나 제도 확대와 더불어 '12년부터는 연 5,000건 이상, '16년부터는 연 10,000건 이상, '22년에는 14,580건으로 확대
- 주택연금 보증건수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22년 보증잔액 건수는 82,941건, 연금지급액은 7.9조원으로 확대
 - 현재 평균 지급액은 월 116만원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66억원(한국주택금융공사, 2023)
- 하지만 여전히 주택연금 이용률은 크게 낮은 상태로 60세 이상 주택소유가구 대상 주택연금 이용률은 1% 정도로 미미(김성아 외, 2021)

[그림 1-5] 주택연금 보증건수 및 연금지급액 추이



주: 연금지급액은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대출이자 등을 합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된 액수임.
 자료: KOSIS, 주택연금 보증잔액 현황, 2008~2022.

□ 주택연금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실제 주택연금 수준 등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는 낮으며 소득과 보유주택 가격이 낮은 고령층에서 낮게 관찰(표 1-7)

-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만55~84세 고령층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2020년 결과를 살펴봄.¹
- 주택연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90.6%로 높게 관찰되나, 대부분 주택연금에 대해 들어본 정도이며 실제 주택연금의 가입, 연금수준 등 제도에 대한 정보는 25.2%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
- 특히 소득 또는 보유주택 가격이 낮은 고령층에서 주택연금 가입가능여부 및 연금수준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게 관찰되어 주택연금의 주대상이 되어야 할 저소득 고령가구의 인지정도가 낮게 관찰됨.

<표 1-7> 주택연금 인지 수준

(단위: 명, %)

	사례수 (명)	들어 본 적 있다	이름만 들어본 정도이다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있다	받을 수 있는 대략의 연금 수준을 알고 있다	방문, 전화 상담,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문의해서 잘 알고 있다
전 체	3,000	90.6	17.3	58.5	18.4	5.0	0.8
소득							
100만원 미만	285	71.6	38.7	51.5	5.9	3.4	0.5
100~200만원 미만	787	85.9	23.7	58.7	14.1	2.7	0.9
200~300만원 미만	713	94.5	14.1	63.4	18.1	3.4	1.0
300~400만원 미만	598	95.8	13.6	56.0	24.1	5.6	0.7
400만원 이상	617	95.8	9.8	57.5	22.7	9.3	0.7
보유주택 가격							
1억원 미만	368	81.0	27.5	57.0	12.4	2.7	0.3
1~2억원 미만	913	87.1	22.8	63.6	10.2	2.4	1.0
2~4억원 미만	933	93.2	14.8	57.7	20.5	6.7	0.3
4~6억원 미만	385	93.8	11.1	50.7	27.4	9.4	1.4
6억원 이상	401	98.3	9.6	58.1	26.9	4.1	1.3

주: 단수응답 비중; '귀하께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2021.

1 2021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부터는 조사결과가 비공개로 전환.

□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1.3%로 소득 및 보유주택 가격이 낮은 고령층에서 이용의향이 낮게 관찰(표 1-8)

-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1.3% 수준
-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관찰되며, 이용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가장 낮게 관찰됨.
- 보유주택 가격이 높은 고령층에서 주택연금 이용의향이 낮게 관찰되는데, 보유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고령층에서도 이용의향이 없다는 비중이 높게 관찰됨.
 -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의향이 낮게 관찰되어 보다 자세한 평가를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 및 보유주택 간의 관계 고려 필요

<표 1-8> 주택연금 이용 의향

(단위: 명, %)

	사례수(명)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 이용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겠다 + 반드시 이용하겠다
전 체	3,000	41.5	37.2	21.3
소득				
100만원 미만	285	46.0	37.9	16.1
100~200만원 미만	787	41.7	37.6	20.7
200~300만원 미만	713	39.3	38.8	21.9
300~400만원 미만	598	40.5	34.8	24.7
400만원 이상	617	42.6	37.0	20.4
보유주택 가격				
1억원 미만	368	45.4	39.4	15.2
1~2억원 미만	913	39.4	42.8	17.7
2~4억원 미만	933	39.0	36.7	24.3
4~6억원 미만	385	42.3	31.7	26.0
6억원 이상	401	47.4	29.2	23.4

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향후에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2021.

□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상속 및 기대보다 낮은 주택연금액이 높게 관찰 (표 1-9)

-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싶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게 관찰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응답비중이 높음.
- 다음으로 받는 연금액이 집값 대비 손해일 것이라는 응답이 47.3%로 높은데, 소득 및 보유주택 가격이 높은 고령층에서 응답비중이 높음.
 -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연령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해당 응답비중이 높음.
- 주택연금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는 비중도 46.6%로 높게 관찰되는데, 보유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높게 관찰되나 보유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도 45% 수준으로 높게 관찰

<표 1-9> 주택연금 비이용 의향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명)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받는 연 금액이 집값 대비 손해일 것 같아서	매월 연금액이 기대에 미칠 것 같아서	노후 생활 에 필요 한 돈을 방문 이 준비 해 놓 고 싶어서/다 방법 준비 하려 고	자녀 가 살 아 서 같아서	주택 연 금 을 받 는 사 실 을 아 는 것 이 (본인 체 면 때 문 에)	주택 연 금 을 받 는 사 실 을 아 는 것 이 (자 식 에 대 문 에)	기타
전 체	2,361	47.7	47.3	46.6	26.7	26.1	15.8	11.4	0.3
소득									
100만원 미만	239	50.6	36.4	45.6	16.3	32.2	12.1	9.2	0.0
100~200만원 미만	624	47.6	42.9	47.1	24.2	24.5	16.7	11.4	0.5
200~300만원 미만	557	48.5	48.7	46.1	27.8	27.1	16.5	11.8	0.4
300~400만원 미만	450	47.3	49.3	43.3	29.6	30.0	18.2	11.8	0.2
400만원 이상	491	46.0	54.8	49.9	31.0	20.6	13.2	11.6	0.4
보유주택 가격									
1억원 미만	312	39.7	37.2	53.2	23.1	24.4	14.4	11.5	0.3
1~2억원 미만	751	48.5	40.9	46.1	22.6	29.2	14.5	12.1	0.3
2~4억원 미만	706	48.9	50.7	45.3	27.8	25.2	13.9	9.6	0.6
4~6억원 미만	285	49.5	53.0	45.3	29.5	24.2	21.1	12.6	0.4
6억원 이상	307	49.8	60.3	45.3	35.2	24.4	19.5	12.4	0.0

주: 복수응답 비중; '귀하께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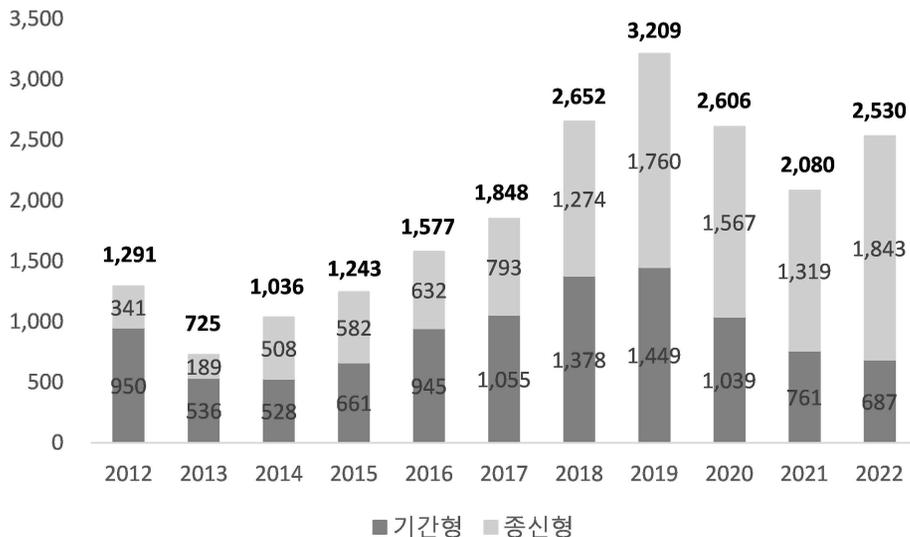
□ 농지연금도 농지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연금소득을 지급하며 담보농지 활용을 통한 추가소득창출도 가능

- 만 60세 이상이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 대상
-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종신 또는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수급하도록 하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창출도 가능
- 2011년 도입되었고 도입 시 가입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22년부터 만 60세로 하향조정

□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증가하여 왔으나, 연 2천~3천건 수준으로 이용 저조

- 도입 이후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9년 가입건수는 연간 3,209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코로나19 이후 가입건수가 감소하여 2021년에는 2천여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시 반등한 모습
- '12년부터 '22년까지 가입건수를 모두 합친 누적 가입건수는 2.1만건에 그침.

[그림 1-6] 농지연금 가입건수 추이



주: 연금지급액은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대출이자 등 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된 액수를 의미.
 자료: KOSIS, 주택연금 보증잔액 현황, 2008~2022.

-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제도설계상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상황
 -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과 농지를 유동화함으로써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가구의 소득보완 역할을 하도록 제도상 설계됨.
 - 이에 따라 해당 제도들의 활용을 전제로 한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노인빈곤율 감소 및 소득지원의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실제 노후소득 지원효과는 미미한 수준

제2장

고령층의 소득·자산 현황

제1절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

1. 자료 및 방법

-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 분석을 위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활용
 - 소득, 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1년 연간(2021. 1. 1~ 12. 31), 자산, 부채, 가구구성은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함.¹
 -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 모두에서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을 분석
 - 가구 단위 분석은 전체 표본 가구 중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고령가구로 분석
 - 개인 단위 분석은 만 65세 이상인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
 - 소득, 자산, 부채를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누어 균등화하여 분석
 - 소득 및 자산의 분배지표의 경우 균등화 후 가구 가중치 변수에 가구원수를 곱한 개인화 가중치를 생성하여 적용
- 가구 단위의 분석에서, 고령가구의 시장소득은 비고령가구에 비해 크게 낮으나,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고령가구와 비고령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차이가 감소
 - 고령가구의 시장소득은 1,691만원으로 비고령가구의 4,057만원의 41.68% 수준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비고령가구의 24.20%, 51.3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고령가구의 경우 각각 752만원, 419만원, 비고령가구의 경우 3,107만원, 816만원임.
 -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고령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재산소득은 고령가구가 409만원으로 비고령가구의 217만원보다 약 1.88배 높고,

¹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 12. 1.

- 사적이전소득은 고령가구가 184만원으로 비고령가구 42만원보다 4.38배 높음.
- 공적이전소득은 고령가구가 846만원으로 비고령가구의 252만원보다 3.36배 높음.
-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처분가능소득은 고령가구가 2,334만원, 비고령가구 3,734만원으로 시장소득에 비해 두 연령그룹 간의 차이가 감소
 - 고령가구와 비고령가구 간 시장소득의 차이는 2,366만원, 처분가능소득 차이는 1,398만원으로 시장소득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의 차이가 968만원 감소

- 총자산 및 순자산은 고령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높고 총부채는 비고령가구가 고령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총자산 평균은 고령가구 3억 5,796만원, 비고령가구 3억 3,472만원으로 고령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총자산이 2,324만원 많음.
 - 총부채 평균은 고령가구 3,401만원, 비고령가구 6,382만원으로 비고령가구가 고령가구보다 총부채가 2981만원 많음.
 - 순자산 평균은 고령가구 3억 2,395만원, 비고령가구 2억 7,090만원으로 고령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순자산이 5,305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변수들 기초통계치

(단위: %, 만원)

		전체 연령 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가구
전체		100.0	100.0	100.0
지역	수도권	48.9	42.1	51.4
	비수도권	51.1	57.9	48.7
가구원수	1명	25.3	36.2	21.3
	2명	28.1	47.5	21.0
	3명	21.2	11.9	24.6
	4명	19.7	3.1	25.8
	5명	4.8	0.8	6.3
	6명 이상	0.9	0.6	1.0
가구주 성별	남성	74.8	64.8	78.5
	여성	25.2	35.2	21.5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16.5		
	40~49세	21.0		
	50~59세	23.8		
	60~69세	20.6		

	전체 연령 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가구
	70~79세	11.8	
	80~89세	5.8	
	90세 이상	0.6	
경상소득	3,945	2,610	4,432
근로소득	2,477	752	3,107
사업소득	710	419	816
재산소득	268	409	217
공적이전소득	411	846	252
사적이전소득	80	184	42
시장소득	3,424	1,691	4,057
처분가능소득	3,360	2,334	3,734
총자산	34,093	35,796	33,472
실물자산	26,427	30,467	24,954
부동산	25,037	29,555	23,389
그외	1,390	912	1,564
금융자산	7,666	5,329	8,518
총부채	5,585	3,401	6,382
순자산	28,507	32,395	27,090

주: 만연령 기준; 소득, 자산, 부채는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가구균등화 수치;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로 계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로 계산.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2.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 현황

가. 소득의 분포와 구성

-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고령가구 51.9%가 소득 1분위, 20.0%가 2분위로 1~2분위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이 71.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커짐.
 - 65세 미만 가구의 경우 18.2%가 소득 1분위, 20.0%, 2분위, 1~2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38.2%로 과반을 넘지 않음.
 -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가구 비중과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증가
 -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의 37.5%가 소득 1분위, 23.5%가 2분위에 해당하여, 1~2

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가구가 61.0%임.

- 75세 이상 가구의 경우 71.2%가 1분위, 15.5%가 2분위로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가 86.7%임.

□ 고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4~5분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9.0%가 4분위, 6.7%가 5분위로 15.7%가 4~5분위에 속함.

- 65세 미만 가구의 20.8%가 소득 4분위, 20.7%가 소득 5분위,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의 비중은 41.5%로 저소득 가구 38.2%보다 3.3%p 큼.
-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의 13.2%가 소득 4분위, 9.8%가 소득 5분위, 4~5분위인 고소득 가구는 23.0%로 저소득 가구 61.0%보다 38.0%p 작음.
- 75세 이상 가구의 3.5%가 소득 4분위, 2.7%가 5분위, 4~5분위인 고소득 가구가 6.2%로 저소득 가구 86.7%보다 80.5%p 작음.

□ 개인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층 45.1%가 소득 1분위, 21.7%가 2분위로 1~2분위에 해당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66.8%로 가구 기준보다는 5.1%p 낮으나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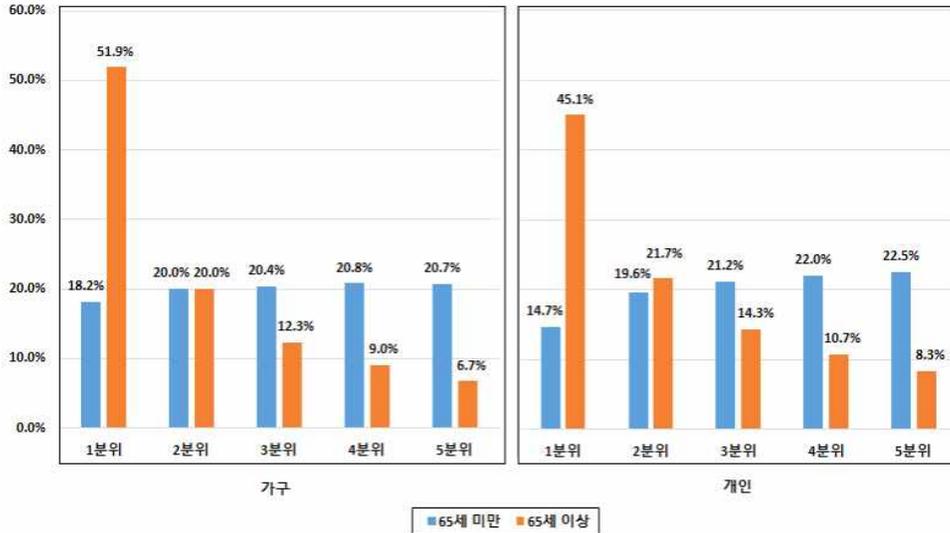
- 65세 미만의 경우 14.7%가 소득 1분위, 19.6%, 2분위, 1~2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34.3%로 가구 기준보다 3.9%p 낮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1~2분위에 해당하는 비중이 증가
 -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34.6%가 소득 1분위, 24.5%가 2분위에 해당하여,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고령층은 59.1%임.
 - 75세 이상의 경우 58.8%가 1분위, 18.0%가 2분위로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고령층이 76.8%로 65세 이상 75세 미만보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17.7%p 높음.

□ 고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4~5분위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10.7%가 4분위, 8.3%가 5분위로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 고령층이 19.0%로 나타남.

- 65세 미만의 22.0%가 소득 4분위, 22.5%가 소득 5분위,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비중은 44.5%로 저소득층 34.3%보다 10.2%p 큼.
-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13.5%가 소득 4분위, 10.5%가 소득 5분위에 해당하여 4~5분위인 고소득층은 24.0%로 저소득층 59.1%보다 35.1%p 작음.

- 75세 이상 고령층은 6.9%가 소득 4분위, 5.5%가 5분위로 4~5분위인 고소득층이 12.4%로 저소득층 76.8%보다 64.4%p 작음.

[그림 2-1] 소득분위별 분포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위별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2> 소득분위별 분포

(소득)	65세 미만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분위	18.2%	14.7%	51.9%	45.1%	37.5%	34.6%	71.2%	58.8%
2분위	20.0%	19.6%	20.0%	21.7%	23.5%	24.5%	15.5%	18.0%
3분위	20.4%	21.2%	12.3%	14.3%	16.2%	16.9%	7.1%	10.9%
4분위	20.8%	22.0%	9.0%	10.7%	13.2%	13.5%	3.5%	6.9%
5분위	20.7%	22.5%	6.7%	8.3%	9.8%	10.5%	2.7%	5.5%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위별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 65세 이상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은 1,691만원, 처분가능소득 2,334만원, 경

상소득은 2,610만원으로 모두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

-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은 2,186만원, 처분가능소득 2,828만원, 경상소득 3,187만원
- 7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은 1,028만원, 처분가능소득 1,671만원, 경상소득 1,836만원
-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보다 7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이 1,158만원 감소하였고 처분가능소득 1,157만원, 경상소득 1,351만원 감소

□ 고령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경상소득의 구성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비중은 감소,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증가

- 근로소득의 비중은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는 33.4%(1,066만원), 75세 이상 가구는 18.0%(331만원)로 15.4%p 감소하고 금액은 735만원 감소
- 사업소득의 비중은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 18.8%(598만원), 75세 이상 가구 9.8%(179만원)로 9.0%p 감소하고 금액은 419만원 감소
- 재산소득의 비중은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 14.8%(470만원), 75세 이상 가구 17.8%(327만원)로 3.0%p 증가한 한편, 금액은 143만원 감소
-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 28.6%(912만원), 75세 이상 가구 41.2%(757만원)로 12.6%p 증가한 한편, 금액은 155만원 감소
-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 4.4%(141만원), 75세 이상 가구 13.2%(241만원)로 8.8%p 증가하고 금액은 100만원 증가

<표 2-3>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

(단위: 만원)

(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경상소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65세 이상	1,691	(100.0%)	2,334	(100.0%)	2,610	(100.0%)
1분위	529	(31.3%)	1,128	(48.4%)	1,231	(47.2%)
2분위	1,491	(88.2%)	2,245	(96.2%)	2,456	(94.1%)
3분위	2,335	(138.1%)	3,152	(135.1%)	3,472	(133.0%)
4분위	3,476	(205.6%)	4,248	(182.0%)	4,711	(180.5%)
5분위	7,695	(455.0%)	7,845	(336.2%)	9,324	(357.3%)
65~74세	2,186	(100.0%)	2,828	(100.0%)	3,187	(100.0%)

(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경상소득	
1분위	586	(26.8%)	1,205	(42.6%)	1,343	(42.1%)
2분위	1,535	(70.2%)	2,265	(80.1%)	2,489	(78.1%)
3분위	2,381	(108.9%)	3,166	(111.9%)	3,489	(109.5%)
4분위	3,509	(160.5%)	4,267	(150.9%)	4,722	(148.1%)
5분위	7,801	(356.9%)	7,932	(280.4%)	9,397	(294.8%)
75세 이상	1,028	(100.0%)	1,671	(100.0%)	1,836	(100.0%)
1분위	489	(47.5%)	1,075	(64.3%)	1,152	(62.7%)
2분위	1,402	(136.4%)	2,204	(131.9%)	2,389	(130.1%)
3분위	2,194	(213.4%)	3,110	(186.1%)	3,419	(186.3%)
4분위	3,309	(321.8%)	4,156	(248.7%)	4,657	(253.7%)
5분위	7,173	(697.6%)	7,418	(443.9%)	8,965	(488.4%)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로 계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로 계산.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표 2-4>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경상소득 구성

(단위: 만원)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65세 이상	2,610	(100.0%)	(28.8%)	(16.1%)	(15.7%)	(32.4%)	(7.0%)
1분위	1,231	(100.0%)	(12.4%)	(7.2%)	(10.1%)	(53.8%)	(16.5%)
2분위	2,456	(100.0%)	(28.5%)	(14.6%)	(12.5%)	(36.3%)	(8.1%)
3분위	3,472	(100.0%)	(35.1%)	(18.2%)	(11.7%)	(30.1%)	(4.9%)
4분위	4,711	(100.0%)	(40.3%)	(19.2%)	(14.6%)	(23.6%)	(2.4%)
5분위	9,324	(100.0%)	(33.7%)	(22.7%)	(27.2%)	(15.1%)	(1.3%)
65~74세	3,187	(100.0%)	(33.4%)	(18.8%)	(14.8%)	(28.6%)	(4.4%)
1분위	1,343	(100.0%)	(16.5%)	(9.3%)	(9.3%)	(52.7%)	(12.2%)
2분위	2,489	(100.0%)	(32.6%)	(15.8%)	(10.1%)	(35.1%)	(6.4%)
3분위	3,489	(100.0%)	(37.1%)	(19.8%)	(10.5%)	(29.0%)	(3.7%)
4분위	4,722	(100.0%)	(42.5%)	(20.5%)	(12.0%)	(22.9%)	(2.1%)
5분위	9,397	(100.0%)	(34.8%)	(24.1%)	(25.3%)	(14.9%)	(0.9%)
75세 이상	1,836	(100.0%)	(18.0%)	(9.8%)	(17.8%)	(41.2%)	(13.2%)
1분위	1,152	(100.0%)	(9.1%)	(5.4%)	(10.8%)	(54.7%)	(20.0%)
2분위	2,389	(100.0%)	(19.7%)	(12.3%)	(17.6%)	(38.8%)	(11.6%)
3분위	3,419	(100.0%)	(29.2%)	(13.2%)	(15.4%)	(33.7%)	(8.5%)
4분위	4,657	(100.0%)	(28.6%)	(12.4%)	(28.1%)	(26.9%)	(4.0%)
5분위	8,965	(100.0%)	(27.8%)	(15.7%)	(37.3%)	(16.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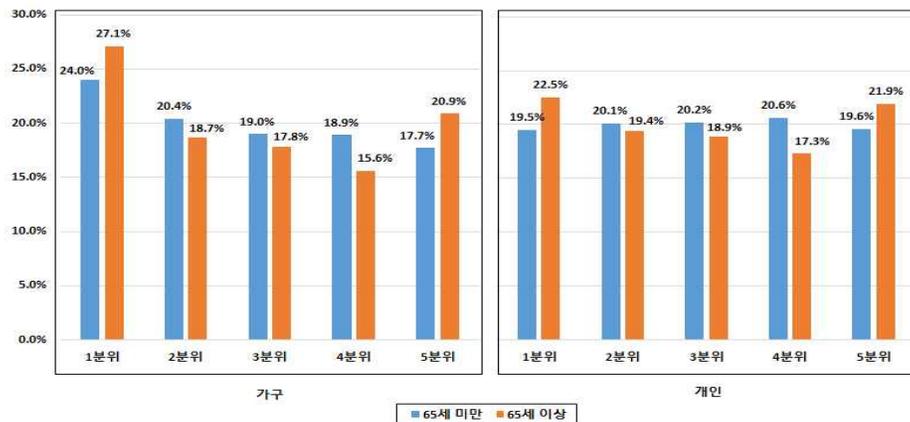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나. 자산의 분포와 구성

- 65세 이상 가구주인 고령가구와 65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자산분위별 가구 분포를 살펴 보면 소득분위별에 비해 고령가구의 저자산 가구 비율이 낮고 고자산 가구의 비율이 높아 65세 이상 가구주와 65세 미만 가구주 가구 간 불평등 정도가 낮게 나타남.
 - 65세 이상 가구 45.8%가 자산 1~2분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 1~2분위인 71.9%보다 26.1%p 낮음.
 - 65세 이상 가구의 27.1%가 자산 1분위, 18.7%가 자산 2분위로 소득 1분위 51.9%, 소득 2분위 20.0%보다 1분위는 24.8%p 낮고 2분위는 1.3%p 낮음.
 - 75세 이상 가구의 34.6%가 자산 1분위, 20.9%가 자산 2분위로 소득 1분위 71.2%, 소득 2분위 15.5%보다 1분위는 36.6%p 낮고 2분위는 5.4%p 높음.
 - 65세 미만 가구 44.4%가 자산 1~2분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 1~2분위인 38.2%보다 6.2%p 높음.
 - 65세 미만 가구의 24.0%가 자산 1분위, 20.4%가 자산 2분위에 해당하며 소득 1분위 18.2%, 소득 2분위 20.0%보다 1분위는 5.8%p, 2분위는 0.4%p 높음.
 -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36.5%가 고자산에 속하는 자산 4~5분위에 속하며 이는 소득 4~5분위인 고소득 가구 15.7%보다 20.8%p 높음.
 - 65세 이상 가구의 15.6%가 자산 4분위, 20.9%가 자산 5분위로 소득 4분위 9.0%, 소득 5분위 6.7%보다 4분위는 6.6%p, 5분위는 14.2%p 높음.
 - 75세 이상 가구의 12.7%가 자산 4분위, 16.5%가 자산 5분위로 소득 4분위 3.5%, 소득 5분위 2.7%보다 4분위는 9.2%p, 5분위는 13.8%p 높음.
 - 65세 미만 가구는 36.6%가 자산 4~5분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 4~5분위인 41.5%보다 4.9%p 낮음.
 - 65세 미만 가구는 18.9%가 자산 4분위, 17.7%가 자산 5분위에 해당하며 소득 4분위 20.8%, 소득 5분위 20.7%보다 4분위는 1.9%p, 5분위는 3.0%p 낮음.
- 개인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층과 65세 미만의 자산분위별 분포는 소득분위별에 비해 고령층의 저자산층 비율이 낮고 고자산층 비율이 높아 65세 이상 고령층과 65세 미만 간의 불평등 정도가 낮게 나타남.
 - 65세 이상 고령층 41.9%가 자산 1~2분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 1~2분위인 66.8%보다 24.9%p 낮음.

- 65세 이상 고령층의 22.5%가 자산 1분위, 19.4%가 자산 2분위로 소득 1분위 45.1%, 소득 2분위 21.7%보다 1분위는 22.6%p 낮고 2분위는 2.3%p 낮음.
- 75세 이상은 27.7%가 자산 1분위, 20.7%가 자산 2분위로 소득 1분위 58.8%, 소득 2분위 18.0%보다 1분위는 31.1%p 낮고 2분위는 2.7%p 높음.
- 65세 미만의 경우 39.6%가 자산 1~2분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 1~2분위인 34.3%보다 5.3%p 높음.
 - 65세 미만의 19.5%가 자산 1분위, 20.1%가 자산 2분위에 해당하며 소득 1분위 14.7%, 소득 2분위 19.6%보다 1분위는 4.8%p, 2분위는 0.5%p 높음.
- 65세 이상 고령층은 39.2%가 고자산에 속하는 자산 4~5분위에 속하며 이는 소득 4~5분위인 고소득층 19.0%보다 20.2%p 높음.
 - 65세 이상의 17.3%가 자산 4분위, 21.9%가 자산 5분위로 소득 4분위 10.7%, 소득 5분위 8.3%보다 4분위는 6.6%p, 5분위는 13.6%p 높음.
 - 75세 이상의 15.7%가 자산 4분위, 18.4%가 자산 5분위로 소득 4분위 6.9%, 소득 5분위 5.5%보다 4분위는 8.8%p, 5분위는 12.9%p 높음.
- 65세 미만의 경우 40.2%가 자산 4~5분위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 4~5분위인 44.5%보다 4.3%p 낮음.
 - 65세 미만의 20.6%가 자산 4분위, 19.6%가 자산 5분위에 해당하며 소득 4분위 22.0%, 소득 5분위 22.5%보다 4분위는 1.4%p, 5분위는 2.9%p 낮음.

[그림 2-2] 자산분위별 분포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위별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5> 자산분위별 분포

(자산)	65세 미만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분위	24.0%	19.5%	27.1%	22.5%	21.4%	18.5%	34.6%	27.7%
2분위	20.4%	20.1%	18.7%	19.4%	17.1%	18.4%	20.9%	20.7%
3분위	19.0%	20.2%	17.8%	18.9%	19.7%	20.1%	15.3%	17.4%
4분위	18.9%	20.6%	15.6%	17.3%	17.7%	18.5%	12.7%	15.7%
5분위	17.7%	19.6%	20.9%	21.9%	24.2%	24.6%	16.5%	18.4%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위별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가구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규모가 작아지는 한편,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4분위 이상 고령가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 순자산 수준이 증가
 - 65세 이상 고령가구 평균 총자산은 3억 5,796만원, 총부채는 3,401만원, 순자산은 3억 2,395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모가 감소
 - 65~74세 고령가구 평균 총자산은 4억 874만원, 총부채는 4,461만원, 순자산은 3억 6,413만원
 - 75세 이상 고령가구 평균 총자산은 2억 8,994만원 총부채는 1,980만원, 순자산은 2억 7,013만원
 - 소득 1분위인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가구의 경우 평균 총자산은 1억 9,662만원, 총부채는 1,196만원, 순자산은 1억 8,466만원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규모가 감소
 - 65~74세, 75세 이상 고령가구 평균 총자산은 각각 2억 1,244만원, 1억 8,547만원
 - 65~74세, 75세 이상 고령가구 평균 총부채는 각각 1,600만원, 911만원
 - 65~74세, 75세 이상 고령가구 평균 순자산은 각각 1억 9,644만원, 1억 7,636만원
 - 소득 1분위를 제외한 고령가구의 자산 수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 소득 2분위 고령가구 평균 순자산은 65~74세 2억 8,386만원, 75세 이상 3억 2,982만원으로 4,596만원 증가
 - 소득 3분위 고령가구 평균 순자산은 65~74세 3억 7,009만원, 75세 이상 3억 8,322

만원으로 1,313만원 증가

- 소득 4분위 고령가구 평균 순자산은 65~74세 4억 7,038만원, 75세 이상 6억 2,508만원으로 1억 5,470만원 증가
- 소득 5분위 고령가구 평균 순자산은 65~74세 10억 4,994만원, 75세 이상 16억 6,381만원으로 6억 1,387만원 증가

<표 2-6>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단위: 가구, 만원)

(소득)	순자산		총자산		총부채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65세 이상	32,395	(100.0%)	35,796	(100.0%)	3,401	(100.0%)
1분위	18,466	(57.0%)	19,662	(54.9%)	1,196	(35.2%)
2분위	29,902	(92.3%)	32,696	(91.3%)	2,793	(82.1%)
3분위	37,335	(115.2%)	41,195	(115.1%)	3,860	(113.5%)
4분위	49,599	(153.1%)	57,230	(159.9%)	7,631	(224.4%)
5분위	115,401	(356.2%)	131,137	(366.3%)	15,735	(462.7%)
65~74세	36,413	(100.0%)	40,874	(100.0%)	4,461	(100.0%)
1분위	19,644	(53.9%)	21,244	(52.0%)	1,600	(35.9%)
2분위	28,386	(78.0%)	31,640	(77.4%)	3,254	(72.9%)
3분위	37,009	(101.6%)	41,417	(101.3%)	4,408	(98.8%)
4분위	47,038	(129.2%)	54,131	(132.4%)	7,093	(159.0%)
5분위	104,994	(288.3%)	119,914	(293.4%)	14,920	(334.4%)
75세 이상	27,013	(100.0%)	28,994	(100.0%)	1,980	(100.0%)
1분위	17,636	(65.3%)	18,547	(64.0%)	911	(46.0%)
2분위	32,982	(122.1%)	34,839	(120.2%)	1,858	(93.8%)
3분위	38,322	(141.9%)	40,521	(139.8%)	2,199	(111.1%)
4분위	62,508	(231.4%)	72,852	(251.3%)	10,344	(522.3%)
5분위	166,381	(615.9%)	186,112	(641.9%)	19,731	(996.3%)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총자산 3억 5,796만원 중 실물자산이 85.1%(3억 467만원)이고 그 중 부동산이 총자산의 82.6%(2억 9,555만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높음.

-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가구의 연령대별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65세~74세 가구보다 75세 이상 가구에서 더 높음.
 - 65~74세 고령가구의 경우 1분위 78.0%, 2분위 85.0%, 3분위 81.7%, 4분위 84.2%, 5분위 90.5%
 - 75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1분위 86.1%, 2분위 83.7%, 3분위 88.7%, 4분위 86.8%, 5분위 90.4%
-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율은 65세 이상 가구 평균 14.9%로 연령대별 분위별로 살펴봐도 최대 총자산의 17.2%를 넘지 않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
 - 65~74세 고령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13.0%, 75세 이상 가구는 12.1%

<표 2-7> 소득분위별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 상세

(단위: 만원)

(소득)	총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부동산	그외	
65세 이상	35,796	(100.0%)	(85.1%)	(82.6%)	(2.5%)	(14.9%)
1분위	19,662	(100.0%)	(85.4%)	(84.3%)	(1.1%)	(14.6%)
2분위	32,696	(100.0%)	(85.2%)	(82.3%)	(2.9%)	(14.8%)
3분위	41,195	(100.0%)	(85.5%)	(82.2%)	(3.3%)	(14.5%)
4분위	57,230	(100.0%)	(83.7%)	(79.6%)	(4.1%)	(16.3%)
5분위	131,137	(100.0%)	(85.3%)	(82.8%)	(2.6%)	(14.7%)
65~74세	40,874	(100.0%)	(83.7%)	(72.3%)	(2.2%)	(13.0%)
1분위	21,244	(100.0%)	(83.7%)	(78.0%)	(1.0%)	(13.5%)
2분위	31,640	(100.0%)	(85.2%)	(85.0%)	(3.0%)	(15.3%)
3분위	41,417	(100.0%)	(83.9%)	(81.7%)	(3.3%)	(14.4%)
4분위	54,131	(100.0%)	(82.2%)	(84.2%)	(4.3%)	(17.2%)
5분위	119,914	(100.0%)	(83.3%)	(90.5%)	(2.8%)	(16.0%)
75세 이상	28,994	(100.0%)	(87.9%)	(86.7%)	(1.2%)	(12.1%)
1분위	18,547	(100.0%)	(86.7%)	(86.1%)	(0.7%)	(13.3%)
2분위	34,839	(100.0%)	(85.1%)	(83.7%)	(1.4%)	(14.9%)
3분위	40,521	(100.0%)	(90.4%)	(88.7%)	(1.7%)	(9.6%)
4분위	72,852	(100.0%)	(89.3%)	(86.8%)	(2.5%)	(10.7%)
5분위	186,112	(100.0%)	(91.6%)	(90.4%)	(1.2%)	(8.4%)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다.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 가구 기준과 개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분가능소득과 순자산의 결합분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소득과 자산 간의 관계를 살펴봄.
 - 소득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1~2분위에 해당하면 저소득, 3분위의 경우 중소득, 4~5분위를 고소득으로 분류
 - 자산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1~2분위에 해당하면 저자산, 3분위의 경우 중자산, 4~5분위를 고자산으로 분류

- 전체가구의 경우 저소득-저자산에 해당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개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소득-고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 기준은 저소득-저자산이 전체가구의 29.2%로 가장 높고 고소득-고자산이 20.5%로 두 번째로 높음.
 - 개인 기준은 고소득-고자산이 전체의 24.4%로 가장 높고 저소득-저자산이 23.8%로 두 번째로 높음.

-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가구 기준과 개인 기준 모두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저소득이면서 중-고자산인 비중도 가구 기준 31.7%, 개인 기준 31.9%로 상당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저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40.3%, 개인 기준 35.1%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이면서 저자산인 비중이 크게 증가
 -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31.5%, 개인 기준 28.7%
 - 75세 이상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52.1%, 개인 기준 43.3%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중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12.7%, 개인 기준 12.6%이며 고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19.0%, 개인 기준 19.3%로 소득은 낮으나 자산이 있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저소득-중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12.0%, 개인 기준 11.9%, 저소득-고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17.4%, 개인 기준 18.6%
 - 75세 이상 저소득-중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13.5%, 개인 기준 13.4%, 저소득-고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21.0%, 개인 기준 20.2%

- 한편, 연령이 비교적 낮은 65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층의 경우 고소득-고자산의 비중이 가구 기준과 개인 기준 모두 16.1%로 높게 관찰되고 있어 고령가구 내에서도 연령별 이질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
 - 75세 이상 고소득-고자산 비중은 가구 기준 4.7%, 개인 기준 8.6%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은퇴시기가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의 특성상 빈곤 판단 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고령층에서 가장 높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도 경제상황이 열악한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함을 의미
 - 다만 저소득이나 자산이 상당한 고령층 비중 또한 높기에, 고령층의 경제상황을 판단할 때 소득과 함께 자산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8>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가구 기준)

	전체가구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저소득-저자산	29.2%	40.3%	31.5%	52.1%
저소득-중자산	8.1%	12.7%	12.0%	13.5%
저소득-고자산	9.9%	19.0%	17.4%	21.0%
중소득-저자산	7.8%	3.4%	4.0%	2.5%
중소득-중자산	4.2%	2.7%	3.8%	1.2%
중소득-고자산	6.2%	6.3%	8.4%	3.5%
고소득-저자산	7.8%	2.1%	3.1%	0.9%
고소득-중자산	6.4%	2.5%	3.9%	0.7%
고소득-고자산	20.5%	11.2%	16.1%	4.7%

주: 처분가능소득 1~2분위는 저소득, 처분가능소득 3분위는 중소득, 처분가능소득 4~5분위는 고소득, 순자산 1~2분위는 저자산, 순자산 3분위는 중자산, 순자산 4~5분위는 고자산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표 2-9>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개인 기준)

	전체	65세 이상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저소득-저자산	23.8%	35.1%	28.7%	43.3%
저소득-중자산	7.4%	12.6%	11.9%	13.4%
저소득-고자산	8.8%	19.3%	18.6%	20.2%
중소득-저자산	8.1%	3.9%	4.5%	3.3%
중소득-중자산	5.0%	3.2%	4.0%	2.2%
중소득-고자산	6.9%	7.1%	8.4%	5.4%
고소득-저자산	8.1%	2.9%	3.7%	1.8%
고소득-중자산	7.7%	3.2%	4.2%	1.9%
고소득-고자산	24.4%	12.9%	16.1%	8.6%

주: 처분가능소득 1~2분위는 저소득, 처분가능소득 3분위는 중소득, 처분가능소득 4~5분위는 고소득, 순자산 1~2분위는 저자산, 순자산 3분위는 중자산, 순자산 4~5분위는 고자산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10>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2.5%	5.9%	3.6%	2.1%	0.7%	24.8%
2분위	5.9%	4.9%	4.2%	3.5%	1.5%	19.9%
3분위	4.0%	4.1%	4.2%	4.0%	2.4%	18.7%
4분위	2.6%	2.9%	3.7%	4.2%	4.6%	18.0%
5분위	2.2%	2.2%	2.5%	3.9%	7.8%	18.6%
전체	27.2%	20.0%	18.2%	17.6%	17.0%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표 2-11>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8.4%	5.5%	3.4%	2.1%	0.6%	20.0%
2분위	4.6%	5.3%	4.7%	3.8%	1.6%	20.0%
3분위	3.2%	4.2%	5.0%	4.8%	2.9%	20.0%
4분위	2.1%	3.0%	4.3%	5.1%	5.6%	20.0%
5분위	1.7%	2.0%	2.6%	4.3%	9.4%	20.0%
전체	20.0%	20.0%	20.0%	20.0%	20.0%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12>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1.4%	3.5%	1.3%	0.7%	0.1%	27.1%
2분위	11.3%	4.1%	2.1%	0.9%	0.4%	18.7%
3분위	8.1%	4.6%	2.7%	1.9%	0.6%	17.8%
4분위	5.7%	3.9%	3.0%	1.9%	1.1%	15.6%
5분위	5.4%	4.0%	3.3%	3.7%	4.5%	20.9%
전체	51.9%	20.1%	12.3%	9.0%	6.7%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표 2-13>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6.3%	3.8%	1.4%	0.9%	0.2%	22.5%
2분위	10.2%	4.8%	2.5%	1.2%	0.6%	19.4%
3분위	7.7%	4.9%	3.2%	2.4%	0.8%	18.9%
4분위	5.6%	4.3%	3.6%	2.3%	1.6%	17.3%
5분위	5.3%	4.1%	3.5%	3.8%	5.2%	21.9%
전체	45.1%	21.7%	14.3%	10.6%	8.3%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14> 65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4.9%	3.8%	1.5%	1.2%	0.1%	21.4%
2분위	7.5%	5.3%	2.5%	1.3%	0.5%	17.1%
3분위	6.4%	5.6%	3.8%	3.0%	0.9%	19.7%
4분위	4.4%	4.5%	4.2%	2.9%	1.7%	17.7%
5분위	4.3%	4.2%	4.2%	4.9%	6.6%	24.2%
전체	37.5%	23.4%	16.2%	13.2%	9.8%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표 2-15> 65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1.6%	3.8%	1.7%	1.3%	0.1%	18.5%
2분위	7.4%	5.9%	2.8%	1.5%	0.8%	18.4%
3분위	6.3%	5.6%	4.0%	3.1%	1.1%	20.1%
4분위	4.7%	4.9%	4.2%	3.0%	1.8%	18.5%
5분위	4.6%	4.4%	4.2%	4.6%	6.7%	24.6%
전체	34.6%	24.5%	16.9%	13.5%	10.5%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2-16> 7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가구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30.2%	3.1%	1.0%	0.2%	0.2%	34.6%
2분위	16.3%	2.5%	1.5%	0.4%	0.1%	20.9%
3분위	10.3%	3.2%	1.2%	0.4%	0.3%	15.3%
4분위	7.4%	3.0%	1.5%	0.5%	0.3%	12.7%
5분위	7.0%	3.6%	2.0%	2.1%	1.8%	16.5%
전체	71.2%	15.5%	7.2%	3.5%	2.7%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표 2-17> 7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개인 기준)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2.3%	3.7%	1.2%	0.4%	0.2%	27.7%
2분위	14.0%	3.3%	2.1%	0.8%	0.4%	20.7%
3분위	9.5%	3.9%	2.2%	1.5%	0.4%	17.4%
4분위	6.9%	3.4%	2.8%	1.4%	1.3%	15.7%
5분위	6.2%	3.7%	2.6%	2.8%	3.1%	18.4%
전체	58.8%	18.0%	10.9%	6.9%	5.5%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제2절 농가의 소득 및 자산 현황

- 농가의 경우 고령층 비중이 크게 높고 소득 기준 빈곤율이 높은 반면, 토지자산 등 자산 보유 비중이 높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자산유동화 가능성이 높기에 별도로 소득 및 자산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1. 관련 문헌

- 농가의 소득 및 자산 관련 기존 연구들은 주로 농가의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 및 격차를 살펴보고 있으며,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도는 높고 자산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고자산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박준기 외(2005)는 농가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고 저소득 농가와 고소득 농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불평등도는 높아졌고 저소득 농가는 고령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998~2003년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 5분위배율이 1998년 7.2배에서 2003년 12.3배로 높아졌으며, 저소득 농가는 고소득 농가에 비해 60세 이상의 고령농가의 비중이 23%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주미·김태완(2022)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수준 및 격차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낮고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빈곤율이 약 10%p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의 변동폭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김도형 외(2016)는 농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고자산 유형이 41.7%로 높은 비중임을 보임.
 - 2014년의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농촌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비농가 및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결합분포 분석에서 저소득-저자산 유형은 12.2%로 낮은 반면 자산유동화 프로그램의 잠재적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저소득-고자산 유형은 41.7%의 비중 차지

□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가구의 연령대를 고령 전·후기로 세분화하여 소득 및 자산 현황과 분포를 살펴봄.

- 농가에 대한 기존 논의는 소득 중심이나 본 분석은 농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자산 결합 현황을 분석
- 「2021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촌 노인가구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고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분위별 소득 및 자산 현황을 비교
- 75세를 기준으로 65~74세를 고령 전기, 75세 이상을 고령 후기로 노인가구 가구주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고령 전·후기의 분위별 소득 및 자산 현황을 비교
- 처분가능소득 1~2분위, 3분위, 4~5분위를 각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그리고 순자산 1~2분위, 3분위, 4~5분위를 각각 저자산, 중자산, 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소득 및 자산의 결합분포를 살펴봄.

2. 자료 및 방법

□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1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 현황을 살펴봄.

- 매년 조사되는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의 소득,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가 발표되며 본 연구는 2021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함.
 - 2021년 농가경제조사는 전국 표본 농가 3,000가구(2인 이상 2,900가구, 1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21년 농가경제조사의 소득 변수들은 2021년 연간 기준, 자산과 부채는 2021년 말 기준임.
 - 농가경제조사는 2008년부터 1인 농가에 대해서도 조사되고 있으나 보도자료, KOSIS 등의 공표는 2인 이상 농가 대상으로 이뤄지며, 마이크로데이터도 1인 농가를 포함한 분석은 불가하도록 설계되어 본 연구는 2인 이상 농가만을 대상으로 함.²
- 분석 대상은 ‘농촌 노인가구’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로 정의함.
 -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는 1,000㎡(10a) 이상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또는 연간

2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1인 농가 가중치와 2인 이상 농가 가중치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각각의 가중치는 별도의 표본설계를 통해 산출된 별개의 수치로 2종류의 수치를 혼합하여 가중평균해 집계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있다. 이에 따라 이하의 분석은 2인 이상 농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가중치를 혼합하여 전체 농가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조사시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의미함(통계청, 2022. 4. 28).

- 농가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수행
- 2021년 농가경제조사에 포함되어 총 2,841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촌 노인가구는 1,979가구로 전체 가구의 70% 차지
- 전체 조사된 3,000가구 중 연간 자료가 조사되지 않아 집계 제외로 분류된 가구 및 1인 농가를 제외한 총 2,841가구를 대상으로 분석
-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치는 <표 2-21>과 같음.

□ 농가경제조사 소득 및 자산 분석 시 가구균등화 값을 사용하였음.

-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 소득 및 자산의 비교를 위해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를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값을 사용

<표 2-18> 2021년 농가경제조사의 주요 변수들 기초통계치

(단위: %, 만원)

		전체 연령 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전체(%)		100.0	100.0
가구원수	2명	76.7	85.5
	3명	14.3	10.7
	4명	6.3	2.2
	5명	1.7	0.7
	6명 이상	1.0	0.9
가구주 성별	남성	93.8	94.4
	여성	6.2	5.6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0.2	-
	40~49세	2.1	-
	50~59세	10.2	-
	60~69세	35.5	-
	70~79세	39.0	-
	80~89세	12.7	-
	90세 이상	0.3	-
농가소득(만원)		3,220	2,780
경상소득		3,080	2,640

	전체 연령 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농가순소득	2,160	1,590
이전소득	949	1,080
공적보조금	900	1,010
사적보조금	49	64
시장소득	1,940	1,420
처분가능소득	2,650	2,310
총자산	38,400	37,600
고정자산	32,700	32,100
토지	23,000	23,700
건물	6,790	6,210
유동자산	5,700	5,510
당좌자산	5,440	5,260
재고자산	268	246
총부채	2,560	1,700
순자산	35,900	35,900

주: 단독가구 제외; 만연령 기준; 소득, 자산, 부채는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가구균등화 수치; 농가소득은 농가순소득과 이전소득을 더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 wave7 기준으로 시장소득은 농가순소득+사적보조금-사적이전지출로 계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공적보조금-공적이전지출로 계산.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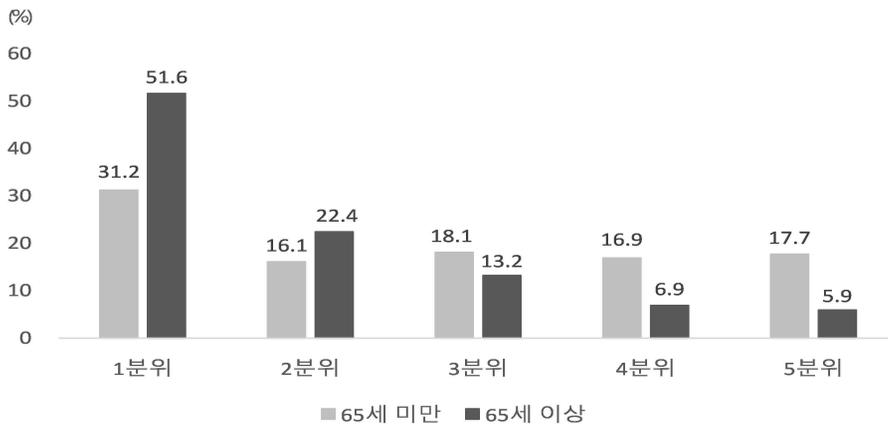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 수준별 분석은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및 순자산 5분위를 이용하고, 분위별 경계값은 개인화 가중치가 적용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및 균등화 순자산 수치를 이용
 - 소득 5분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21년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분배지표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위별 경계값을 이용
 - 처분가능소득 5분위 경계값은 개인화 가중치가 적용된 값으로 P20 1,836만원, P40 2,723만원, P60 3,654만원, P80 5,103만원임.
 -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농업보조금액 등의 공적보조금을 더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계산
 - 자산 5분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년 3월말 기준의 순자산 분위별 경계값을 이용하였음.
 - 순자산 5분위 경계값은 개인화 가중치가 적용된 값으로, 본 보고서 제2장 제1절에서 직접 계산된 P20 5,260만원, P40 13,410만원, P60 24,762만원, P80 45,035만원 수치를 이용

3.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 현황

가. 소득의 분포와 구성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74%가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해당,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소득 비중이 크고 고소득 비중은 낮음.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51.6%, 65세 미만 가구의 31.2%가 소득 1분위에 해당
 - 연령대를 고령 전기 및 후기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득 1분위가 65~74세 41.7%, 75세 이상 65.9%로 고령 후기의 소득 1분위 비중이 24.2%p 더 높음.
 - 소득 1~2분위는 65세 미만 47.3%, 65세 이상 74%이고, 고령 전기 65~74세가 66.9%, 고령 후기 75세 이상이 84.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큼.
 -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4~5분위는 농촌 65세 이상 가구의 12.8%, 65세 미만 가구의 34.6%로 65세 미만 가구의 고소득 비중이 65세 이상 가구에 비해 높음.
 -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고령 전기 65~74세는 16.7%, 고령 후기 75세 이상은 7.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뚜렷이 낮아짐.
 - 소득 5분위는 65세 미만 17.7%, 65~74세 8.2%, 75세 이상 2.7%의 비중 차이

[그림 2-3] 소득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주: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2-19> 소득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단위: %)

(소득)	65세 미만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00.0	100.0	100.0	100.0
1분위	31.2	51.6	41.7	65.9
2분위	16.1	22.4	25.2	18.5
3분위	18.1	13.2	16.5	8.4
4분위	16.9	6.9	8.5	4.6
5분위	17.7	5.9	8.2	2.7

주: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농촌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공적보조금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며, 고령 전기보다 고령 후기가 평균소득 수준이 낮음.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은 1,340만원, 시장소득에서 공적보조금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계산한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260만원, 평균 공적보조금은 1,030만원 수준
 - 공적보조금은 쌀 직불금 등의 농업보조금과 기초연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의 기타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적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농업보조금의 비중도 큼.
- 고령 전기 65~74세보다 고령 후기 75세 이상 그룹이 평균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공적보조금 수준은 낮으나, 소득 3~5분위의 경우 75세 이상이 65~74세에 비해 더 많은 공적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소득 기준 65~74세 1,630만원, 75세 이상은 915만원으로 고령 후기는 고령 전기의 56% 수준이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65~74세 2,600만원, 75세 이상은 1,760만원으로 고령 후기는 고령 전기의 68% 수준
 - 공적보조금은 65~74세 1,100만원, 75세 이상은 929만원으로 고령 후기는 고령 전기의 84% 수준이나, 75세 이상의 소득 3~5분위는 65~74세의 동 분위보다 20~500만원의 공적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보조금에서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74세는 소득분위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비중도 높아지나, 75세 이상은 소득 3분위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가장 낮

고 소득 4분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0> 소득분위별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단위: 만원, %)

(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공적보조금		농업 보조금	기타공적 보조금
65세 이상	1,340	(100.0)	2,260	(100.0)	1,030	(100.0)	[21.9]	[78.3]
1분위	396	(29.6)	1,100	(48.7)	788	(76.5)	[19.1]	[80.9]
2분위	1,190	(88.8)	2,240	(99.1)	1,170	(113.6)	[20.3]	[79.3]
3분위	1,980	(147.8)	3,170	(140.3)	1,340	(130.1)	[19.1]	[81.3]
4분위	3,090	(230.6)	4,240	(187.6)	1,360	(132.0)	[23.7]	[76.5]
5분위	6,660	(497.0)	8,020	(354.9)	1,580	(153.4)	[41.2]	[58.7]
65~74세	1,630	(100.0)	2,600	(100.0)	1,100	(100.0)	[23.0]	[77.3]
1분위	399	(24.5)	1,140	(43.8)	846	(76.9)	[17.7]	[82.3]
2분위	1,180	(72.4)	2,260	(86.9)	1,200	(109.1)	[20.3]	[79.3]
3분위	2,020	(123.9)	3,180	(122.3)	1,300	(118.2)	[21.4]	[78.5]
4분위	3,130	(192.0)	4,280	(164.6)	1,360	(123.6)	[23.3]	[76.5]
5분위	6,970	(427.6)	8,250	(317.3)	1,490	(135.5)	[46.6]	[53.1]
75세 이상	915	(100.0)	1,760	(100.0)	929	(100.0)	[19.9]	[80.1]
1분위	394	(43.1)	1,070	(60.8)	735	(79.1)	[20.6]	[79.4]
2분위	1,200	(131.1)	2,220	(126.1)	1,110	(119.5)	[20.4]	[79.5]
3분위	1,870	(204.4)	3,170	(180.1)	1,470	(158.2)	[13.3]	[87.1]
4분위	2,990	(326.8)	4,120	(234.1)	1,380	(148.5)	[24.4]	[76.1]
5분위	5,250	(573.8)	7,010	(398.3)	1,990	(214.2)	[22.9]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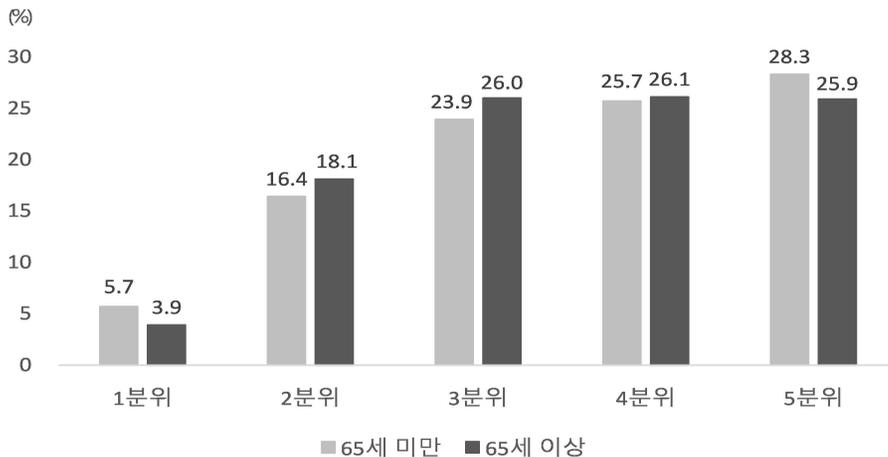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나. 자산의 분포와 구성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22%가 자산 1분위와 2분위에 해당, 이는 소득 1분위와 2분 위 비중인 7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3.9%, 65세 미만 가구의 5.7%가 자산 1분위로 비노인 가구의 자산 1분위 비중이 1.8%p 더 높음.
- 고령 전기 65~74세 가구의 3.1%, 고령 후기 75세 이상 가구의 5.1%가 자산 1분위에 해당하여 노인가구 중에서는 고령 후기가 고령 전기에 비해 자산 1분위 비중이 높음.
- 자산 1~2분위는 65세 미만 22.1%, 65세 이상 22%이고, 고령 전기 65~74세는 19.6%, 고령 후기 75세 이상은 25.6%로 고령 전기가 65세 미만보다 저자산의 비중이 2.5%p 더 낮음.
- 자산 상위 40%인 자산 4~5분위는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52%로 소득 4~5분위 12.8%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자산 1~2분위 비중은 소득 1~2분위 비중에 비해 낮고, 자산 3~5분위의 비중은 소득 3~5분위 비중에 비해 큼.

[그림 2-4] 자산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주: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2-21> 자산분위별 농촌 가구 분포

(단위: %)

(자산)	65세 미만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00.0	100.0	100.0	100.0
1분위	5.7	3.9	3.1	5.1
2분위	16.4	18.1	16.5	20.5
3분위	23.9	26.0	26.1	26.0
4분위	25.7	26.1	26.0	26.2
5분위	28.3	25.9	28.3	22.3

주: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65세 이상 농촌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총부채는 1,570만원, 순자산은 3억 7,800만원이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수준도 높음.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 1분위 그룹의 순자산 평균은 3억 5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84.3% 수준
 -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소득 1분위 평균 수준이 전체 평균의 29.6%, 48.7%인 것에 비해 순자산 1분위는 전체 평균의 84.3%로 높은 수준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 5분위 그룹의 순자산은 전체 평균의 184.3%로 시장소득 5분위(497%) 및 처분가능소득 5분위(354.9%)에 비해 낮은 수준
- 농촌 노인가구 중 고령 전기 65~74세가 고령 후기 75세 이상에 비해 평균 총자산, 평균 총부채, 평균 순자산 규모가 더 크고, 65세 이상 및 65~74세 가구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순자산 규모도 크게 나타남.
 - 농촌 고령 전기 65~74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억 8,700만원, 고령 후기 7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억 2,600만원으로 고령 후기에 비해 고령 전기의 순자산 규모가 더 큼.
 - 농촌 65세 이상 가구과 고령 전기 65~74세 가구에서는 소득 분위가 클수록 순자산 규모도 커지나, 고령 후기 75세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 5분위보다 소득 3~4분위의 순자산이 더 큼.

<표 2-22> 소득분위별 농촌 노인가구의 자산 구성

(단위: 만원, %)

(소득)	순자산		총자산		총부채	
	액	비중	액	비중	액	비중
65세 이상	36,200	(100.0)	37,800	(100.0)	1,570	(100.0)
1분위	30,500	(84.3)	31,800	(84.1)	1,300	(82.8)
2분위	34,200	(94.5)	35,600	(94.2)	1,410	(89.8)
3분위	42,900	(118.5)	44,500	(117.7)	1,640	(104.5)
4분위	46,700	(129.0)	48,400	(128.0)	1,650	(105.1)
5분위	66,700	(184.3)	71,000	(187.8)	4,290	(273.2)
65~74세	38,700	(100.0)	40,900	(100.0)	2,150	(100.0)
1분위	32,400	(83.7)	34,500	(84.4)	2,050	(95.3)
2분위	34,000	(87.9)	35,900	(87.8)	1,910	(88.8)
3분위	41,500	(107.2)	43,400	(106.1)	1,940	(90.2)
4분위	46,800	(120.9)	48,800	(119.3)	2,050	(95.3)
5분위	71,300	(184.2)	75,200	(183.9)	3,930	(182.8)
75세 이상	32,600	(100.0)	33,300	(100.0)	732	(100.0)
1분위	28,700	(88.0)	29,300	(88.0)	610	(83.3)
2분위	34,600	(106.1)	35,000	(105.1)	420	(57.4)
3분위	46,800	(143.6)	47,600	(142.9)	818	(111.7)
4분위	46,600	(142.9)	47,100	(141.4)	592	(80.9)
5분위	46,100	(141.4)	52,000	(156.2)	5,890	(804.6)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총자산은 고정자산(85.2%)과 유동자산(14.8%)으로 구성되며, 세부 항목으로는 토지가 63%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총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며, 고령 전 기보다는 고령 후기가, 그리고 대체로 낮은 소득 분위에서 토지 비중이 큼.
 - 토지 비중이 고령 전기 65~74세에서 59.7%, 고령 후기 75세 이상에서 69.1%로 연

령대가 높은 고령 후기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대체로 높은 소득분위에서 토지 이외의 건물, 무형자산(경작권, 어업권, 영업권 등),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의 비중이 큰 편
-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되며 현금, 예금, 보험금 등의 당좌자산이 대부분의 비중 차지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당좌자산 비중은 14.1%이고 재고자산은 0.6%이며, 이러한 유동자산 구성 비중은 고령 전기 및 고령 후기에서도 유사함.

<표 2-23> 소득분위별 농촌 노인가구의 자산 구성 - 상세

(단위: 만원, %)

(소득)	총자산		고정 자산	유동 자산			유동 자산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토지	건물	무형 자산			
65세 이상	37,800	(100.0)	(85.2)	(63.0)	(16.3)	(0.5)	(14.8)	(14.1)	(0.6)
1분위	31,800	(84.1)	(85.8)	(66.7)	(15.4)	(0.2)	(14.2)	(13.6)	(0.6)
2분위	35,600	(94.2)	(83.1)	(63.2)	(15.1)	(0.4)	(16.8)	(16.1)	(0.6)
3분위	44,500	(117.7)	(86.7)	(63.6)	(18.7)	(0.1)	(13.4)	(12.9)	(0.5)
4분위	48,400	(128.0)	(85.7)	(61.2)	(17.8)	(0.0)	(14.2)	(13.7)	(0.5)
5분위	71,000	(187.8)	(84.6)	(49.9)	(17.5)	(2.5)	(15.4)	(14.2)	(1.1)
65~74세	40,900	(100.0)	(84.6)	(59.7)	(17.4)	(0.7)	(15.3)	(14.5)	(0.7)
1분위	34,500	(84.4)	(84.9)	(62.3)	(17.7)	(0.3)	(15.0)	(14.3)	(0.7)
2분위	35,900	(87.8)	(82.7)	(60.7)	(15.9)	(0.6)	(17.1)	(16.4)	(0.7)
3분위	43,400	(106.1)	(85.5)	(62.0)	(18.6)	(0.2)	(14.5)	(14.0)	(0.6)
4분위	48,800	(119.3)	(86.7)	(60.7)	(19.1)	(0.0)	(13.3)	(12.8)	(0.5)
5분위	75,200	(183.9)	(84.6)	(49.9)	(16.6)	(2.9)	(15.4)	(14.2)	(1.2)
75세 이상	33,300	(100.0)	(86.2)	(69.1)	(14.3)	(0.1)	(13.9)	(13.4)	(0.5)
1분위	29,300	(88.0)	(86.7)	(71.3)	(13.0)	(0.1)	(13.4)	(12.9)	(0.5)
2분위	35,000	(105.1)	(84.0)	(68.6)	(13.5)	(0.0)	(16.1)	(15.6)	(0.5)
3분위	47,600	(142.9)	(89.7)	(68.5)	(18.8)	(0.0)	(10.3)	(10.0)	(0.3)
4분위	47,100	(141.4)	(83.2)	(62.8)	(14.5)	(0.1)	(16.8)	(16.3)	(0.6)
5분위	52,000	(156.2)	(85.6)	(49.8)	(22.5)	(0.0)	(14.4)	(13.9)	(0.5)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다.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54.5%, 농촌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60.5%가 저소득이나 중·고자산을 보유한 가구유형에 해당하여, 농가에 소득은 낮지만 자산 규모가 상당한 고령 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소득 및 자산 분위에 따라 저소득·중소득·고소득, 저자산·중자산·고자산으로 정의하고, 소득 및 자산 결합 형태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분류
 - 처분가능소득 1~2분위는 저소득, 처분가능소득 3분위는 중소득, 처분가능소득 4~5분위는 고소득, 순자산 1~2분위는 저자산, 순자산 3분위는 중자산, 순자산 4~5분위는 고자산으로 정의
 - 소득과 자산을 결합하여 저소득-저자산, 저소득-중자산, 저소득-고자산, 중소득-저자산, 중소득-중자산, 중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고소득-중자산, 고소득-고자산 유형으로 구분
 -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저소득-고자산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4.3%로 9가지 결합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저소득-중자산 가구의 비중도 20.2%로 저소득-중·고자산 가구가 54.5%에 해당함.
 - 고령 후기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저소득-고자산 비중은 37.1%, 저소득-중자산 비중은 23.4%로 저소득-중·고자산 가구가 60.5%에 해당
 - 고령 전기 65~74세 노인가구의 저소득-고자산 비중은 32.3%, 저소득-중자산 비중은 18.3%로 저소득-중·고자산 가구가 50.6%를 차지
 - 비노인을 포함한 농촌 전체가구의 저소득-고자산 비중은 30.6%, 저소득-중자산 비중은 18%로 저소득-중·고자산 가구가 48.6%에 해당
 - 이렇게 소득은 낮지만 자산 규모가 상당한 농촌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분석 결과는 특히 농가에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큼을 시사
 - 농가는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비농가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반면 토지 등의 자산 보유 비중은 높기에 저소득-중·고자산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특성으로 농가에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득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겠음.

<표 2-24> 농촌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

(단위: %)

	농촌 전체가구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저소득-저자산	18.1	19.4	16.2	23.9
저소득-중자산	18.0	20.2	18.3	23.4
저소득-고자산	30.6	34.3	32.3	37.1
중소득-저자산	2.3	1.6	1.9	1.1
중소득-중자산	3.7	3.5	5.0	1.2
중소득-고자산	8.5	8.1	9.6	6.1
고소득-저자산	1.6	1.1	1.4	0.5
고소득-중자산	3.7	2.2	2.7	1.4
고소득-고자산	13.4	9.6	12.5	5.3

주: 처분가능소득 1~2분위는 저소득, 처분가능소득 3분위는 중소득, 처분가능소득 4~5분위는 고소득, 순자산 1~2분위는 저자산, 순자산 3분위는 중자산, 순자산 4~5분위는 고자산으로 분류;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2-25> 농촌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단위: %)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3.3	0.5	0.3	0.2	0.0	4.4
2분위	10.9	3.3	2.0	0.9	0.5	17.6
3분위	11.6	6.4	3.7	2.4	1.3	25.5
4분위	10.9	5.9	3.9	2.5	2.8	26.0
5분위	9.2	4.6	4.6	3.6	4.5	26.5
전체	46.0	20.7	14.5	9.6	9.1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2-26> 농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단위: %)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3.4	0.4	0.1	0.0	0.0	3.9
2분위	12.3	3.3	1.5	0.7	0.3	18.1
3분위	13.2	7.2	3.5	1.4	0.7	26.0
4분위	12.4	6.5	3.5	1.7	2.0	26.1
5분위	10.3	5.1	4.6	2.9	2.9	25.9
전체	51.6	22.4	13.2	6.9	5.9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2-27> 농촌 65~74세 노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단위: %)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4	0.5	0.2	0.0	0.0	3.1
2분위	10.2	3.1	1.7	1.1	0.4	16.4
3분위	9.8	8.5	5.0	1.7	1.1	26.1
4분위	9.9	7.4	4.1	2.4	2.2	26.0
5분위	9.3	5.7	5.4	3.4	4.5	28.3
전체	41.7	25.2	16.5	8.5	8.2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2-28> 농촌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단위: %)

자산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4.8	0.2	0.0	0.1	0.0	5.1
2분위	15.4	3.5	1.1	0.3	0.1	20.4
3분위	18.0	5.3	1.2	1.1	0.3	26.0
4분위	16.1	5.1	2.6	0.8	1.6	26.2
5분위	11.6	4.3	3.5	2.3	0.6	22.3
전체	65.9	18.5	8.4	4.6	2.7	100.0

주: 음영은 저소득-중·고자산 유형; 단독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3장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

제절 서론

- 빈곤이 다차원적인 문제라는 점은 이견이 없으며, 빈곤을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 소비, 삶의 만족도, 여가 시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인 삶의 질이 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득과 자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빈곤을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임.
 - 경제학 이론에서 개인의 효용은 소비에 의해 결정되고 소비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의해서도 결정되기에 경제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개인은 소비평탄화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고 소비는 보유 자산과 생애 소득에 의해 결정됨.
- 노인 빈곤에 대한 분석에서도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이용하여 측정한 빈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빈곤층을 식별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어 노인 빈곤 대응 정책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윤석명 외 (2017)에 따르면 소득 빈곤 노인의 약 55%에 해당하는 노인들(전체 노인의 약 25.5%)의 분포상 위치는 소득만 빈곤선 미만일 뿐, 자산과 주거는 빈곤선 이상에 위치함.
 - 윤희숙·권형준 (2013)은 고령층 내부의 여러 격차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하며 그렇

지 못하면 정책 지원이 시급한 고령층을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본 장은 두 가지 상황(현 상황 유지, 자산 활용 정책 추진)을 가정하여 소득·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방법
 - 선행연구 및 소득·자산을 이용한 노인빈곤 분석방법 소개
-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빈곤
 - 고령층이 보유 자산을 소모하지 않고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유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한 포괄소득을 이용하여 노인 빈곤 분석
 -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하나 실제로 물질적 결핍을 겪고 있지 않을 수 있는 노인층과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층을 식별
- 자산의 연금화에 기반한 노인빈곤
 - 고령층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산 활용 정책에 참여하여 보유 자산을 소모하여 연금화한다는 가정 하에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노인 빈곤 분석
 - 자산 활용 정책에 참여하여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는 노인층과 그렇지 않은 노인층을 구별
- 소득·자산 고려시 노인빈곤 지표 국제 비교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제2절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분석방법

1. 선행연구

□ 소득과 자산을 이용하여 빈곤을 분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다차원 빈곤지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산을 소득화하는 방법이 있음.

- 다차원 빈곤지표의 대표적인 방법 : 1) 다차원에서 각각 빈곤층을 설정하고 이를 결합
- 자산 소득화의 대표적인 방법 : 2) 포괄소득화와 3) 연금화

- 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소득화를 중점으로 노인빈곤을 분석

□ 1) 각 차원에서 빈곤층을 설정하고 이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한 다차원 빈곤지표

- 소득과 자산 각각의 차원에서 빈곤선을 설정하여 빈곤층을 식별하고 각 차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빈곤을 분석
 - 다차원 빈곤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대한 연구로는 윤석명 외(2017)이 대표적인 연구로 빈곤을 소득, 자산, 주거의 다차원적인 문제로 접근함.
 - 윤석명 외 (2017)에서 정의된 빈곤율은 분석된 모든 차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2개 이상의 차원에서 빈곤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을 빈곤 인가로 집계함.
- 한계: 1) 차원별 가중치를 정하는 문제와 2) 차원을 어떻게 결합하여 빈곤층을 정의할지에 대한 문제
 - 차원별 가중치 설정과 결합 방법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음.
 - 빈곤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차원별로 다른 가중치를 둔다면 어느 차원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많은 이견이 있음.
 - 각 차원에서 정의된 빈곤 집단의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차원을 결합하여 빈곤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빈곤층을 각각 과소/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2) 포괄소득화를 이용한 자산 소득화

- 포괄소득(또는 Haig-Simons 소득)에서 연간 소득은 자산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연간 소비할 수 있는 가치의 총합을 의미
- 포괄소득은 실제 벌어들인 소득 뿐만 아니라 귀속임대료와 같은 암묵적인 소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 귀속임대료란 자가 소유자가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의미
- 자가 소유자는 실제 지불되지 않은 귀속임대료만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포괄소득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포괄소득을 이용한 노인 빈곤 분석은 포괄소득이 자산을 소모하지 않고 자산의 소득화된 가치를 소득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령층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계: 포괄소득의 많은 구성 요소들은 실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 어렵고 연구 방법과 가용한 데이터에 따라 산정되는 포괄소득에 차이가 있음.

□ 귀속임대료를 이용한 자산 포괄소득화 방안

- Wolff and Zacharias(2009)는 주거가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주거 서비스를 위한 지출만큼 다른 분야에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유 주택의 귀속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소득에 포함하여 분석함.
 - 구체적으로 Wolff and Zacharias(2009)는 Weisbrod and Hansen(1968)에서 더 나아가 자산을 거주 주택과 그 외 자산으로 나눈 후 거주 주택으로부터 귀속임대료를 구하여 소득에 포함하고 그 외 자산은 연금화하여 포함함.
 -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처럼 부동산 자산을 따로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가구 특징을 반영하는 방법일 수 있음.

□ 귀속임대료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 사용자 비용 방법, 2) 임대료 상당액 방법, 3) 헤도닉 가격 모형 방법 등이 있음.

- 1) 사용자 비용 방법: 자가 보유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귀속임대료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균형 상태일 때는 자가 보유에 대한 비용과 이를 임대료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같음을 이용
 - 사용자 비용으로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무위험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각종 세금, 주택 유지 비용, 대출 이자, 기대 매매차익 등을 고려함 (Hendershott and Slemrod, 1982; Poterba, 1984; Poterba and Sinai, 2008).
 -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철(2005), 이수욱 외(2015) 등에서 사용자 비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함.
- 2) 임대료 상당액 방법: 거주 주택의 가격을 이용해서 이를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
 - Wolff and Zacharias(2009)는 미국에서 GDP 구성 항목으로 조사되는 미국 전체 귀속임대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귀속임대료를 계산하여 분석함.
 - 정규승 외(2017)는 전세가격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여 귀속임대료를 계산함.
- 3) 헤도닉 가격 모형: 임대료와 주택 특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

숙임대료를 계산

- 헤도닉 가격 모형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 임대 시장에 있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주택 특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추정된 식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 임대 시장에 있지 않은 주택들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추정함.
- 우리나라에서는 진미윤(2003), 윤성진(2021) 등이 이를 이용하여 귀속임대료를 분석함.
- 임대 시장에 있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 간의 선택적 편이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Heckman 표본 선택 모형을 이용하기도 함.

□ 3) 연금화를 이용한 자산 소득화

-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소득에 포함한 소득-순자산가치(Weisbrod and Hansen, 1968)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
 - 소득-순자산가치는 자산의 효과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에서 재산소득을 제외한 후 순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금화된 액수를 포함함.
 - Brandolini et al. (2010)은 Luxembourg Wealth Study Database(LWS)를 이용하여 빈곤을 분석하였는데 소득-순자산가치를 고려했을 때의 노인빈곤율이 가처분소득 기준보다 낮아짐을 보임.
- 연금화를 이용한 노인 빈곤 분석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고령층이 보유 자산을 소모하여 소득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계: 1) 노인층의 소득을 과대 계상할 수 있고 2)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우려
 - 연금액은 기대여명에 의해 결정되기에 같은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기대여명이 짧은 노인층은 기대여명이 긴 청년·장년층보다 더 큰 연금액이 산정되어 노인 빈곤율을 과소 추정하게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유산 및 증여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층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소모해서 연금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자산을 소득화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분석한 연구로는 정지운·김주현(2014), 최현수 외(2016), 장민(2019), 김태완 외(2020)이 있고, 이들 모두 자산을 이용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빈곤율이 낮아짐을 보임.

- 정지운·김주현(2014)은 소득-순자산가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분석했고, 소득-순자산가치를 이용한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빈곤율보다 낮아짐을 보임.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가구를 분석하였는데, 소득-순자산가치를 이용한 노인빈곤율은 27.8%로 가처분소득 기준인 45.2%보다 낮아짐.
- 최현수 외(2016)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구 소득에 귀속임대료를 더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분석함.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결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이 42.8%에서 귀속임대료를 고려했을 때 35.9%로 낮아짐.
- 장민(2019)은 순자산을 기대여명으로 나눈 연간 순자산 가용액을 소득에 합산하여 노인빈곤율을 시산함.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결과 노인빈곤율이 43.8%에서 31.0%까지 낮아짐.
- 김태완 외(2020)는 소득-순자산가치를 이용하는 방법과 소득과 자산 각각 빈곤층을 설정하여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노인 빈곤을 분석함.
 - 소득-순자산가치를 이용하여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 노인빈곤율이 43.8%에서 25.3%까지 낮아짐.
 - 소득과 자산 모두가 빈곤한 소득-자산 이중 빈곤율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 26.4%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윤석명 외(2017)와 같이 빈곤층을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음.
- 앞서 소개한 포괄소득화와 연금화의 한계에 따라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최현수 외 (2016)에서의 주택매매가격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하여 귀속임대료를 산정하였기에 산출된 귀속임대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정지운·김주현(2014), 장민(2019), 김태완 외(2020)의 순자산의 연금화 방법은 소득화되는 자산의 규모가 기대여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효과를 과대계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자산의 소득화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포괄소득화와 연금화를 모두 고려하여 자산의 소득화를 통한 노인빈곤을 분석함.
- 포괄소득화 방법으로는 Wolff and Zacharias(2009)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자산을 유형별로 포괄소득화하여 분석하고자 함.
 - 본 절에서의 분석 기준이 되는 포괄소득은 ‘처분가능소득+①자산을 소득화한 금액-재산소득-②이자 비용’으로 정의하고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이를 나누어 균등화하여 분석함.
 - ①자산을 소득화한 금액-재산소득의 경우 소득-자산순가치의 분석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기 위함임.
 - ②이자 비용의 경우 소득-자산순가치 분석 방법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소득화하기에 부채로 인한 비용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Wolff and Zacharias(2009)에서는 부채를 연금화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포괄소득화 시에는 자산을 연금화하지 않기에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음.
 - 가계의 자산은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실물자산은 주거용 부동산(거주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거주 주택 외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포괄소득을 이용해 산출된 노인빈곤율은 노인층의 보유 자산을 소모하는 방법 대신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아는 자산을 활용한 노인빈곤율 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라 할 수 있음.
 - 노인층이 연금화를 통해 보유 자산을 소모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노인빈곤율이 더 낮아질 수 있기에 포괄소득을 이용해 산출된 노인빈곤율은 자산을 활용했을 때의 노인빈곤율의 상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를 다르게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분석하였고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한계상 이를 간소화하여 적용하였음.
 - 기준 분석 방법으로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은 각각 귀속임대료 화하고,

기타 실물자산은 소득화하지 않으며 금융자산은 조사 항목 중 이자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함.

-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대부분 이미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의 위험에 대한 기피 정도와 능력 등에 따라 소득이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된 이자 소득을 직접 이용함.
- Luxembourg Wealth Study Database(LWS)를 이용한 국제 비교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은 귀속임대료화, 그 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설문에서 수집된 재산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함.

□ 귀속임대료 계산 방법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은 최경진·임병권(2020)의 임대료 상당액 방법을,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수욱 외(2015)의 사용자 비용 방법을 통해 계산함.

- 주거용 부동산의 귀속임대료의 경우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임대료 상당액 방법을 통해 계산된 임대료 상당액이 표본 내 가구 간의 주택 가격의 이질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세는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 시장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자가 거주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계산하였음.
-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유형, 보유 지역, 임대 시장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에 사용자 비용 방법을 통해 계산함.

□ 주거용 부동산의 귀속임대료 분석을 위한 최경진·임병권(2020)의 임대료 상당액 방법은 귀속임대료를 거주 주택 매매가격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의 곱으로 계산함.

- 최경진·임병권(2020)의 임대료 상당액 방법은 정규승 외(2017)의 방법을 바탕으로 자가 거주외의 경우 전세가율 대신 주택 매매가격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의 곱을 이용하고 이를 전월세전환율과 곱하여 귀속임대료를 계산함.
- 본 절에서 전세의 경우 정규승 외(2017), 최경진·임병권(2020)의 방법을 응용하여 전세 보증금과 (전월세전환율-기준 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출함.
- 한국부동산원의 매해 3월 주택 유형별, 지역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과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하여 이를 계산함(부록 A-1 참조).
- 주택 유형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그 외로 지역은 수도권과 그 외로 분류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귀속임대료 분석을 위한 이수욱 외 (2015)의 사용자 비용 방법의 사용자 비용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C_i = V_i[(1 - \tau_1)\alpha i_h + (1 - \tau_2)(1 - \alpha)i_c + \tau_p + \delta + \theta - \pi_i]$$

- V_i 는 거주 주택 시가, τ_1 은 한계소득세율, α 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i_h 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τ_2 는 이자 소득세율, i_c 는 금융자산 수익률, τ_p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 δ 는 감가상각 비율, θ 는 위험프리미엄, π_i 은 거주지역 주택 매매 가격 예상 상승률을 의미함.
- 이수욱 외 (2015)를 따라 한계소득세율은 20%, 주택 가격 대출금 잔액 비율은 40%, 이자 소득세율은 15.4%, 실효세율은 0.2%, 감가상각 비율은 2.5%, 위험프리미엄은 3%를 가정함.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신규대출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2022년 3월의 경우 3.84%)를, 금융자산 수익률로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2022년 3월의 경우 4.16%)을 이용함. (부록 A-1 참조)
- 주택매매 가격 예상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연간 주택매매 가격 변화율의 6년 평균치를 이용함.
 - 이수욱 외(2015)에서는 KB국민은행 매매가격지수의 전년도 주택매매 가격 변화율을 이용하였으나 2021~22년에 이례적으로 주택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 기간인 6년 평균치를 이용함.
- 강건성 검증을 위해 기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 방법을 고려하였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산을 활용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함.
 - 총 18가지(=3×2×3) 자산의 포괄소득화 방안을 고려하였고 모든 경우 빈곤율이 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남을 확인함.
 - 주거용 부동산의 포괄소득화 방안(3가지)
 - 임대료 상당액(기준 모형)
 - 사용자 비용
 - 헤도닉 가격 모형
 - 비주거용 부동산 포괄소득화 방안(2가지)

- 사용자 비용 방법(기준 모형)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임대소득 직접 이용
- 금융자산 포괄소득화 방안(3가지)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금융 소득 직접 이용(기준 모형)
 - 무위험 이자율 대체
 - 회사채 대체

□ 자산의 연금화는 기본적으로 Weisbrod and Hansen(1968)를 따라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소득과 자산을 통합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인 빈곤을 분석하였음.

$$Y_t^* = Y_t + A_t = Y_t + NW_{t-1} \frac{r}{1 - (1+r)^{-n}}$$

- Y_t^* 는 소득-순자산가치로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는데, 이는 현재의 소득(Y_t)과 순자산을 연금화(A_t)한 값의 합으로 정의됨.
- r 은 이자율, n 은 연금 수급기간을 의미함.
 - 순자산으로부터 연금(A_t)은 다음 식을 만족함.

$$(1+r)^n NW_{t-1} = A_t + (1+r)A_t + \dots + (1+r)^{n-1}A_t = \frac{(1+r)^n - 1}{r} A_t$$

- 관련 선행 연구들을 따라 연금 수급기간 n 은 기대여명으로, 이자율은 2%로 가정함 (김태완 외, 2020).
 - 선행 연구들에서는 2~10%의 다양한 이자율들을 고려하였는데 이자율은 분석 결과에 강건한 것으로 나타남(Kuypers and Marx, 2018).
 - 기대여명은 통계청의 「생명표」를 이용함.

□ 실증 분석에서는 노인빈곤을 통계의 기준이 되는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은 조사 연도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조사하고 자산의 경우 조사 연도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년도 말의 자산을 이용해야 하지만 분석에서는 조사 연도 3월의 자산이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하였음.

제3절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 빈곤 현황

- 자산의 포괄소득화는 자산을 소모하지 않고 이를 소득에 대응하는 가치로 변환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한 노인 빈곤 분석은 소득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고령층의 현재 경제적 상태를 보다 잘 파악하여 취약층을 식별하기 위함임.

1.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자산(대분류)은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중분류)으로 나눌 수 있고 보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저축, 보증금 등(세분류)으로 나눌 수 있음(표 3-1 참조).

- 기준 분석 방안에서의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 방안

- 실물자산

- 부동산 - 거주주택: 임대료 상당액 방법을 통한 귀속임대료화
- 부동산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사용자 비용 방법을 통한 귀속임대료화
- 부동산 - 계약금·중도금: 소득화하지 않음.
- 계약금·중도금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에서 전체 실물자산의 약 3% 이내를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치를 역산하여 소득화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소득화하지 않음.
- 기타 실물자산 : 소득화하지 않음.
- 기타 실물자산에 속하는 자동차, 고가 내구재의 경우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에만 현금화하기에 소득화하지 않음(Wolff and Zacharias, 2009).

- 금융자산

- 저축액: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소득 중 금융소득 이용
- 전·월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임대료 상당액 방법을 통한 귀속임대료화
- 전·월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소득화하지 않음.
-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전세와 달리 보증금을 이용하여 다른 유형의 주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소득화하지 않음.¹

1 분석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월세보증금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임대료 상당액 방법으로 소득화하였으

- 따라서 기준 분석 방법에서의 자산 유형별 소득화는 1) 부동산 - 거주주택(전세보증금 포함), 2) 부동산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3)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소득화함.

<표 3-1>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부채 항목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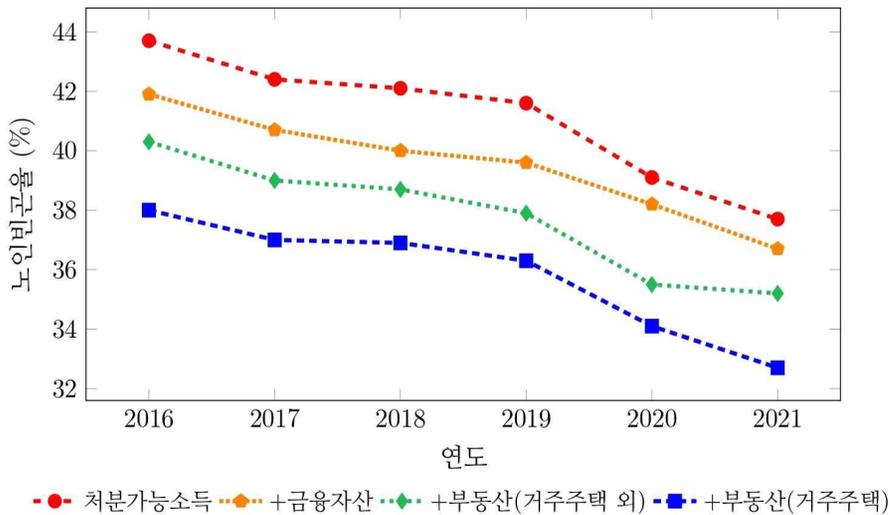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부항목	
자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당좌수표 포함)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저축성 보험 또는 만기에 일정금액을 받는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기타저축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갯돈	
		전·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계약금·중도금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자동차	•자동차	
	부채	금융 부채	담보대출	담보대출	•형태: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주택, 주택 이외 부동산, 예금·적금·보험·펀드·채권, 기타(전세권, 자동차 등)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외상 및 할부			•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임대 보증금		기타부채	기타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돈을 탄 후 낼 금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 	
	거주주택 임대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거주주택 이외 임대		•거주주택 이외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대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나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에 따른 빈곤 감소 효과는 1) 부동산 - 거주주택(전세보증금 포함), 2) 부동산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3) 금융자산 순으로 나타남(그림 3-1 참조).
 - 자산 유형별로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자산 유형을 소득화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함.
 - 그림 상에서 소득 기준 빈곤율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빨간색 동그라미 점선)과 다른 선 간의 차이를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 빈곤 감소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금융자산을 소득화하였을 때는 약 2%,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소득화하였을 때는 약 4%, 거주주택을 소득화하였을 때는 약 6%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가 나타남.
 - 소득 빈곤 노인 중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빈곤층에서 제외될 고령층이 많음을 의미함.
 - 이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 대부분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음.

[그림 3-1] 자산 유형별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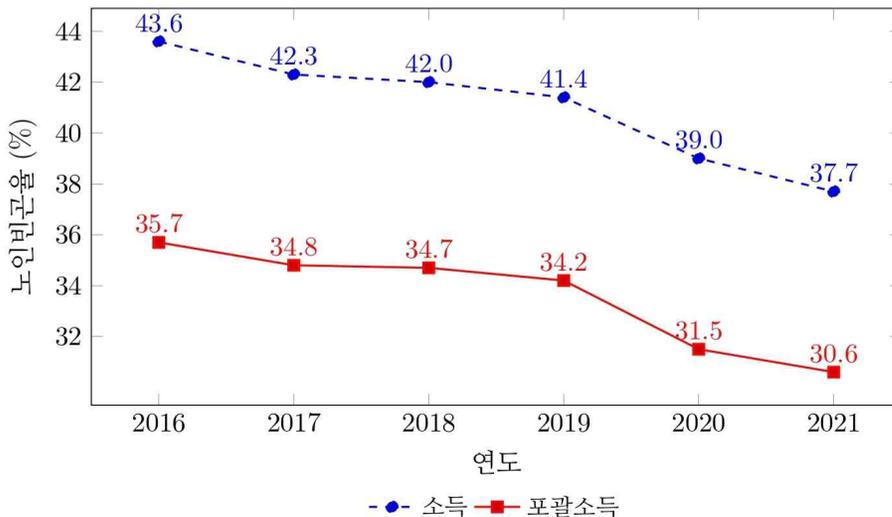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 보유 자산을 유형별로 포괄소득화하여 계산한 노인빈곤율은 기존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그림 3-2 참조).
 -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가계 보유 자산 중 부동산(거주주택), 부동산(거주주택 외), 금융자산을 각각 소득화한 후에 소득에 포함된 포괄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함.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²은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5.9%p 감소하였고,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35.7%에서 2021년 30.6%로 5.1%p 감소하였음.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간의 격차는 2016년 7.9%p에서 2021년 7.1%p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을 소득화한 포괄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한 노인빈곤율도 30%대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2] 포괄소득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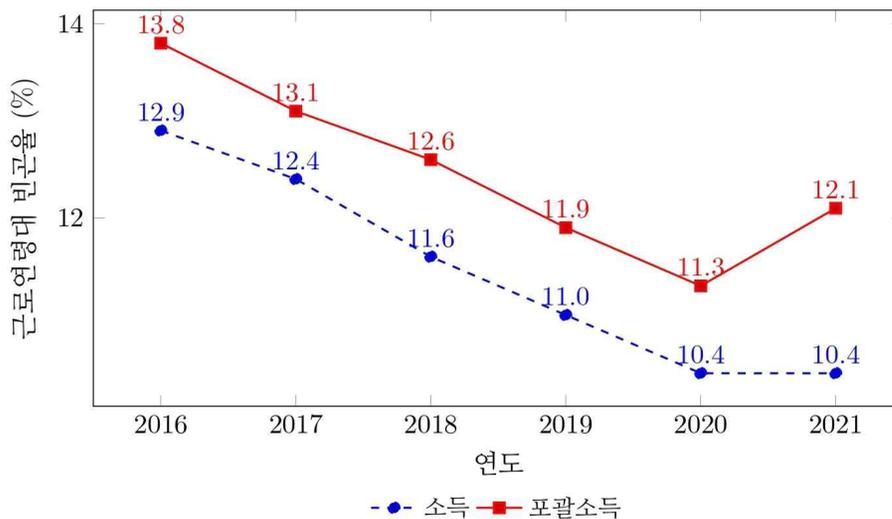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² 본고에서 소득 기준 빈곤율 또는 소득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빈곤율을 의미함.

- 반면 근로 연령대(18~64세) 빈곤율은 자산을 함께 고려했을 때 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적게나마 높게 나타남(그림 3-3 참조).
 - 자산을 고려했을 때 고령층과 근로 연령대의 빈곤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근로 연령대 보유 자산보다 많음을 의미함.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생애 주기 동안 개인의 자산 축적에 관한 실증 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유 자산은 고령층에 접어들 때까지 축적되다 그 후 감소하기 시작함(Poterba, 2001; 최경수 외, 2003).

[그림 3-3] 포괄소득 근로 연령대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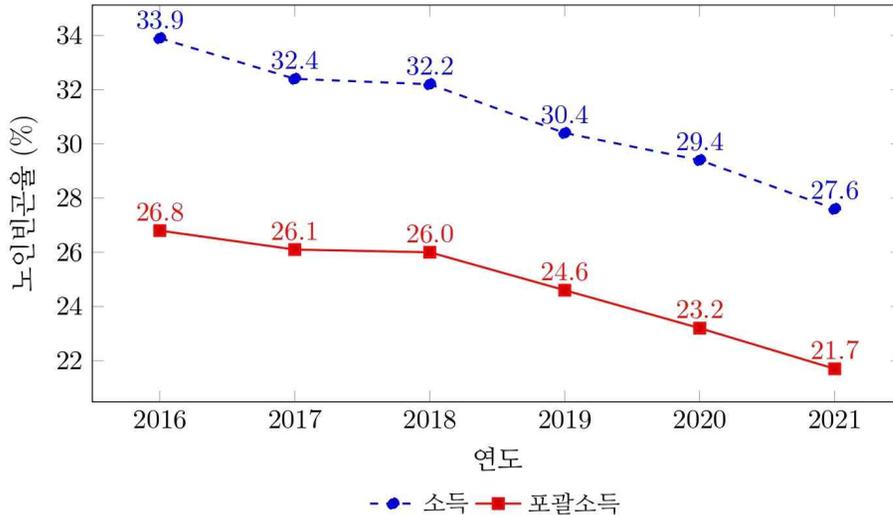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자산을 포괄소득화하여 계산한 노인빈곤율은 연령대별(연소 노인, 65~74세; 고령 노인, 75~84세; 초고령 노인, 85세 이상)로 다르게 나타남.
- 연소 노인(65~74세)의 경우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간의 격차가 적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율이 낮음(그림 3-4 참조).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33.9%에서 2021년 27.6%로 6.3%p 감소하였고,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26.8%에서 2021년 21.7%로 5.1%p 감소하였음.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간의 격차는 2016년 7.1%p에서 2022년 5.9%p로 나타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포괄소득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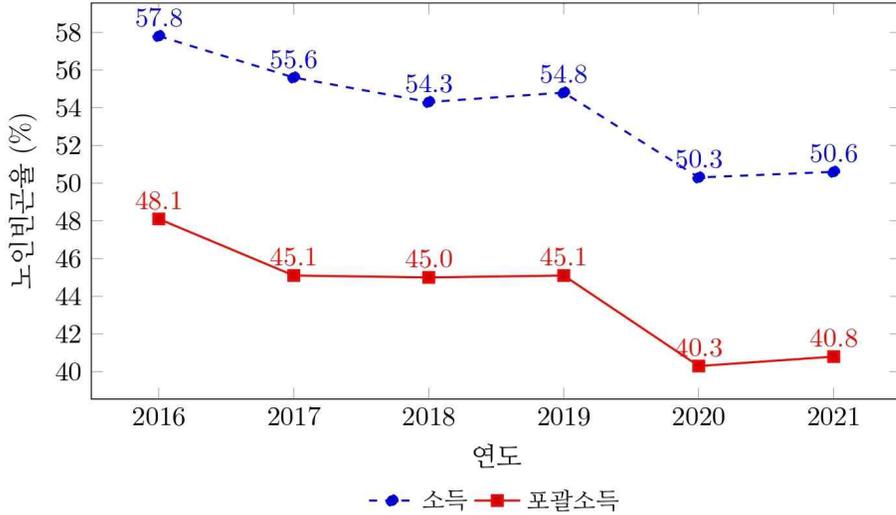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고령 노인(75~84세)의 경우 연소 노인(65~74세)과 비교했을 때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모두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그림 3-5 참조).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57.8%에서 2021년 50.6%로 7.2%p 감소하였고,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48.1%에서 2021년 40.8%로 7.3%p 감소하였음.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간의 격차는 2016년 9.7%p에서 2022년 9.8%p로 두 빈곤율 간 격차가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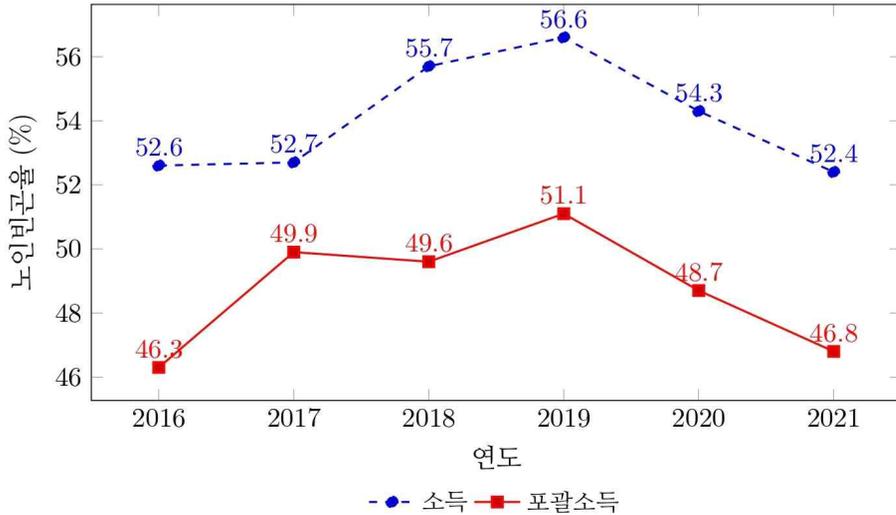
[그림 3-5] 포괄소득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을 모두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그림 3-6 참조).

[그림 3-6] 포괄소득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52.6%에서 2019년 56.6%로 4.0%p 증가하였다가 2021년 52.4%로 4.2%p 감소하였고,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도 이와 유사하게 2016년 46.3%에서 2019년 51.1%로 4.8%p 증가하였다가 2021년 46.8%로 4.3%p 감소함.
 -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간의 격차는 2016년 6.3%p에서 2022년 5.6%p로 나타나 격차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소 노인(65~74세) 노인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점차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 기준 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빈곤율 모두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베이비 붐 세대는 경제 발전과 교육 확대, 영양 섭취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의해 현재의 고령(75~84세), 초고령 노인(85세 이상)보다 교육, 건강 수준이 높음(이철희, 2022)
 - 최장훈 외 (2017)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후 보유한 순자산을 활용하면 빈곤층에 속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평가함.
- 고령(75~84세), 초고령(8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높고 자산을 고려했을 때 고령(75~84세) 노인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초고령(8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고령(75~84세) 노인빈곤율은 자산을 활용하여도 40%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소득과 포괄소득 기준 빈곤율 간의 격차가 10%p대로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격차는 연소 노인(65~74세)과 마찬가지로 고령 노인(75~84세)에게서도 자산을 활용하여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노인들이 다소 존재함을 의미함.
 - 분석에서의 자산의 소득화 방법은 보유 자산을 전혀 소모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만을 이용하였기에 자산을 연금화하거나 소모한다면 노인빈곤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초고령(8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자산을 활용하여도 50%에 가까우며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초고령층(85세 이상)에서 소득 기준 빈곤율과 포괄소득 기준 빈곤율이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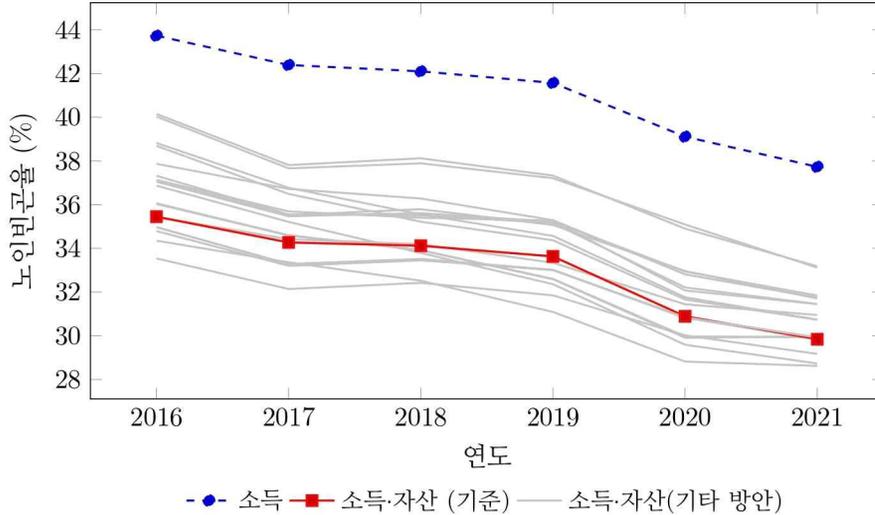
이 둘 간의 격차가 다른 연령층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은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도 물질적인 부족을 겪는 노인층이 대다수임을 의미함.

- 특히 초고령층(85세 이상)은 주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혜 대상이 아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독거노인이 많은 등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기가 힘든 연령층으로 정책 대응이 시급함.
- 분석에서의 자산의 소득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귀속임대료로 고령(75~84세),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의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주거가 이들 연령층에 주거가 불안정한 노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정을 위해 가계 자산 중 주거용 부동산(거주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거주 주택 외 부동산), 금융자산을 포괄소득화하는 여러 방안들을 고려함(그림 3-7 참조).

- 포괄소득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각 방법들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어떠한 방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려움.
-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총 18가지의 포괄소득화 방안을 고려하여 각 방안마다 노인빈곤율을 계산함(그림 3-7 상의 회색 선).
- 주거용 부동산의 포괄소득화 방안(3가지)
 - 임대료 상당액(기준 모형)
 - 사용자 비용
 - 헤도닉 가격 모형
- 비주거용 부동산 포괄소득화 방안(2가지)
 - 사용자 비용 방법(기준 모형)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임대소득 직접 이용
- 금융자산 포괄소득화 방안(3가지)
 -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금융 소득 직접 이용(기준 모형)
 - 무위험 이자율 대체
 - 회사채 대체
- 각 포괄소득화 방안을 통해 도출된 노인빈곤율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가 포괄소득화 방안에 강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 소득·자산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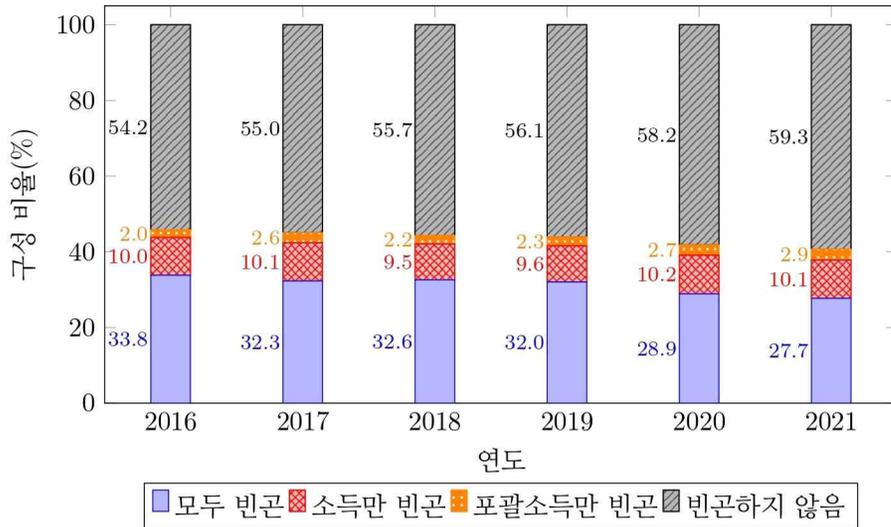
3. 노인 빈곤층 구성

□ 본 연구에서의 자산의 포괄소득화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소득 빈곤 노인 중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적절히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분석 기간 동안 전체 노인의 약 40%가 소득 기준 빈곤층에 속하지만, 자산을 포괄 소득화하였을 때 이들 중 약 25%(전체 노인 기준 약 10%)가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8 참조).
- 막대 그래프 상 파란색(민무늬)은 소득 기준, 포괄소득 기준 모두에서 빈곤한 노인, 빨간색(체크무늬)은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하지만, 포괄소득 기준에서는 빈곤하지 않은 노인, 주황색(점무늬)은 포괄소득 기준으로는 빈곤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 검은색(대각선무늬)은 두 기준 모두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을 의미함.
 - 일반적인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파란색(민무늬)과 빨간색(체크무늬)의 합임.
 -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파란색(민무늬)과 주황색(점무늬)의 합임.
 - 따라서 포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 빈곤율에서 빨간색(체크무늬)을 제외하고 주황색(점무늬)을 포함한 것과 일치함.

- 자산을 포괄소득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매년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 정도가 소득은 낮으나 자산은 많은 노인층(빨간색(체크무늬))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소득을 기준으로는 빈곤하지 않으나 자산이 적은 노인(주황색(점무늬))은 매년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 정도로 적음.

[그림 3-8] 노인 빈곤유형별 구성(전체 노인)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유사한 추세가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나며 자산의 포괄소득화를 통해 분석했을 때 연소 노인(65~74세)의 경우 약 9%, 고령 노인(75~84세)의 경우 약 13%,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의 경우 약 8% 정도가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을 포괄소득화했을 때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부록 A-2 참조).

4. 소득, 자산, 소비지출 비교

- 자산의 포괄소득화를 통해 식별한 빈곤층과 다른 노인층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체 노인, 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 포괄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의 소득, 자산 그리고 소비지출을 비교 분석함.

- 포괄소득 기준으로 설정한 빈곤층이 잘 식별되었다면 기존 소득 기준 빈곤층에 비해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포괄소득 기준 빈곤층은 소득 기준 빈곤층과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유사하나 보유 자산은 적음.
 - 포괄소득 기준 빈곤층 내의 자산 격차는 소득 기준 빈곤층 내의 자산 격차보다 적음.

□ 노인 빈곤층은 개인 단위로 집계되었고 본 분석에서의 소득, 소비지출은 균등화하였고 자산은 균등화하지 않고, 가구 전체 자산을 이용함.

- 노인 빈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소득(또는 자산을 포함한 소득)은 균등화(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된 소득으로 개인 단위로 빈곤층 포함 여부를 분석하였고 소득, 소비지출 모두 균등화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자산은 소비적인 관점에서 가구 내의 공공재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한 가구원이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가구원의 사용 가능한 자산을 감소하지 않기에 균등화하지 않고 가구 단위로 비교함.
 -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모든 가구원은 10억원인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효용을 얻고 한 가구원이 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다른 가구원이 사용가능한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음.
 - World Bank와 Luxembourg Wealth Study 등에서도 자산을 분석할 때는 균등화하지 않고 가구 단위로 분석함.
 - 2장에서의 분석은 가구 단위가 아닌 자산을 균등화하여 이용하였는데 이는 자산을 소득화한 후에 균등화하기 때문에 자산을 소득화하였을 때의 대략적인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보여주기 위함임.

□ 전반적으로 소득 기준 노인 빈곤층과 포괄소득 노인 빈곤층은 평균적인 소득과 소비지출 양상은 비슷하나 평균 보유 자산에서 큰 차이를 보임.³(그림 3-9, 3-10, 3-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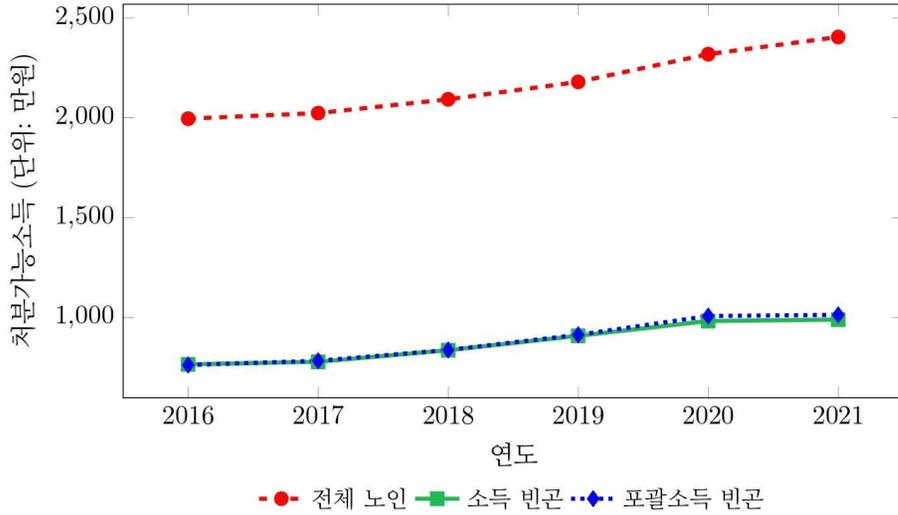
- 매년 전체 노인 평균 연령은 74세 정도이고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인데 반해 소득 빈곤층과 포괄소득 빈곤층 모두 평균 연령이 76~77세, 평균 가구원 수는 약 1.7명

³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6~2021년 전체 노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수록함(부록 A-3 참조).

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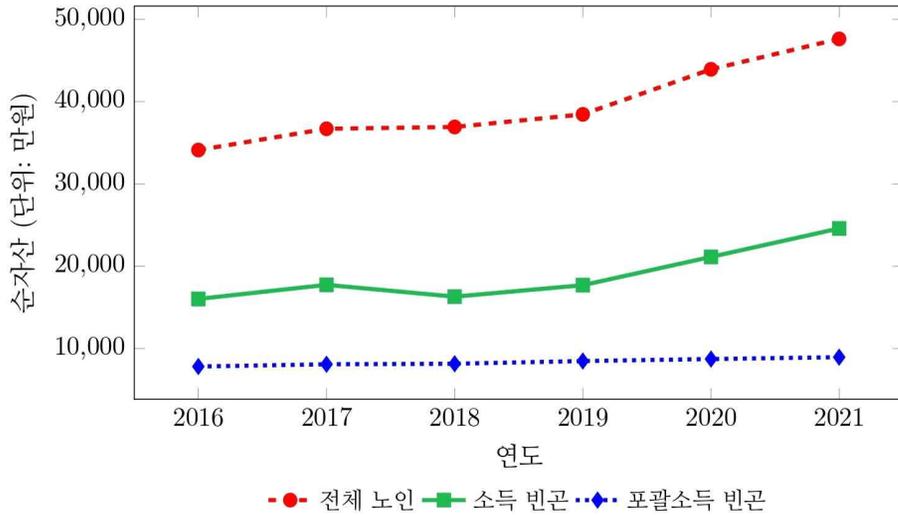
- 두 빈곤층 모두 평균 연령이 전체 노인에 비해 높고 평균 가구원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평균 연령과 가구원 수는 차이가 거의 없음.
- 두 빈곤층 모두 경상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구성 항목에서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 평균 소득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 소득 빈곤층과 포괄소득 빈곤층의 간의 소득 차이는 작게 나타나 두 집단 간의 평균적인 소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소비지출의 경우 두 빈곤층 모두 전체 노인의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소비하고 있고 두 빈곤층의 평균적인 소비 규모는 유사함.
 - 포괄소득 빈곤층의 평균 소비 규모는 소득 빈곤층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식료품비, 의료비, 기타 소비 등에서 소비가 낮게 나타남.
- 소득 빈곤층과 포괄소득 빈곤층 간 평균적인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는 유사하나 보유 자산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남.
 - 이는 포괄소득 빈곤층이 소득 빈곤층 중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을 식별해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포괄소득 빈곤층의 자산 구성 비율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약 1:3 정도의 비율이지만 소득 빈곤층과 전체 노인에게서는 그 비중이 약 1:5 정도로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 포괄소득 빈곤층은 생애 전반에 걸쳐 다른 집단의 노인층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고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의 경우 보유하기 위해 큰 금액이 들기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현저한 보유 자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빈곤층 간 소득, 소비지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고령층이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분석의 기준이 되는 방법인 자산을 소득화하여 포함한 경우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전체 노인과 두 빈곤층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소득 빈곤층과 포괄소득 빈곤층 간의 격차도 드러남(그림 3-12 참조).
 - 자산을 포괄소득화하여 포함한 경우의 포괄소득은 실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었던 가치의 총합이 아니라 소비될 수 있었던 가치의 총합이기에 값의 크기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9] 노인층 평균 소득(전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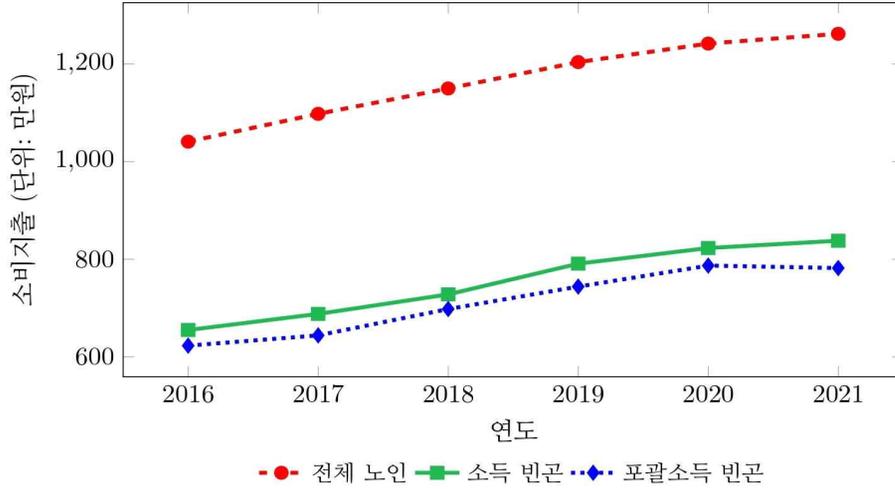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0] 노인층 평균 자산(전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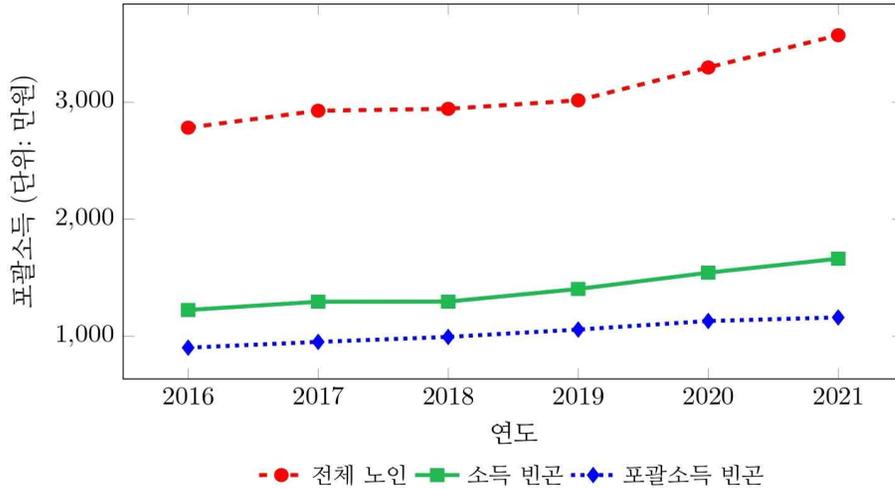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1] 노인층 평균 소비지출(전체 노인)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2] 노인층 평균 포괄소득(전체 노인)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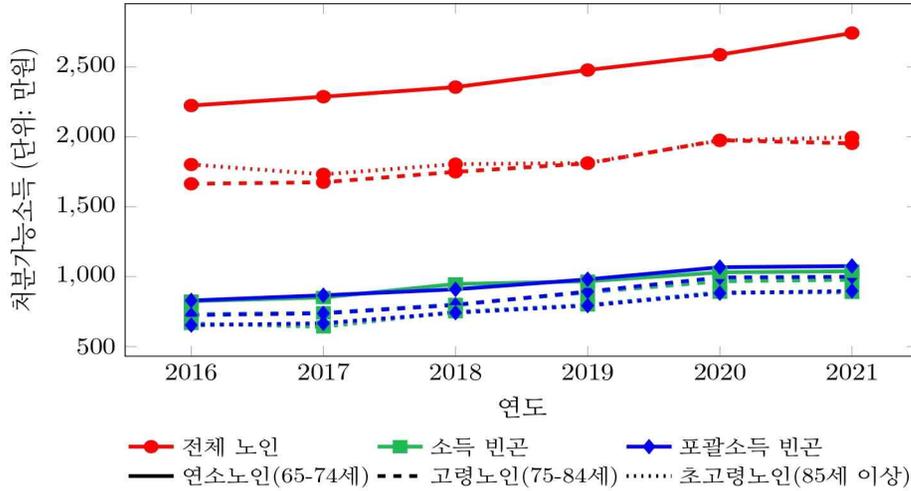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소득, 자산, 소비지출을 비교했을 때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두 빈곤층 모두 소득, 소비지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유 자산에서 차이가 드러남.(그림 3-13, 3-14, 3-15 참조)

- 각 연령대 전체 평균 소득은 연소 노인(65~74세), 초고령 노인(85세 이상), 고령 노인(75~84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 기준과 포괄소득 빈곤층의 경우 평균 소득은 연소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 순으로 높아 나이에 따라 평균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체 노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빈곤층 모두 소득의 절반 정도를 공적 이전 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 각 연령대 평균 보유 자산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연소 노인(65~74세) 평균 보유 자산은 고령 노인(75~84세),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평균 총자산은 연소 노인(65~74세) 약 6억 3천만원, 고령 노인(75~84세) 약 4억 9천만원, 초고령 노인(84세 이상) 약 4억 8천만원
 - 소득 빈곤층의 평균 총자산의 경우 연소 노인(65~74세)이 약 3억 3천만원, 고령 노인(75~84세) 약 2억 7천만원, 초고령 노인(85세 이상) 약 1억 8천만원으로 연령대 별로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남.
 - 포괄소득 빈곤층의 평균 총자산은 연소 노인(65~74세)이 약 1억원, 고령 노인(75~84세)이 약 1억 천만원, 초고령 노인(85세 이상) 약 8천만원으로 연령대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자산을 함께 고려한 포괄소득 기준이 일정 규모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을 빈곤층으로 잘 식별해내고 있음을 의미함.
- 평균 소비지출 규모 또한 연소 노인(65~74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두 빈곤층의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전체 평균보다 적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 평균적인 소득, 자산, 소비지출을 보았을 때 연소 노인(65~74세)은 고령(75~84세), 초고령(85세 이상)에 비해 물질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
 - 이는 고령층에 접어든 전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영향으로 보임.
 -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이전 세대와 다르게 더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에 향후 노인 빈곤 연구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4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6~2021년 각 노인 연령층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수록함(부록 A-4, A-5, A-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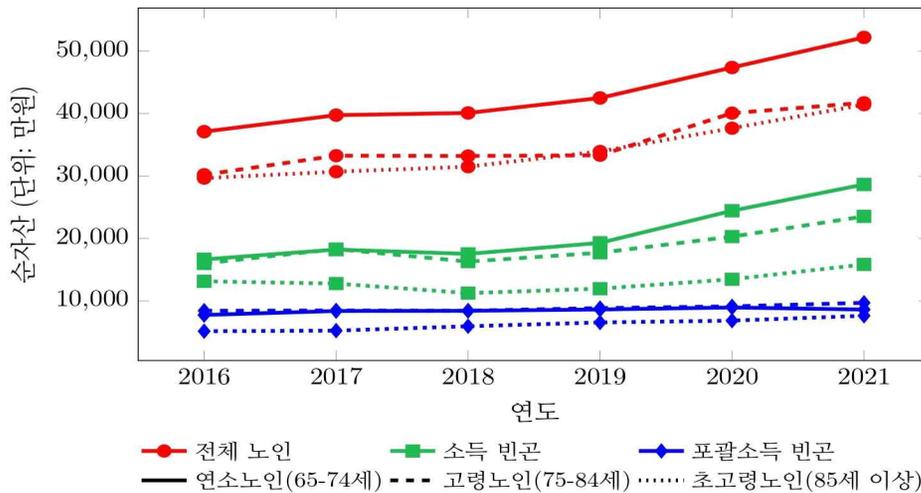
- 전체 노인과 두 빈곤층 간의 차이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는 앞서 전체 노인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함.

[그림 3-13] 노인층 평균 소득(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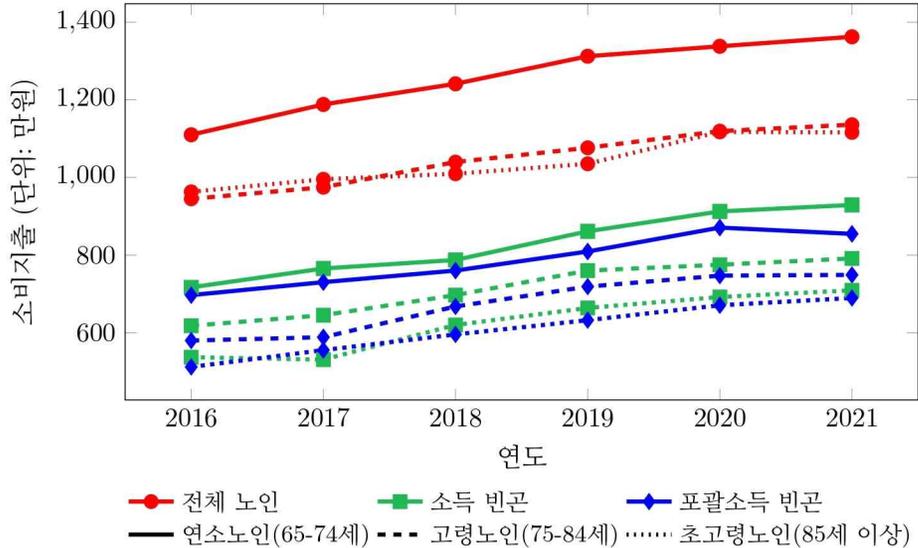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4] 노인층 평균 자산(연령대별)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5] 노인층 평균 소비지출(연령대별)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고령층 내 소득과 소비지출에 비해 자산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소득, 소비지출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자산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음(표 3-2 참조).

- 계층 간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등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변동계수, P90/P10, P50/P10을 이용하였음.
 -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집단 내의 전반적인 산포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됨.
 - P10은 제1십 분위 수로 하위 10% 계층의 상한값을 의미하고, 제9십 분위 수인 P90은 상위 10% 계층의 하한값을 의미하며 P50은 중윗값을 나타냄.
 - P90/P10은 하위 10% 계층의 상한값 대비 상위 10% 계층의 상한값으로 상위 10% 계층과 하위 10% 계층 간의 격차를 측정함.
 - 유사하게 P50/P10은 하위 10% 계층의 상한값 대비 중윗값으로 중간계층과 하위 10% 계층 간의 격차를 측정하는 데 이용됨.
 - 앞에서의 분석에 이용된 세부 항목 중 0의 값을 가지는 항목들이 있기에 경상소득, 순자산, 소비지출 총액을 중심으로 매년 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계산하여 분석함.

- 고령층 내 소득과 소비지출은 전체 노인과 두 빈곤층 모두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산에서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남.
- 전체 노인의 순자산 변동계수에 비해 소득 빈곤층의 순자산 변동계수가 큰 것은 자산을 추가로 이용했을 때 소득 빈곤층 집단 내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반대로 포괄소득 빈곤층의 순자산 변동계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이는 포괄소득 빈곤층에서 자산의 이질성이 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 두 빈곤층에서 P50/P10과 P90/P10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극심한 빈곤 상태의 빈곤층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P90/P50 같은 지표를 고려한다면 포괄소득 빈곤층에서 자산 격차는 다른 집단들보다 낮게 나타남.

<표 3-2> 계층 내 소득, 자산, 소비지출 격차(전체 노인)

(단위: 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처분가능소득							
전체 노인	변동계수	0.98	0.99	0.91	0.87	0.84	0.85
	P50/P10	2.64	2.70	2.50	2.40	2.24	2.36
	P90/P10	7.01	7.07	6.47	5.95	5.36	5.58
소득 빈곤	변동계수	0.36	0.36	0.32	0.32	0.28	0.31
	P50/P10	1.91	1.82	1.72	1.67	1.60	1.69
	P90/P10	2.88	2.78	2.50	2.38	2.15	2.30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46	0.41	0.36	0.39	0.38	0.37
	P50/P10	1.92	1.79	1.67	1.63	1.58	1.67
	P90/P10	3.11	2.99	2.60	2.49	2.27	2.51
2) 순자산							
전체 노인	변동계수	1.80	1.75	1.71	1.80	1.73	1.66
	P50/P10	19.57	19.42	21.61	19.65	21.42	21.84
	P90/P10	83.27	83.85	94.16	88.77	98.32	98.77
소득 빈곤	변동계수	1.75	1.92	1.47	1.58	1.76	1.89
	P50/P10	38.94	43.17	45.32	39.78	38.17	40.76
	P90/P10	182.61	202.40	207.16	189.74	210.49	248.52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1.27	1.23	1.21	1.35	1.36	1.31
	P50/P10	50.15	49.62	52.50	42.11	35.33	33.44
	P90/P10	193.00	194.95	211.00	172.30	156.13	150.00
3) 소비지출							
전체 노인	변동계수	0.66	0.67	0.65	0.61	0.58	0.58
	P50/P10	2.21	2.14	2.06	1.95	1.88	1.97
	P90/P10	4.90	4.57	4.39	3.96	3.69	3.78
소득 빈곤	변동계수	0.59	0.60	0.51	0.49	0.44	0.51
	P50/P10	1.92	1.85	1.70	1.65	1.63	1.68
	P90/P10	3.42	3.48	2.97	2.86	2.65	2.97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55	0.51	0.50	0.46	0.44	0.47
	P50/P10	1.91	1.86	1.67	1.63	1.62	1.65
	P90/P10	3.36	3.30	2.85	2.73	2.66	2.79

<표 3-2> 계층 내 소득, 자산, 소비지출 격차(전체 노인)(계속)

(단위: 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4) 포괄소득							
전체 노인	변동계수	1.11	1.08	0.99	0.97	1.00	1.08
	P50/P10	2.93	2.89	2.72	2.70	2.61	2.71
	P90/P10	7.89	7.71	7.31	6.68	6.52	7.01
소득 빈곤	변동계수	0.83	0.80	0.72	0.83	0.84	0.97
	P50/P10	2.00	1.93	1.78	1.83	1.73	1.77
	P90/P10	4.02	3.92	3.34	3.46	3.33	2.97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37	0.35	0.32	0.32	0.29	0.32
	P50/P10	1.90	1.81	1.68	1.73	1.68	1.68
	P90/P10	2.81	2.73	2.46	2.45	2.29	2.36

주: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 분 위주, 제5십 분 위주(중앙값), 제9십 분 위주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기존 소득만을 이용해 도출된 소득 빈곤층에서는 자산을 중심으로 강한 이질성이 나타나기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을 다시 분해할 필요성이 있음.
- 연령대별 분석 결과도 전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남(부록 A-7 참조).

5.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비교

-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연금제도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⁵⁾으로 함.
 -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정하는데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됨.
 - 소득인정액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하는 일반재산에 대해 공제액은 다르지만 자산의 소득환산율은 같게 설정함.
 - 고령층은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월 323,180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서 감액된 금액인 기초연금액을 수령함.

5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⁶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본 분석에서의 자산의 포괄소득화를 통해 식별한 빈곤층과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인정액 방식을 이용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간의 비교를 다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함.

- 자산·소득 빈곤층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 자산·소득 빈곤층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실수령액이 양(+)인 노인층으로 정의하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에서는 분석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67%의 노인층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소득 빈곤층 중 약 84%, 포괄소득 빈곤층 중 약 9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일반적으로 노인 빈곤층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빈곤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층이 존재함(표 3-3 참조).
 - 다수의 직역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빈곤층이면서 기초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에 대한 자산, 소득, 소비를 비교 분석함.
- 소득 빈곤층 중 기초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노인층은 소득은 다른 노인층에 비해

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접속일: 2023.4.30.).

낮지만, 자산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고자산 노인층을 잘 식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그에 반해, 포괄소득 빈곤층 중 기초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노인층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적은 수준만 보유하고 있음.
- 현행 소득 인정액 방법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저소득 저자산 노인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표 3-3> 빈곤층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소득, 자산, 소비(전체 노인)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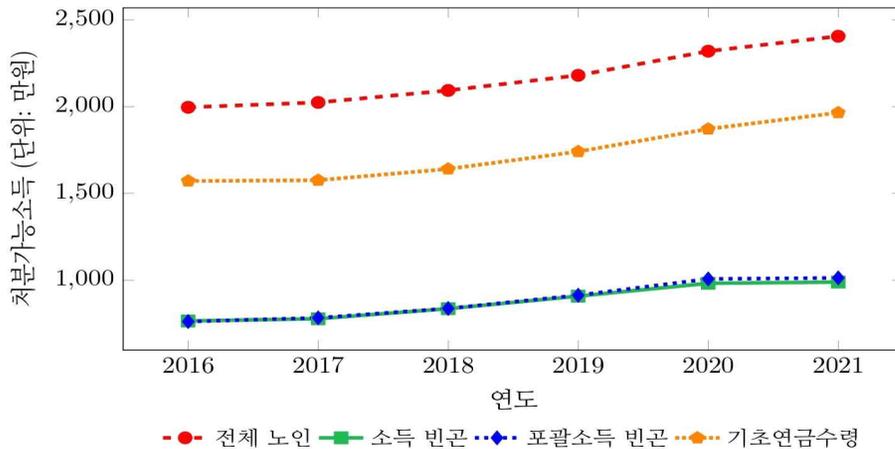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득 빈곤	자산	42,109	50,027	44,731	47,138	61,273	74,135
	소득	806	852	909	942	1,016	1,038
	소비	870	946	956	1,031	1,105	1,190
	소득·자산	2,076	2,318	2,290	2,459	2,815	3,274
포괄 소득 빈곤	자산	13,657	13,779	15,344	15,188	15,810	16,976
	소득	904	922	955	1,050	1,197	1,100
	소비	893	801	877	906	1,000	1,052
	소득·자산	977	1,099	1,103	1,129	1,191	1,254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전체 노인보다는 평균적인 소득, 자산, 소비 수준이 모두 낮지만, 소득 빈곤층, 포괄소득 빈곤층보다는 물질적인 삶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 3-17, 3-18 참조).
 - 기초연금 수급 대상층은 소득, 소비는 다른 빈곤층에 비해 높지만, 순자산의 경우 평균적인 수준이 소득 빈곤층과 유사함.
 - 자산을 소득화하였을 때는 다른 빈곤층들과 평균적인 소득·자산의 격차가 드러남 (그림 3-19 참조).
- 자산을 고려했을 때도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기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을 타겟팅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부 정책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을 축소화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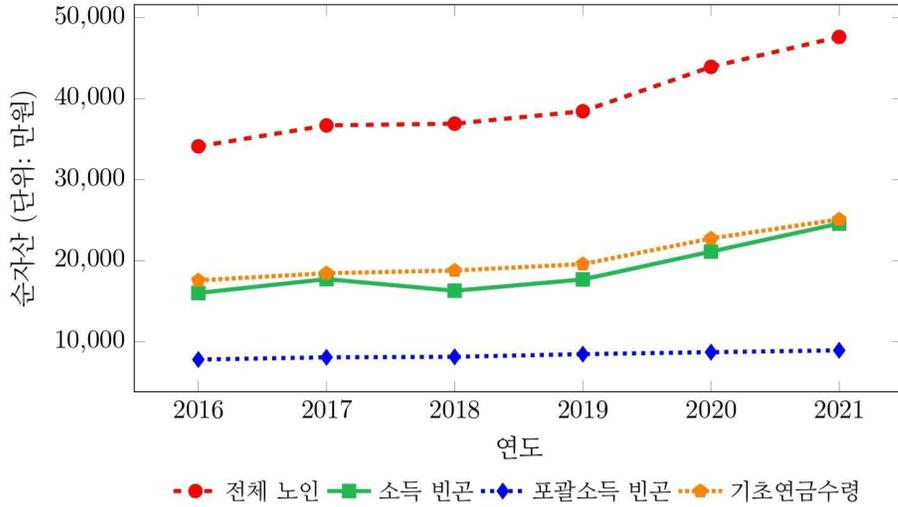
- 기초연금 현행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직전 해 노인빈곤율을 활용하여 수급 대상 기준을 선정하고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득 인정액 산정도 다양하게 분화하여 노인 빈곤층의 경우 보유 금융자산 비중이 다른 계층보다 큰 것을 고려하여 금융자산의 공제액을 더 크게 설정하거나 보유 자산 규모별/유형별로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한 노인 빈곤층에서는 자가가 없거나 혹은 열악한 수준의 자가만 보유하고 있어 거주가 불안정하므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용 자원의 관점에서 정부에서 빈곤층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에 주거 서비스에 이용되었던 금액만큼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어 가용 자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그림 3-16] 노인층 평균 소득(전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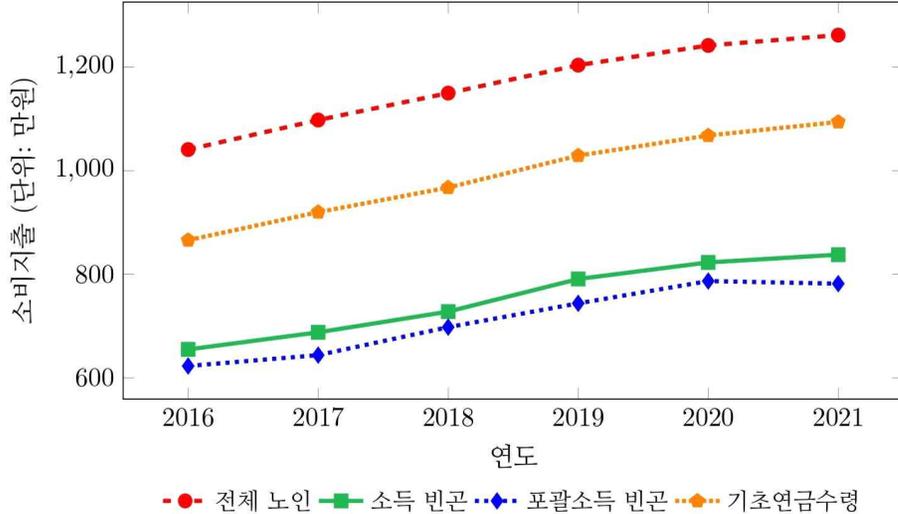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7] 노인층 평균 자산(전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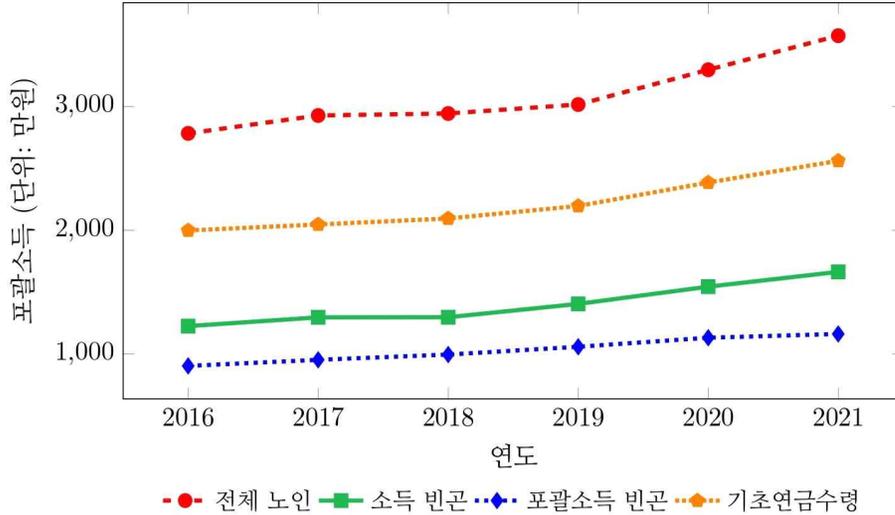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8] 노인층 평균 소비(전체 노인)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9] 노인층 평균 포괄소득(전체 노인)



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금액 조정.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생계 유지 가능 기간

□ 자산을 소득화하지 않고 빈곤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자산 빈곤선을 따로 설정하여 보유 자산이 빈곤선 아래 위치하면 자산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음.

- Balestra and Tonkin(2018), Haveman and Wolff(2004) 등에서는 자산 빈곤선을 연간 소득 빈곤선의 일정 비율로 정의함.

$$\text{자산 빈곤} : NW_{t-1} < \xi Z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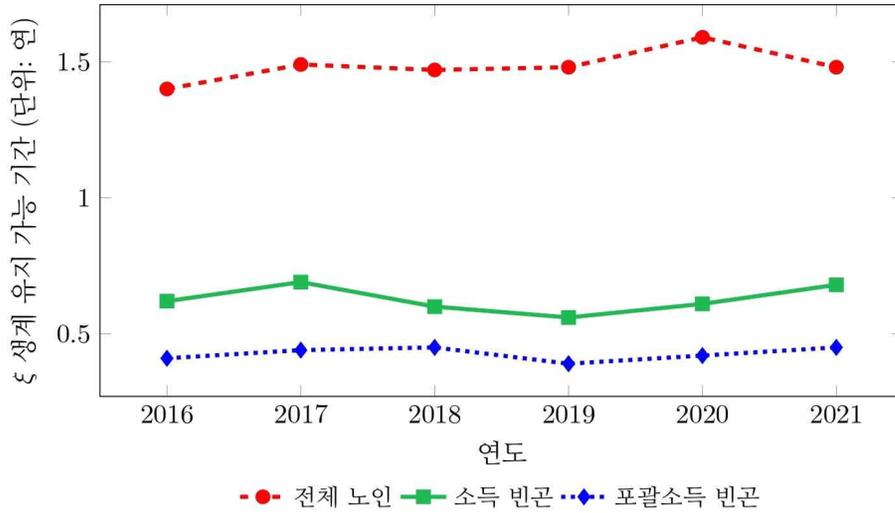
- NW 는 순자산, Z 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 ξ 는 연구에 따라 3개월(0.25) 혹은 6개월(0.5) 등으로 정의
- 이는 예상치 못한 건강 충격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 자산을 소모하여 생계 유지가 특정 기간(3개월, 6개월 등) 동안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자산 빈곤을 정의함.
- NW 는 순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유동 자산 등을 이용하기도 함(Balestra and Tonkin, 2018; Haveman and Wolff, 2004; 김태완 외, 2020).
- Z 는 최저생계비 등도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빈곤선 값(중위소득의 50%)을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용함.

- 본 절에서는 자산 빈곤층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과 순자산을 이용했을 때 고령층이 얼마나 오래 소득 없이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함.
 - 구체적으로 $\xi = NW_{t-1}/Z_t$ 로 정의하여 ξ 를 생계 유지 가능 기간(소득 없이 빈곤선 수준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의하고 전체 노인과 두 노인 빈곤층의 ξ 를 비교 분석함.
 -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은 금융 자산 중 전월세보증금과 기타 금융 자산(임차보증금, 빌려준 돈 등) 제외한 저축 금액으로 정의함.
 - Z_t 는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선 값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위해 NW_{t-1} 을 균등화하여 비교함.

-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만을 이용하여 생계 유지 가능 기간을 추정하였을 때 전체 노인 평균은 약 1.5년(≈18개월), 소득 빈곤 노인은 약 0.6년(≈7개월), 포괄소득 빈곤 노인은 약 0.4년(≈5개월)으로 나타남(그림 3-20 참조).
 - 예상치 못한 건강 충격이나 거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빈곤층은 현금화가 쉬운 유동성 높은 금융 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 5~7개월로 짧게 나타남.
 - 전체 노인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포괄소득 빈곤층은 자산을 활용하여 소득 충격을 완충하기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격에 대비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전체 노인 평균 생계 유지 가능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로 긴 기간은 아니지만 빈곤층을 제외하면 생계 유지 가능 기간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소득 저자산 노인층에 대한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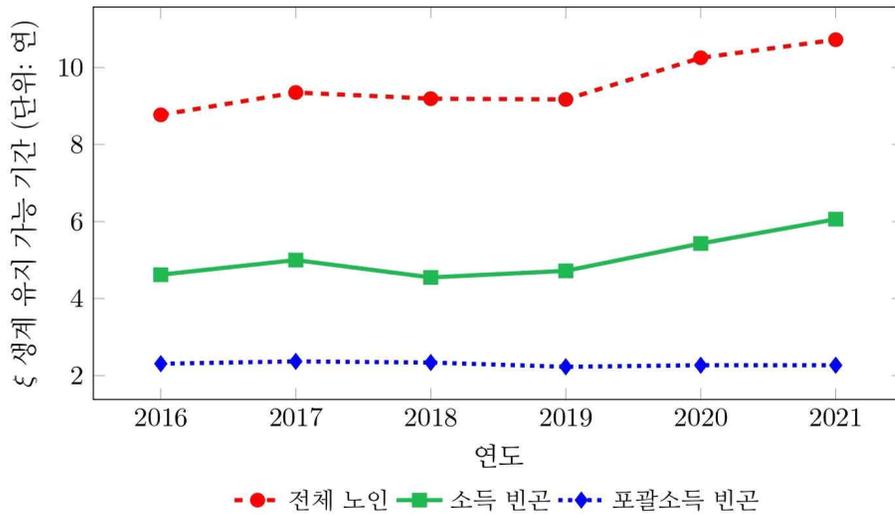
- 순자산을 이용하여 생계 유지 가능 기간을 추정한 결과 전체 노인은 약 9.6년, 소득 빈곤 노인은 약 5년, 포괄소득 빈곤 노인은 약 2.3년으로 나타남(그림 3-21 참조).
 - 순자산을 이용한 결과는 오랜 기간 정부의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가정에서 얻은 추정치이지만 이 결과는 빈곤층 간에도 자산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20] 생계 유지 가능 기간(유동, 금융 자산)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1] 생계 유지 가능 기간(순자산)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4절 자산의 연금화에 기반한 노인 빈곤 현황

- 자산의 연금화는 소득화와 달리 보유 자산을 소모하여 연금화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의 노인 빈곤 분석은 정부의 자산 활용 정책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층을 식별하기 위함임.

1. 노인 빈곤층의 자산 현황

- 자산을 포괄소득화하여 산출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3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이 보유한 자산을 연금화 등으로 소모하여 소득화하지 않는다면 빈곤율이 여전히 높게 집계됨을 의미함.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중장년기에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여 노년기에 이를 이용하여 소비하며 노년층이 자산을 소모하여 소비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임.
 - 남상호(2015)의 연령-자산, 연령-소득 프로파일 추정 결과, 순자산은 60세 전후까지 증가하다 그 후에 감소하고 소득은 그보다 전인 50세 부근에서 정점을 나타내고 있어 생애주기가설과 부합하는 실증 결과를 제시함.
 - 소득은 50세 부근의 정점을 지난 뒤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자산은 60세 부근의 정점을 지난 뒤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준우(2006)는 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령-자산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는데 연구에서의 분석 기간 동안 노인층이 된 광복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에서 60~65세 사이부터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함.
 - 또한 60~65세부터 일어나는 자산의 처분율을 분석한 결과 해외 연구들에서의 처분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Davies(1981)과 Hubbard et al.(1995)에서와 같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함.
 - 노인층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Davies(1981)은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산 처분을 꺼린다는 점과 Hubbard et al.(1995)는 은퇴 이후의 의료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제시함.

- 자산을 이용하여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빈곤선 아래에 있는 노인들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소득에 기반한 노인 빈곤층과 포괄소득에 기반한 노인 빈곤층의 자산은 규모와 구성 모두에서 다르게 나타남.
 - 앞 절에서의 분석 결과에서 포괄소득 빈곤층은 소득 빈곤층에 비해 자산의 규모도 작고 금융자산의 구성 비율이 실물자산의 구성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 본 절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빈곤층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함.
 - 자산: 저축금액, 기타 금융자산,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 부채: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주택 구입, 전월세보증금), 기타 담보대출(생활비 마련, 사업 자금 마련), 임대보증금

- 평균적으로 소득 기준 빈곤층과 포괄소득 빈곤층 모두 총자산에 비해 총부채가 적은 편이고 실물 자산 비중이 큼(표 3-4 참조).
 - 평균적으로 모든 연도에서 자산이 부채의 10배 이상 많게 나타남.
 - 자산에서는 부동산, 저축, 보증금이 전체 자산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노인 빈곤층의 총자산 대비 자산 항목의 상대 비율은 부동산, 저축, 보증금 순으로 나타남.
 - 소득 빈곤층에서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이상이고 포괄소득 빈곤층에서는 그 비중이 약 70% 정도로 나타남.
 - 그 범위를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한정하여 실물자산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 전월세보증금을 합하면 가계 전체 자산의 약 90% 정도로 가계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자산은 구성 항목 비중이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는 반면, 부채의 구성 항목 비중에서는 패턴이 잘 드러나지 않음.

<표 3-4> 빈곤층 자산, 부채 현황(전체 노인)

(단위: 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득 빈곤	자산	14,544	14,560	12,705	14,727	15,338	17,622
	저축	1,446 (9.9)	1,341 (9.2)	1,778 (14.0)	1,706 (11.6)	1,349 (8.8)	1,889 (10.7)
	기타 금융	32 (0.2)	42 (0.3)	20 (0.2)	18 (0.1)	17 (0.1)	43 (0.2)
	보증금	772 (5.3)	669 (4.6)	634 (5.0)	613 (4.2)	960 (6.3)	1,454 (8.3)
	부동산	12,152 (83.6)	12,400 (85.2)	10,095 (79.5)	12,198 (82.8)	12,870 (83.9)	14,142 (80.3)
	기타 실물	142 (1.0)	108 (0.7)	178 (1.4)	191 (1.3)	143 (0.9)	94 (0.5)
	부채	1,398	1,487	1,143	2,544	1,403	830
	부동산	445 (31.8)	406 (27.3)	291 (25.5)	883 (34.7)	402 (28.7)	133 (16.0)
	기타 대출	275 (19.7)	317 (21.3)	525 (45.9)	1,325 (52.1)	532 (37.9)	142 (17.1)
	보증금	678 (48.5)	764 (51.4)	328 (28.7)	336 (13.2)	469 (33.4)	554 (66.7)
포괄 소득 빈곤	자산	5,505	6,265	6,633	8,072	7,559	8,369
	저축	777 (14.1)	995 (15.9)	1,080 (16.3)	1,070 (13.3)	1,018 (13.5)	1,347 (16.1)
	기타 금융	55 (1.0)	48 (0.8)	24 (0.4)	3 (0.0)	2 (0.0)	41 (0.5)
	보증금	918 (16.7)	696 (11.1)	705 (10.6)	660 (8.2)	1,143 (15.1)	1,282 (15.3)
	부동산	3,700 (67.2)	4,418 (70.5)	4,711 (71.0)	6,203 (76.8)	5,300 (70.1)	5,649 (67.5)
	기타 실물	56 (1.0)	108 (1.7)	113 (1.7)	137 (1.7)	98 (1.3)	51 (0.6)
	부채	347	900	524	1,396	474	284
	부동산	178 (51.3)	133 (14.8)	259 (49.4)	239 (17.1)	166 (35.0)	115 (40.5)
	기타 대출	110 (31.7)	600 (66.7)	141 (26.9)	997 (71.4)	224 (47.3)	143 (50.4)
	보증금	59 (17.0)	166 (18.4)	124 (23.7)	160 (11.5)	84 (17.7)	25 (8.8)

주: 괄호 안은 총자산(총부채) 대비 해당 자산(부채) 항목의 상대 비율.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자산의 연금화 분석

- Weisbrod and Hansen(1968)은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소득과 자산을 통합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상태를 측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지운·김주현(2014)와 김태완 외(2020)이 이를 이용하여 노인 빈곤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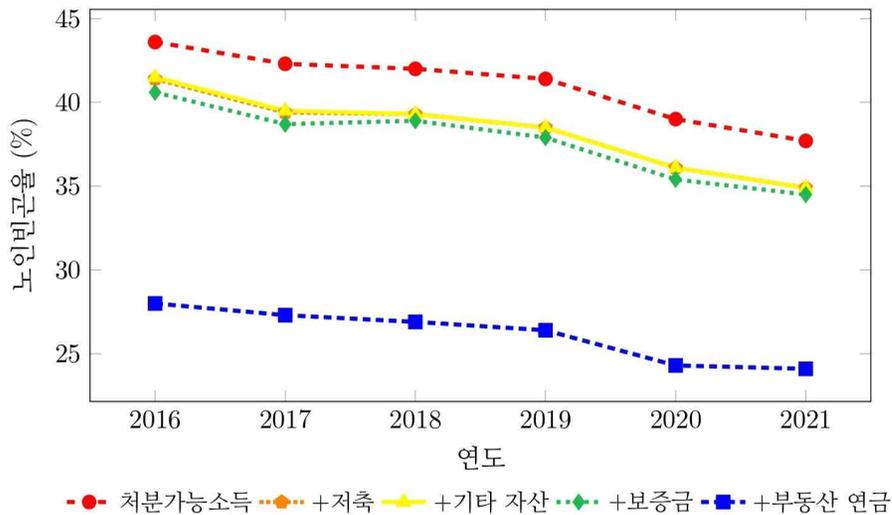
- 우선적으로 자산 유형별 연금화에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노인빈곤율을 산출함.
 - 자산을 유형별로 연금화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서 저축, 기타 자산(기타 금융, 기타 실물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전월세보증금, 실물자산 중 부동산)으로 연금화하는 것을 가정함.
 - 저축은 현금, 수시 입출식 저축, 적립식·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가장 유동성이 높으며 두 빈곤층 모두의 자산 구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임.
 - 부동산 관련 자산은 유동성이 낮고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물자산에서의 부동산은 빈곤층 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 많기에 가장 나중 순위로 연금화함.
 - 자산을 순서대로 연금화하면서 노인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
 - 연금수급기간은 가구주의 기대여명⁸으로 정의하였고 통계청 「생명표」 상 기대여명을 이용함.
 - 유형별 자산의 연금화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유형별 순자산이 아닌 자산을 연금화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자산을 연금화하였을 때 효과는 부동산과 저축은 노인빈곤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만 그 외 자산의 연금화로 인한 노인 빈곤 감소 효과는 미미함(그림 3-22 참조).
 - 저축만을 연금화하였을 때는 평균 3%p 정도의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였고 부동산만을 연금화하였을 때는 평균 12%p 정도의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였음.

7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고령층만 연금화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분석은 부록으로 수록함(부록 A-9 참조).
8 강건성 검증을 위해 고령층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금화한 경우에도 실증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연금화의 효과는 자산 규모와 비례하기 때문에 노인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저축을 연금화하였을 때 효과가 두드러지고 그 외 비중이 작은 자산의 경우 효과가 미미함(표 3-5 참조).
- 유형별 자산의 연금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순자산을 균등화하여 비교함.
- 고령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
- 소득 빈곤 노인의 경우에도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노인층과 근로연령층을 비교했을 때 노인층의 균등화된 부동산의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22]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5> 근로 연령층과 노인층의 균등화 자산, 부채 현황

1) 자산

(단위: 만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연령층	자산	24,451	26,876	28,087	29,261	33,019	36,914
	저축	4,542 (18.6)	4,896 (18.2)	5,137 (18.3)	4,986 (17.0)	5,333 (16.2)	5,842 (15.8)
	기타 금융	322 (1.3)	363 (1.4)	345 (1.2)	314 (1.1)	266 (0.8)	278 (0.8)
	보증금	1,577 (6.4)	1,709 (6.4)	1,767 (6.3)	1,959 (6.7)	2,228 (6.7)	2,546 (6.9)
	부동산	16,533 (67.6)	18,306 (68.1)	19,259 (68.6)	20,505 (70.1)	23,588 (71.4)	26,562 (72.0)
	기타 실물	1,476 (6.0)	1,603 (6.0)	1,579 (5.6)	1,497 (5.1)	1,604 (4.9)	1,686 (4.6)
전체 노인	자산	25,541	28,003	28,791	29,910	34,341	37,915
	저축	3,441 (13.5)	3,796 (13.6)	3,935 (13.7)	4,130 (13.8)	4,620 (13.5)	4,587 (12.1)
	기타 금융	133 (0.5)	139 (0.5)	126 (0.4)	121 (0.4)	135 (0.4)	116 (0.3)
	보증금	703 (2.8)	720 (2.6)	756 (2.6)	790 (2.6)	899 (2.6)	924 (2.4)
	부동산	20,469 (80.1)	22,315 (79.7)	22,985 (79.8)	24,018 (80.3)	27,684 (80.6)	31,250 (82.4)
	기타 실물	796 (3.1)	1,034 (3.7)	989 (3.4)	849 (2.8)	1,003 (2.9)	1,038 (2.7)
소득 빈곤 노인	자산	12,776	14,413	13,711	15,113	17,593	20,524
	저축	1,559 (12.2)	1,804 (12.5)	1,601 (11.7)	1,591 (10.5)	1,788 (10.2)	2,088 (10.2)
	기타 금융	25 (0.2)	32 (0.2)	43 (0.3)	29 (0.2)	26 (0.1)	57 (0.3)
	보증금	665 (5.2)	635 (4.4)	612 (4.5)	665 (4.4)	774 (4.4)	696 (3.4)
	부동산	10,357 (81.1)	11,744 (81.5)	11,262 (82.1)	12,618 (83.5)	14,704 (83.6)	17,453 (85.0)
	기타 실물	169 (1.3)	198 (1.4)	193 (1.4)	210 (1.4)	301 (1.7)	230 (1.1)

2) 부채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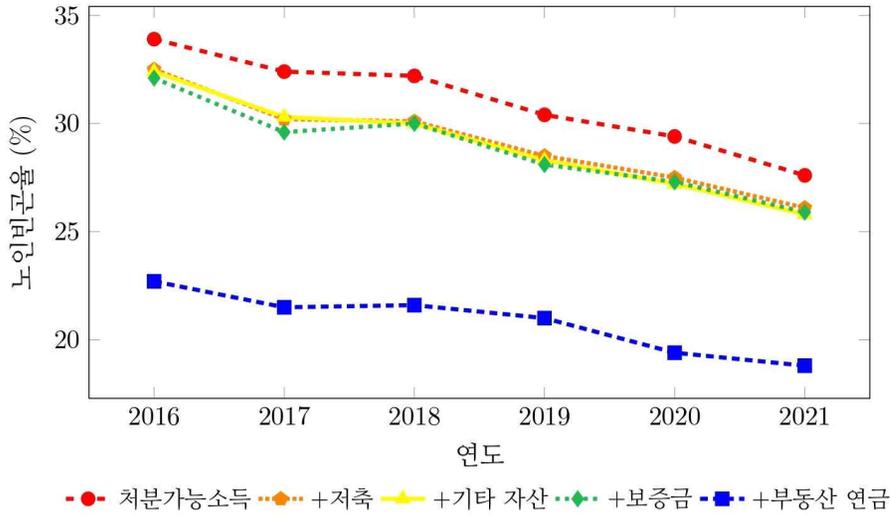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근로 연령층	부채	4,771	5,235	5,485	5,859	6,295	6,627
	부동산	2,284 (47.9)	2,498 (47.7)	2,650 (48.3)	2,873 (49.0)	3,164 (50.3)	3,491 (52.7)
	기타 대출	1,164 (24.4)	1,355 (25.9)	1,438 (26.2)	1,543 (26.3)	1,595 (25.3)	1,538 (23.2)
	보증금	1,323 (27.7)	1,382 (26.4)	1,398 (25.5)	1,443 (24.6)	1,536 (24.4)	1,599 (24.1)
전체 노인	부채	3,192	3,235	3,478	3,537	3,624	3,925
	부동산	1,083 (33.9)	988 (30.5)	1,019 (29.3)	1,030 (29.1)	1,061 (29.3)	1,300 (33.1)
	기타 대출	717 (22.5)	871 (26.9)	948 (27.3)	955 (27.0)	1,074 (29.6)	947 (24.1)
	보증금	1,392 (43.6)	1,376 (42.5)	1,511 (43.4)	1,552 (43.9)	1,490 (41.1)	1,679 (42.8)
소득 빈곤 노인	부채	1,001	1,176	1,178	1,540	1,308	1,321
	부동산	286 (28.6)	269 (22.9)	276 (23.4)	357 (23.2)	312 (23.9)	281 (21.3)
	기타 대출	251 (25.1)	290 (24.7)	325 (27.6)	401 (26.0)	395 (30.2)	383 (29.0)
	보증금	464 (46.4)	616 (52.4)	577 (49.0)	782 (50.8)	601 (45.9)	656 (49.7)

주: 괄호 안은 총자산(부채) 대비 해당 자산(부채) 항목의 상대 비율.
 자료: 2017년~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각 연령대별 분석 결과도 전체 노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저축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자산은 연금화했을 때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23, 3-24, 3-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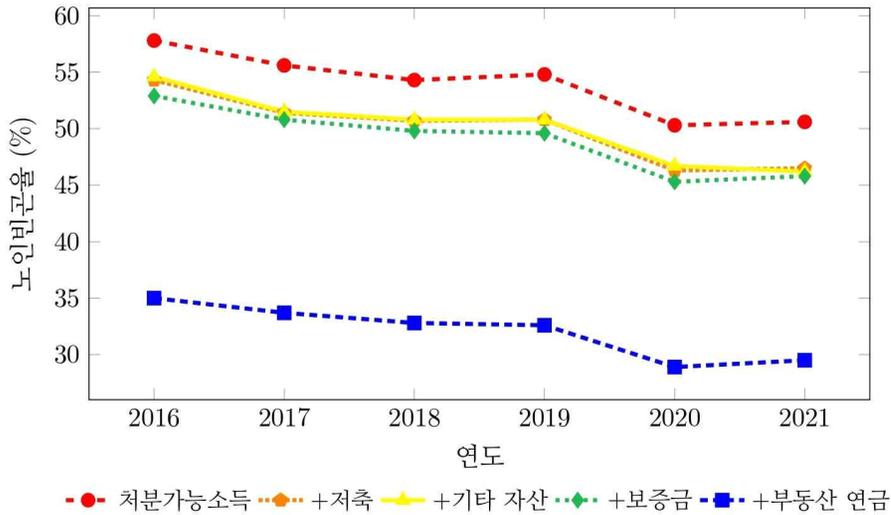
- 고령 노인과 초고령 노인층에서 자산, 특히 부동산을 연금화하였을 때 빈곤율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크게(약 10~15%) 나타나지만 이는 단순히 기대여명이 짧아 자산의 큰 부분을 소득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 고령 노인과 초고령 노인층에서 기타 자산을 연금화하여 포함하였을 때 빈곤율이 소폭 상승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 연령층에서 차량, 고가 내구재, 회원권 등의 기타 자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림 3-23]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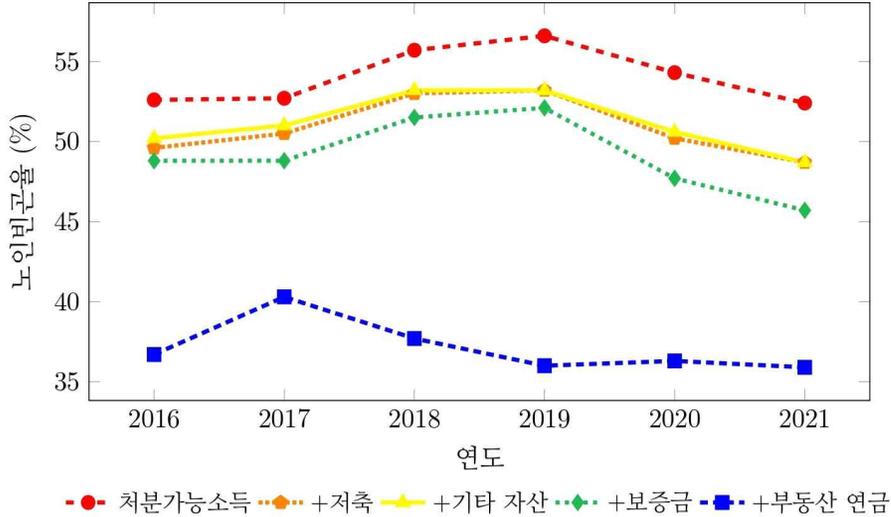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4]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5]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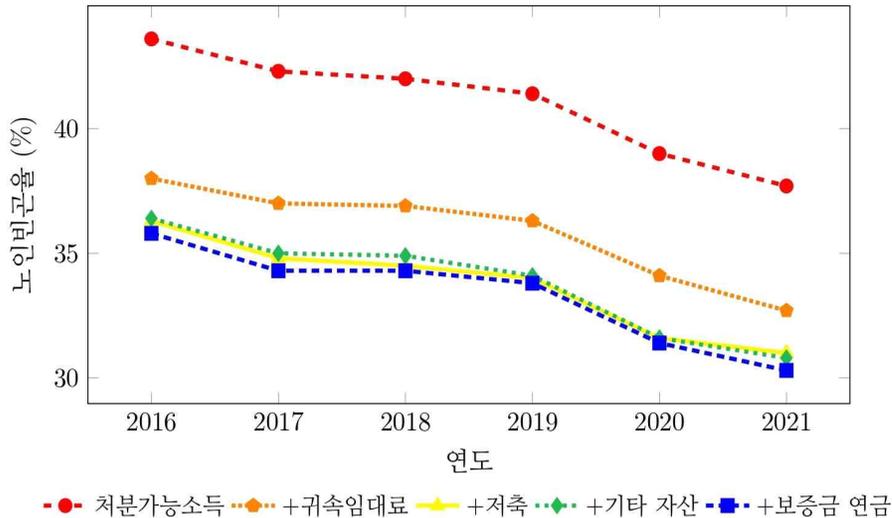
- Wolff and Zacharias(2009)는 주거는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주거 서비스를 위한 지출만큼 다른 분야에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주용 부동산을 따로 분리하여 소득-순자산가치를 계산함.

$$Y_t^* = Y_t + IR_t + NW_{t-1} \frac{r}{1 - (1+r)^{-n}}$$

- Y_t^*, Y_t, A_t 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소득-순자산가치, 현재의 소득, 연금을 의미하고 IR_t 는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의 귀속 임대료를 의미함.
- 앞서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산 유형별로 연금화해가면서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함.
 - Wolff and Zacharias(2009)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의 귀속임대료를 포함하여 소득-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기에 본 분석에서 부동산은 연금화하지 않음.
 - 귀속임대료는 앞절에서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최경진·임병권(2020)의 임대료 상당액 방법(주택매매가격,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의 곱)을 이용하여 계산함.
 - 자산의 유형별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 순자산이 아닌 자산을 이용하여 계산함.

- 앞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귀속임대료와 저축을 포함했을 때 노인빈곤율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고 그 외 자산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함(그림 3-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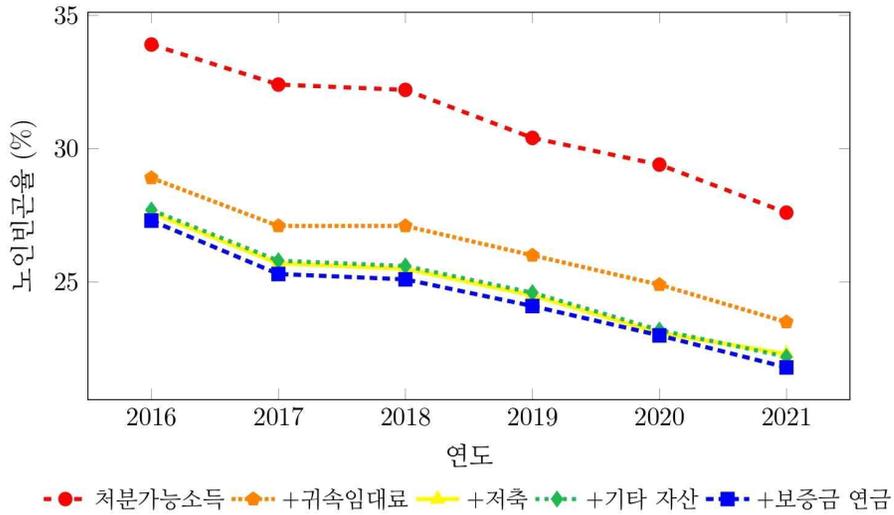
[그림 3-26]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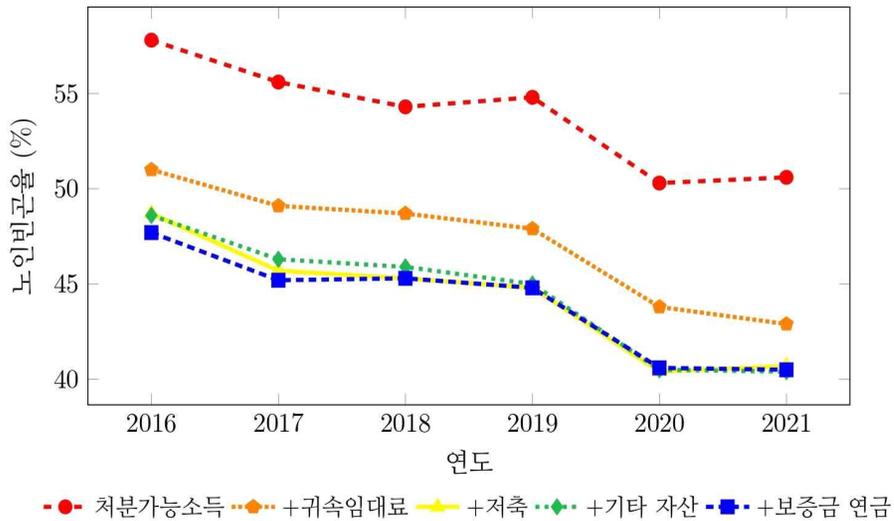
- 각 연령대별 분석 결과도 전체 노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귀속임대료와 저축 연금화의 노인 빈곤 감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27, 3-28, 3-29 참조).
 - 귀속임대료를 가상의 임대료로 해석했을 때 주거서비스에 이용되어야 할 자원을 다른 곳에 이용했을 때 물질적인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면 귀속임대료도 자산 연금화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거주용 부동산의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귀속임대료화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정책이 필요함.

[그림 3-27]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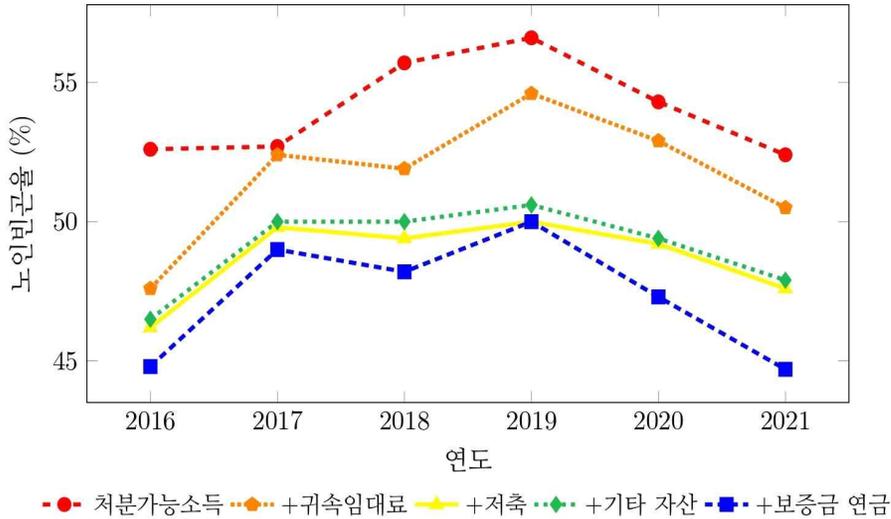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8]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9]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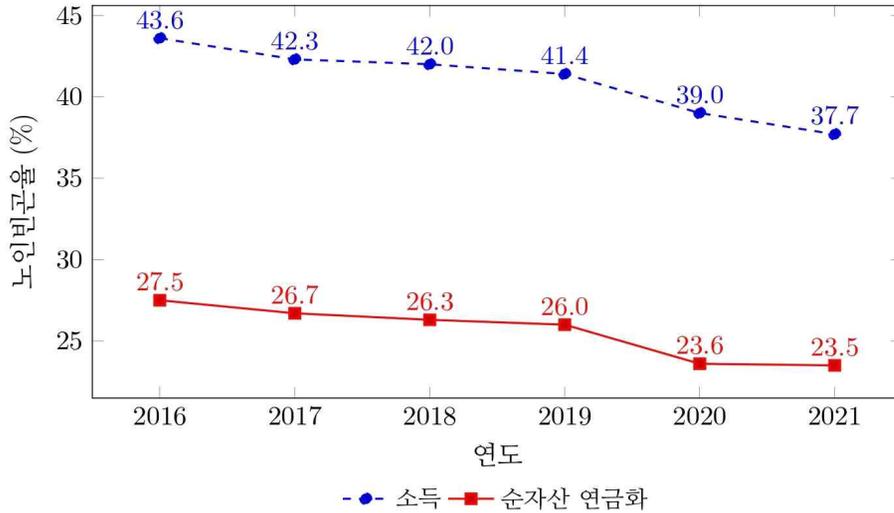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구의 전체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노인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노인빈곤율은 23~27%대로 나타남(그림 3-30).

- 앞에서의 자산 유형별 빈곤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한 자산을 유형별로 순서대로 연금화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Weisbrod and Hansen(1968)의 연금화 방법을 따라 전체 가구의 모든 순자산 연금화를 가정하여 분석
- 전체 가구의 모든 순자산을 연금화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은 2016년 27.5%에서 2021년 23.5%로 소득 빈곤율에 비해 14~16%p 감소함.
 - 전체 순자산을 모두 소모한다는 다소 강한 가정 하에서 분석 결과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짐.

[그림 3-30] 순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주택연금

- 자산을 연금화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접근했을 때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자산 유형은 거주주택 부동산으로 나타남.
 - 귀속임대료와 같이 자산을 소모하지 않는 경우와 연금화로 자산을 소모하는 경우 모두에서 거주주택 부동산을 활용하였을 때 노인빈곤율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고령층의 자산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고 주택 연금은 자산 활용 정책 중 가장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순자산을 모두 연금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인데 반해 현재 시행 중인 주택연금 활성화라는 가정 하에서의 산출되는 노인빈곤율은 정책을 통해 실현가능한 노인빈곤율로 볼 수 있음.
-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경우 유동성이 낮아 자산이 있어도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에 현재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을 시행하고 있음.

- 주택연금은 리버스모기지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이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일시금 혹은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됨.
 -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대상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55세 이상이며 거주 주택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시가로 12~13억원 이하)
-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루어져 왔음(이진경, 2014; 최윤경·여윤정, 2020; 김성아 외, 2021).
-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⁹
- 고령층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¹⁰
 - 연금 수령 기준은 현행 주택연금 수령 방식과 동일하게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함.
 - 일반주택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연금 수령
 -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차후 보유 거주 주택에 돌아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
 - 예를 들어, 보유 주택을 세를 주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¹¹ 회사 사택이나 기타 무료 주택에 거주하여 보유 주택을 세를 준 경우¹²
 - 가입 주택가격 상한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현재 가입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정도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¹³하고 있기에 본 절에서는 가입 상한은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⁹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연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수령하게 되는 연금을 소득에 포함하여 빈곤율을 계산함.

¹⁰ 주택연금 가입률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에 대한 분석은 부록으로 수록함(부록 A-10 참조).

¹¹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에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를 이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였음.

¹²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에서 입주형태코드가 기타이고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를 이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였음.

¹³ KBS NEW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432550>, 접속일: 2023.4.30).

- 현행 주택연금 제도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시가가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2억원까지 적용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조건표를 바탕으로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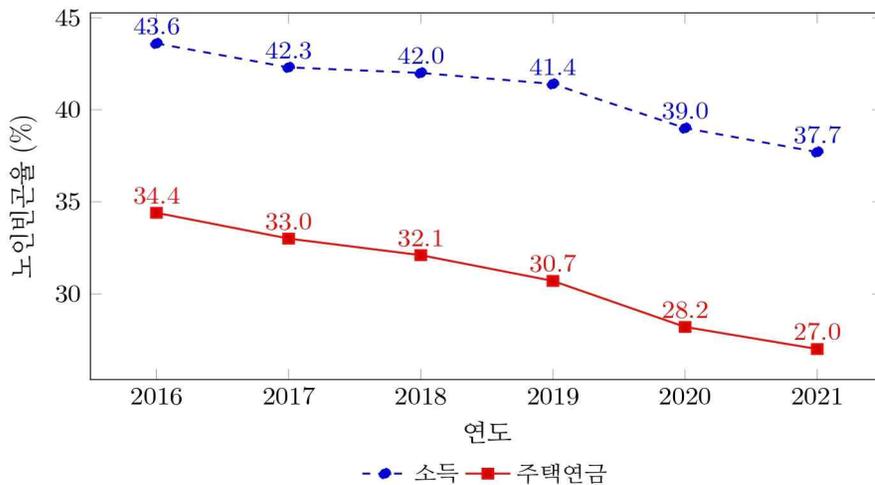
□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지급금 조건표를 바탕으로 계산함.

- 분석에 이용한 조건표는 2023년 3월 1일 기준 조건표를 이용함.
- 분석에 이용한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조건표 이전 시기에 대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 전체 주택 보유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가정 하에서 노인빈곤율은 매해 약 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31 참조).

- 앞서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기에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2021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 가정 하에서는 노인빈곤율이 27.0%인데 이는 앞 절에서의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30.6%)보다 낮은 수치임.
- 여전히 많은 고령층이 소득과 자산 모두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고 특히 이 고령층은 거주 환경도 불안정하기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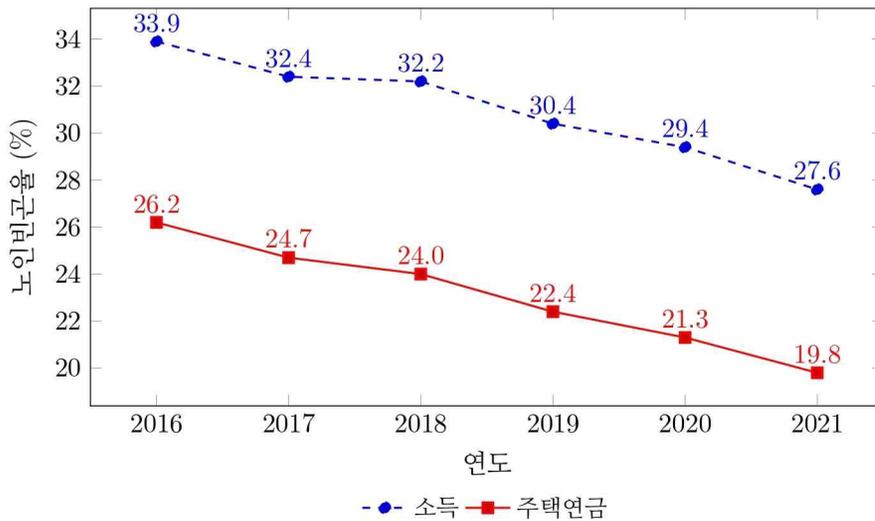
[그림 3-31]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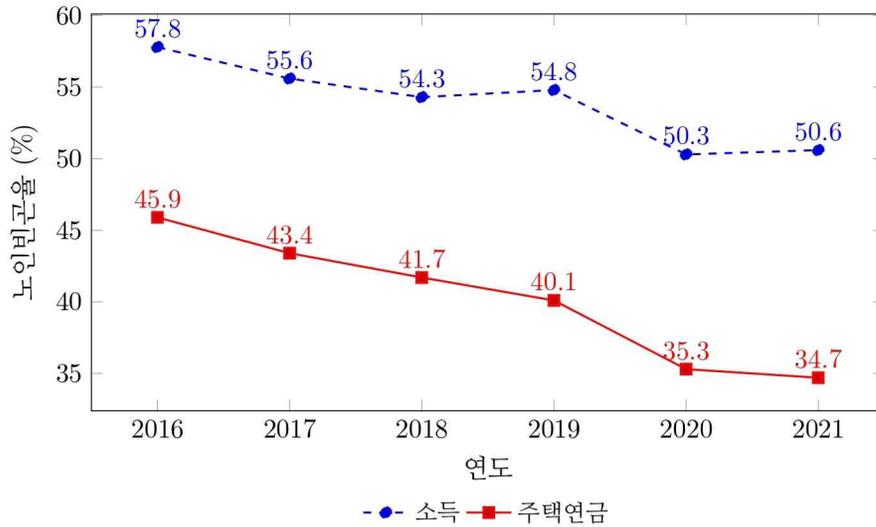
- 각 연령대별 분석 결과도 전체 노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32, 3-33, 3-34 참조).
 -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은 고령 노인(75~84세)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초고령 노인 연령대의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연금의 특성상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하는 월 지급금이 커짐.
 - 고령 노인(75~84세)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많게는 약 16% 가량 노인빈곤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의 경우 최대 약 8%의 빈곤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논의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되는 연소 노인(65~74세)과 그 외 세대 간의 자산을 비롯한 경제적 격차를 비교하였는데 이에 더해 고령 노인(75~84세)과 초고령 노인(85세 이상) 간에도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32]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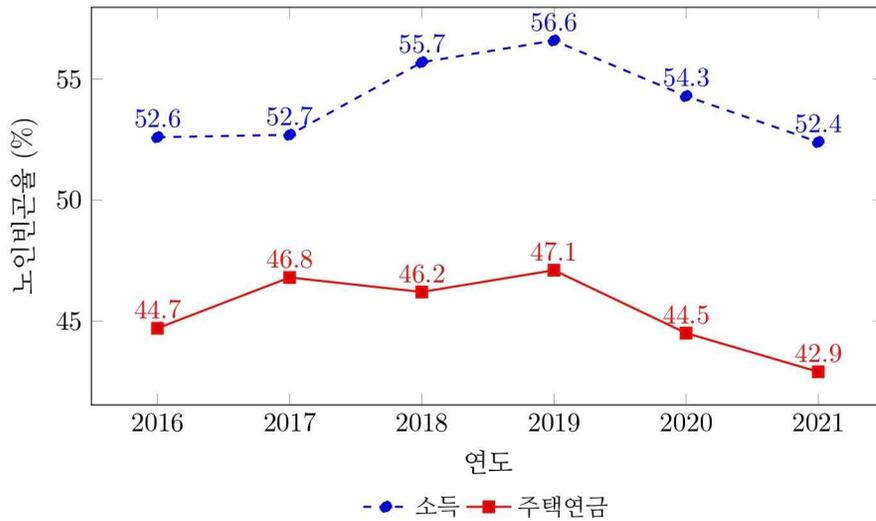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33]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34]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4장

소득·자산 고려 시 노인 빈곤 지표 국제 비교

제1절 LWS DB의 활용

-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Luxembourg Income Study)의 LWS DB(Luxembourg Wealth Study Database)를 이용하여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지표의 국제 비교를 수행
- 분석대상 국가는 LWS DB의 9~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처분가능소득이 가용한 OECD 국가 중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준소득을 구성할 수 있는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등 9개국임.
 - LWS의 차수별 분석 시점은 9차의 경우 2012~14년도, 10차는 2015~17년도, 11차는 2018~20년도이며, 최신 차수로 올수록 대상 국가 수는 감소
- 소득·자산 기준의 소득은 앞선 분석과 같이 자산의 포괄소득화 및 연금화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 자산의 포괄소득화의 경우, 우리나라 분석에서 자산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소득화를 간소화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환산한 귀속임대료와 이자비용으로 구성
 - 한편, ‘이자비용’이 불가용¹한 국가가 분석대상 9개국 중 6개국이나 되는 관계로 이자비용 삭감 없이 귀속임대료 합산만 적용한 결과도 추가하며, 국가별로 소득 구성에 일부 차이점이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
 - 자산의 연금화의 경우, LWS에서 가용한 총괄 순자산과 부동산 순자산을 모두 고려하여 앞선 연금화 방식(기대여명과 이자율 2%)을 적용하여 산정
- 국제비교를 위한 소득 및 소득·자산 기준별 소득의 구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이 요약

1 해당 LWS 변수의 값이 모두 0으로 기록되어 있음.

<표 4-1> LWS DB 분석에 사용한 기준별 소득의 정의와 분석대상 국가

기준	소득정의(LWS 변수명 기준)	비 고
LWS 제공	현물을 제외한 현금처분가능소득 (= dh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가능소득 불가능한 국가(스페인,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구원연령 정보 불가능한 국가(캐나다)는 제외
본 연구 소득 기준	사적이전지출을 고려한 wave7 기준의 처분가능소득 (= dhci-hxi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WS 현금처분가능소득(dhci)에서 사적이전지출(hxiht)을 삭감한 wave7 기준의 처분가능소득. 단,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불가능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donations to charity)은 미적용 단, 사적이전지출 불가능한 국가(영국, 일본, 칠레)는 wave 6 기준을 적용
본 연구 소득·자산 기준	자산의 포괄소득화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 dhci-hxiht+ IR* -hxintm-hxin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의 처분가능소득에 귀속임대료(IR)를 합산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비용(hxintm, hxinti)은 삭감 귀속임대료(IR)는 OECD 국민계정 통계의 최종소비지출 항목 중 귀속임대료 총액(IR_{OECD})을 LWS의 주거주 부동산액($hanrp_i$)에 비례배분하여 추정. 즉, $IR_i = IR_{OECD} \times hanrp_i / \sum hanrp_i \times w_i$ 임. 단, OECD자료가 불가능한 칠레는 LWS의 변수로 적용 한편, 이자비용 불가능한 국가(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는 이자비용 삭감을 미적용하고, 일부 이자비용만 가용한 국가(이탈리아, 노르웨이; hxinti 불가능)는 해당 비용만 삭감 분석대상국가: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등 9개국
	순자산의 연금화	<p>순자산의 연금화 고려한 처분가능소득</p> $= dhci-hxiht + \frac{r}{1 - (1+r)^{-n}} \times NW$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의 처분가능소득에 순자산(NW)을 연금화하여 합산 순자산의 연금화는 앞선 우리나라의 분석과 동일하게 이자율(r)과 수급기간(n)을 이용하여 추정. 즉, $NW \times r / (1 - (1+r)^{-n})$ 임. 여기서 이자율은 2%, 수급기간은 각국의 기대여명을 활용 한편, 순자산으로는 LWS에서 제공하는 처분가능, 조정 처분가능, 통합, 총 순자산 및 부동산과 주거주부동산 순자산을 고려하며, 각 국가별 가용한 변수에 대해서 모두 적용함. 분석대상국가: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등 9개국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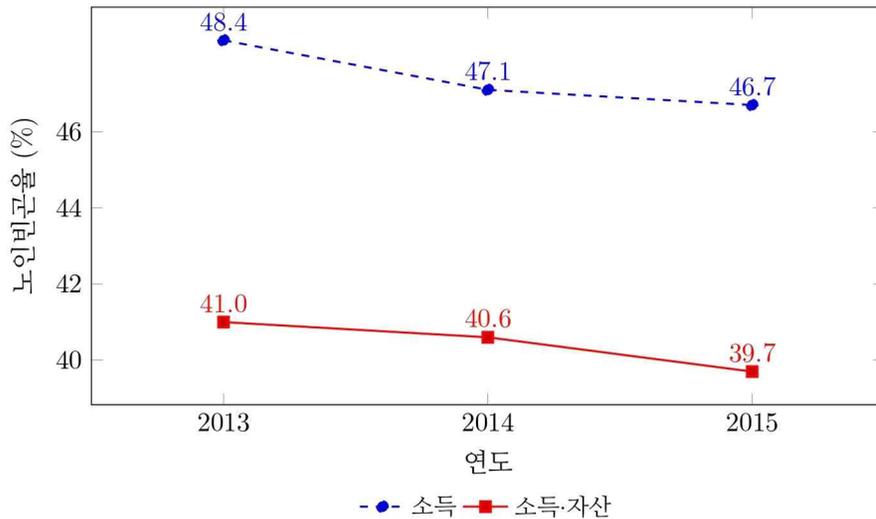
제2절 자산의 포괄소득화 고려한 노인빈곤율의 국제 비교

□ 본 연구에서 고려한 LWS 9~11차 DB 중 9차와 10차는 각각 '12~'14년도와 '15~'17년도를 기준연도로 하며, 해당시점과의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2016~21년도 노인빈곤율(그

림 3-2) 외에 2013~15년도의 노인빈곤율을 추가로 분석하여 다음의 [그림 4-1]로 제시

- 2013~15년도에서도 2016~21년도 추세와 같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과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빈곤율(소득·자산 빈곤율)은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소득 기준 빈곤율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기반한 노인빈곤율은 6.5%p에서 7.4%p 정도 개선된 수치임.

[그림 4-1] 소득·자산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4~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LWS DB의 9차(Wave IX; 2012~14년도) 기준 기준소득별 빈곤율과 같은 시점(2013~14년도)의 한국 수치를 분석하면 <표 4-2>와 같음.

- LWS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hilabour)과 처분가능소득(dhci; 표 4-2에서 ①로 적시)의 빈곤율은 본 연구의 기준소득에 앞서 참고차 적시
- 소득·자산 기준 자산의 포괄소득화 소득에서 고려하는 IR과 이자비용 변수가 모두 가용한 3개국 중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노인의 소득빈곤이 포괄소득빈곤에서 개선(12.2%p, 1.2%p)되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포괄소득 빈곤율이 더 악화(-0.4%p)됨.
 - 단,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노인의 소득빈곤율 대비 포괄소득빈곤율 증가폭(-0.4%p)은 비노인의 증가폭(-0.9%p) 보다는 작음.
- 동일 시점인 2013~14년도 한국의 경우, 소득 빈곤 대비 포괄소득빈곤은 모두 개선

(7.4%p, 6.5%p)되고 있으나, 포괄소득 빈곤율 수치 자체는 비교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LWS의 이자비용이 불가용하여 자산 소득화로 IR만 고려한 경우에도, 호주,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는 포괄소득 빈곤율이 개선되는 반면에,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빈곤율이 악화됨.

<표 4-2> LWS 9차 DB를 활용한 9개국의 소득, 포괄소득 등 기준소득별 빈곤율

(단위: %, %p)

국가 (기준시점)	연령 구분	기준소득				
		LWS 제공		본 연구 기준		
		근로	처분가능 (L)	소득 기준		포괄소득 기준
처분가능(A) [A-L]	처분가능+IR(1) [1-A]			처분가능+IR -이자비용(2) [2-A]		
한국('13)	노인	미제공		48.4		41.0 [-7.4]
한국('14)	노인	미제공		47.1		40.6 [-6.5]
호주 (14)	전체	31.4	11.9	11.7 [-0.19]	10.6 [-1.1]	10.1 [-1.6]
	노인	81.7	24.1	22.2 [-1.89]	12.4 [-9.8]	10.0 [-12.2]
	비노인	23.1	9.9	9.9 [0.09]	10.3 [0.3]	10.1 [0.2]
이탈리아 (14)	전체	33.0	14.1	14.3 [0.28]	15.0 [0.7]	15.1 [0.8]
	노인	80.0	7.3	7.5 [0.26]	8.2 [0.7]	8.0 [0.4]
	비노인	19.8	16.0	16.3 [0.28]	17.0 [0.7]	17.1 [0.9]
노르웨이 (13)	전체	29.2	7.9	7.9 [0.01]	9.4 [1.5]	8.3 [0.5]
	노인	81.9	4.5	4.4 [-0.07]	5.7 [1.3]	3.2 [-1.2]
	비노인	19.6	8.5	8.5 [-0.01]	10.1 [1.6]	9.3 [0.8]
독일 (12)	전체	35.5	8.6	9.0 [0.41]	9.1 [0.1]	좌동
	노인	91.3	9.4	10.8 [1.38]	10.7 [-0.1]	좌동
	비노인	19.7	8.3	8.5 [0.13]	8.7 [0.2]	좌동
핀란드 (13)	전체	32.9	7.0	7.1 [0.09]	9.0 [1.9]	좌동
	노인	89.5	7.3	7.7 [0.44]	7.5 [-0.2]	좌동
	비노인	19.4	6.9	6.9 [0.00]	9.3 [2.4]	좌동
미국 (13)	전체	32.8	16.3	16.5 [0.22]	16.7 [0.2]	좌동
	노인	76.3	13.5	13.2 [-0.22]	12.1 [-1.1]	좌동
	비노인	25.6	16.7	17.0 [0.29]	17.4 [0.4]	좌동
영국 (13)	전체	35.2	10.8	좌동	12.4 [1.7]	좌동
	노인	86.7	11.5	좌동	8.9 [-2.5]	좌동
	비노인	24.3	10.6	좌동	13.2 [2.6]	좌동
일본 (14)	전체	33.2	11.8	좌동	13.4 [1.6]	좌동
	노인	66.7	21.1	좌동	20.1 [-1.0]	좌동
	비노인	18.6	7.7	좌동	10.4 [2.7]	좌동
칠레 (14)	전체	22.8	18.6	좌동	17.1 [-1.4]	좌동
	노인	51.2	26.7	좌동	17.8 [-8.9]	좌동
	비노인	19.6	17.6	좌동	17.1 [-0.6]	좌동

주: LWS DB의 일부 국가는 소득 변수에 결측(영국 근로소득 0.03%, 처분가능소득 2.21%; 호주 근로 및 처분가능소득 0.62%; 미국 근로소득 0.05%, 처분가능소득 0.09%; 일본 처분가능소득 15.4%)이 있으며, 이는 모수에서 제외하여 빈곤율 계산함.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4-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LWS DB의 10차(Wave X; 2015~17년도) 기준 기준소득별 빈곤율과 같은 시점(2015~17년도)의 한국 수치를 분석하면 <표 4-3>과 같음.

- LWS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hilabour)과 처분가능소득(dhci; 표 4-3에서 ㉠로 적시)의 빈곤율은 본 연구의 기준소득에 앞서 참고차 적시
- 소득·자산 기준 자산의 포괄소득화 소득에서 고려하는 IR과 이자비용 변수가 모두 가용한 3개국 중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노인의 소득빈곤이 포괄소득빈곤에서 개선(11.9%p, 0.5%p)되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포괄소득 빈곤율이 더 악화(-0.5%p)됨.
 - 단,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노인의 소득빈곤율 대비 포괄소득빈곤율 증가폭(-0.5%p)은 비노인의 증가폭(-1.5%p) 보다는 작음.
- 동일 시점인 2015~17년도 한국의 경우, 소득 빈곤 대비 포괄소득빈곤은 모두 개선(7.0%p, 7.9%p, 7.6%p)되고 있으나, 포괄소득 빈곤율 수치 자체는 비교 국가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높은 수준임.
- LWS의 이자비용이 불가용하여 자산의 포괄소득화로 IR만 고려한 경우에도, 호주, 독일, 미국, 영국, 칠레는 포괄소득 빈곤율이 개선되는 반면에,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는 빈곤율이 악화됨.
 - 핀란드의 경우, 9차 기준(2013년도)에서의 포괄소득 빈곤율 개선과 달리, 10차 기준(2016년도)에서는 악화로 바뀌었으나, 10차 기준 포괄소득 빈곤율 수치 자체는 9차에 비해서 1%p 개선된 수치임.

<표 4-3> LWS 10차 DB를 활용한 8개국의 소득, 포괄소득 등 기준소득별 빈곤율

(단위: %, %p)

국가 (기준시점)	연령 구분	기준소득				
		LWS 제공		본 연구 기준		
		근로	처분가능 (㉠)	소득 기준 처분가능(㉠) [A-L]	포괄소득 기준 처분가능+IR(①) [①-A]	처분가능+IR -이자비용(②) [②-A]
한국('15)	노인	미제공		46.7		39.7 [-7.0]
한국('16)	노인			43.7		35.8 [-7.9]
한국('17)	노인			42.4		34.8 [-7.6]
호주 ('16)	전체	30.3	12.0	11.8 [-0.19]	11.2 [-0.7]	10.9 [-0.9]
	노인	81.9	23.7	22.1 [-1.54]	11.5 [-10.6]	10.2 [-11.9]
	비노인	21.4	10.0	10.1 [0.04]	11.1 [1.0]	11.0 [1.0]
이탈리아	전체	32.6	14.2	14.3 [0.13]	15.4 [1.1]	15.6 [1.3]

국가 (기준시점)	연령 구분	기준소득				
		LWS 제공		본 연구 기준		
		근로	처분가능 (L)	소득 기준	포괄소득 기준	
처분가능(A) [A-L]	처분가능+IR(①) [①-A]			처분가능+IR -이자비용(②) [②-A]		
('16)	노인	80.6	7.2	6.7 [-0.52]	7.4 [0.7]	7.1 [0.5]
	비노인	18.4	16.2	16.6 [0.32]	17.8 [1.2]	18.1 [1.5]
노르웨이 ('16)	전체	29.7	8.2	8.2 [0.02]	10.0 [1.8]	9.1 [0.9]
	노인	81.4	4.5	4.5 [-0.04]	5.3 [0.9]	4.0 [-0.5]
독일 ('17)	비노인	19.7	8.9	8.9 [0.03]	10.6 [1.7]	10.1 [1.2]
	전체	35.8	10.0	10.7 [0.61]	10.8 [0.2]	좌동
핀란드 ('16)	노인	89.4	9.2	12.0 [2.80]	11.7 [-0.3]	좌동
	비노인	19.9	10.3	10.2 [-0.04]	10.6 [0.4]	좌동
미국 ('16)	전체	34.5	5.9	5.7 [-0.15]	8.9 [3.2]	좌동
	노인	88.9	5.0	4.9 [-0.02]	6.5 [1.5]	좌동
영국 ('15)	비노인	20.3	6.1	6.0 [-0.18]	9.6 [3.6]	좌동
	전체	32.6	16.7	16.9 [0.22]	17.1 [0.2]	좌동
영국 ('17)	노인	77.4	12.6	12.9 [0.29]	12.2 [-0.7]	좌동
	비노인	24.0	17.5	17.7 [0.21]	18.1 [0.4]	좌동
칠레 ('17)	전체	34.9	11.2	좌동	12.3 [1.1]	좌동
	노인	86.2	12.0	좌동	9.0 [-2.9]	좌동
영국 ('17)	비노인	23.7	11.1	좌동	13.1 [2.0]	좌동
	전체	33.7	10.8	좌동	12.7 [1.9]	좌동
칠레 ('17)	노인	85.1	12.2	좌동	9.8 [-2.4]	좌동
	비노인	22.5	10.6	좌동	13.3 [2.8]	좌동
('17)	전체	23.9	17.9	좌동	14.7 [-3.3]	좌동
	노인	51.6	26.4	좌동	15.0 [-11.3]	좌동
('17)	비노인	20.5	16.9	좌동	14.6 [-2.3]	좌동

주: 1) LWS DB의 일부 국가는 소득 변수에 결측(영국 '15 처분가능소득 1.19%; 미국 근로소득 0.08%, 처분가능소득 0.22%; 이탈리아 처분가능소득 0.004%)이 있으며, 이는 모수에서 제외하여 빈곤율 계산함.
 2) 영국 '19의 경우, LWS DB 소개에서는 10차로 적시되어 있으나, METIS 시스템 기준 11차로 분류.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6-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LWS DB의 11차(Wave XI; 2018~20년도) 기준 기준소득별 빈곤율과 같은 시점(2018~21년도)의 한국 수치를 분석하면 <표 4-4>와 같음.
- LWS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hilabour)과 처분가능소득(dhci; 표 4-4에서 ①로 적시)의 빈곤율은 본 연구의 기준소득에 앞서 참고차 적시
 - 소득·자산 기준 자산의 포괄소득화 소득에서 고려하는 IR과 이자비용 변수가 모두 가용한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노인의 소득빈곤이 포괄소득론에서 모두 개선

(11.5%p, 0.6%p)됨.

- 동일 시점인 2018~21년도 한국의 경우, 소득 빈곤 대비 포괄소득빈곤은 모두 개선 (7.4%p, 7.5%p, 7.5%p, 7.1%p)되고 있으며, 포괄소득 빈곤율 수치 자체도 2013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10.4%p나 개선되었으나, 비교 국가에 비해 여전히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LWS의 이자비용이 불가용하여 자산의 포괄소득화로 IR만 고려한 경우에도, 호주, 미국, 영국은 포괄소득 빈곤율이 개선되는 반면에, 노르웨이는 빈곤율이 악화됨.

<표 4-4> LWS 11차 DB를 활용한 4개국의 소득, 포괄소득 등 기준소득별 빈곤율

(단위: %, %p)

국가 (기준시점)	연령 구분	기준소득				
		LWS 제공		본 연구 기준		
		근로	처분가능 (L)	소득 기준 처분가능(A) [A-L]	포괄소득 기준 처분가능+IR(1) [1-A]	처분가능+IR -이자비용(2) [2-A]
한국('18)	노인	미제공		42.1		34.7 [-7.4]
한국('19)	노인			41.6		34.1 [-7.5]
한국('20)	노인			39.1		31.6 [-7.5]
한국('21)	노인			37.7		30.6 [-7.1]
호주 (18)	전체	30.6	11.9	12.3 [0.35]	11.2 [-1.0]	11.1 [-1.2]
	노인	80.9	23.4	23.3 [-0.15]	13.6 [-9.7]	11.8 [-11.5]
	비노인	21.6	9.9	10.3 [0.44]	10.8 [0.5]	11.0 [0.6]
노르웨이 (19)	전체	30.2	8.4	8.4 [0.02]	10.0 [1.6]	9.2 [0.8]
	노인	81.6	4.3	4.2 [-0.05]	5.0 [0.8]	3.7 [-0.6]
	비노인	19.4	9.3	9.3 [0.03]	11.0 [1.7]	10.4 [1.1]
노르웨이 (20)	전체	31.1	8.5	8.5 [0.01]	10.0 [1.5]	9.3 [0.9]
	노인	81.6	4.4	4.3 [-0.02]	5.2 [0.8]	3.9 [-0.4]
	비노인	20.2	9.4	9.4 [0.02]	11.1 [1.7]	10.5 [1.1]
미국 (19)	전체	30.8	17.0	17.1 [0.17]	17.4 [0.2]	좌동
	노인	73.9	14.5	14.9 [0.45]	14.1 [-0.8]	좌동
	비노인	21.9	17.5	17.6 [0.11]	18.0 [0.5]	좌동
영국 (19)	전체	33.3	9.6	좌동	12.1 [2.6]	좌동
	노인	84.0	10.3	좌동	8.3 [-2.0]	좌동
	비노인	22.0	9.4	좌동	13.0 [3.6]	좌동

주: 1) LWS DB의 일부 국가는 소득 변수에 결측(영국 근로 및 처분가능소득 0.06%)이 있으며, 이는 모수에서 제외하여 빈곤율 계산함.
 2) 영국 '19의 경우, LWS DB 소개에서는 10차로 적시되어 있으나, METIS 시스템 기준 11차로 분류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한국의 수치는 2019-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금까지의 LWS DB(9~11차)를 이용한 자산의 포괄소득화 노인빈곤율 국제비교를 종합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보다 개선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개선과 악화가 혼재(표 4-5)

- 한국의 경우, 2013~21년도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대비 6.5%p~7.9%p 수준 개선
- 포괄소득에서 귀속임대료와 이자비용 변수가 모두 가용한 3개국 중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자산의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은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보다 개선되는 반면, 이탈리아는 오히려 악화됨.
 - 단,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의 증가폭(%p)은 비노인의 증가폭보다는 작음.
- 자산의 포괄소득화에서 이자비용이 가용하지 않아 귀속임대료만 고려한 경우, 호주,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칠레는 노인빈곤율 수치가 개선되는 반면,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악화됨.
 - 핀란드의 경우, 자산의 포괄소득화 기반 노인빈곤율이 9차 기준(2013년도)으로는 개선되었으나, 10차 기준(2016년도)에서는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표 4-5> LWS 9~11차 DB를 활용한 소득 및 소득자산소득별 빈곤분석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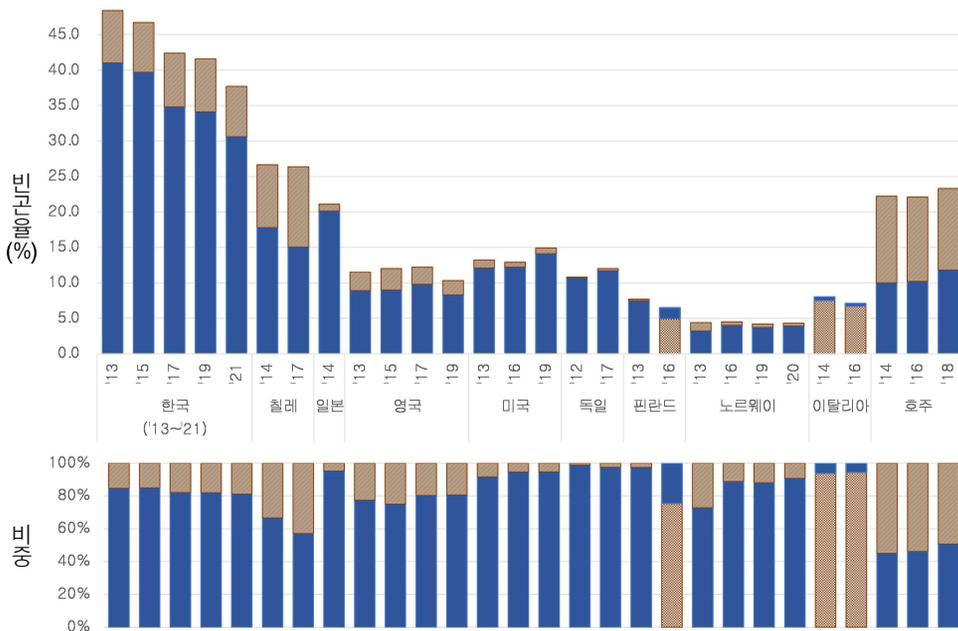
LWS DB 차수	대상 국가수	본 연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처분가능+귀속임대료' 기준의 포괄소득		'처분가능+귀속임대료-이자비용' 기준의 포괄소득		
		빈곤율 개선	빈곤율 악화	빈곤율 개선	빈곤율 악화	이자비용 변수 불가용
9차	9개국	호주,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칠레
10차	8개국	호주, 독일, 미국, 영국, 칠레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미국, 영국, 칠레
11차	4개국	호주,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노르웨이	-	미국, 영국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 또한, 지금까지의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를 종합하여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4-2]와 같음.

- 한국은 자산의 포괄소득화 기준 노인빈곤율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노인빈곤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비교국가들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임.
- 한국의 빈곤율 변화분 비중은 20% 수준으로 영국과 비슷하고, 변화분 비중은 호주가 50% 이상으로 가장 크며,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변화 분이 매우 작음.
 - 한편, 핀란드('16)와 이탈리아('16, '14)는 자산의 포괄소득화 노인빈곤율이 더 높아짐.
 - 단, 핀란드는 이자비용이 미고려된 국가(칠레, 일본,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등 6개국)로서 해당 비용 고려시 자산의 포괄소득화가 노인빈곤율 개선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할 필요

[그림 4-2] 처분가능소득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



주: 기준소득(처분가능소득) 빈곤율 대비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라 빈곤율이 개선된 경우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아래 파란막대와 윗 붉은 사선 막대의 전체 길이에 해당하며, 포괄소득화 빈곤율은 아래 파란막대 길이임. 반대로, 기준소득 빈곤율 대비 포괄소득화 빈곤율이 심화된 경우(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이탈리아 '14)의 기준소득 빈곤율은 아래 붉은 막대(벽돌 무늬) 길이에 해당하며, 포괄소득화 빈곤율은 거기에 윗 파란막대 길이를 더한 전체 길이에 해당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절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노인 빈곤층 구성의 국제 비교

- 앞서 분석한 한국의 2016~21년도 노인 빈곤층 구성(그림 3-8) 결과를 국제 비교하기 위하여 LWS DB의 9~11차 기준 시점(2012~2020년)을 분석함(표 3-9).
 - 소득 기준 빈곤과 자산의 포괄소득화에 따른 포괄소득 기준 빈곤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후 도식화에는 축약된 괄호 안의 용어를 활용

		포괄소득 기준	
		빈곤	빈곤하지 않음.
소득 기준	빈곤	모두 빈곤(계속빈곤)	소득만 빈곤(탈출)
	빈곤하지 않음.	포괄소득만 빈곤(진입)	빈곤하지 않음.(계속비빈곤)

- 한국의 노인 빈곤층 구성은 시작점인 2016년도와 코로나19 이전 최신시점인 2019년도 및 가용한 최신시점인 2021년도의 3개 시점의 결과를 이용
 - LWS DB를 이용한 기준소득으로는 앞서 고려한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되, 사적이전지출이 불가용한 국가의 경우, LWS제공 처분가능소득(㉡)으로 적용
 - 또한, LWS DB의 포괄소득으로는 ‘처분가능+IR-이자비용 소득(㉢)’을 사용하되, 이자비용이 불가용한 국가의 경우, ‘처분가능+IR 소득(㉣)’으로 적용
 - 한국은 계속 빈곤(소득 기준 빈곤 및 소득·자산 기준 빈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계속 비빈곤(소득 기준 비빈곤 및 포괄소득 기준 비빈곤)이 높아지고 있으나,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음.
- <표 4-6>을 검토하면, 국가별로 노인 빈곤층 구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의 행렬도(biplot)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 구성은 비교 국가들과는 꽤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대응분석은 2원 교차표($p \times q$)에서 길이 q 의 행 프로파일(row profiles)을 저차원 공

간(통상 2차원)에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방법(허명희, 2011)으로, 국가별 노인 빈곤층의 구성 현황 비교에 활용함.

<표 4-6> LWS 9~11차 DB를 활용한 노인 빈곤층의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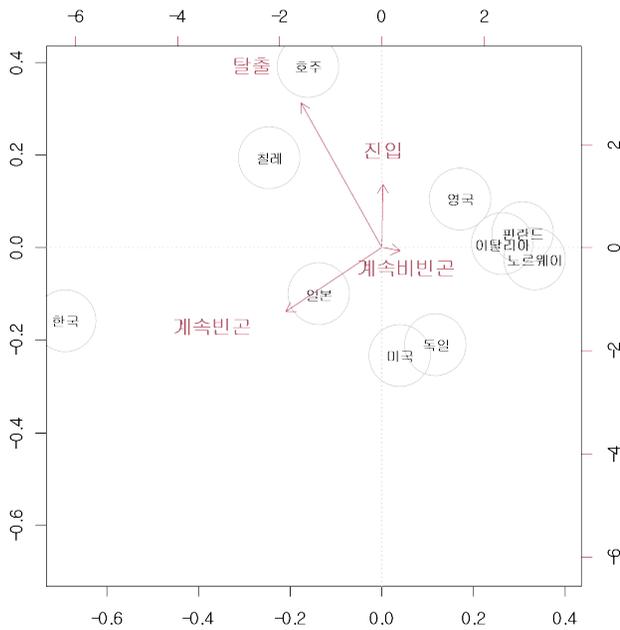
국가	기준시점	계속 빈곤	탈출	진입	계속 비빈곤
한국	'16	33.8	10.0	2.0	54.2
	'19	32.0	9.6	2.3	56.1
	'21	27.6	10.1	2.9	59.4
호주	'14	7.5	14.6	2.5	75.4
	'16	6.8	15.3	3.4	74.5
	'18	8.5	14.8	3.3	73.4
이탈리아	'14	4.9	2.7	3.1	89.3
	'16	4.2	2.5	2.9	90.4
노르웨이	'13	2.5	1.9	0.8	94.8
	'16	2.7	1.8	1.3	94.2
	'19	2.5	1.8	1.2	94.5
	20	2.7	1.7	1.2	94.4
독일	'12	10.0	0.8	0.7	88.5
	'17	11.5	0.6	0.3	87.6
핀란드	'13	3.6	4.1	3.9	88.4
	'16	2.8	2.2	3.7	91.3
미국	'13	11.7	1.5	0.4	86.4
	'16	11.7	1.1	0.5	86.7
	'19	13.9	1.0	0.2	84.9
영국	'13	5.8	5.7	3.1	85.4
	'15	6.6	5.3	2.4	85.6
	'17	6.6	5.6	3.2	84.6
	'19	5.0	5.3	3.3	86.4
일본	'14	16.7	4.4	3.4	75.5
칠레	'14	16.3	10.3	1.5	71.9
	'17	13.9	12.5	1.2	72.5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7, 2020, 202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우선, 코로나19 이전의 최신시점으로서 한국 19년도와 LWS DB의 19년도(또는 19년도 이전 최신시점)에 대해서 노인 빈곤층 구성의 대응분석 행렬도는 [그림 4-3]임.

- 빈곤층 구성의 제1축(x축)은 계속빈곤 -2.4, 탈출 -2.0 대비 계속비빈곤 0.5 수준(진입 0.02)으로 한국은 비교대상인 LWS 9개국과 달리 가장 좌측에 위치하는 계속비빈곤 대비 계속빈곤 및 탈출(소득만 빈곤)이 높은 나라이며,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계속비빈곤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임.
- 빈곤층 구성의 제2축(y축)은 탈출 3.5, 진입 1.6 대비 계속빈곤 -1.5(계속비빈곤 -0.1)로 호주는 소득기준(소득 vs 포괄소득)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국가이며, 한국, 일본은 변화보다는 계속빈곤이 다소 높고, 미국, 독일은 변화보다 계속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임.

[그림 4-3]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한국 19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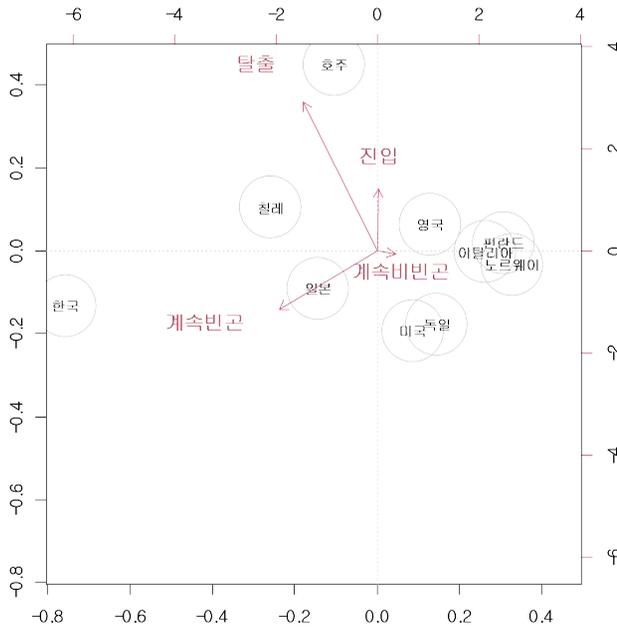


주: 1) 한국 19년도 기준, LWS DB의 19년도 및 이전의 최신연도 기준: 노르웨이 19, 영국 19, 미국 19, 호주 18, 독일 17, 칠레 17, 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일본 14년도임.
 2) 소득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인구는 빈곤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 일본 14(15.6%), 영국 19(0.01%)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음으로는 시작시점인 한국 16년도와 LWS DB의 16년도(또는 16년도 이전 최신시점)의 노인 빈곤층 구성의 대응분석 행렬도는 [그림 4-4]이며, 19년도 기준 결과와 큰 차이는 없음.

- 빈곤층 구성의 제1축(x축)은 계속빈곤 -2.4, 탈출 -1.8(진입 0.02) 대비 계속비빈곤 0.5 수준으로 한국은 비교대상인 LWS 9개국과 달리 가장 좌측에 위치하는 계속비빈곤 대비 계속빈곤과 소득만빈곤(탈출)이 높은 나라이며,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계속비빈곤이 높은 나라임.
- 빈곤층 구성의 제2축(y축)은 탈출 3.6, 진입 1.5 대비 계속빈곤 -1.4(계속비빈곤 -0.1)로 호주는 소득기준(소득 vs 포괄소득)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국가이며, 한국, 일본은 변화보다는 계속빈곤이 다소 높고, 미국, 독일은 변화보다 계속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임.

[그림 4-4]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한국 16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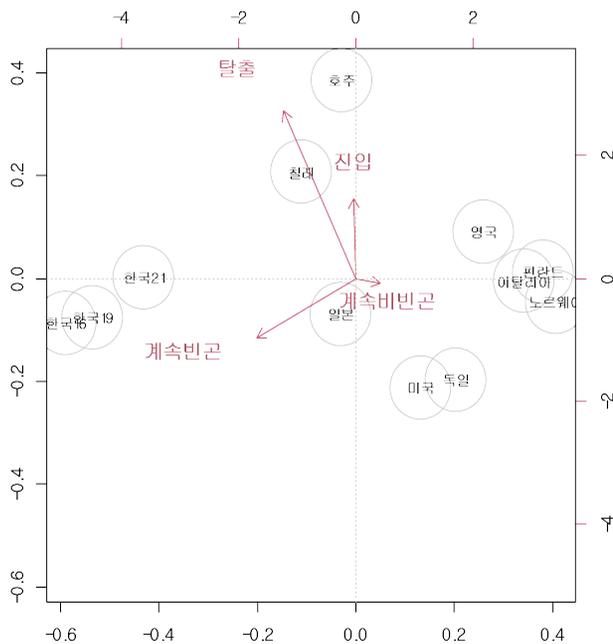


주: 1) 한국 16년도 기준, LWS DB의 16년도 및 이전의 최신연도 기준: 노르웨이 16, 미국 16, 호주 16, 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영국 15, 일본 14, 칠레 14, 독일 12년도임.
 2) 소득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인구는 빈곤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 일본 14(15.6%), 영국 15(0.6%).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번에는 최신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16, '19, '21년도와 LWS DB의 최신시점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층 구성을 대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5]와 같고, 한국은 여전히 차이가 나는 위치에 있으나, 2016년도에서 '19년도, '21년도로 오면서 개선되는 모습임.
- 한국은 비교 대상 9개국과 매우 다르게 계속비빈곤 대비 계속빈곤과 소득빈곤탈출의 비중이 높은 현황인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계속빈곤 대비 탈출 및 진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자산을 고려하였을 때의 빈곤 변동성이 다소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5]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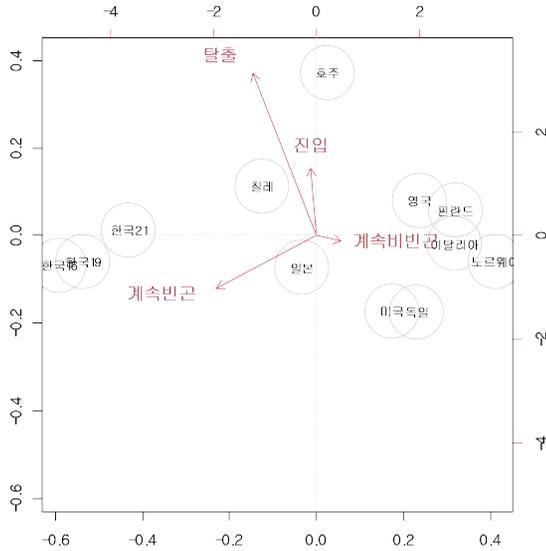
(최신시점과 한국 '16, '19, '21년도 기준)



주: 1) LWS DB의 최신연도 기준: 노르웨이 20, 영국 19, 미국 19, 호주 18, 독일 17, 칠레 17, 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일본 14년도임.
 2) 소득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인구는 빈곤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 일본 14(15.6%), 영국 19(0.01%).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7, 2020,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마지막으로, 한국의 '16, '19, '21년도와 LWS DB의 분석대상 첫 시점인 9차를 기준으로 노인 빈곤층 구성을 대응분석한 결과는 [그림 4-6]이며, 한국의 변화와 달리 LWS 9개국의 현황에는 큰 차이가 없음.

[그림 4-6] 노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
(LWS 9차 및 한국 '16, '19, '21년도)



주: 1) LWS DB의 최신연도 기준: 호주 14, 이탈리아 14, 일본 14, 칠레 14, 노르웨이 13, 핀란드 13, 미국 13, 영국 13, 독일 12년도임.
 2) 소득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인구는 빈곤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 일본 14(15.6%), 영국 13(0.01%).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 추가적으로, 연소 노인(65~74세)에 한정하여 한국의 16, 19, 21년도와 LWS DB의 최신시점 기준 빈곤층 구성을 분석하면 <표 4-7>과 같고, 이를 대응분석하면 [그림 4-7]과 같음.
 - 연소 노인(65~74세) 집단에 한정하여도 비슷한 현황이며, 호주가 계속비빈곤 그룹 대비 계속빈곤과 소득빈곤탈출 그룹의 비중이 높은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고, 반대로 일본은 계속비빈곤 그룹의 비중이 높은 쪽으로 이동함.
 - 한국 연소 노인의 빈곤층 구성 현황의 경우, 제1축(x축) 기준으로 '16년도 대비 '21년도에는 칠레, 호주에 더욱더 근접한 모습이며, 제2축(y축) 기준으로 계속빈곤 대비 탈출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현황임.

<표 4-7> LWS 최신시점 자료를 활용한 연소 노인(65~74세) 빈곤층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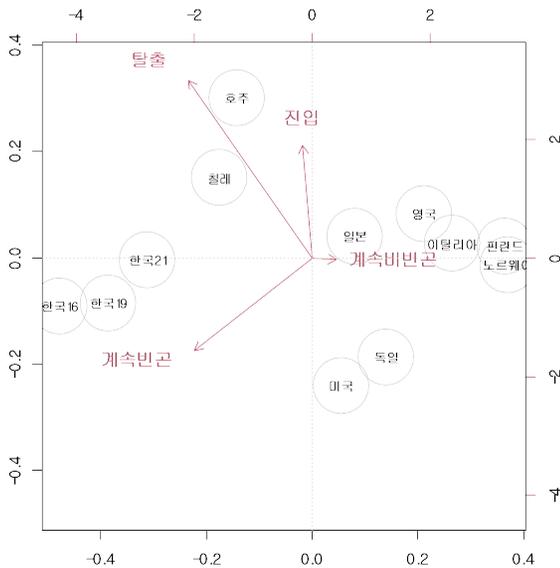
(단위: %)

국가	기준시점	계속 빈곤	탈출	진입	계속 비빈곤
한국	'16	24.7	9.3	2.2	63.8
	'19	22.4	8.2	2.3	67.1
	'21	19.0	8.7	2.7	69.6
호주	'18	8.8	12.4	3.1	75.8
이탈리아	'16	4.2	2.3	2.4	91.2
노르웨이	20	2.0	0.9	1.0	96.1
독일	'17	11.0	0.7	0.3	88.0
핀란드	'16	2.0	0.7	2.9	94.4
미국	'19	14.2	0.7	0.3	84.9
영국	'19	4.4	3.9	2.7	89.1
일본	'14	8.7	4.2	3.8	83.3
칠레	'17	11.9	11.0	0.6	76.4

주: 1) LWS DB의 최신연도 기준: 노르웨이 20, 영국 19, 미국 19, 호주 18, 독일 17, 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일본 14, 칠레 17년도임.
 2) 소득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인구는 빈곤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 일본 14(14.8%), 영국 19(1.6%)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7, 2020,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7] 연소 노인(65~74세) 빈곤층 구성현황의 대응분석

(최신연도 및 한국 '16, '19, '21년도)



주: 1) LWS DB의 최신연도 기준: 노르웨이 20, 영국 19, 미국 19, 호주 18, 독일 17, 칠레 17, 핀란드 16, 이탈리아 16, 일본 14년도임.
 2) 소득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인구는 빈곤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 일본 14(14.8%), 영국 19(1.6%)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8일); 한국의 수치는 2017, 2020,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4절 순자산의 연금화를 고려한 노인빈곤율의 국제 비교

- 앞서 한국의 분석 결과에서 밝혔듯이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만을 고려하는 가장 보수적인 검토인 자산의 포괄소득화에서 나아가 노인층의 보유자산을 소모하는 방법인 자산 연금화를 적용하여 각국의 최신연도 시점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국제 비교함.
 - 앞선 분석과 같이 가구주의 기대여명과 이자율 2%를 적용하여 가구의 순자산을 연금화함.
 - 예를 들어, 기대여명이 2년인 가구주 가구는 순자산의 52%, 기대여명 10년은 11%, 기대여명 20년은 6%, 기대여명 30년은 4% 그리고 기대여명 50년은 3% 수준으로 연금화되어 소득에 추가되는 것임.
 - 연금화 대상 자산으로는 순자산(처분가능, 조정처분가능, 통합)과 해당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및 주거주(거주지 부동산) 순자산을 고려하였으며, LWS DB의 주요 자산 변수는 다음 <표 4-8>과 같음.

<표 4-8> LWS DB의 주요 자산 변수의 구성

총자산 Assets [ha]	
실물자산 Non-financial assets [han]	부동산 Real estate [hanr]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hanrp]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hann]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excl. pensions) [haf]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excl. pensions) [haf]	예금·현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hafc]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hafj]
	그 외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hafo]
연금자산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has]	생명보험·개인연금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hasi]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haso]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hass]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dnw=han+haf-hl]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anw=han+haf+hasi-hl=dnw+hasi]	
통합 integrated net worth [inw]	
총 total net worth [tnw=ha-hl]	

주: 부채(liabilities)는 hl 변수, 부동산 관련 부채는 hlr(Real Estate Liabilities), 주거주 관련 부채는 hlrp(Principal Residence Loans) 변수.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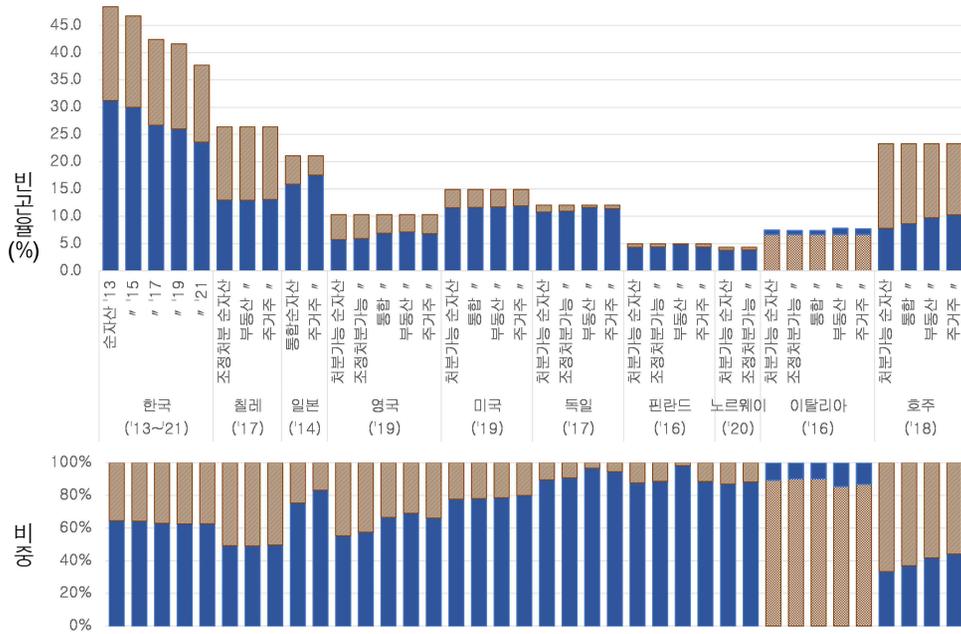
- 각국의 연령·성별 생명표(life table)의 기대여명 통계²를 이용하였으며, 100세 이상은 100세의 기대여명으로 적용(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100세 초과 연령의 기대여명 미적용; 단 LWS DB의 일부 국가는 연령이 탐코딩되어 제공)하였고, 성별 정보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핀란드의 일부 표본; 0.02%)는 남녀 평균값을 이용
- LWS의 가구주 연령 범위: 영국 15~80세, 미국 18~95세, 호주 17~85세, 이탈리아 18~101세, 핀란드 16~85세, 노르웨이 16~90세, 독일 16~101세, 일본 24~91세, 칠레 18~98세

□ 자산 연금화의 노인빈곤을 개선 효과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산의 포괄소득화보다 큼.

- 연금화는 순자산(처분가능, 조정처분가능, 통합) 및 부동산·주거주 자산에서 해당 부채를 제한 부동산·주거지 순자산을 대상으로 각국의 가용한 변수를 모두 고려
- 호주는 비교국가 9개국 중 유일하게 총 순자산이 제공되나, 통합 순자산 변수와 동일한 수치로 그림에서는 생략
- 순자산 연금화 효과는 주거주 부동산 순자산에 주요하게 기반
- 노인빈곤을 수치 외에 순자산의 연금화에 따른 전체 및 비노인빈곤율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의 <표 4-9>와 같음.

2 일본: <https://www.mhlw.go.jp/english/database/db-hw/vs02.html>, 영국: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lifeexpectancies/datasets/nationallifetablesunitedkingdomreferencetables>, 미국: https://www.ssa.gov/oact/STATS/table4c6_2019_TR2021.html, 독일: https://www.destatis.de/EN/Themes/Society-Environment/Population/Deaths-Life-Expectancy/Tables/_tables.html, 핀란드: https://pxdata.stat.fi/PXWeb/pxweb/en/StatFin/StatFin__kuol/statfin_kuol_pxt_12ap.px, 노르웨이: <https://www.ssb.no/en/statbank/table/07902>, 이탈리아: <http://dati.istat.it/>, 호주: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life-tables/2018-2020>, 칠레: <https://apps.who.int/gho/data/node.searo.LIFECOUNTRY?lang=en> 칠레의 경우 WHO에서 제공하는 칠레의 '15년도 5세별 수치 자료를 이용(최종접속일자: 2023.7.8).

[그림 4-8] 기준소득 대비 주요 순자산 연금화의 노인빈곤을 감소 효과



주: 기준소득(처분가능소득) 빈곤율 대비 LWS제공 순자산별 연금화 소득의 빈곤율이 개선되는 경우, 기준소득 빈곤율은 아래의 파란막대와 윗 붉은 사선 막대의 전체 길이에 해당하며, 자산 연금화 빈곤율은 아래 파란 막대 길이임. 반대로, 기준소득 빈곤율 대비 자산 연금화 빈곤율이 나빠진 경우(이탈리아)의 기준소득 빈곤율은 아래 붉은 막대(벽돌 무늬)이고, 자산 연금화 빈곤율은 거기에 윗 파란 막대 길이를 더한 것임.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한국의 수치는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9> LWS 최신 DB기준, 순자산의 연금화 빈곤율 현황

(단위: %, %p)

국가 (기준시점)	순자산	전체 빈곤율			고령 빈곤율			비고령 빈곤율		
		기준 소득	순자산 연금화	차이 (%p)	기준 소득	순자산 연금화	차이 (%p)	기준 소득	순자산 연금화	차이 (%p)
칠레 (17)	조정처분가능	17.9	16.6	(-1.3)	26.4	13.0	(-13.4)	16.9	17.1	(0.2)
	부동산	17.9	16.6	(-1.4)	26.4	12.9	(-13.4)	16.9	17.0	(0.1)
	주거지	17.9	16.3	(-1.7)	26.4	13.1	(-13.3)	16.9	16.6	(-0.3)
일본 (14)	처분가능	11.8	12.4	(0.6)	21.1	15.9	(-5.2)	7.7	10.8	(3.1)
	통합	11.8	12.4	(0.6)	21.1	15.9	(-5.2)	7.7	10.8	(3.1)
	주거지	11.8	11.9	(0.2)	21.1	17.1	(-4.0)	7.7	9.7	(2.0)
영국 (19)	처분가능	9.6	13.6	(4.1)	10.3	5.7	(-4.6)	9.4	15.4	(6.0)
	조정처분가능	9.6	14.0	(4.4)	10.3	5.9	(-4.4)	9.4	15.8	(6.4)
	통합	9.6	16.7	(7.1)	10.3	6.9	(-3.5)	9.4	18.9	(9.5)
	부동산	9.6	12.9	(3.4)	10.3	7.1	(-3.2)	9.4	14.2	(4.8)
	주거지	9.6	12.7	(3.1)	10.3	6.8	(-3.5)	9.4	14.0	(4.6)
미국 (19)	처분가능	17.1	20.3	(3.2)	14.9	11.6	(-3.3)	17.6	22.1	(4.5)
	통합	17.1	20.8	(3.7)	14.9	11.6	(-3.3)	17.6	22.7	(5.1)
	부동산	17.1	19.0	(1.9)	14.9	11.7	(-3.2)	17.6	20.5	(2.9)
	주거지	17.1	19.2	(2.0)	14.9	11.9	(-3.0)	17.6	20.7	(3.1)
독일 (17)	처분가능	10.6	13.8	(3.2)	12.0	10.8	(-1.3)	10.2	14.8	(4.5)
	조정처분가능	10.6	14.0	(3.3)	12.0	10.9	(-1.1)	10.2	14.9	(4.7)
	부동산	10.6	13.1	(2.4)	12.0	11.6	(-0.4)	10.2	13.5	(3.3)
	주거지	10.6	13.0	(2.4)	12.0	11.4	(-0.7)	10.2	13.5	(3.3)
핀란드 (16)	처분가능	5.7	9.0	(3.3)	4.9	4.3	(-0.6)	6.0	10.3	(4.3)
	조정처분가능	5.7	9.2	(3.4)	4.9	4.4	(-0.6)	6.0	10.4	(4.5)
	부동산	5.7	8.6	(2.8)	4.9	4.9	(-0.1)	6.0	9.5	(3.6)
	주거지	5.7	7.7	(2.0)	4.9	4.4	(-0.6)	6.0	8.6	(2.6)
노르웨이 (20)	처분가능	8.5	11.3	(2.9)	4.3	3.8	(-0.6)	9.4	13.0	(3.6)
	조정처분가능	8.5	11.4	(3.0)	4.3	3.8	(-0.5)	9.4	13.1	(3.7)
이탈리아 (16)	처분가능	14.3	18.2	(3.9)	6.7	7.5	(0.8)	16.6	21.3	(4.8)
	조정처분가능	14.3	18.4	(4.1)	6.7	7.4	(0.7)	16.6	21.6	(5.1)
	통합	14.3	18.4	(4.1)	6.7	7.4	(0.7)	16.6	21.7	(5.1)
	부동산	14.3	17.9	(3.6)	6.7	7.8	(1.1)	16.6	20.9	(4.4)
	주거지	14.3	17.7	(3.4)	6.7	7.7	(1.0)	16.6	20.7	(4.1)
호주 (18)	처분가능	12.3	12.2	(0.0)	23.3	7.8	(-15.5)	10.3	13.0	(2.7)
	통합	12.3	13.1	(0.8)	23.3	8.6	(-14.7)	10.3	13.9	(3.6)
	부동산	12.3	12.1	(-0.2)	23.3	9.7	(-13.5)	10.3	12.5	(2.2)
	주거지	12.3	12.0	(-0.2)	23.3	10.3	(-13.0)	10.3	12.3	(2.0)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제5절 소득·자산 결합분포의 국제 비교

- 소득 및 순자산의 5분위(quintile) 그룹을 기준으로 한 교차표(부표 A-48~56)에 기반한 소득-순자산 결합분포 현황을 검토하여 고령가구의 소득과 순자산 간의 관계를 고찰
 - 가구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초기고령과 이후 고령)가구와 비고령 가구를 구분하였고, 소득 기준은 처분가능소득, 순자산 기준은 처분가능순자산으로 함.
 - 단, 처분가능순자산 변수가 가용하지 않는 일본과 칠레는 통합순자산으로 적용
 - 여기서 5분위는 균등화 및 개인화하여 산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각 가구의 균등화 소득 및 균등화 순자산에 적용하여 가구를 분류

- LWS 분석대상 9개국의 최신연도를 기준으로 검토한 소득-순자산 결합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른 국가들의 경우 고령층의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낮음(표 4-10).
 - 5분위 중 1~2분위를 저층, 4~5분위를 고층, 그리고 3분위를 중층으로 설정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가구에서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43.1%로 가장 높게 관찰된 반면, 관찰가능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11.3~26.4%로 큰 차이를 보임.
 - 노르웨이에서 11.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일본 24.6%, 독일 26.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나 일본의 경우 소득 및 순자산 결합비중이 높음에 유의할 필요 (노인가구 중 소득 결합 15.7%, 순자산 결합 19%)
 - 미국은 노인가구중 고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36% 수준으로 비교대상 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표 4-10> LWS 최신 DB기준, 가구주 연령 기준별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유형별 비중

(단위: %)

	호주('18)					이탈리아('16)				
	전체 가구	65세 이상	65~74	75+	64세 이하	전체 가구	65세 이상	65~74	75+	64세 이하
저소득-저자산	19.9	14.2	14.3	14.0	21.9	23.4	19.1	15.1	22.6	25.7
저소득-중자산	7.5	12.9	11.8	14.4	5.7	7.5	8.7	7.9	9.3	6.8
저소득-고자산	17.4	44.5	38.7	52.3	8.5	8.6	12.4	9.4	15.0	6.5
중소득-저자산	8.0	1.5	2.0	0.8	10.2	9.3	7.0	6.2	7.7	10.6
중소득-중자산	3.7	1.4	1.7	1.0	4.5	4.3	5.2	5.1	5.3	3.8
중소득-고자산	6.8	9.3	10.3	7.9	6.0	8.6	13.4	12.6	14.2	6.0
고소득-저자산	11.1	0.9	1.5	0.2	14.5	7.0	3.8	5.0	2.8	8.8
고소득-중자산	6.9	0.8	1.3	0.3	9.0	6.3	4.0	5.4	2.7	7.5
고소득-고자산	18.5	14.4	18.5	9.1	19.8	25.0	26.4	33.2	20.3	24.3

	노르웨이('20)					독일('17)				
	전체 가구	65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가구	65세 이상			64세 이하
			65~74	75+				65~74	75+	
저소득-저자산	26.9	11.3	14.3	14.0	32.2	28.5	26.4	25.5	27.1	29.6
저소득-중자산	6.8	7.8	11.8	14.4	6.5	6.5	9.8	9.4	10.2	4.8
저소득-고자산	15.1	38.8	38.7	52.3	6.9	9.7	19.2	18.5	19.8	5.0
중소득-저자산	6.5	1.2	2.0	0.8	8.3	7.9	4.5	3.3	5.6	9.6
중소득-중자산	3.9	2.0	1.7	1.0	4.6	4.4	4.3	3.8	4.8	4.4
중소득-고자산	7.6	15.0	10.3	7.9	5.0	6.7	10.5	10.7	10.3	4.9
고소득-저자산	8.1	1.6	1.5	0.2	10.3	7.1	3.0	2.9	3.0	9.1
고소득-중자산	6.4	1.9	1.3	0.3	7.9	7.5	2.7	3.0	2.4	10.0
고소득-고자산	18.8	20.4	18.5	9.1	18.3	21.6	19.6	22.8	16.8	22.6
	핀란드('16)					미국('19)				
	전체 가구	65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가구	65세 이상			64세 이하
			65~74	75+				65~74	75+	
저소득-저자산	27.0	20.0	17.5	22.8	29.8	25.4	14.4	16.4	11.7	29.3
저소득-중자산	7.9	14.4	12.1	17.2	5.2	7.0	7.3	6.2	8.8	6.8
저소득-고자산	13.1	30.8	24.0	38.5	5.9	7.7	14.7	11.9	18.6	5.2
중소득-저자산	7.4	1.4	2.1	0.6	9.9	7.8	3.2	4.4	1.7	9.4
중소득-중자산	3.9	2.5	3.2	1.7	4.4	4.4	4.1	4.9	3.1	4.5
중소득-고자산	6.6	11.8	14.2	9.0	4.5	8.2	15.8	14.4	17.8	5.4
고소득-저자산	7.8	0.7	1.2	0.2	10.7	6.4	2.0	2.3	1.6	8.0
고소득-중자산	6.2	1.8	2.4	1.1	8.1	6.7	2.4	2.1	2.9	8.3
고소득-고자산	20.1	16.6	23.3	8.9	21.5	26.5	35.9	37.5	33.8	23.1
	영국('19)					일본('14)				
	전체 가구	65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가구	65세 이상			64세 이하
			65~74	75+				65~74	75+	
저소득-저자산	23.3	16.7	16.2	17.3	26.0	22.4	24.6	13.1	36.6	21.1
저소득-중자산	6.9	8.7	7.6	10.0	6.1	7.6	11.0	15.1	6.7	5.7
저소득-고자산	12.9	26.6	21.3	32.3	7.0	15.0	30.5	28.3	32.7	6.3
중소득-저자산	7.7	4.0	3.8	4.2	9.3	7.8	1.2	1.3	1.1	11.6
중소득-중자산	3.9	2.4	2.8	1.9	4.5	3.0	1.5	2.6	0.4	3.8
중소득-고자산	8.0	13.1	13.4	12.8	5.8	6.4	9.5	13.2	5.6	4.7
고소득-저자산	7.5	1.7	2.5	0.9	10.0	13.1	4.0	3.8	4.3	18.2
고소득-중자산	7.2	1.5	2.2	0.7	9.6	6.4	1.8	3.1	0.3	9.0
고소득-고자산	22.7	25.2	30.2	19.9	21.6	18.3	16.0	19.5	12.3	19.7
	칠레('17)									
	전체 가구	65세 이상			64세 이하					
			65~74	75+						
저소득-저자산	18.2	13.0	12.9	13.3	19.6					
저소득-중자산	9.0	9.2	8.6	10.1	9.0					
저소득-고자산	13.3	32.0	27.4	39.7	8.4					
중소득-저자산	8.3	4.3	5.5	2.3	9.3					
중소득-중자산	3.7	2.5	2.8	2.0	4.0					
중소득-고자산	6.6	10.7	11.5	9.3	5.6					
고소득-저자산	12.9	2.7	2.9	2.4	15.5					
고소득-중자산	4.6	2.2	2.7	1.3	5.3					
고소득-고자산	23.3	23.4	25.7	19.5	23.3					

주: 1)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사용; 5분위 중 1~2분위를 저층, 4~5분위를 고층, 그리고 3분위를 중층으로 설정.

2)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의 소득·순자산 결측 가구는 제외.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앞선 분석에서 자산 유동화에 따른 노인빈곤을 감소효과가 높았던 호주, 칠레에서 노인 가구의 저소득 비중과 함께 저소득-고자산 비중이 높게 관찰됨(표 4-10, 4-11).
- 호주의 노인가구의 약 72%는 저소득층에 속하나 고자산 분위에 분포된 비중이 높아 소득-자산 결합분포 기준으로 저소득-고자산층에 약 45% 분포하고 있음.
 - 칠레의 경우 노인가구의 52%가 저소득층에 속하며 노인가구의 32%는 저소득-고자산층에 속하고 있음.
 - 호주와 칠레의 경우 노인가구에서 총소득 대비 연금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관찰됨(표 4-11, 부표A-57~65).
 - 호주의 경우 노인가구의 총소득 대비 연금소득 비중이 52.5%, 칠레는 31.1%로 70% 이상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
 - 노인빈곤율은 칠레가 26.4%, 호주가 23.3%로 10% 미만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 이에 따라 앞선 자산 유동화에 따른 빈곤감소효과 분석결과, 저소득-고자산 비중이 높은 호주 및 칠레에서 자산 유동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노인빈곤율 감소효과도 크게 관찰되고 있음.

<표 4-11> LWS 최신 DB기준, 고령가구주 가구의 연금소득 비중 및 노인빈곤율

(단위: %)

단위:%	호주 ('18)	이탈리아 ('16)	노르웨이 ('20)	독일 ('17)	핀란드 ('16)	미국 ('19)	영국 ('19)	일본 ('14)	칠레 ('17)
총소득 대비 연금소득 비중	52.5	78.2	70.5	76.6	80.7	48.0	66.8	57.9	31.1
노인빈곤율	23.3	6.7	4.3	12.0	4.9	14.9	10.3	21.1	26.4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소득·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지표 필요성

-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개인의 물질적인 삶의 질은 소득, 자산, 소비로 평가할 수 있기에 이들 중 하나만을 이용하여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함.
 - 소비는 소득, 자산에 비해 데이터의 조사와 수집이 어렵고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소비는 소득, 자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만을 이용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함.
 - 소득만을 고려했을 때는 물질적인 결핍 상태에 놓인 고령층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보유한 자산이 많아 선택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저축을 소모하여 소비를 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만 보았을 때는 빈곤하지만 물질적인 결핍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자산의 포괄소득화나 연금화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 소득 기준 빈곤 노인 중 약 20~30%는 자산을 함께 고려했을 때 빈곤하지 않음.
 - 2021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7.6%인데 반해 포괄소득을 이용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30.6%로 7.0%p 감소하였고, 주택연금 가입을 가정하여 연금화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27.1%로 10.5%p 감소
 - 소득 기준으로 빈곤했으나 자산을 활용한다면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 고령층이 소득 빈곤 노인 중 20~30%(전체 노인의 약 7~10%) 정도 되는 것을 의미함.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이용하여 빈곤층을 식별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면 정책 지원이 시급한 고령층을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소득·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 지표로 소득과 자산 각각의 차원에서 빈곤선을 설정하여 빈곤층을 식별하고 각각의 차원에서 정의된 빈곤층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 한계가 있음.

- 소득과 자산을 이용하여 노인층의 물질적인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소득과 자산 중 무엇이 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각각 빈곤층을 설정하고 이들을 결합할 때 각 측면에 어떠한 가중치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소득과 자산 각각 차원에서 빈곤층을 나누었을 때 저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노인을 빈곤층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가령 고소득·저자산의 경우 자산이 적어 생계 유지를 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노인들을 빈곤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또한 소득 빈곤층과 자산 빈곤층의 교집합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면 빈곤층을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합집합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면 빈곤층을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음.

□ 가능한 다른 방안으로 자산을 소득화하여 이를 이용하여 빈곤층을 정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산의 소득화를 이용하여 재정의된 노인 빈곤층의 대부분은 이미 기존의 소득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두 빈곤층의 교집합을 물질적인 결핍을 겪고 있는 노인층으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포괄소득화의 경우, 자산 유형별로 어떠한 포괄소득화 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빈곤층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각 소득화 방법마다 한계가 존재하기에 어떠한 소득화 방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선인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주택연금 등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자산을 연금화하여 재정의된 빈곤층과 소득 빈곤층의 교집합은 정부 정책 참여 등의 적극적인 자산 활용 노력 하에서도 계속 빈곤한 집단으로 비선택적 노인 빈곤층으로 볼 수 있음.

제2절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고령층의 소득-자산을 고려한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 고령층 대상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저소득 노인가구 중 자산보유 비중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구 대상으로는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저자산 취약노인가구 대상 공적이전소득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 필요
 -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중 42%는 자산 3~5분위에 해당하는 중-고자산 보유
 - 특히, 농가의 경우 저소득 노인가구 중 64.5%가 자산 3~5분위에 해당
 - 이들의 경우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 여전히 저소득-저자산 노인가구 비중이 43.1%로 상당하기에 취약노인가구에 집중하여 공적이전지원의 효과성 제고
- 자산유동화 정책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유인 제공이 필요
 - 노인가구 총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이며, 소득빈곤 노인가구 중에서는 59%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 농가의 노인가구에서는 토지자산의 비중이 64%로 상당하며, 저소득 노인가구에서 토지자산 비중이 더 높게 관찰됨.
 - 이를 고려한다면 다른 유형의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김도형 외, 2016)
 -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소규모 농지자산에 대한 가입유인 강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주택연금의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저소득 고령층에서 주택연금 가입, 혜택 등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으며 이용의향도 낮게 관찰되고 있음.

- 한편으로, 자산 활용 정책인 주택연금 활성화 시 정부의 재정 부담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송인호, 2017)
 -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주택가격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중요한 역할
 -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주택연금 수요가 더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주택연금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간 균형이 필요

- 향후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감안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창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노인가구 대상 지원 시 지원자격 및 지원수준 판단에 있어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기존 정책에 기반 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소득·저자산 노인 대상으로는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한 소득지원 재설계를 통해 노인빈곤해소 효과성 제고 필요
 - 저소득·저자산 노인가구 비중이 43.1%로 상당하여 자산의 소득화를 고려한 이후에도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게 분석됨.
 - 소득과 자산이 모두 낮은 취약노인가구에 집중하여 공적이전지원의 빈곤감소 효과를 높일 필요
 - 하지만 현재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재정부담이 클 뿐 아니라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지원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낮음.
 -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령층

의 일정 비율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현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우려가 높음.

-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지원수준이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취약고령층 대상 소득 지원으로서 한계가 큰 상황
-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를 통해 기초연금은 보다 취약노인 대상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필요
- 또한, 보유 주택이 없고 전월세보증금만 있는 저소득 고령층이 많기에 이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 필요

참고문헌

- 강은나·백혜연·김영선·오인근·배혜원, 「노인 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 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김도형·이영욱·윤희숙·이태석·권정현·권태구·한영은, 「보완적 노후소득 보장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
- 김문정·김진·백혜연·김가원·박병현·성경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 노인개발연구원, 2021.
- 김성아·이태진·최준영,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김태완 외,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20.
- 남상호,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건복지 Issue & Focus, 277, 1-8, 2015.
- 보건복지부,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3.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1년 기초연금」, 2022.
- 박준기·황의식·문한필,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정책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손병돈·이원진·한경훈, 「노인 일자리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2019.
- 송인호,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09, 2017.
- 안서연, 「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이용한 빈곤 재측정」,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김태완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0.
-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윤성진, 「점유형태별 주거비용 차이 분석: 금리 및 보유세 변화를 중심으로」, LHI 저널, 12(1), 69-86. 2021.
- 윤희숙·권형준,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KDI 정책포럼, 제254호, 2013.
- 이석원·이윤석·허수정·정연백·신재은·박하나·김두리, 「노인일자리 참가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이수욱·김태환·황관석·변세일·이형찬,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

- 구], 국토연구원, 2015.
- 이영욱,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영욱 외), KDI 연구보고서, 2021.
- 이영욱, 「소득격차 추이와 코로나19의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22(발간예정).
- 이주미·김태완, 「코로나19 전후 도농 소득 변화 비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이진경, 「주택연금의 노인가구 빈곤 완화 효과 분석」, 부동산연구, 24(4), 91-101, 2014.
- 이철희,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투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5(2), 37-68, 2022.
- 장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KIF 금융분석리포트, 2019(16), 1-65, 2019.
- 정규승·김감영·김서영·김선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의제주거소득 반영을 위한 추정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7.
- 정의철, 「모기지론이 주택점유형태 및 자가주택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6(2), 1-20, 2005.
- 정지운·김주현, 「소득-순가치(Income-Net Worth) 개념을 활용한 노인빈곤의 재고찰」, 한국노년학, 34(3), 595-611, 2014.
- 진미윤, 「자가주거비 계층에 대한 방법론 탐색 연구」, 2003.
-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고령화와 경제성장: 인구구조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최경진·임병권, 「자가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 마련 비교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13(1), 1-28, 2020.
- 최윤정·여윤경,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33(1), 201-220, 2020.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1, 2 차 베이비부머 간 은퇴 시 자산 적정성 비교분석」,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8), 1-95, 2017.
- 최현수·여유진·김태완·임완섭·오미애·황남희·고제이·정해식·김재호·손병돈·이상봉·최옥금·진재현·천미경·김솔휘(2016),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 4. 28.
-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 12. 1.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동향」, 2021.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2021.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이용현황(2023년 2월말 기준)」, 2023.
- 허명희, 「탐색적 다변량자료 분석 Exploratory Multivariate Data Analysis」, 자유아카데미, 2011.

- Balestra, C., & Tonkin, R.(2018),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 Brandolini, A., Magri, S., & Smeeding, T. M.(2010), Asset-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267-284.
- Davies, J. B.(1981), Uncertain lifetime, consumption, and dissaving in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3), 561-577.
- Haveman, R., & Wolff, E. N.(2004),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for the US, 1983-2001,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2, 145-169.
- Hendershott, P. H., & Slemrod, J.(1982), Taxes and the user cost of capital for owner-occupied housing, *Real Estate Economics*, 10(4), 375-393.
- Hubbard, R. G., Skinner, J., & Zeldes, S. P.(1995), Precautionary saving and social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2), 360-399.
- Kuypers, S., & Marx, I.(2018), Estimation of joint income-wealth poverty: A sensitivity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6, 117-137.
- Maasoumi, E., & Racine, J. S.(2016), A solution to aggregation and an application to multidimensional 'well-being' frontiers, *Journal of Econometrics*, 191(2), 374-383.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2021.
- Poterba, J. M.(1984), Tax subsidies to owner-occupied housing: an asset-market approac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4), 729-752.
- Poterba, J. M.(2001), Demographic structure and asset retur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565-584.
- Poterba, J., & Sinai, T.(2008), Tax expenditures for owner-occupied housing: Deductions for property taxes and mortgage interest and the exclusion of imputed rental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98(2), 84-89.
- Weisbrod, B. A., & Hansen, W. L.(1968), An income-net worth approach to measuring economic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58(5), 1315-1329.
- Wolff, E. N., & Zacharias, A.(2009), Household wealth and the measurement of economic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7, 83-115.

<자료>

KOSIS, 주택연금 보증잔액 현황, 2008~2022.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2011~2021.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 9~11차, <https://www.lisdatacenter.org/>(최종접속일자: 2023.6.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4~2022.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21.

통계청,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21.

통계청, 생명표, 2017~2022.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조건표, 2022.03.01

LWS DB를 이용한 국제비교 국가별 연령·성별생명표, (호주)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life-tables> (독일)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sequenz=tabelleErgebnis&selectionname=12621-0002&zeitscheiben=15&sachmerkmal=ALT577&sachschlüssel=ALTVOLL000,ALTVOLL020,ALTVOLL040,ALTVOLL060,ALTVOLL065,ALTVOLL080&language=en#abreadcrumb> (노르웨이) <https://www.ssb.no/en/statbank/table/07902> (이탈리아) <http://dati.istat.it/Index.aspx?QueryId=19052&lang=en#> (핀란드) https://pxdata.stat.fi/PxWeb/pxweb/en/StatFin/StatFin_kuol/statfin_kuol_pxt_12ap.px/ (미국) <https://www.ssa.gov/oact/STATS/table4c6.html> (영국)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lifeexpectancies/datasets/nationallifetablesunitedkingdomreferencetables/current> (최종접속일자: 2023.6.11.)

A1. 주택부동산 관련 수치

<부표 A-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단위: %)

주택유형	지역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아파트	수도권	74.44	74.20	68.04	66.27	65.61	63.64
아파트	지방	74.92	75.22	74.79	74.69	74.90	73.71
연립다세대	수도권	65.96	71.11	70.70	71.19	71.11	68.68
연립다세대	지방	68.68	69.64	69.73	70.09	69.98	64.40
단독주택	수도권	51.22	55.47	51.95	49.83	48.59	48.47
단독주택	지방	47.20	48.90	47.39	46.32	45.45	46.29
종합	수도권	68.83	70.79	66.50	65.33	64.74	63.24
종합	지방	65.16	65.99	65.43	65.30	65.13	64.34

주: 매 해 3월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표 A-2> 전월세전환율

(단위: %)

주택유형	지역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아파트	수도권	4.39	4.38	4.42	4.29	4.32	4.43
아파트	지방	5.27	5.25	5.14	5.00	4.90	4.86
연립다세대	수도권	6.15	5.76	5.44	4.97	4.61	4.55
연립다세대	지방	9.43	9.16	8.57	8.44	7.61	7.03
단독주택	수도권	7.45	7.02	6.84	6.48	6.18	6.12
단독주택	지방	9.76	9.55	9.35	9.12	8.80	8.36
종합	수도권	5.91	5.78	5.67	5.35	5.21	5.20
종합	지방	7.64	7.54	7.29	7.08	6.93	6.70

주: 매 해 3월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표 A-3> 사용자 비용 계산 이용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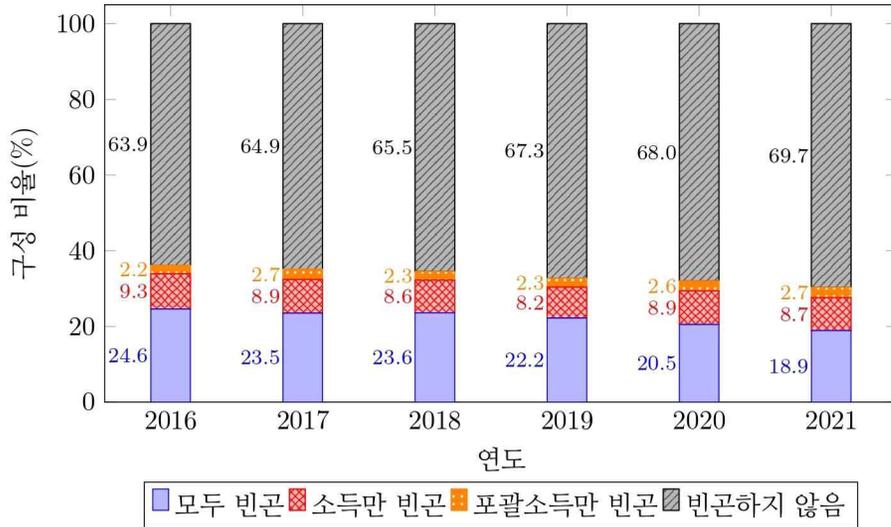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담보대출금리	3.21	3.45	3.04	2.48	2.73	3.84
회사채 수익률	2.21	2.83	2.24	1.84	2.09	3.03
주택매매가격상승률	0.76	1.86	0.21	1.23	6.70	7.47

- 주: 1) 매 해 3월 기준.
 2)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3) 회사채 수익률은 3년 만기, AA-.
 4)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전국, 종합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은행(주택담보대출금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한국부동산원(주택매매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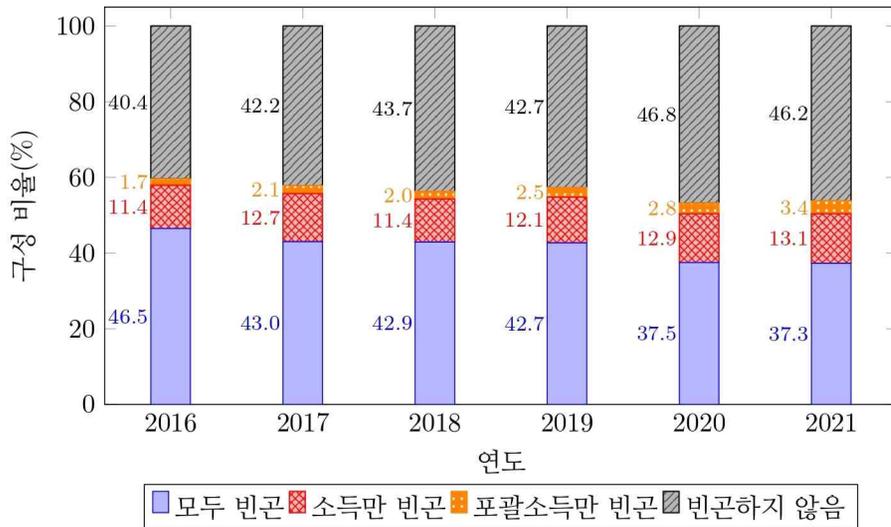
A2. 연령대별 노인 빈곤층 구성

[부도 A-1] 노인 빈곤유형별 구성(연소 노인,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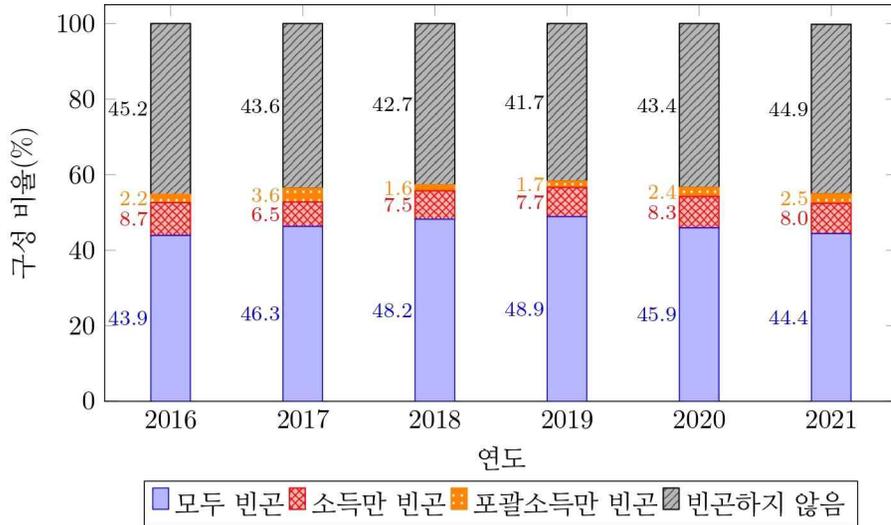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A-2] 노인 빈곤유형별 구성(고령 노인, 75-84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A-3] 노인 빈곤유형별 구성(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3. 고령층의 소득, 자산, 소비(2016-2021년)

<부표 A-4>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전체 노인, 2016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996	808	400	348	543	137
	P10	556	0	0	0	122	0
	P50	1,467	0	0	57	370	14
	P90	3,900	2,492	1,305	773	1,079	424
소득 빈곤	평균	766	106	77	105	395	152
	P10	399	0	0	0	146	0
	P50	762	0	0	25	353	71
	P90	1,149	417	300	305	695	42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63	120	65	87	398	146
	P10	378	0	0	0	173	0
	P50	727	0	0	16	349	71
	P90	1,176	467	240	210	708	424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4,119	39,272	6,669	31,276	1,326
	P10	930	1,180	100	0	0
	P50	18,200	20,300	2,386	15,000	100
	P90	77,440	90,031	15,470	73,000	2,912
소득 빈곤	평균	16,026	17,481	2,994	14,234	252
	P10	207	250	40	0	0
	P50	8,060	8,880	744	6,608	0
	P90	37,800	41,200	7,055	36,000	61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813	8,623	2,426	6,015	181
	P10	100	200	33	0	0
	P50	5,015	5,200	616	2,000	0
	P90	19,300	20,510	6,178	17,000	3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2%	24,141	26	42%
	P10		3,500	12	
	P50		16,000	24	
	P90		50,000	41	
소득 빈곤	평균	61%	14,938	22	36%
	P10		2,000	10	
	P50		10,000	20	
	P90		34,000	3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0%	10,381	20	35%
	P10		1,800	10	
	P50		7,500	18	
	P90		21,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041	344	159	142	203
	P10	390	109	57	14	25
	P50	862	277	134	75	120
	P90	1,910	671	283	325	450
소득 빈곤	평균	655	227	130	118	94
	P10	305	85	44	10	16
	P50	587	204	110	60	66
	P90	1,044	375	240	255	20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23	223	129	105	88
	P10	295	83	42	10	15
	P50	564	200	106	60	60
	P90	990	360	242	240	191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5>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전체 노인, 2017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070	848	407	365	575	146
	P10	579	0	0	0	131	0
	P50	1,562	23	0	45	395	21
	P90	4,096	2,592	1,414	827	1,150	424
소득 빈곤	평균	797	115	82	115	413	154
	P10	432	0	0	0	175	0
	P50	786	0	0	24	380	77
	P90	1,201	441	354	318	723	42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02	139	66	78	422	155
	P10	424	0	0	0	178	0
	P50	761	0	0	17	382	80
	P90	1,268	529	247	199	740	424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7,537	42,766	7,124	33,964	1,678
	P10	1,015	1,340	100	0	0
	P50	19,714	22,100	2,500	17,000	120
	P90	85,110	96,558	16,755	80,000	3,240
소득 빈곤	평균	18,140	19,867	3,330	16,236	301
	P10	210	280	36	0	0
	P50	9,065	10,023	830	7,500	0
	P90	42,505	46,750	8,080	40,000	6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269	9,072	2,469	6,392	210
	P10	105	200	30	0	0
	P50	5,210	5,600	680	2,500	0
	P90	20,470	22,360	6,800	18,000	38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3%	26,012	26	42%
	P10		4,000	12	
	P50		17,000	25	
	P90		55,000	41	
소득 빈곤	평균	62%	16,967	22	36%
	P10		2,300	10	
	P50		10,000	20	
	P90		37,000	3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1%	10,744	20	34%
	P10		2,000	9	
	P50		8,000	18	
	P90		23,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123	369	172	154	230
	P10	438	120	60	17	30
	P50	938	300	141	85	141
	P90	2,000	693	300	354	520
소득 빈곤	평균	704	245	137	124	110
	P10	330	85	48	11	20
	P50	611	233	115	71	70
	P90	1,148	424	240	297	231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59	233	139	112	96
	P10	320	85	46	10	20
	P50	594	212	110	64	64
	P90	1,055	400	250	250	203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6>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전체 노인, 2018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150	891	407	361	622	161
	P10	654	0	0	0	157	0
	P50	1,638	62	0	53	441	42
	P90	4,231	2,841	1,414	817	1,215	480
소득 빈곤	평균	860	119	77	111	459	182
	P10	498	0	0	0	213	0
	P50	856	0	0	27	423	100
	P90	1,245	422	346	316	778	49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61	145	61	77	466	179
	P10	495	0	0	0	246	0
	P50	828	0	0	17	422	100
	P90	1,289	510	212	202	781	48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7,927	43,515	7,238	34,697	1,581
	P10	908	1,215	110	0	0
	P50	19,626	21,790	2,530	17,000	150
	P90	85,500	100,500	17,000	86,000	3,100
소득 빈곤	평균	16,746	18,401	2,984	15,138	279
	P10	200	270	50	0	0
	P50	9,063	9,500	950	7,200	0
	P90	41,431	45,030	7,400	38,500	59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372	9,228	2,598	6,435	196
	P10	100	200	40	0	0
	P50	5,250	5,700	702	2,100	0
	P90	21,100	23,158	7,010	19,000	43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2%	27,341	26	43%
	P10		4,000	12	
	P50		17,000	24	
	P90		60,000	41	
소득 빈곤	평균	61%	16,653	21	35%
	P10		2,800	10	
	P50		10,000	20	
	P90		37,000	33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0%	11,005	19	35%
	P10		2,000	9	
	P50		8,000	18	
	P90		24,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181	393	176	158	256
	P10	480	141	66	17	35
	P50	991	339	144	85	160
	P90	2,108	693	305	346	576
소득 빈곤	평균	748	270	144	126	117
	P10	395	120	57	12	21
	P50	673	250	120	71	84
	P90	1,174	424	255	283	248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17	260	144	117	108
	P10	385	120	57	12	20
	P50	643	240	120	60	76
	P90	1,099	424	262	255	231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7>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전체 노인, 2019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220	884	393	385	693	159
	P10	708	0	0	0	207	0
	P50	1,699	84	0	66	516	42
	P90	4,211	2,722	1,386	875	1,289	440
소득 빈곤	평균	926	120	86	125	526	174
	P10	557	0	0	0	260	0
	P50	932	0	0	29	495	89
	P90	1,325	413	354	361	836	48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31	143	67	101	532	165
	P10	550	0	0	0	295	0
	P50	899	0	0	18	496	85
	P90	1,371	489	243	252	838	45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9,152	44,670	7,532	35,806	1,331
	P10	1,000	1,290	130	0	0
	P50	19,651	22,133	2,363	17,000	114
	P90	88,768	103,330	16,950	86,510	2,900
소득 빈곤	평균	18,019	20,175	3,027	16,844	303
	P10	230	305	50	0	0
	P50	9,150	10,012	980	7,500	0
	P90	43,640	47,660	7,335	42,000	6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634	9,653	2,517	6,916	221
	P10	128	210	50	0	0
	P50	5,390	5,900	850	2,200	0
	P90	22,054	23,390	6,654	20,000	419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2%	28,429	25	44%
	P10		4,000	12	
	P50		17,000	24	
	P90		65,000	40	
소득 빈곤	평균	61%	17,798	22	38%
	P10		3,000	10	
	P50		10,000	20	
	P90		40,000	33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0%	11,627	20	37%
	P10		2,500	9	
	P50		8,000	18	
	P90		25,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226	416	185	166	263
	P10	534	170	70	20	41
	P50	1,040	354	150	85	171
	P90	2,114	720	326	373	577
소득 빈곤	평균	805	295	152	137	130
	P10	435	120	60	15	27
	P50	719	255	127	73	92
	P90	1,243	480	272	297	269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58	280	150	126	116
	P10	421	120	60	12	25
	P50	686	255	120	71	85
	P90	1,150	454	276	279	238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8>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전체 노인, 2020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399	917	435	413	796	151
	P10	827	0	0	0	295	0
	P50	1,850	138	0	70	631	35
	P90	4,430	2,792	1,420	937	1,355	431
소득 빈곤	평균	1,017	121	78	124	631	163
	P10	646	0	0	0	345	0
	P50	1,031	0	0	26	600	71
	P90	1,392	424	318	375	968	48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1,043	146	69	105	647	155
	P10	640	0	0	0	382	0
	P50	1,010	0	0	14	608	71
	P90	1,455	490	250	240	975	45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5,447	51,141	8,395	41,165	1,581
	P10	1,070	1,430	170	0	0
	P50	22,915	25,345	2,701	19,000	160
	P90	105,201	115,400	18,732	100,000	3,550
소득 빈곤	평균	21,863	23,692	3,396	19,858	439
	P10	263	2,350	62	0	0
	P50	10,040	10,600	1,070	8,000	0
	P90	55,360	59,950	8,024	53,000	7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022	10,147	2,902	6,838	407
	P10	150	242	50	0	0
	P50	5,300	6,050	1,000	1,800	0
	P90	23,420	24,800	7,450	20,000	47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3%	33,236	25	44%
	P10		4,500	12	
	P50		18,500	24	
	P90		80,000	40	
소득 빈곤	평균	62%	21,346	22	40%
	P10		3,000	10	
	P50		11,100	20	
	P90		50,000	33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9%	11,867	20	38%
	P10		2,500	9	
	P50		8,000	18	
	P90		25,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285	446	191	170	276
	P10	589	180	75	21	46
	P50	1,109	392	153	100	191
	P90	2,176	778	339	360	580
소득 빈곤	평균	851	320	158	136	142
	P10	481	141	64	16	30
	P50	782	291	127	85	102
	P90	1,277	509	288	300	3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14	308	159	125	130
	P10	461	139	60	14	28
	P50	746	280	127	80	92
	P90	1,226	495	302	269	276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9>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전체 노인, 2021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549	970	488	427	828	161
	P10	847	0	0	0	304	0
	P50	2,002	185	0	58	678	35
	P90	4,730	2,919	1,697	978	1,440	495
소득 빈곤	평균	1,049	133	83	121	646	180
	P10	634	0	0	0	338	0
	P50	1,071	0	0	22	631	99
	P90	1,457	439	320	370	993	5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1,075	166	61	83	663	179
	P10	627	0	0	0	379	0
	P50	1,046	0	0	11	641	87
	P90	1,573	594	148	189	1,008	50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50,480	56,656	8,470	46,556	1,630
	P10	1,180	1,545	190	0	0
	P50	25,773	28,173	3,000	20,960	200
	P90	116,550	131,116	19,690	110,000	3,670
소득 빈곤	평균	26,068	27,916	3,757	23,820	339
	P10	270	315	75	0	0
	P50	11,005	11,750	1,182	8,800	0
	P90	67,100	70,720	8,520	64,000	8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485	10,344	2,964	7,170	211
	P10	160	230	60	0	0
	P50	5,350	6,020	1,010	1,300	0
	P90	24,000	25,690	11,400	20,000	45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3%	37,769	26	43%
	P10		5,000	12	
	P50		20,000	24	
	P90		90,000	41	
소득 빈곤	평균	61%	26,829	22	39%
	P10		3,000	10	
	P50		13,000	20	
	P90		64,000	3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9%	12,949	20	37%
	P10		2,700	9	
	P50		9,000	18	
	P90		27,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338	471	200	183	282
	P10	595	180	81	25	27
	P50	1,174	420	170	102	198
	P90	2,249	849	346	416	601
소득 빈곤	평균	888	332	168	147	148
	P10	472	144	69	17	31
	P50	793	297	141	85	106
	P90	1,400	531	300	311	29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29	310	165	138	129
	P10	458	141	66	14	30
	P50	754	283	127	80	100
	P90	1,280	500	314	297	255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4. 연소 노인(65-74세)의 소득, 자산, 소비(2016-2021년)

<부표 A-10>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연소 노인, 65-74세, 2016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224	897	486	391	591	122
	P10	682	0	0	0	141	0
	P50	1,739	247	0	62	414	0
	P90	4,237	2,507	1,556	907	1,129	389
소득 빈곤	평균	824	144	94	105	432	133
	P10	475	0	0	0	158	0
	P50	833	0	0	23	409	50
	P90	1,179	600	354	334	725	419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29	169	81	89	433	126
	P10	447	0	0	0	173	0
	P50	805	0	0	12	409	50
	P90	1,246	679	300	210	735	382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7,092	43,266	6,932	34,736	1,598
	P10	1,496	2,013	130	0	0
	P50	20,858	23,817	2,805	18,000	200
	P90	81,127	94,000	15,820	80,000	3,500
소득 빈곤	평균	16,650	18,456	3,219	14,914	323
	P10	250	370	50	0	0
	P50	9,578	10,722	1,010	8,000	0
	P90	40,676	45,271	7,690	40,500	9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757	8,854	2,644	5,993	217
	P10	125	250	46	0	0
	P50	5,100	5,650	981	1,500	0
	P90	19,520	21,622	7,120	17,000	6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 여부
전체 노인	평균	74%	25,478	27	44%
	P10		4,500	12	
	P50		18,000	25	
	P90		50,000	43	
소득 빈곤	평균	62%	15,767	22	36%
	P10		2,500	10	
	P50		12,000	20	
	P90		35,000	37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8%	10,897	20	37%
	P10		2,000	9	
	P50		8,000	18	
	P90		22,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110	373	167	138	226
	P10	469	127	62	14	34
	P50	953	300	141	71	144
	P90	1,935	693	297	325	500
소득 빈곤	평균	717	247	141	113	110
	P10	365	100	50	10	21
	P50	647	240	120	60	80
	P90	1,118	424	262	255	22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97	249	143	103	105
	P10	361	100	50	8	20
	P50	630	226	116	60	76
	P90	1,066	424	283	240	224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1>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연소 노인, 65-74세, 2017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339	984	492	404	635	126
	P10	723	0	0	0	161	0
	P50	1,859	298	0	49	448	0
	P90	4,397	2,688	4,682	921	1,273	360
소득 빈곤	평균	870	152	99	109	468	130
	P10	511	0	0	0	180	0
	P50	866	0	0	22	443	50
	P90	1,238	600	404	326	772	4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86	191	87	81	474	122
	P10	508	0	0	0	175	0
	P50	842	0	0	16	452	42
	P90	1,330	710	304	211	777	36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0,638	46,586	7,671	36,863	2,052
	P10	1,835	2,400	150	0	0
	P50	22,690	25,900	2,964	20,000	300
	P90	89,266	105,360	17,620	86,400	4,342
소득 빈곤	평균	18,639	20,818	3,943	16,438	437
	P10	300	467	50	0	0
	P50	11,148	12,130	1,200	9,300	0
	P90	43,774	49,780	8,767	40,000	93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586	9,578	2,797	6,480	301
	P10	194	284	50	0	0
	P50	5,540	6,302	1,100	2,500	0
	P90	21,061	23,170	7,013	18,500	6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5%	27,143	27	43%
	P10		5,000	12	
	P50		18,000	25	
	P90		55,000	41	
소득 빈곤	평균	63%	17,240	22	36%
	P10		2,000	10	
	P50		12,000	20	
	P90		36,500	3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0%	11,359	20	35%
	P10		2,500	9	
	P50		9,000	18	
	P90		24,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215	402	181	157	263
	P10	521	150	69	17	40
	P50	1,039	346	150	85	170
	P90	2,107	707	307	354	572
소득 빈곤	평균	783	276	146	124	133
	P10	391	108	55	10	25
	P50	677	255	127	68	85
	P90	1,227	424	246	297	27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47	264	150	120	116
	P10	372	106	56	8	24
	P50	651	255	126	60	78
	P90	1,203	424	264	463	240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2>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연소 노인, 65-74세, 2018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420	1,023	496	402	692	134
	P10	783	0	0	1	189	0
	P50	1,928	318	0	59	502	22
	P90	4,477	2,936	1,697	936	1,381	424
소득 빈곤	평균	973	153	95	114	515	149
	P10	582	0	0	0	245	0
	P50	926	0	0	24	499	69
	P90	1,292	574	424	348	944	42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34	25	76	72	518	141
	P10	574	0	0	0	233	0
	P50	908	0	0	11	500	50
	P90	1,358	720	339	226	805	424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1,177	47,643	8,073	37,673	1,898
	P10	1,630	2,182	200	0	0
	P50	22,320	25,885	3,105	19,250	300
	P90	90,950	107,778	18,296	92,000	4,460
소득 빈곤	평균	18,008	20,468	3,419	16,642	407
	P10	250	502	70	0	0
	P50	10,300	11,195	1,320	8,850	0
	P90	45,400	49,011	7,760	40,000	99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650	9,795	3,031	6,484	280
	P10	102	310	60	0	0
	P50	5,900	6,390	1,120	2,000	0
	P90	21,320	24,100	7,606	20,000	7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4%	28,504	26	44%
	P10		5,000	10	
	P50		19,000	25	
	P90		60,000	41	
소득 빈곤	평균	63%	17,873	21	37%
	P10		3,000	10	
	P50		12,000	20	
	P90		38,000	3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0%	11,638	19	38%
	P10		2,500	9	
	P50		9,000	18	
	P90		25,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275	423	183	154	297
	P10	566	170	71	17	50
	P50	1,082	360	152	85	197
	P90	2,213	750	322	346	636
소득 빈곤	평균	809	293	149	123	136
	P10	443	120	60	10	27
	P50	735	255	120	63	102
	P90	1,270	480	255	283	276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81	281	151	114	128
	P10	431	120	60	10	25
	P50	714	255	120	57	95
	P90	1,195	438	286	255	262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3>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연소 노인, 65-74세, 2019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523	1,026	490	442	771	135
	P10	856	0	0	0	238	0
	P50	2,056	339	0	71	587	21
	P90	4,519	2,820	1,697	1,000	1,450	386
소득 빈곤	평균	984	159	115	123	581	142
	P10	638	0	0	0	267	0
	P50	1,001	0	0	25	574	68
	P90	1,345	555	424	392	880	42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98	196	96	93	581	125
	P10	622	0	0	0	269	0
	P50	977	0	0	9	585	50
	P90	1,422	679	354	249	883	36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3,258	49,887	8,550	39,632	1,706
	P10	1,900	2,519	200	0	0
	P50	22,946	25,706	3,059	19,950	300
	P90	97,552	110,800	18,878	98,000	3,800
소득 빈곤	평균	19,644	22,471	3,671	18,344	456
	P10	380	502	80	0	0
	P50	10,690	11,830	1,340	9,000	0
	P90	45,070	50,960	8,360	45,000	1,0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791	9,997	2,928	6,732	337
	P10	200	330	60	0	0
	P50	5,756	6,610	1,172	2,000	0
	P90	21,500	23,506	7,470	19,000	8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5%	29,659	26	44%
	P10		5,000	12	
	P50		18,400	25	
	P90		68,000	40	
소득 빈곤	평균	62%	19,091	22	40%
	P10		3,800	10	
	P50		13,000	20	
	P90		40,000	33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9%	12,108	20	38%
	P10		3,000	9	
	P50		9,000	18	
	P90		23,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336	453	197	162	310
	P10	622	180	75	19	58
	P50	1,150	382	162	85	212
	P90	2,210	831	346	358	653
소득 빈곤	평균	877	320	162	129	156
	P10	487	141	60	12	35
	P50	796	297	132	69	113
	P90	1,339	509	295	290	31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24	302	159	121	137
	P10	475	139	60	10	32
	P50	759	277	127	60	101
	P90	1,222	480	300	278	283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4>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연소 노인, 65-74세, 2020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677	1,054	534	450	864	126
	P10	957	0	0	1	325	0
	P50	2,205	325	0	75	698	0
	P90	4,687	2,913	1,750	1,020	1,482	400
소득 빈곤	평균	1,066	154	100	121	677	137
	P10	699	0	0	0	354	0
	P50	1,102	0	0	24	680	42
	P90	1,416	539	389	378	996	42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1,104	198	99	92	690	121
	P10	694	0	0	0	373	0
	P50	1,097	0	0	8	689	30
	P90	1,525	700	354	240	995	381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8,997	55,652	9,273	44,835	1,994
	P10	1,900	2,734	297	0	0
	P50	25,805	29,140	3,508	21,000	366
	P90	109,887	126,290	20,500	105,000	4,700
소득 빈곤	평균	25,280	27,597	4,301	22,544	752
	P10	330	554	104	0	0
	P50	11,650	12,900	1,520	9,000	0
	P90	64,300	68,800	9,700	60,000	1,2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265	10,719	3,599	6,375	745
	P10	200	340	90	0	0
	P50	5,780	6,820	1,310	800	0
	P90	23,020	24,940	9,000	19,000	1,0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5%	34,552	26	44%
	P10		5,000	12	
	P50		20,000	25	
	P90		80,000	40	
소득 빈곤	평균	62%	24,807	22	43%
	P10		4,000	10	
	P50		13,500	20	
	P90		60,000	3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7%	11,758	19	41%
	P10		3,000	9	
	P50		8,500	18	
	P90		22,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384	479	200	167	318
	P10	675	208	81	21	64
	P50	1,222	424	166	96	235
	P90	2,245	849	346	354	640
소득 빈곤	평균	944	350	164	137	172
	P10	546	170	68	14	36
	P50	856	339	134	81	135
	P90	1,442	566	300	289	339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01	333	168	124	157
	P10	521	170	65	14	35
	P50	831	318	132	71	120
	P90	1,363	516	322	255	318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5>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연소 노인, 65-74세, 2021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907	1,164	603	485	904	131
	P10	1,016	0	0	1	354	0
	P50	2,362	424	0	63	744	0
	P90	5,204	3,152	1,848	1,122	1,545	424
소득 빈곤	평균	1,101	167	110	128	708	144
	P10	671	0	0	0	369	0
	P50	1,148	0	0	20	696	42
	P90	1,489	600	369	394	1,095	45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1,140	221	83	80	714	141
	P10	671	0	0	0	369	0
	P50	1,122	0	0	5	702	35
	P90	1,642	792	200	178	1,078	48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55,311	62,549	9,859	50,598	2,092
	P10	2,240	3,050	300	0	0
	P50	30,115	33,010	3,942	24,300	450
	P90	129,700	146,600	21,778	125,000	4,758
소득 빈곤	평균	30,360	32,844	4,813	27,503	528
	P10	330	458	134	0	0
	P50	12,800	13,360	1,700	10,000	0
	P90	73,300	80,500	10,200	70,000	1,34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139	10,026	3,384	6,311	331
	P10	216	309	110	0	0
	P50	5,220	6,119	1,239	0	0
	P90	21,749	24,112	8,520	19,000	735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5%	39,565	26	44%
	P10		5,500	13	
	P50		22,000	25	
	P90		95,000	41	
소득 빈곤	평균	61%	30,379	22	43%
	P10		4,300	10	
	P50		15,000	20	
	P90		70,000	33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5%	12,396	18	41%
	P10		3,000	8	
	P50		10,000	17	
	P90		22,500	28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444	509	206	176	329
	P10	697	212	85	24	72
	P50	1,300	424	170	100	243
	P90	2,308	849	354	389	660
소득 빈곤	평균	985	366	177	146	181
	P10	532	170	69	14	40
	P50	861	339	144	80	134
	P90	1,536	600	324	318	36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06	335	177	134	153
	P10	520	170	66	10	35
	P50	812	300	139	71	120
	P90	1,393	537	354	300	315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5. 고령 노인(75-84세)의 소득, 자산, 소비(2016-2021년)

<부표 A-16>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고령 노인, 75-84세, 2016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664	657	272	302	482	160
	P10	471	0	0	0	109	0
	P50	1,076	0	0	56	277	45
	P90	3,522	2,309	849	668	1,030	480
소득 빈곤	평균	731	76	69	110	367	167
	P10	390	0	0	0	141	0
	P50	711	0	0	30	292	85
	P90	1,113	242	283	305	660	44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25	85	58	93	374	158
	P10	368	0	0	0	173	0
	P50	685	0	0	21	292	80
	P90	1,105	255	200	226	666	424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0,202	33,884	6,265	26,704	914
	P10	600	800	60	0	0
	P50	14,980	16,240	1,800	12,300	0
	P90	69,376	81,100	14,752	62,000	2,100
소득 빈곤	평균	16,006	17,131	2,927	13,998	206
	P10	210	250	40	0	0
	P50	7,734	8,100	601	6,500	0
	P90	37,617	40,140	6,585	35,000	332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432	9,076	2,371	6,530	175
	P10	110	180	30	0	0
	P50	5,162	5,519	536	3,000	0
	P90	19,600	20,400	5,800	18,000	22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9%	21,879	25	41%
	P10		3,000	12	
	P50		14,500	23	
	P90		50,000	40	
소득 빈곤	평균	62%	14,284	22	35%
	P10		2,000	10	
	P50		9,000	20	
	P90		32,000	3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4%	10,344	20	34%
	P10		1,800	10	
	P50		7,000	18	
	P90		23,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945	304	149	151	167
	P10	331	85	50	14	20
	P50	731	255	126	80	88
	P90	1,865	581	262	354	389
소득 빈곤	평균	618	215	121	129	83
	P10	288	70	42	10	14
	P50	529	180	105	68	57
	P90	994	360	212	255	18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80	206	120	112	77
	P10	283	70	42	10	14
	P50	511	178	102	60	53
	P90	899	356	212	240	170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7>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고령 노인, 75-84세, 2017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713	656	286	326	496	174
	P10	499	0	0	0	110	0
	P50	1,155	0	0	45	300	58
	P90	3,470	2,296	866	725	1,018	467
소득 빈곤	평균	758	93	76	130	369	170
	P10	419	0	0	0	150	0
	P50	740	0	0	29	307	100
	P90	1,159	313	339	341	662	43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54	105	55	83	384	178
	P10	412	0	0	0	191	0
	P50	721	0	0	20	309	110
	P90	1,159	346	208	213	686	438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4,001	38,360	6,512	30,638	1,209
	P10	591	940	60	0	0
	P50	16,942	18,030	1,750	14,000	10
	P90	80,514	90,900	15,100	76,000	2,300
소득 빈곤	평균	18,716	20,079	3,032	16,831	216
	P10	223	300	30	0	0
	P50	9,015	9,670	650	7,400	0
	P90	45,060	48,500	8,300	42,500	38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671	9,278	2,346	6,780	152
	P10	130	200	30	0	0
	P50	5,420	5,825	510	3,100	0
	P90	21,080	22,025	6,850	18,500	2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0%	24,573	26	42%
	P10		3,000	12	
	P50		15,000	24	
	P90		55,000	41	
소득 빈곤	평균	64%	17,209	22	36%
	P10		2,000	10	
	P50		10,000	20	
	P90		40,000	3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4%	10,581	20	34%
	P10		1,900	10	
	P50		7,000	18	
	P90		23,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997	327	159	151	186
	P10	371	100	52	17	23
	P50	793	255	132	85	100
	P90	1,850	594	288	354	417
소득 빈곤	평균	660	228	130	127	97
	P10	324	80	45	12	17
	P50	576	210	106	80	60
	P90	1,057	400	225	300	198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02	215	129	104	84
	P10	318	80	42	10	17
	P50	547	200	104	69	58
	P90	943	360	230	240	173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8>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고령 노인, 75-84세, 2018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797	706	289	323	535	196
	P10	571	0	0	0	131	0
	P50	1,233	0	0	54	359	71
	P90	3,687	2,537	948	711	1,021	509
소득 빈곤	평균	823	100	66	117	419	200
	P10	476	0	0	0	198	0
	P50	817	0	0	31	392	120
	P90	1,203	344	289	316	723	5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19	113	52	87	430	199
	P10	473	0	0	0	246	0
	P50	783	0	0	22	387	120
	P90	1,213	351	200	203	728	50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4,109	38,503	6,147	31,187	1,169
	P10	552	731	90	0	0
	P50	16,550	18,034	1,790	15,000	17
	P90	78,874	91,205	14,351	78,900	2,080
소득 빈곤	평균	16,743	17,771	2,707	14,879	185
	P10	205	250	50	0	0
	P50	9,157	9,600	700	7,500	0
	P90	40,100	41,836	7,076	38,000	3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669	9,348	2,401	6,806	141
	P10	120	190	40	0	0
	P50	5,492	5,850	570	3,000	0
	P90	21,853	23,300	6,320	19,000	211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9%	25,831	25	42%
	P10		3,000	11	
	P50		15,000	23	
	P90		60,000	40	
소득 빈곤	평균	62%	15,969	22	34%
	P10		2,600	10	
	P50		10,000	20	
	P90		35,000	32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3%	10,774	20	33%
	P10		2,000	10	
	P50		8,000	18	
	P90		23,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068	354	168	165	207
	P10	439	127	60	20	27
	P50	851	297	139	86	120
	P90	1,969	671	297	354	467
소득 빈곤	평균	716	259	141	133	104
	P10	386	120	57	14	20
	P50	646	240	120	72	74
	P90	1,097	424	250	283	22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86	250	140	122	96
	P10	375	106	57	12	18
	P50	615	240	118	71	69
	P90	1,039	420	250	255	202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19>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고령 노인, 75-84세, 2019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843	690	281	329	600	186
	P10	638	0	0	0	171	0
	P50	1,328	0	0	69	456	71
	P90	3,663	2,462	849	741	1,058	526
소득 빈곤	평균	903	101	71	134	488	194
	P10	533	0	0	0	244	0
	P50	901	0	0	40	462	106
	P90	1,315	324	283	379	786	509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09	115	52	117	505	188
	P10	529	0	0	0	303	0
	P50	864	0	0	25	469	100
	P90	1,341	360	191	277	786	509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3,922	37,853	6,313	30,735	805
	P10	600	785	100	0	0
	P50	16,700	18,470	1,560	14,200	0
	P90	77,200	85,662	14,600	75,000	1,950
소득 빈곤	평균	18,042	19,528	2,643	16,686	200
	P10	240	300	50	0	0
	P50	9,050	9,711	800	7,000	0
	P90	45,180	47,318	7,075	42,000	32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016	9,780	2,378	7,258	145
	P10	120	200	50	0	0
	P50	5,670	6,000	710	3,000	0
	P90	22,760	24,100	6,300	20,000	25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9%	26,698	25	44%
	P10		3,500	11	
	P50		15,000	23	
	P90		62,000	40	
소득 빈곤	평균	62%	17,339	22	38%
	P10		3,000	10	
	P50		10,000	20	
	P90		40,000	32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2%	11,523	20	37%
	P10		2,200	9	
	P50		8,000	18	
	P90		25,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096	373	170	174	206
	P10	491	148	66	21	31
	P50	892	339	140	96	127
	P90	1,966	636	290	400	468
소득 빈곤	평균	774	286	147	147	115
	P10	429	120	60	18	24
	P50	686	255	120	85	81
	P90	1,198	467	255	300	24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32	274	146	134	104
	P10	421	120	60	14	23
	P50	665	255	120	80	75
	P90	1,115	424	255	283	212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0>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고령 노인, 75-84세, 2020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044	724	304	382	713	182
	P10	767	0	0	0	247	0
	P50	1,488	0	0	76	577	62
	P90	4,007	2,506	960	861	1,211	509
소득 빈곤	평균	1,000	104	67	137	602	179
	P10	643	0	0	0	329	0
	P50	1,014	0	0	34	580	100
	P90	1,368	348	283	397	909	5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1,028	121	51	132	626	173
	P10	642	0	0	0	389	0
	P50	989	0	0	23	590	92
	P90	1,414	380	180	277	922	492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1,441	45,936	7,324	37,675	937
	P10	910	1,060	103	0	0
	P50	20,011	21,704	2,000	16,500	10
	P90	94,600	102,830	16,100	95,000	2,200
소득 빈곤	평균	21,004	22,495	2,853	19,414	229
	P10	305	396	56	0	0
	P50	10,250	10,600	1,000	8,070	0
	P90	53,200	56,423	7,526	50,000	399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451	10,487	2,493	7,802	192
	P10	178	230	50	0	0
	P50	6,050	6,201	820	3,500	0
	P90	24,380	24,945	6,400	20,000	28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2%	31,739	25	44%
	P10		4,000	12	
	P50		16,900	24	
	P90		80,000	40	
소득 빈곤	평균	65%	19,784	22	38%
	P10		3,000	10	
	P50		10,000	20	
	P90		50,000	32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3%	12,687	20	37%
	P10		2,500	10	
	P50		8,100	18	
	P90		27,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158	405	179	175	220
	P10	536	170	71	25	35
	P50	958	350	144	104	141
	P90	2,002	693	314	382	483
소득 빈곤	평균	802	306	154	137	125
	P10	465	138	60	20	28
	P50	745	269	127	90	88
	P90	1,181	485	274	318	266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73	298	156	126	115
	P10	447	131	60	15	25
	P50	710	258	125	85	81
	P90	1,137	467	283	289	244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1>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고령 노인, 75-84세, 2021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070	703	326	348	732	206
	P10	782	0	0	0	277	0
	P50	1,574	0	0	60	606	71
	P90	3,937	2,375	1,061	812	1,235	600
소득 빈곤	평균	1,036	126	70	119	614	200
	P10	645	0	0	0	328	0
	P50	1,040	0	0	28	602	120
	P90	1,447	400	300	356	934	509
포괄 소득 빈곤	평균	1,059	150	49	93	640	194
	P10	649	0	0	0	385	0
	P50	1,030	0	0	20	618	120
	P90	1,549	460	141	217	954	50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4,216	49,117	6,279	41,963	875
	P10	900	1,088	117	0	0
	P50	21,810	24,000	2,050	18,400	20
	P90	103,500	108,422	15,690	101,000	2,015
소득 빈곤	평균	24,940	26,511	2,882	23,390	239
	P10	315	327	62	0	0
	P50	11,750	12,230	1,000	9,800	0
	P90	65,250	70,237	7,000	63,000	506
포괄 소득 빈곤	평균	10,284	11,317	2,684	13,187	158
	P10	200	250	60	0	0
	P50	6,550	7,030	950	4,000	0
	P90	26,400	26,820	7,030	22,000	35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73%	35,560	26	43%
	P10		4,000	12	
	P50		18,000	24	
	P90		90,000	41	
소득 빈곤	평균	66%	25,375	23	37%
	P10		3,000	10	
	P50		13,000	20	
	P90		63,000	3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4%	13,674	21	34%
	P10		2,500	10	
	P50		9,735	18	
	P90		30,000	32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204	426	190	196	219
	P10	539	170	76	25	42
	P50	995	360	156	106	141
	P90	2,140	750	332	453	495
소득 빈곤	평균	839	318	163	147	131
	P10	463	141	70	20	30
	P50	767	283	136	85	100
	P90	1,287	509	283	318	25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94	302	157	136	119
	P10	450	127	69	15	28
	P50	737	262	127	80	95
	P90	1,200	480	289	297	242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6.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의 소득, 자산, 소비(2016-2021년)

<부표 A-22>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2016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802	832	348	238	456	142
	P10	370	0	0	0	109	0
	P50	1,182	0	0	35	277	21
	P90	3,771	2,836	1,386	496	878	424
소득 빈곤	평균	665	71	39	80	354	172
	P10	309	0	0	0	170	0
	P50	654	0	0	16	276	100
	P90	1,081	226	58	207	673	48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53	76	30	55	357	174
	P10	294	0	0	0	173	0
	P50	620	0	0	12	277	100
	P90	1,081	240	0	154	671	48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29,661	33,851	6,542	26,150	1,159
	P10	165	200	45	0	0
	P50	11,940	14,450	2,070	10,000	0
	P90	75,592	81,262	17,695	62,000	2,500
소득 빈곤	평균	13,147	14,544	2,250	12,152	142
	P10	60	60	20	0	0
	P50	4,340	4,520	400	1,600	0
	P90	31,700	33,450	6,110	30,000	2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158	5,505	1,750	3,700	56
	P10	31	48	20	0	0
	P50	2,550	2,701	300	0	0
	P90	13,100	14,450	5,120	11,300	1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2%	23,622	26	42%
	P10		3,000	12	
	P50		15,000	24	
	P90		55,000	43	
소득 빈곤	평균	49%	14,057	21	35%
	P10		1,500	10	
	P50		9,000	20	
	P90		33,000	32	
포괄 소득 빈곤	평균	39%	7,894	19	33%
	P10		1,000	8	
	P50		5,000	18	
	P90		18,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963	300	147	129	188
	P10	291	84	51	13	20
	P50	800	248	120	71	107
	P90	1,940	563	264	255	445
소득 빈곤	평균	537	191	120	90	72
	P10	234	69	35	10	10
	P50	442	180	96	50	49
	P90	897	340	204	177	18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12	187	112	84	68
	P10	232	60	30	10	5
	P50	436	170	90	56	42
	P90	849	339	208	170	165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3>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2017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771	742	348	260	498	152
	P10	396	0	0	0	115	0
	P50	1,143	0	0	31	283	30
	P90	3,827	2,657	1,155	501	1,100	424
소득 빈곤	평균	655	60	33	65	377	181
	P10	304	0	0	0	175	0
	P50	624	0	0	22	279	115
	P90	1,042	232	85	182	715	49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81	83	30	48	387	183
	P10	302	0	0	0	176	0
	P50	624	0	0	15	279	120
	P90	1,145	307	37	128	721	495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1,379	35,419	5,986	28,306	1,127
	P10	130	206	40	0	0
	P50	12,400	14,030	1,492	10,000	0
	P90	71,368	81,120	16,904	63,500	2,500
소득 빈곤	평균	13,073	14,560	2,052	12,400	108
	P10	50	68	20	0	0
	P50	4,060	4,310	400	1,000	0
	P90	30,480	32,600	6,160	27,000	13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365	6,265	1,739	4,419	108
	P10	40	50	20	0	0
	P50	2,665	3,020	400	0	0
	P90	15,201	16,220	5,040	14,000	1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4%	23,658	26	39%
	P10		3,000	12	
	P50		15,000	23	
	P90		50,000	42	
소득 빈곤	평균	50%	13,894	21	30%
	P10		1,100	9	
	P50		7,500	20	
	P90		33,500	3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2%	8,832	19	31%
	P10		1,000	8	
	P50		5,200	18	
	P90		23,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018	319	170	137	194
	P10	317	85	51	13	21
	P50	838	255	134	75	108
	P90	1,928	600	320	260	450
소득 빈곤	평균	543	188	133	107	64
	P10	246	60	38	10	13
	P50	485	150	100	50	40
	P90	932	354	255	255	14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568	190	140	117	65
	P10	246	60	40	10	12
	P50	512	156	100	60	40
	P90	943	354	304	260	135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4>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2018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854	804	313	241	527	193
	P10	495	0	0	0	152	0
	P50	1,173	0	0	31	331	78
	P90	3,948	2,767	1,000	423	1,083	554
소득 빈곤	평균	769	66	47	74	411	234
	P10	409	0	0	0	247	0
	P50	736	0	0	22	301	160
	P90	1,174	270	150	207	744	566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62	59	43	55	424	237
	P10	402	0	0	0	260	0
	P50	702	0	0	19	301	173
	P90	1,179	243	101	149	809	60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2,347	37,169	6,309	29,646	1,214
	P10	136	190	50	0	0
	P50	12,025	13,334	1,486	9,500	0
	P90	71,311	86,500	18,079	70,000	2,400
소득 빈곤	평균	11,561	12,705	2,432	10,095	178
	P10	50	52	24	0	0
	P50	4,200	4,400	400	1,500	0
	P90	32,812	36,000	4,818	30,000	15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109	6,633	1,809	4,711	113
	P10	43	50	20	0	0
	P50	3,004	3,250	350	0	0
	P90	17,280	18,007	4,400	14,000	1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3%	25,204	25	39%
	P10		3,200	12	
	P50		14,000	22	
	P90		56,000	40	
소득 빈곤	평균	50%	14,158	21	30%
	P10		1,500	9	
	P50		7,500	20	
	P90		35,000	31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3%	9,441	20	30%
	P10		1,300	8	
	P50		6,000	18	
	P90		23,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037	351	158	150	199
	P10	370	113	54	17	24
	P50	793	255	127	76	104
	P90	2,026	693	283	318	525
소득 빈곤	평균	637	231	131	111	97
	P10	327	100	50	14	15
	P50	574	200	110	60	60
	P90	969	400	240	255	186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12	222	133	106	86
	P10	322	100	50	13	16
	P50	561	200	109	60	58
	P90	953	385	240	255	178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5>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2019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1,846	775	267	248	586	204
	P10	556	0	0	0	175	0
	P50	1,199	0	0	35	405	71
	P90	3,935	3,002	600	603	1,138	495
소득 빈곤	평균	812	66	43	92	484	203
	P10	468	0	0	0	278	0
	P50	800	0	0	25	385	141
	P90	1,250	280	141	246	822	495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07	78	33	67	481	205
	P10	454	0	0	0	303	0
	P50	779	0	0	18	385	141
	P90	1,262	300	71	157	812	495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4,545	39,552	6,063	32,368	1,122
	P10	200	219	53	0	0
	P50	12,180	14,075	1,380	10,500	0
	P90	83,880	92,000	15,850	78,000	2,150
소득 빈곤	평균	12,182	14,727	2,337	12,198	191
	P10	65	85	25	0	0
	P50	4,685	4,743	510	2,600	0
	P90	38,200	41,070	4,800	38,000	2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676	8,072	1,732	6,203	137
	P10	53	60	20	0	0
	P50	3,035	3,530	500	0	0
	P90	18,200	18,660	4,430	17,600	12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4%	27,070	25	39%
	P10		2,850	11	
	P50		14,000	22	
	P90		65,000	40	
소득 빈곤	평균	52%	14,570	21	31%
	P10		1,500	10	
	P50		7,500	19	
	P90		40,000	3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5%	10,400	20	31%
	P10		1,360	9	
	P50		6,500	18	
	P90		25,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054	363	170	158	203
	P10	410	120	62	20	27
	P50	821	297	136	87	121
	P90	2,025	693	312	375	479
소득 빈곤	평균	676	240	141	127	103
	P10	352	110	59	18	20
	P50	602	231	116	75	69
	P90	1,016	393	250	283	23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44	234	139	117	95
	P10	351	110	59	17	20
	P50	589	230	116	71	60
	P90	972	380	242	240	225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6>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2020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042	803	315	311	696	188
	P10	659	0	0	0	248	0
	P50	1,396	0	0	38	508	58
	P90	4,075	2,834	1,155	670	1,289	500
소득 빈곤	평균	919	74	47	91	582	191
	P10	522	0	0	0	346	0
	P50	908	0	0	24	498	120
	P90	1,351	286	141	243	975	5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12	71	42	60	593	194
	P10	510	0	0	0	376	0
	P50	892	0	0	20	508	120
	P90	1,373	278	89	169	975	50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38,946	43,290	7,077	34,754	1,458
	P10	250	310	70	0	0
	P50	14,460	16,360	1,600	12,000	0
	P90	100,845	106,845	18,300	88,000	3,300
소득 빈곤	평균	13,935	15,338	2,325	12,870	143
	P10	100	100	40	0	0
	P50	4,500	5,046	520	2,350	0
	P90	40,500	41,500	6,120	39,000	2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086	7,559	2,162	5,300	98
	P10	70	85	32	0	0
	P50	3,000	3,125	500	0	0
	P90	19,825	20,600	5,160	15,000	10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4%	30,180	24	40%
	P10		3,000	12	
	P50		15,000	23	
	P90		80,000	40	
소득 빈곤	평균	51%	14,664	21	33%
	P10		2,000	10	
	P50		7,500	20	
	P90		33,000	3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3%	9,210	19	33%
	P10		1,500	10	
	P50		6,000	18	
	P90		24,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156	397	179	170	228
	P10	467	141	66	24	30
	P50	917	339	141	100	131
	P90	2,177	700	346	360	522
소득 빈곤	평균	716	270	148	129	105
	P10	390	120	60	20	25
	P50	670	240	120	90	75
	P90	1,083	424	269	290	23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694	265	146	120	100
	P10	373	120	59	16	24
	P50	648	240	120	85	71
	P90	1,066	424	300	269	219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7> 소득, 자산, 소비 지출 통계(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2021년)

1) 소득

		처분가능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전체 노인	평균	2,116	761	372	362	715	184
	P10	662	0	0	0	242	0
	P50	1,448	0	0	31	531	71
	P90	4,300	2,610	1,344	818	1,380	509
소득 빈곤	평균	940	55	43	110	565	226
	P10	534	0	0	0	314	0
	P50	916	0	0	20	510	156
	P90	1,352	272	141	286	939	594
포괄 소득 빈곤	평균	951	66	37	62	598	234
	P10	512	0	0	0	369	0
	P50	899	0	0	12	528	170
	P90	1,402	294	100	154	970	600

2) 자산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자산
전체 노인	평균	43,894	48,280	7,873	38,886	1,520
	P10	200	300	100	0	0
	P50	14,994	17,388	2,000	10,900	0
	P90	106,640	115,530	21,650	96,000	3,143
소득 빈곤	평균	16,792	17,622	3,386	14,142	94
	P10	100	100	50	0	0
	P50	5,050	5,105	650	2,000	0
	P90	46,650	46,650	8,880	40,000	2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8,086	8,369	2,669	5,649	51
	P10	70	100	45	0	0
	P50	3,190	3,400	600	0	0
	P90	22,520	22,520	7,652	17,500	150

3) 부동산

		자가여부	거주주택금액	주택 평수	수도권여부
전체 노인	평균	62%	34,106	25	41%
	P10		3,000	11	
	P50		16,000	23	
	P90		85,000	41	
소득 빈곤	평균	49%	19,872	21	35%
	P10		2,000	10	
	P50		8,000	19	
	P90		48,000	31	
포괄 소득 빈곤	평균	42%	11,801	20	34%
	P10		2,000	10	
	P50		6,000	18	
	P90		32,000	30	

4) 소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소비
전체 노인	평균	1,183	400	192	185	224
	P10	484	144	70	25	33
	P50	941	346	150	108	127
	P90	2,205	693	339	400	548
소득 빈곤	평균	752	279	189	149	103
	P10	410	120	60	24	22
	P50	664	245	126	100	85
	P90	1,186	450	288	300	200
포괄 소득 빈곤	평균	731	269	155	151	95
	P10	400	120	60	21	21
	P50	656	240	120	93	8
	P90	1,117	424	297	300	194

주: 1) 단위: 만원.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3) 거주주택금액은 표본 중 자가 소유 가구 대상으로 계산.
 자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7. 연령대별 계층 내 소득, 자산, 소비 지출 격차

<부표 A-28> 계층 내 소득, 자산, 소비 지출 격차(연소 노인, 65-74세)

1) 처분가능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0.92	0.95	0.88	0.83	0.80	0.82
	P50/P10	2.55	2.57	2.46	2.40	2.30	2.32
	P90/P10	6.21	6.08	5.72	5.28	4.90	5.12
소득 빈곤	변동계수	0.33	0.31	0.28	0.28	0.26	0.30
	P50/P10	1.75	1.69	1.59	1.57	1.58	1.71
	P90/P10	2.48	2.42	2.22	2.11	2.03	2.22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44	0.37	0.33	0.35	0.35	0.37
	P50/P10	1.80	1.66	1.58	1.57	1.58	1.67
	P90/P10	2.79	2.62	2.37	2.29	2.20	2.45

2) 순자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1.77	1.66	1.64	1.69	1.62	1.55
	P50/P10	13.94	12.37	13.69	12.08	13.58	13.44
	P90/P10	54.23	48.65	55.80	51.34	57.84	57.90
소득 빈곤	변동계수	1.65	2.02	1.37	1.51	1.85	1.95
	P50/P10	38.31	37.16	41.20	28.13	35.30	38.79
	P90/P10	162.70	145.91	181.60	118.61	194.85	222.12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1.23	1.15	1.23	1.20	1.45	1.33
	P50/P10	40.80	28.56	57.84	28.78	28.90	24.17
	P90/P10	156.16	108.56	209.02	107.50	115.10	100.69

3) 소비지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0.58	0.62	0.59	0.57	0.53	0.53
	P50/P10	2.03	1.99	1.91	1.85	1.81	1.87
	P90/P10	4.13	4.04	3.91	3.55	3.33	3.31
소득 빈곤	변동계수	0.53	0.59	0.45	0.47	0.44	0.51
	P50/P10	1.77	1.73	1.66	1.63	1.57	1.62
	P90/P10	3.06	3.14	2.87	2.75	2.64	2.89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51	0.50	0.45	0.45	0.43	0.48
	P50/P10	1.75	1.75	1.66	1.60	1.60	1.56
	P90/P10	2.95	3.23	2.77	2.57	2.62	2.68

4) 자산+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1.09	1.04	0.94	0.92	0.92	0.97
	P50/P10	2.69	2.68	2.62	2.57	2.45	2.56
	P90/P10	6.71	6.50	6.41	6.04	5.89	6.39
소득 빈곤	변동계수	0.78	0.77	0.77	0.83	0.85	0.96
	P50/P10	1.90	1.78	1.76	1.76	1.72	1.84
	P90/P10	3.63	3.40	3.18	3.31	3.31	3.85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36	0.30	0.30	0.29	0.28	0.30
	P50/P10	1.82	1.57	1.62	1.64	1.64	1.65
	P90/P10	2.56	2.81	2.20	2.22	2.16	2.24

주: 1) 변동계수 = 표준편차/표본평균.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29> 계층 내 소득, 자산, 소비 지출 격차(고령 노인, 75-84세)

1) 처분가능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1.06	0.99	0.91	0.87	0.84	0.79
	P50/P10	2.28	2.31	2.16	2.08	1.94	2.01
	P90/P10	7.48	6.95	6.46	5.74	5.22	5.03
소득 빈곤	변동계수	0.36	0.37	0.33	0.33	0.28	0.30
	P50/P10	1.82	1.77	1.72	1.69	1.58	1.61
	P90/P10	2.85	2.77	2.53	2.47	2.13	2.24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47	0.42	0.37	0.41	0.41	0.35
	P50/P10	1.86	1.75	1.66	1.63	1.54	1.59
	P90/P10	3.00	2.81	2.56	2.53	2.20	2.39

2) 순자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1.80	1.80	1.73	1.82	1.89	1.77
	P50/P10	24.97	28.67	29.98	27.83	21.99	24.23
	P90/P10	115.63	136.23	142.89	128.67	103.96	115.00
소득 빈곤	변동계수	1.70	1.61	1.47	1.57	1.52	1.69
	P50/P10	36.83	40.43	44.67	37.71	33.61	37.30
	P90/P10	179.13	202.06	195.61	188.25	174.43	207.14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1.27	1.17	1.15	1.24	1.21	1.21
	P50/P10	46.93	41.69	45.77	47.25	33.99	32.75
	P90/P10	178.18	162.15	182.11	189.67	136.97	132.00

3) 소비지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0.79	0.75	0.71	0.64	0.64	0.62
	P50/P10	2.21	2.14	1.94	1.82	1.79	1.85
	P90/P10	5.63	4.99	4.49	4.00	3.74	3.97
소득 빈곤	변동계수	0.65	0.58	0.54	0.49	0.42	0.48
	P50/P10	1.84	1.78	1.67	1.60	1.60	1.66
	P90/P10	3.45	3.26	2.84	2.79	2.54	2.78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56	0.47	0.53	0.45	0.43	0.44
	P50/P10	1.81	1.72	1.64	1.58	1.59	1.64
	P90/P10	3.18	2.97	2.77	2.65	2.54	2.67

4) 자산+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1.11	1.11	1.03	0.98	1.11	1.25
	P50/P10	2.58	2.66	2.37	2.40	2.31	2.38
	P90/P10	8.07	8.07	7.19	6.30	6.09	6.42
소득 빈곤	변동계수	0.84	0.73	0.65	0.85	0.84	1.01
	P50/P10	1.96	1.93	1.73	1.83	1.71	1.73
	P90/P10	3.90	4.14	3.37	3.43	3.24	3.33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35	0.35	0.32	0.32	0.29	0.31
	P50/P10	1.85	1.78	1.69	1.70	1.61	1.66
	P90/P10	2.76	2.77	2.53	2.43	2.21	2.35

주: 1) 변동계수 = 표준편차/표본평균.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A-30> 계층 내 소득, 자산, 소비 지출 격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1) 처분가능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0.96	0.99	0.96	0.92	0.93	0.96
	P50/P10	3.19	2.89	2.37	2.16	2.12	2.19
	P90/P10	10.19	9.66	7.98	7.08	6.18	6.50
소득 빈곤	변동계수	0.44	0.42	0.37	0.35	0.32	0.33
	P50/P10	2.12	2.05	1.80	1.71	1.74	1.72
	P90/P10	3.50	3.43	2.87	2.67	2.59	2.53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48	0.47	0.40	0.37	0.35	0.40
	P50/P10	2.11	2.07	1.75	1.72	1.75	1.76
	P90/P10	3.68	3.79	2.93	2.78	2.69	2.74

2) 순자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1.89	2.28	2.19	2.41	1.85	2.00
	P50/P10	72.36	95.38	88.42	60.90	57.84	74.97
	P90/P10	458.13	548.98	524.35	419.40	403.38	533.20
소득 빈곤	변동계수	2.58	3.20	1.96	1.91	1.90	1.91
	P50/P10	72.33	81.20	84.00	72.08	45.00	50.50
	P90/P10	528.33	609.60	656.24	587.69	405.00	466.50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1.40	2.04	1.43	2.41	1.53	1.60
	P50/P10	82.26	66.63	69.86	57.26	42.86	45.57
	P90/P10	422.58	380.03	401.86	343.40	283.21	321.71

3) 소비지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0.69	0.70	0.76	0.70	0.67	0.69
	P50/P10	2.75	2.64	2.14	2.00	1.96	1.94
	P90/P10	6.67	6.08	5.48	4.94	4.66	4.56
소득 빈곤	변동계수	0.56	0.56	0.57	0.52	0.42	0.50
	P50/P10	1.89	1.97	1.76	1.71	1.72	1.62
	P90/P10	3.83	3.79	2.96	2.89	2.78	2.89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55	0.56	0.52	0.47	0.40	0.48
	P50/P10	1.88	2.08	1.74	1.68	1.74	1.64
	P90/P10	3.66	3.83	2.96	2.77	2.86	2.79

4) 자산+소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노인	변동계수	1.04	1.17	1.11	1.15	1.10	1.27
	P50/P10	3.56	3.19	2.37	1.51	2.45	2.60
	P90/P10	11.89	10.73	7.98	8.78	7.81	8.52
소득 빈곤	변동계수	1.10	1.32	0.67	0.65	0.77	0.72
	P50/P10	2.28	2.00	1.95	1.82	1.72	1.71
	P90/P10	5.14	4.55	3.58	3.37	3.35	3.44
포괄 소득 빈곤	변동계수	0.43	0.42	0.37	0.37	0.33	0.35
	P50/P10	2.19	2.00	1.84	1.80	1.68	1.62
	P90/P10	3.59	3.56	2.95	2.81	2.50	2.54

주: 1) 변동계수 = 표준편차/표본평균.
 2) P10, P50, P90은 각각 제1십분위수, 제5십분위수(중앙값), 제9십분위수.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8.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고령층의 자산 연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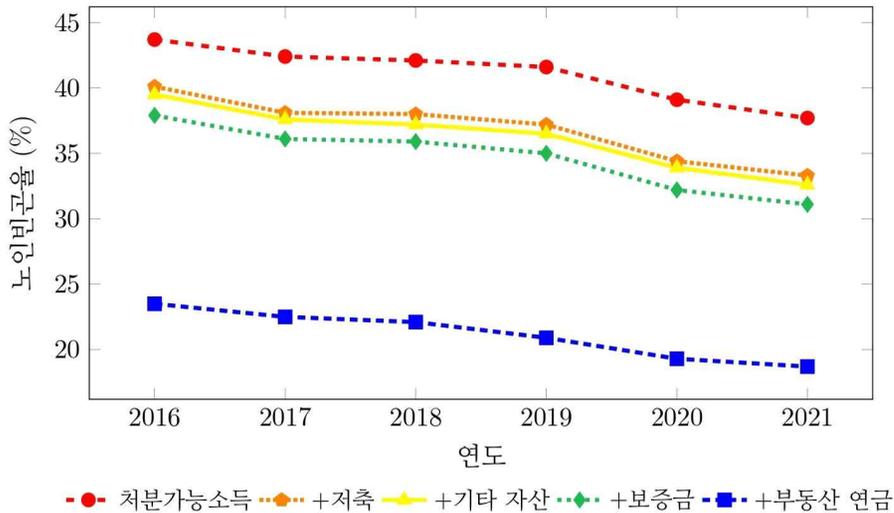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생애주기가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자산 연금화에 따른 노인빈곤율을 산출함.
 -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개인은 노인층이 되기 전까지 자산을 축적하고 노인이 된 후에 자산을 연금화를 통해 소모함.
 -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노인층이 아닌 개인의 소득은 일반적인 처분가능소득이 되고 노인층의 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연금화된 자산을 합해서 구함.
 - 자산을 유형별로 연금화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서 저축, 기타 자산(기타 금융, 기타 실물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전월세보증금, 실물자산 중 부동산)으로 연금화하는 것을 가정함.
 - 저축은 현금, 수시 입출식 저축, 적립식·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가장 유동성이 높으며 두 빈곤층 모두의 자산 구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임.
 - 부동산 관련 자산은 유동성이 낮고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물자산에서의 부동산은 빈곤층 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 많기에 가장 나중 순위로 연금화함.
 - 자산을 순서대로 연금화하면서 노인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
 - 연금수급기간은 가구주의 기대여명¹으로 정의하였고 통계청 「생명표」 상 기대여명을 이용함.

- 자산을 연금화하였을 때 효과는 부동산과 저축은 노인빈곤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만 그 외 자산의 연금화로 인한 노인 빈곤 감소 효과는 미미함(부도 A-4 참조).
 - 연금화의 효과는 자산 규모와 비례하기 때문에 노인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저축을 연금화하였을 때 효과가 두드러지고 그 외 비중이 작은 자산의 경우 효과가 미미함.

1 강건성 검증을 위해 고령층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금화한 경우에도 실증 분석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저축만을 연금화하였을 때는 평균 4%p 정도의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였고 부동산만을 연금화하였을 때는 평균 14%p 정도의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2021년을 예로 들면, 저축만을 연금화하면 노인빈곤율이 37.7%에서 33.3%로 줄어들고 부동산만 연금화하였을 때는 빈곤율이 37.7%에서 25.3%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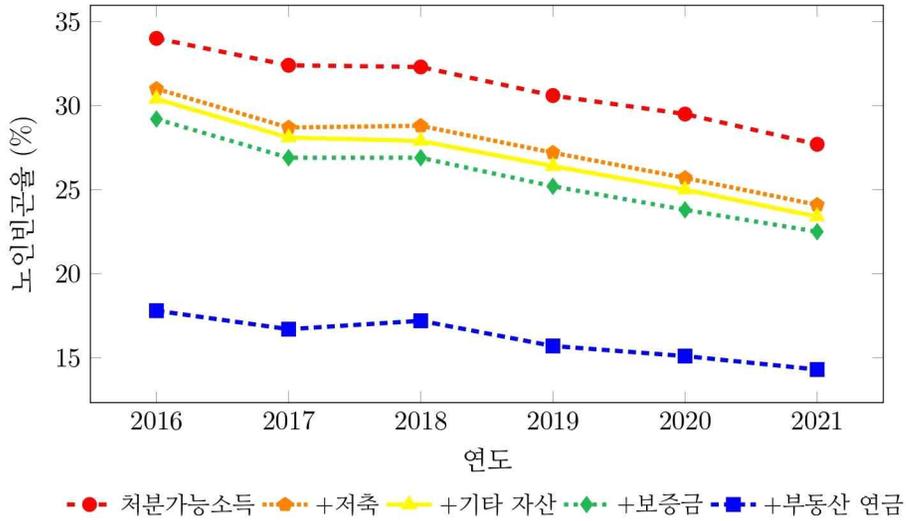
[부도 A-4]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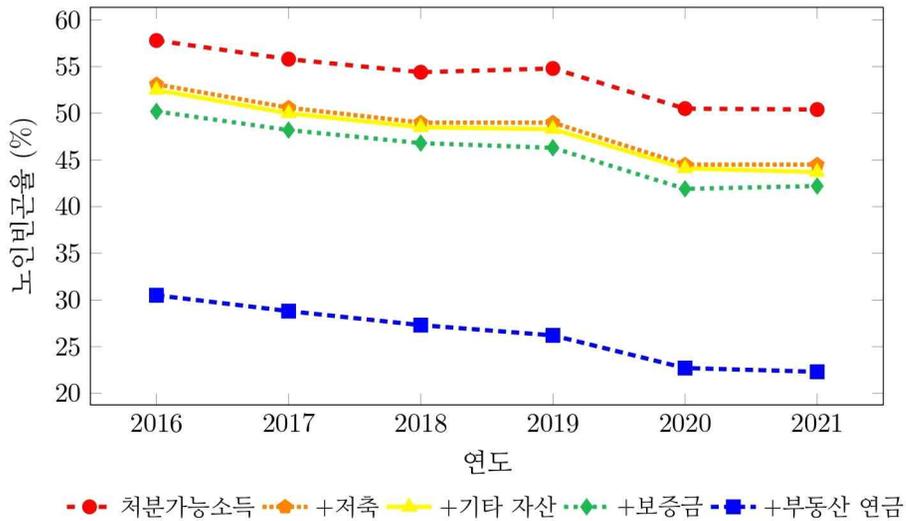
- 각 연령대별 분석 결과도 전체 노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저축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자산은 연금화했을 때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부도 A-5, A-6, A-7 참조).
- 고령 노인과 초고령 노인층에서 자산, 특히 부동산을 연금화하였을 때 빈곤율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크게(고령 노인 약25~30%, 초고령 노인 약 15~20%) 나타나지만, 이는 단순히 기대여명이 짧아 자산의 큰 부분을 소득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부도 A-5]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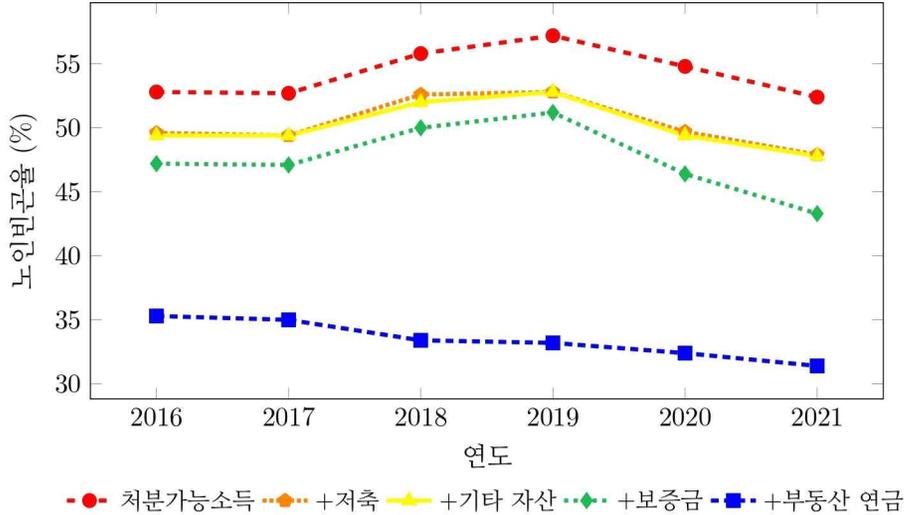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A-6]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A-7]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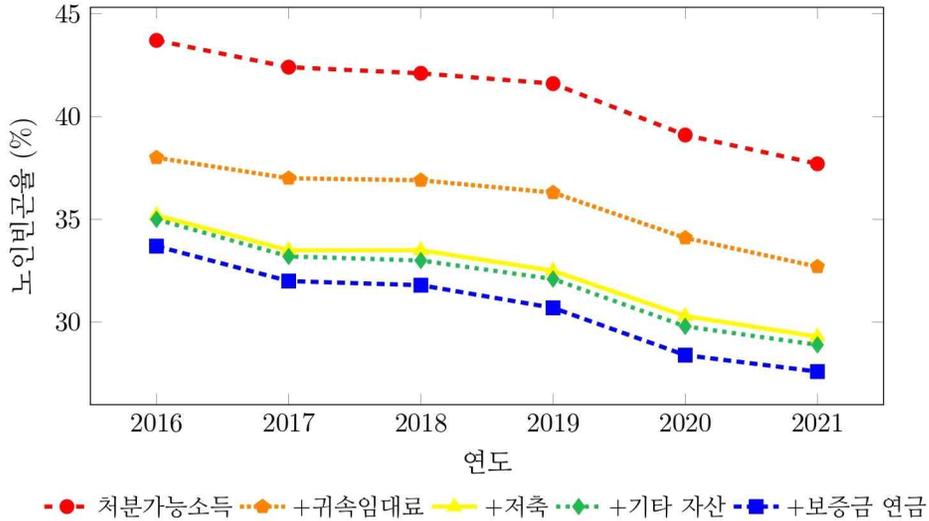
- Wolff and Zacharias(2009)는 주거는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주거 서비스를 위한 지출만큼 다른 분야에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주용 부동산을 따로 분리하여 소득-순자산가치를 계산함.

$$Y_t^* = Y_t + IR_t + NW_{t-1} \frac{r}{1 - (1+r)^{-n}}$$

- Y_t^* , Y_t , A_t 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소득-순자산가치, 현재의 소득, 연금을 의미하고 IR_t 는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의 귀속 임대료를 의미함.
- 앞서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산 유형별로 연금화해가면서 노인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함.
 - Wolff and Zacharias(2009)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의 귀속임대료를 포함하여 소득-순자산가치를 계산하였기에 본 분석에서 부동산은 연금화하지 않음.
 - 귀속임대료는 앞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경진·임병권(2020)의 임대료 상당액 방법(주택매매가격,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의 곱)을 이용하여 계산함.

- 앞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귀속임대료와 저축을 포함했을 때 노인빈곤율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남(부도 A-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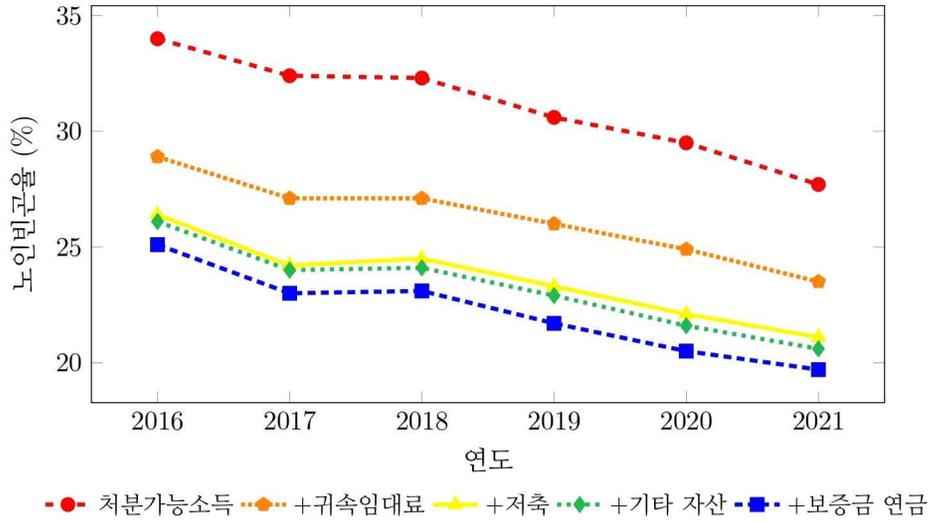
[부도 A-8]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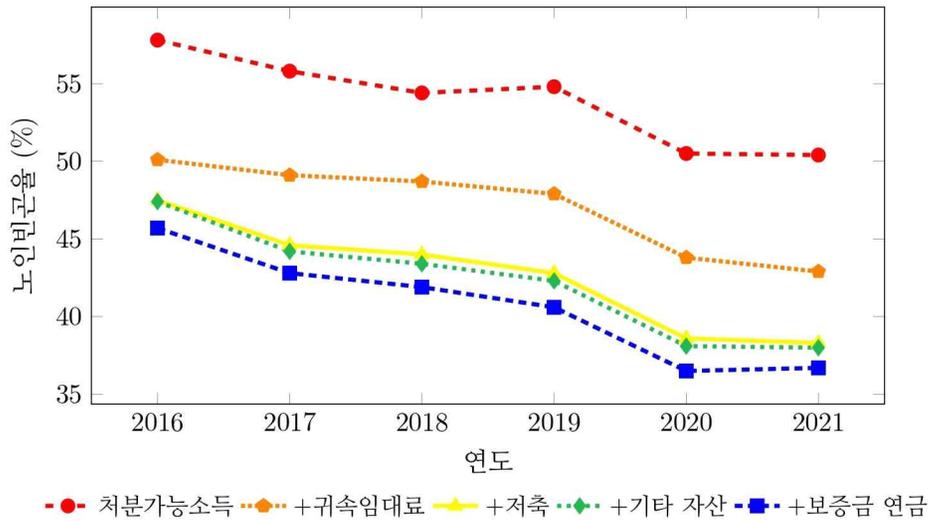
- 각 연령대별 분석 결과도 전체 노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귀속임대료와 저축 연금화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부도 A-9, A-10, A-11 참조).
 - 귀속임대료를 가상의 임대료로 해석했을 때 주거서비스에 이용되어야 할 자원을 다른 곳에 이용했을 때 물질적인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반면 귀속임대료도 자산 연금화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거주용 부동산의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귀속임대료화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정책이 필요함.

[부도 A-9]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연소 노인, 65~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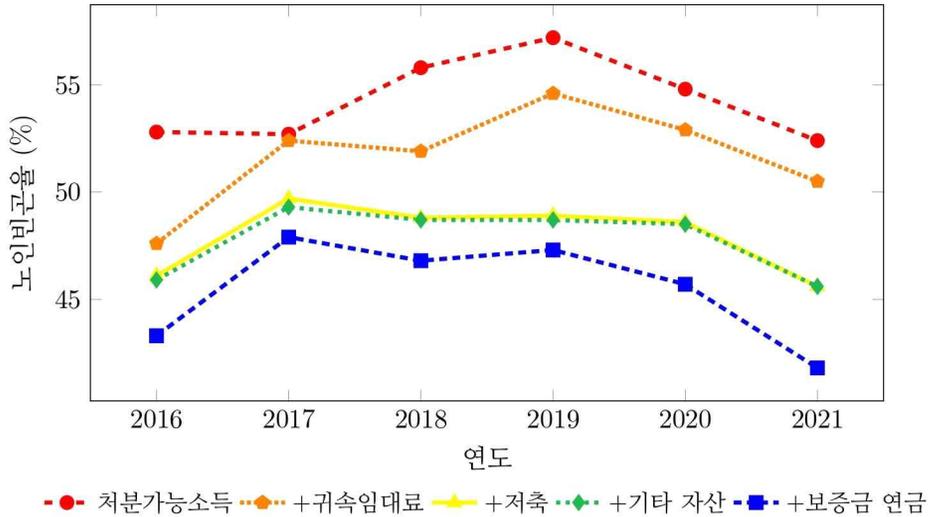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A-10]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고령 노인, 75~84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도 A-11] 귀속임대료, 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초고령 노인, 8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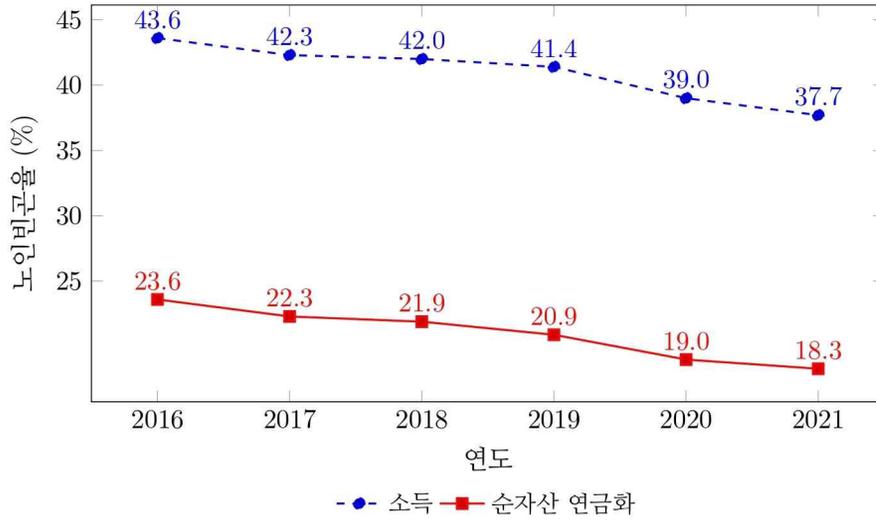


자료: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전체 노인 가구의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노인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노인빈곤율은 18~23%대로 나타남(부도 A-12 참조).

- 자산 유형별 빈곤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연금화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Weisbrod and Hansen(1968)의 연금화 방법을 따라 고령층의 전체 순자산 연금화를 가정하여 분석
- 고령층의 모든 순자산을 연금화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은 2016년 23.6%에서 2021년 18.3%로 소득 빈곤율에 비해 약 19%p 감소함.
 - 고령층만의 순자산을 연금화하고, 고령층의 전체 순자산을 모두 소모한다는 강한 가정 하에서 분석 결과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짐.

[부도 A-12] 순자산 연금화 노인빈곤율(전체 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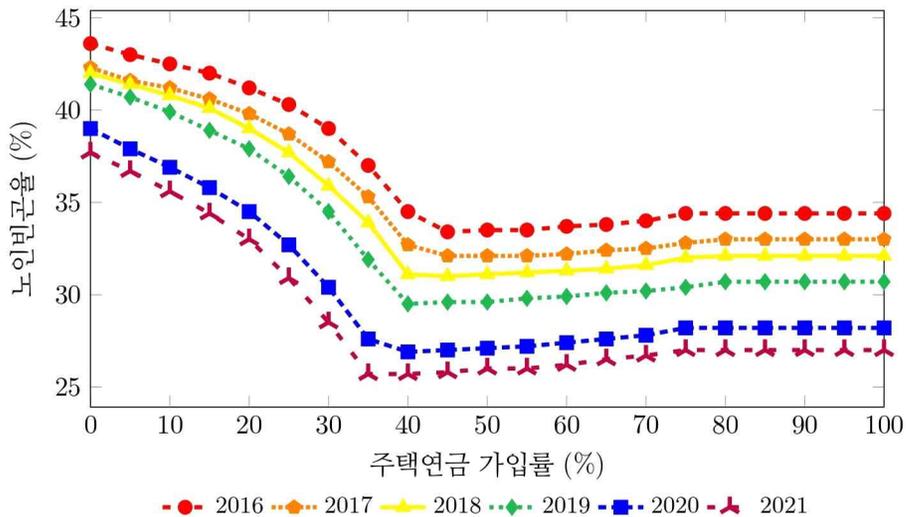
A9. 주택연금 가입률에 따른 노인빈곤율

□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였을 때 노인빈곤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

- 주택 보유 고령층 중 소득이 낮은 순대로 주택연금 가입을 가정
 - 예를 들어, 주택연금 가입률이 20%인 경우에 대한 가정은 주택 보유 고령층 중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가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는 가정을 의미
 - 연금 수령 기준은 현행 주택연금 수령 방식과 동일하게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산정함.
- 일반주택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연금 수령
-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차후 보유 거주 주택에 돌아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
 - 예를 들어, 보유 주택을 세를 주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회사 사택이나 기타 무료 주택에 거주하여 보유 주택을 세를 준 경우
- 가입 주택가격 상한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현재 가입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지가 기준 9억, 시가로는 12~13억 정도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기에 본 절에서는 가입 상한은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현행 주택연금 제도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시가가 12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2억까지 적용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조건표를 바탕으로 적용하였음.
-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지급금 조건표(2023년 3월 1일 기준)를 바탕으로 계산함.
 - 분석에 이용한 2017~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조건표 이전 시기에 대한 자료라는 한계가 있음.

- 주택연금 가입률에 따른 노인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다 그 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부도 A-13 참조).
- 분석기간(2016~21년) 동안 주택연금 가입률이 30~40%일 때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주택연금 가입률이 그 이상이 되면 노인빈곤율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면 중위소득 아래에 있던 고령층 중 일부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커져 빈곤선이 상향하기 때문임.

[부도 A-13] 주택연금 가입률에 따른 노인빈곤율(전체노인)



자료: 2017~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10. LWS 고령가구 비중

<부표 A-31> LWS 최신 DB 기준 고령가구 현황

(단위: %)

국가 (기준시점)	기준	구분					
		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주 연령 기준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고령 가구원		고령 가구원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호주 (‘18)	가구	75.3	24.7	71.7	3.5	14.4	10.3
	가구원	83.1	16.9	78.5	4.6	8.1	8.8
이탈리아 (‘16)	가구	64.5	35.5	60.1	4.4	22.4	13.1
	가구원	73.3	26.7	67.7	5.6	14.1	12.6
노르웨이 (‘20)	가구	74.4	25.6	73	1.4	16	9.7
	가구원	80.6	19.4	78.5	2.1	9.8	9.6
독일 (‘17)	가구	66.9	33.1	65.3	1.6	22.3	10.8
	가구원	75.4	24.6	73.4	2	13.4	11.2
핀란드 (‘16)	가구	71	29	68.4	2.6	18.8	10.2
	가구원	79	21	76	3	10.6	10.4
미국 (‘19)	가구	73.4	26.6	71.5	1.9	16.3	10.3
	가구원	80.9	19.1	78.4	2.4	9.5	9.7
영국 (‘19)	가구	70.1	29.9	67.9	2.3	18.2	11.7
	가구원	79.4	20.6	76.7	2.8	10	10.6
일본 (‘14)	가구	62	38	50.7	11.3	19.3	18.7
	가구원	67.6	32.4	50.9	16.8	13.1	19.3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All. LWS 고령가구 유형별 주요 변수 통계

<부표 A-32> LWS DB 호주('18)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1,210,108	42,800	746,483	2,561,000	1,143,290	39,100	717,328	2,480,010	1,413,335	71,836	815,353	3,065,532	
*주거주 부동산	500,968	0	400,000	1,150,000	462,676	0	350,000	1,100,000	617,431	0	485,000	1,234,603	
순자산	처분가능	811,286	13,870	434,010	1,758,500	708,890	10,630	336,059	1,577,724	1,122,726	56,931	687,481	2,326,811
	보정 처분가능	0	0	0	0	0	0	0	0	0	0	0	
	통합	1,025,842	31,457	560,300	2,225,499	910,203	27,510	468,961	2,033,697	1,377,556	70,044	802,750	2,946,500
	총	1,025,842	31,457	560,300	2,225,499	910,203	27,510	468,961	2,033,697	1,377,556	70,044	802,750	2,946,500
총소득	117,019	24,774	89,663	224,098	133,746	35,099	108,347	238,488	66,144	22,949	41,715	133,272	
*노동소득	89,640	0	70,180	204,650	112,962	0	96,198	222,846	18,704	0	0	65,175	
*자본소득	8,663	0	104	11,992	8,075	0	0	8,603	10,452	0	365	21,258	
*이전소득	18,716	0	7,874	49,629	12,709	0	494	39,209	36,989	0	31,657	66,932	
**연금	11,706	0	0	37,786	4,151	0	0	19,798	34,686	0	27,379	62,988	
**연금외	5,206	0	0	18,792	6,301	0	0	22,004	1,875	0	0	3,885	
**사적	1,805	0	0	1,199	2,257	0	0	2,503	428	0	0	0	
사적이전지출	1,796	0	0	3,963	1,857	0	0	4,015	1,609	0	0	209	
이자	비용	주택담보	4,700	0	0	16,464	6,012	0	0	18,472	709	0	0
그 외		125	0	0	0	141	0	0	0	76	0	0	0
소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부표 A-33> LWS DB 이탈리아('16)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주거주 부동산	138,009	0	100,000	300,000	128,349	0	100,000	300,000	155,551	0	120,000	300,000	
순자산	처분가능	223,166	6,700	141,000	484,200	207,142	5,000	130,500	464,500	252,265	10,979	162,000	533,895
	보정 처분가능	214,056	6,443	139,200	475,000	196,522	4,500	126,056	454,500	244,506	10,700	160,475	519,610
	통합	215,471	6,500	140,470	479,500	198,691	4,585	128,000	463,574	244,610	10,700	160,914	524,000
	총	0	0	0	0	0	0	0	0	0	0	0	0
총소득	33,682	9,109	24,562	65,474	36,581	9,036	26,623	71,224	28,419	9,111	20,752	55,341	
*노동소득	22,774	0	16,209	57,069	32,271	0	23,619	65,269	5,531	0	0	21,093	
*자본소득	494	0	22	383	451	0	18	326	573	0	28	558	
*이전소득	10,413	0	1,800	28,857	3,859	0	0	15,006	22,315	8,099	18,297	41,045	
**연금	10,106	0	0	28,493	3,426	0	0	14,288	22,237	8,060	18,208	41,045	
**연금외	164	0	0	0	229	0	0	0	46	0	0	0	
**사적	143	0	0	0	204	0	0	0	31	0	0	0	
사적이전지출	446	0	0	700	380	0	0	600	565	0	0	1,000	
이자비용	주택담보	266	0	0	0	402	0	0	1,383	20	0	0	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0
소비지출	17,348	7,000	15,000	30,100	18,280	7,200	16,000	31,800	15,658	6,750	13,500	27,00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부표 A-34> LWS DB 노르웨이('20)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주거주 부동산	2,582,780	0	2,417,000	5,653,000	2,471,927	0	2,278,000	5,640,000	2,904,263	0	2,688,000	5,696,000	
순자산	처분가능	2,625,130	-259,000	1,394,000	6,388,085	2,009,743	-371,000	778,000	5,287,000	4,409,813	250,000	3,321,000	8,512,603
	보정 처분가능	3,221,548	-237,000	1,490,137	7,005,000	2,603,443	-342,000	858,000	5,878,000	5,014,115	272,000	3,418,000	9,186,000
	통합	0	0	0	0	0	0	0	0	0	0	0	0
	총	0	0	0	0	0	0	0	0	0	0	0	0
총소득	840,570	235,068	668,098	1,575,721	901,435	220,853	744,404	1,667,344	664,055	248,245	540,338	1,165,959	
*노동소득	566,951	0	439,045	1,371,326	712,851	0	588,681	1,488,015	143,825	0	0	531,196	
*자본소득	36,743	13	2,075	28,098	35,926	8	1,617	22,266	39,111	94	3,722	40,949	
*이전소득	236,876	0	180,692	587,878	152,657	0	67,351	405,974	481,119	227,402	438,786	791,724	
**연금	171,990	0	20,400	543,000	69,796	0	0	293,493	468,364	215,792	425,488	774,140	
**연금외	64,799	-4	13,748	226,232	82,762	0	27,696	263,900	12,706	-40	12	21,629	
**사적	86	0	0	0	99	0	0	0	49	0	0	0	
사적이전지출	827	0	0	0	1,066	0	0	0	137	0	0	0	
이자비용	주택담보	40,898	0	22,227	102,626	48,321	0	33,770	112,768	19,371	0	4,560	52,77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0
소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부표 A-35> LWS DB 독일('17)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주거주 부동산	117,960	0	0	350,000	107,883	0	0	340,000	138,110	0	70,000	350,000	
순자산	처분가능	187,264	0	58,000	450,000	164,352	-100	37,000	404,500	233,080	0	111,700	539,040
	보정 처분가능	198,584	0	67,500	474,500	179,694	0	50,863	441,200	236,357	0	115,000	545,000
	통합	0	0	0	0	0	0	0	0	0	0	0	0
	총	0	0	0	0	0	0	0	0	0	0	0	0
총소득	47,707	12,768	36,117	92,690	55,451	12,526	46,298	103,514	32,059	13,200	26,040	56,168	
*노동소득	33,652	0	21,600	85,600	47,977	0	41,308	96,801	4,705	0	0	12,601	
*자본소득	1,996	0	98	3,580	1,941	0	83	2,427	2,106	0	117	4,850	
*이전소득	12,059	0	7,196	30,000	5,532	0	2,304	15,600	25,248	10,920	22,200	42,528	
**연금	9,468	0	0	28,800	1,998	0	0	7,800	24,564	10,212	21,600	42,000	
**연금외	2,325	0	0	7,248	3,169	0	1,141	9,120	620	0	0	1,242	
**사적	265	0	0	0	365	0	0	0	63	0	0	0	
사적이전지출	1,391	0	0	3,000	1,018	0	0	2,000	2,043	0	0	5,000	
이자비용	주택담보	0	0	0	0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소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부표 A-36> LWS DB 핀란드('16)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주거주 부동산	126,532	0	99,406	294,834	126,484	0	94,785	308,354	126,650	0	105,165	266,035	
순자산	처분가능	198,276	0	102,773	463,046	177,600	-2,625	72,323	439,485	248,892	2,607	172,332	514,321
	보정 처분가능	206,589	3	107,207	485,347	185,789	-2,369	76,561	454,822	257,507	3,000	175,591	526,110
	통합	0	0	0	0	0	0	0	0	0	0	0	0
	총	0	0	0	0	0	0	0	0	0	0	0	0
총소득	51,346	14,966	40,724	96,692	57,474	15,032	48,655	105,146	36,343	14,886	28,601	65,344	
*노동소득	32,901	0	22,128	83,633	44,608	0	37,379	93,437	4,245	0	0	12,188	
*자본소득	2,419	0	12	3,421	2,498	0	9	3,096	2,227	0	70	3,870	
*이전소득	16,025	0	12,740	36,806	10,368	0	6,277	25,964	29,872	13,847	24,684	50,807	
**연금	11,378	0	0	35,113	4,067	0	0	15,123	29,274	12,850	24,451	50,402	
**연금외	4,436	0	1,123	14,483	6,011	0	2,988	16,908	582	0	0	2,056	
**사적	210	0	0	200	290	0	0	400	16	0	0	0	
사적이전지출	256	0	0	500	255	0	0	500	258	0	0	500	
이자비용	주택담보	0	0	0	0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소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부표 A-37> LWS DB 미국('19)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주거주 부동산	223,356	0	122,000	500,000	209,101	0	92,000	500,000	262,786	0	165,000	540,000	
순자산	처분가능	609,257	-3,740	87,800	820,000	497,422	-10,800	59,500	640,501	918,606	3,630	213,200	1,309,600
	보정 처분가능	724,161	-1,500	108,700	1,165,600	589,974	-6,720	76,000	913,150	1,095,337	5,000	258,000	1,758,850
	통합	746,175	-510	120,900	1,218,600	615,920	-4,810	83,810	965,430	1,106,472	5,305	259,900	1,828,400
	총	0	0	0	0	0	0	0	0	0	0	0	0
총소득	99,150	16,000	57,000	185,000	104,520	17,000	62,000	195,000	84,296	14,200	45,750	151,030	
*노동소득	68,850	0	40,000	155,000	84,796	370	56,000	175,000	24,741	0	0	66,000	
*자본소득	12,972	0	0	8,000	11,801	0	0	4,900	16,212	0	0	15,000	
*이전소득	17,328	0	500	45,750	7,924	0	0	19,000	43,343	9,300	30,000	90,000	
**연금	13,945	0	0	43,000	4,341	0	0	12,000	40,510	7,500	28,000	87,800	
**연금외	704	0	0	1,700	795	0	0	2,200	452	0	0	500	
**사적	2,680	0	0	700	2,787	0	0	1,000	2,382	0	0	0	
사적이전지출	1,756	0	0	3,500	1,583	0	0	3,200	2,234	0	0	4,000	
이자													
비용													
주택담보	0	0	0	0	0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0	
소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부표 A-38> LWS DB 영국('19)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주거주 부동산	213,009	0	160,000	500,000	195,104	0	140,000	480,000	255,065	0	200,000	550,000	
순자산	처분가능	351,003	9,060	182,000	793,440	299,478	7,596	135,604	681,770	472,032	17,500	304,150	975,450
	보정 처분가능	373,646	9,585	191,247	838,188	325,391	7,825	144,700	739,154	486,995	17,810	307,000	991,835
	통합	597,310	15,450	305,155	1,446,398	533,049	12,456	241,050	1,350,829	748,256	31,834	470,432	1,663,891
	총	0	0	0	0	0	0	0	0	0	0	0	0
총소득	47,099	12,743	36,025	90,470	53,584	14,620	43,480	99,320	31,876	11,010	23,430	60,760	
*노동소득	33,965	0	23,100	82,000	45,944	0	38,000	93,500	5,844	0	0	20,400	
*자본소득	2,436	0	20	4,000	2,232	0	10	2,880	2,916	0	80	5,880	
*이전소득	10,697	0	5,760	27,749	5,406	0	1,080	17,160	23,126	8,670	18,950	42,726	
**연금	7,528	0	0	24,400	1,684	0	0	3,240	21,256	8,000	16,522	41,550	
**연금외	2,964	0	0	10,500	3,445	0	0	12,260	1,836	0	0	6,260	
**사적	204	0	0	0	277	0	0	0	34	0	0	0	
사적이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이자비용	주택담보	0	0	0	0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소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부표 A-39> LWS DB 일본('14)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주요 변수의 통계

항목	전체				비고령 가구				고령 가구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평균	10%	중간	90%	
총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주거주 부동산	12,713,933	0	7,000,000	30,000,000	11,620,024	0	5,000,000	30,000,000	14,607,724	0	9,000,000	35,000,000	
순자산	처분가능	0	0	0	0	0	0	0	0	0	0	0	
	보정 처분가능	0	0	0	0	0	0	0	0	0	0	0	
	통합	19,212,911	-600,000	9,000,000	53,000,000	14,225,534	-2,000,000	5,000,000	41,000,000	27,785,063	0	19,500,000	68,000,000
	총	0	0	0	0	0	0	0	0	0	0	0	
총소득	5,054,983	1,150,000	4,000,000	9,650,000	5,939,960	1,570,000	5,000,000	10,500,000	3,611,492	780,000	2,820,000	7,000,000	
*노동소득	3,571,171	0	2,610,000	8,500,000	4,981,031	120,000	4,500,000	9,640,000	1,271,541	0	0	4,000,000	
*자본소득	190,710	0	0	180,000	189,055	0	0	90,000	193,410	0	0	300,000	
*이전소득	1,293,102	0	540,000	3,300,000	769,874	0	60,000	1,940,000	2,146,540	0	2,030,000	4,000,000	
**연금	1,157,267	0	0	3,200,000	585,828	0	0	1,800,000	2,089,344	0	2,000,000	4,000,000	
**연금외	73,389	0	0	180,000	107,313	0	0	300,000	18,054	0	0	0	
**사적	62,446	0	0	0	76,733	0	0	0	39,143	0	0	0	
사적이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이자비용	주택담보	0	0	0	0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0	0	0	0	0	
소비지출	0	0	0	0	0	0	0	0	0	0	0	0	

주: 모두 0으로 기록된 변수는 가용하지 않음.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5일).

A12. LWS 고령가구 유형별 자산 현황

<부표 A-40> LWS DB 호주('18)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1,210,108	1,143,290	1,413,335	121.6	121.4	122.0	
	실물 non-financial assets	798,517	763,381	905,383	80.2	81.0	78.2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197,036	178,595	253,122	19.8	19.0	21.8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214,555	201,313	254,830	21.6	21.4	22.0	
자산 중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682,072	647,571	787,007	68.5	68.7	67.9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500,968	462,676	617,431	50.3	49.1	53.3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116,445	115,811	118,376	11.7	12.3	10.2
	금융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69,383	62,637	89,900	7.0	6.6	7.8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125,182	113,730	160,013	12.6	12.1	13.8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2,470	2,228	3,208	0.2	0.2	0.3
	연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811,286	708,890	1,122,726	81.5	75.3	96.9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통합 integrated net worth	1,025,842	910,203	1,377,556	103.0	96.6	118.9	
부채	총 total net worth	1,025,842	910,203	1,377,556	103.0	96.6	118.9	
	총 total liabilities	184,267	233,087	35,779	18.5	24.7	3.1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165,604	209,966	30,675	16.6	22.3	2.6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103,242	132,869	13,130	10.4	14.1	1.1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18,663	23,121	5,104	1.9	2.5	0.4	
소득	총 total income, household	117,019	133,746	66,144	11.8	14.2	5.7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89,640	112,962	18,704	9.0	12.0	1.6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8,663	8,075	10,452	0.9	0.9	0.9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18,716	12,709	36,989	1.9	1.3	3.2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부표 A-41> LWS DB 이탈리아('16)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실물 non-financial assets	204,772	196,749	219,343	88.2	89.3	86.6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27,289	23,570	34,042	11.8	10.7	13.4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자산 중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166,959	153,072	192,177	71.9	69.5	75.8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138,009	128,349	155,551	59.5	58.3	61.4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37,813	43,676	27,165	16.3	19.8	10.7
	금융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15,294	14,065	17,525	6.6	6.4	6.9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11,949	9,473	16,444	5.1	4.3	6.5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46	31	73	0.0	0.0	0.0
	연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1,950	2,808	461	0.8	1.3	0.2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1,875	2,848	109	0.8	1.3	0.0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총 total net worth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223,166	207,142	252,265	96.2	94.0	99.6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214,056	196,522	244,506	92.2	89.2	96.5	
	통합 integrated net worth	215,471	198,691	244,610	92.9	90.2	96.5	
부채	총 total liabilities	8,895	13,176	1,120	3.8	6.0	0.4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7,704	11,621	591	3.3	5.3	0.2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6,801	10,281	482	2.9	4.7	0.2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1,191	1,555	529	0.5	0.7	0.2	
소득	총 total income, household	33,682	36,581	28,419	14.5	16.6	11.2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22,774	32,271	5,531	9.8	14.6	2.2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494	451	573	0.2	0.2	0.2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10,413	3,859	22,315	4.5	1.8	8.8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부표 A-42> LWS DB 노르웨이('20)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실물 non-financial assets	3,237,196	3,099,685	3,635,993	77.9	80.5	72.0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920,158	748,817	1,417,066	22.1	19.5	28.0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자산 내 지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2,959,977	2,833,825	3,325,832	71.2	73.6	65.8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2,582,780	2,471,927	2,904,263	62.1	64.2	57.5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277,219	265,860	310,161	6.7	6.9	6.1
	금융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558,878	414,122	978,685	13.4	10.8	19.4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361,280	334,695	438,381	8.7	8.7	8.7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연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596,418	593,700	604,302	14.3	15.4	12.0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2,625,130	2,009,743	4,409,813	63.1	52.2	87.3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3,221,548	2,603,443	5,014,115	77.5	67.6	99.2	
	통합 integrated net worth							
	총 total net worth							
부채	총 total liabilities	1,532,225	1,838,759	643,245	36.9	47.8	12.7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74,922	98,405	6,817	1.8	2.6	0.1	
소득	총 total income, household	840,570	901,435	664,055	20.2	23.4	13.1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566,951	712,851	143,825	13.6	18.5	2.8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36743	35926	39111	0.9	0.9	0.8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236,876	152,657	481,119	5.7	4.0	9.5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부표 A-43> LWS DB 독일('17)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실물 non-financial assets	181,816	172,956	199,534	84.2	85.0	82.7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34,163	30,421	41,645	15.8	15.0	17.3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자산 중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153,598	142,355	176,081	71.1	70.0	73.0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117,960	107,883	138,110	54.6	53.0	57.3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28,218	30,601	23,453	13.1	15.0	9.7
	금융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연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11,320	15,342	3,277	5.2	7.5	1.4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187,264	164,352	233,080	86.7	80.8	96.6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198,584	179,694	236,357	91.9	88.4	98.0	
	통합 integrated net worth							
	총 total net worth							
부채	총 total liabilities	28,715	39,026	8,099	13.3	19.2	3.4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24,191	32,942	6,694	11.2	16.2	2.8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17,649	24,534	3,882	8.2	12.1	1.6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4,524	6,084	1,405	2.1	3.0	0.6	
소득	총 total income, household	47,707	55,451	32,059	22.1	27.3	13.3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33,652	47,977	4,705	15.6	23.6	2.0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1996	1941	2106	0.9	1.0	0.9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12,059	5,532	25,248	5.6	2.7	10.5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부표 A-44> LWS DB 핀란드('16)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실물 non-financial assets	198,659	200,170	194,959	81.7	84.6	75.2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44,489	36,379	64,342	18.3	15.4	24.8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자산 여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176,974	173,647	185,118	72.8	73.4	71.4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126,532	126,484	126,650	52.0	53.5	48.8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21,685	26,524	9,841	8.9	11.2	3.8
	금융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21,388	17,380	31,198	8.8	7.3	12.0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22,016	18,442	30,765	9.1	7.8	11.9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1,086	557	2,379	0.4	0.2	0.9
	연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8,313	8,189	8,616	3.4	3.5	3.3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총 total net worth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198,276	177,600	248,892	81.5	75.1	96.0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206,589	185,789	257,507	85.0	78.5	99.3	
	통합 integrated net worth							
부채	총 total liabilities	44,872	58,950	10,409	18.5	24.9	4.0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34,867	46,487	6,421	14.3	19.7	2.5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31,284	42,142	4,704	12.9	17.8	1.8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10,005	12,463	3,988	4.1	5.3	1.5	
	총 total income, household	51,346	57,474	36,343	21.1	24.3	14.0	
소득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32,901	44,608	4,245	13.5	18.9	1.6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2419	2498	2227	1.0	1.1	0.9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16,025	10,368	29,872	6.6	4.4	11.5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부표 A-45> LWS DB 미국('19)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실물 non-financial assets	483,197	451,472	570,954	66.5	71.3	57.8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243,717	181,341	416,255	33.5	28.7	42.2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자산 중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310,863	285,005	382,389	42.8	45.0	38.7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223,356	209,101	262,786	30.7	33.0	26.6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172,335	166,467	188,565	23.7	26.3	19.1
	금융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48,799	39,751	73,825	6.7	6.3	7.5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190,708	138,833	334,198	26.2	21.9	33.9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4,210	2,756	8,232	0.6	0.4	0.8
	연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114,905	92,553	176,731	15.8	14.6	17.9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609,257	497,422	918,606	83.8	78.6	93.1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724,161	589,974	1,095,337	99.6	93.2	111.0	
	통합 integrated net worth	746,175	615,920	1,106,472	102.6	97.3	112.1	
	총 total net worth							
부채	총 total liabilities	117,657	135,391	68,603	16.2	21.4	6.9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90,071	105,125	48,432	12.4	16.6	4.9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71,250	84,354	35,002	9.8	13.3	3.5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27,586	30,266	20,171	3.8	4.8	2.0	
소득	총 total income, household	99,150	104,520	84,296	13.6	16.5	8.5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68,850	84,796	24,741	9.5	13.4	2.5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12972	11801	16212	1.8	1.9	1.6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17,328	7,924	43,343	2.4	1.3	4.4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부표 A-46> LWS DB 영국('19)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실물 non-financial assets	326,838	309,996	366,397	81.2	83.9	76.1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75,907	59,326	114,854	18.8	16.1	23.9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자산 여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252,544	236,291	290,720	62.7	64.0	60.4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213,009	195,104	255,065	52.9	52.8	53.0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74,294	73,705	75,677	18.4	20.0	15.7
	금융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30,888	24,891	44,974	7.7	6.7	9.3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43,314	32,506	68,702	10.8	8.8	14.3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582	447	901	0.1	0.1	0.2
	연금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22,643	25,912	14,963	5.6	7.0	3.1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115,775	149,926	35,554	28.7	40.6	7.4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351,003	299,478	472,032	87.2	81.1	98.1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373,646	325,391	486,995	92.8	88.1	101.2	
	통합 integrated net worth	597,310	533,049	748,256	148.3	144.3	155.5	
	총 total net worth							
부채	총 total liabilities	51,741	69,844	9,220	12.8	18.9	1.9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46,023	63,067	5,988	11.4	17.1	1.2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39,008	54,316	3,050	9.7	14.7	0.6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4,925	6,480	1,273	1.2	1.8	0.3	
소득	총 total income, household	47,099	53,584	31,876	11.7	14.5	6.6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33,965	45,944	5,844	8.4	12.4	1.2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2436	2232	2916	0.6	0.6	0.6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10,697	5,406	23,126	2.7	1.5	4.8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부표 A-47> LWS DB 일본('14)의 가구주 고령여부별 자산 현황

항목		평균값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전체가구	비고령	고령	전체	비고령	고령	
자산	총 total assets							
	실물 non-financial assets							
	금융 financial assets (excluding pensions)	10,066,088	7,761,572	13,939,129	100.0	100.0	100.0	
	연금 pension assets and other long-term savings							
자산 중	실물	부동산 real estate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12,713,933	11,620,024	14,607,724	126.3	149.7	104.8
	금융	그 외 실물 non-housing assets						
		예금 deposit accounts and cash	8,189,990	6,486,907	10,990,903	81.4	83.6	78.8
		투자 financial investments	1,944,076	1,232,247	3,145,318	19.3	15.9	22.6
	연금	그 외 금융 other non-pension financial assets						
		생명보험 life insurance and voluntary individual pensions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s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pension entitlements						
		순자산	처분가능 disposable net worth					
	조정처분가능 adjusted disposable net worth							
	통합 integrated net worth	19,212,911	14,225,534	27,785,063	190.9	183.3	199.3	
부채	총 total net worth							
	총 total liabilities							
	부동산 real estate liabilities							
	주거주 principal residence loans	3,236,152	4,728,015	820,203	32.1	60.9	5.9	
	그 외 실물 non-housing liabilities	564,787	662,792	408,097	5.6	8.5	2.9	
소득	총 total income, household	5,054,983	5,939,960	3,611,492	50.2	76.5	25.9	
	임금 labour income, household	3,571,171	4,981,031	1,271,541	35.5	64.2	9.1	
	자본 capital income, household	190710	189055	193410	1.9	2.4	1.4	
	이전 transfer income, household	1,293,102	769,874	2,146,540	12.8	9.9	15.4	

주: 모두 0으로 기록되어 가용하지 않는 변수는 공란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6월 11일).

A13. LWS 고령가구 유형별 소득-순자산 결합분포

□ LWS 분석대상 9개국의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순자산 결합분포 현황표는 다음과 같음.

<부표 A-48> 호주('18)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7	3.7	4.3	4.3	2.8	18.8	4.9	1.9	1.0	0.5	0.2	8.5	
3분위	4.2	3.3	3.7	3.8	3.2	18.2	9.5	3.5	1.4	0.7	0.2	15.2	
4분위	5.8	4.1	3.7	3.4	3.8	20.9	16.2	8.8	4.1	1.4	0.7	31.3	
5분위	4.5	3.0	3.0	3.8	7.4	21.8	12.6	7.0	5.1	4.9	7.3	37.0	
전체	25.5	19.4	18.6	18.1	18.5	100	48.9	22.7	12.2	7.7	8.5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4.6	1.9	1.3	0.9	0.2	9.0	5.2	1.9	0.7		0.1	7.8	
3분위	8.0	3.8	1.7	0.9	0.3	14.7	11.4	3.1	1.0	0.3		15.7	
4분위	13.3	8.8	5.0	2.0	1.0	30.2	19.9	8.7	3.0	0.7	0.4	32.7	
5분위	10.3	6.2	5.3	5.6	9.8	37.3	15.6	8.0	4.9	4.0	4.0	36.5	
전체	42.6	22.2	14.0	9.7	11.5	100	57.2	23.5	9.7	5.1	4.5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7.8	6.5	4.8	3.7	1.6	24.3
2분위	3.3	4.3	5.4	5.5	3.7	22.2							
3분위	2.5	3.2	4.5	4.8	4.1	19.2							
4분위	2.4	2.6	3.6	4.1	4.8	17.5							
5분위	1.9	1.7	2.3	3.4	7.5	16.8							
전체	17.8	18.3	20.7	21.5	21.7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호주의 노인가구는 각 분위 기준으로는 저소득 분위와 고자산 분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결합분포 기준으로는 저소득-고자산층에 약 45% 분포하고 있음.
- 또한, 노인가구의 약 72%는 저소득층에 속함.

<부표 A-49> 이탈리아('16)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8.3	6.1	3.9	1.3	0.5	20.1	4.6	5.3	2.9	0.9	0.4
2분위	4.3	4.6	5.4	3.6	1.7	19.6	2.6	6.5	4.1	1.7	0.9	15.8	
3분위	3.3	4.2	4.3	3.9	2.4	18.0	3.2	5.5	5.2	3.1	0.9	17.9	
4분위	1.7	3.7	5.2	5.5	4.4	20.4	2.2	5.5	7.3	4.7	3.7	23.4	
5분위	1.1	2.1	3.4	5.7	9.5	21.8	1.4	3.3	6.1	7.1	10.8	28.8	
전체	18.7	20.7	22.3	19.9	18.4	100	14.0	26.1	25.6	17.4	16.8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4.2	4.2	3.0	1.0	0.5	12.8	5.0	6.4	2.9	0.7	0.3
2분위	1.9	4.9	3.2	2.6	0.9	13.5	3.3	7.9	4.8	1.0	0.9	17.8	
3분위	3.1	4.9	5.1	4.1	1.4	18.5	3.2	6.1	5.3	2.2	0.6	17.4	
4분위	1.7	3.8	6.3	6.8	5.1	23.7	2.7	7.0	8.2	2.8	2.5	23.1	
5분위	1.3	2.6	6.3	7.8	13.4	31.5	1.4	3.9	6.0	6.5	8.5	26.4	
전체	12.2	20.2	23.9	22.3	21.3	100	15.6	31.3	27.2	13.1	12.8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0.3	6.6	4.5	1.6	0.5	23.4					
2분위	5.2	3.6	6.2	4.6	2.1	21.7							
3분위	3.4	3.4	3.8	4.3	3.2	18.1							
4분위	1.4	2.8	4.0	5.9	4.8	18.8							
5분위	1.0	1.4	1.9	4.9	8.7	17.9							
전체	21.2	17.8	20.4	21.3	19.3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소득, 순자산 결측인 0.01%의 가구는 제외함.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이탈리아는 노인가구중 저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12%로 비교대상 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도 14%에 불과함.

<부표 A-50> 노르웨이('20)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0.3	4.0	2.9	2.3	1.8	21.4	2.3	1.1	0.5	0.4	0.4	4.7
2분위	7.9	4.6	3.5	2.6	1.4	20.0	5.8	2.1	0.7	0.5	0.3	9.4		
3분위	2.9	3.9	3.9	3.7	2.6	17.1	3.9	3.8	2.0	1.2	0.8	11.7		
4분위	3.4	4.4	3.8	4.0	3.9	19.5	8.3	9.5	5.4	3.2	2.0	28.4		
5분위	3.0	4.3	3.8	4.1	6.8	22.0	8.3	12.7	9.6	7.6	7.6	45.8		
전체	27.5	21.2	18.0	16.7	16.5	100	28.6	29.2	18.2	12.9	11.1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6.2	1.5	0.7	0.2	0.1	8.8	5.2	1.8	0.2	0.1		7.3
2분위	4.6	1.9	1.3	0.9	0.2	9.0	5.2	1.9	0.7		0.1	7.8		
3분위	8.0	3.8	1.7	0.9	0.3	14.7	11.4	3.1	1.0	0.3		15.7		
4분위	13.3	8.8	5.0	2.0	1.0	30.2	19.9	8.7	3.0	0.7	0.4	32.7		
5분위	10.3	6.2	5.3	5.6	9.8	37.3	15.6	8.0	4.9	4.0	4.0	36.5		
전체	42.6	22.2	14.0	9.7	11.5	100	57.2	23.5	9.7	5.1	4.5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3.0	5.1	3.8	3.0	2.3	27.1						
2분위	8.6	5.5	4.5	3.3	1.8	23.7								
3분위	2.5	3.9	4.6	4.6	3.3	18.9								
4분위	1.8	2.6	3.3	4.3	4.6	16.5								
5분위	1.1	1.4	1.8	2.9	6.6	13.8								
전체	27.1	18.5	17.9	18.0	18.4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노르웨이는 노인가구중 저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39%로 비교대상 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부표 A-51> 독일('17)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분위	5.7	5.9	5.1	3.6	1.3	21.6	5.9	6.8	3.0	1.6	0.3	17.6
3분위	2.6	3.9	4.4	4.2	3.3	18.4	4.2	5.6	4.3	2.0	0.7	16.9
4분위	2.0	3.3	3.6	4.5	4.4	17.8	3.7	5.7	4.7	3.2	1.8	19.2
5분위	2.1	2.4	3.1	4.5	8.2	20.3	4.4	5.3	5.8	7.1	7.5	30.2
전체	23.8	20.9	19.1	18.4	17.8	100	26.9	28.5	19.4	14.8	10.5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분위	5.8	6.6	2.2	1.4	0.5	16.5	6.0	6.9	3.7	1.8	0.2	18.7
3분위	3.8	5.6	3.8	2.1	0.9	16.2	4.7	5.6	4.8	1.8	0.6	17.4
4분위	4.1	5.4	4.5	3.5	2.4	19.9	3.3	6.1	4.9	3.0	1.3	18.6
5분위	3.6	5.5	6.2	8.2	8.8	32.2	5.2	5.2	5.4	6.2	6.3	28.3
전체	25.6	27.8	17.8	16.0	12.8	100	28.0	29.1	20.7	13.7	8.5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2.9	5.7	3.5	1.9	0.8
2분위	5.6	5.4	6.1	4.6	1.8	23.6						
3분위	1.7	3.0	4.4	5.3	4.7	19.2						
4분위	1.1	2.0	3.1	5.2	5.7	17.2						
5분위	0.9	0.9	1.8	3.2	8.5	15.4						
전체	22.2	17.1	18.9	20.2	21.5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순자산 결측인 0.7%의 가구는 제외함.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독일은 노인가구중 저소득-저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26%로 비교대상 9개국 중 높은 수준임.

<부표 A-52> 핀란드(*16)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4.7	3.6	4.1	3.3	2.2	17.9	5.0	2.4	0.9	0.4	0.1	8.9	
3분위	4.2	3.7	3.9	3.7	2.5	18.0	8.8	5.7	2.5	1.4	0.4	18.7	
4분위	3.8	4.1	3.4	4.2	3.9	19.4	9.8	8.9	4.8	2.3	1.4	27.1	
5분위	2.4	2.8	3.3	4.2	7.9	20.5	5.6	6.5	7.0	6.8	6.2	32.1	
전체	28.1	19.9	17.9	16.9	17.2	100	38.8	26.4	15.7	11.0	8.1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6	2.3	1.6	0.5	0.3	8.3	6.6	2.5	0.2	0.2		9.6	
3분위	6.9	5.1	3.2	1.7	0.7	17.7	10.9	6.3	1.7	1.0	0.1	20.0	
4분위	5.4	8.6	5.9	3.2	2.2	25.3	14.7	9.1	3.5	1.2	0.4	29.0	
5분위	3.8	6.2	8.4	8.9	9.0	36.2	7.7	6.9	5.5	4.3	2.9	27.4	
전체	28.3	25.3	19.5	14.6	12.3	100	50.9	27.6	11.3	6.8	3.4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4.3	6.8	4.5	2.2	1.0	28.8
2분위	4.6	4.1	5.4	4.4	3.0	21.6							
3분위	2.3	2.9	4.4	4.7	3.4	17.6							
4분위	1.4	2.1	2.8	4.9	4.9	16.2							
5분위	1.0	1.3	1.7	3.1	8.6	15.8							
전체	23.7	17.2	18.8	19.4	20.9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핀란드는 노인가구중 저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31% 수준이고, 저소득층에 약 62%의 노인가구가 속함.

<부표 A-53> 미국('19)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8.4	5.3	3.8	2.3	0.7	20.5	5.0	2.4	1.4	0.3	0.1
2분위	6.1	5.5	4.0	2.7	0.7	19.0	4.1	2.9	1.9	1.1	0.4	10.4	
3분위	3.3	3.7	4.4	4.6	2.2	18.1	4.3	3.0	4.1	1.5	0.9	13.9	
4분위	2.3	3.0	5.1	6.0	4.5	20.9	4.4	5.2	8.5	7.4	3.6	29.1	
5분위	1.0	1.4	3.1	4.8	11.2	21.5	1.8	3.3	7.3	9.4	15.5	37.4	
전체	21.2	18.9	20.4	20.3	19.3	100	19.7	16.8	23.2	19.8	20.5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5.3	2.6	2.0	0.6		10.5	4.6	2.0	0.6	0.0	0.3
2분위	4.9	3.5	2.4	1.2	0.6	12.6	3.0	2.0	1.1	1.0	0.2	7.4	
3분위	4.4	1.8	4.9	1.3	0.8	13.1	4.3	4.5	3.1	1.9	1.0	14.9	
4분위	4.0	4.1	7.2	6.8	3.9	26.0	5.0	6.7	10.2	8.2	3.2	33.3	
5분위	1.4	2.4	7.1	9.3	17.4	37.7	2.3	4.6	7.6	9.6	12.8	36.9	
전체	20.0	14.5	23.6	19.2	22.7	100	19.3	19.8	22.6	20.7	17.6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9.7	6.4	4.6	3.0	0.9	24.6					
2분위	6.8	6.4	4.8	3.2	0.9	22.1							
3분위	2.9	3.9	4.5	5.6	2.6	19.6							
4분위	1.5	2.2	3.9	5.5	4.8	17.9							
5분위	0.7	0.7	1.6	3.1	9.7	15.8							
전체	21.7	19.7	19.3	20.5	18.8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미국은 노인가구중 고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36% 수준으로 비교대상 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부표 A-54> 영국('19)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8.9	5.3	3.4	1.5	0.6	19.7	4.6	3.5	1.6	0.5	0.1
2분위	4.2	4.9	4.3	3.7	1.8	18.8	4.3	4.3	2.3	1.0	0.1	12.1	
3분위	3.1	3.8	3.9	4.2	2.9	18.0	4.8	3.9	2.4	1.0	0.5	12.6	
4분위	3.6	3.8	4.1	4.3	4.5	20.3	7.6	7.6	5.1	3.0	1.6	24.9	
5분위	2.8	2.7	3.9	5.0	8.9	23.2	5.6	5.8	8.0	9.4	11.3	40.1	
전체	22.6	20.4	19.6	18.7	18.6	100	27.0	25.1	19.5	14.8	13.7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4.5	3.8	1.6	0.6	0.2	10.9	4.8	3.1	1.6	0.3	0.1
2분위	3.7	4.1	2.2	1.5	0.2	11.6	4.9	4.5	2.5	0.5	0.1	12.5	
3분위	4.2	3.4	2.8	1.4	0.8	12.6	5.5	4.5	1.9	0.6	0.1	12.6	
4분위	5.6	7.0	5.6	3.9	2.1	24.2	9.8	8.2	4.6	2.0	1.0	25.6	
5분위	4.2	4.4	7.8	10.4	13.8	40.6	7.1	7.2	8.3	8.2	8.6	39.4	
전체	22.2	22.8	20.1	17.8	17.1	100	32.1	27.5	18.9	11.6	9.9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0.7	6.1	4.2	2.0	0.7	23.6					
2분위	4.2	5.1	5.1	4.8	2.4	21.7							
3분위	2.4	3.7	4.5	5.6	4.0	20.2							
4분위	2.0	2.1	3.7	4.8	5.8	18.4							
5분위	1.6	1.4	2.1	3.2	7.9	16.1							
전체	20.8	18.4	19.6	20.4	20.8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소득 결측인 0.05%의 가구는 제외함.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영국은 노인가구중 저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27% 수준이며, 고소득-고자산층의 비중은 25% 수준임.

<부표 A-55> 일본('14)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11.9	7.1	4.5	4.6	2.6	29.9	18.1	5.5	1.1	1.5	0.9	26.0	
3분위	4.0	3.6	3.0	3.6	2.8	17.4	5.7	5.3	1.5	1.1	0.7	13.6	
4분위	2.7	3.6	3.6	3.3	5.2	18.8	5.4	5.5	3.5	1.9	3.0	21.0	
5분위	3.8	4.9	2.8	4.3	5.6	21.8	8.6	11.0	6.0	6.6	4.4	36.7	
전체	25.5	21.3	17.0	18.0	18.3	100	40.6	27.4	11.4	12.0	8.6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6.0	5.2	1.0	1.4	0.2	14.3	30.7	5.9	1.1	1.5	1.7	38.0	
3분위	4.9	10.2	2.6	1.9	1.3	20.0	6.5	0.1	0.4	0.3		7.1	
4분위	4.5	8.5	5.2	2.7	3.5	25.5	6.3	2.4	1.7	1.1	2.4	16.4	
5분위	6.5	8.9	8.0	8.1	5.1	36.1	10.8	13.2	3.9	5.1	3.7	37.4	
전체	25.1	32.4	16.1	15.6	10.8	100	55.6	22.5	6.9	8.4	6.6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1.5	3.2	5.1	4.2	4.2	17.6
2분위	8.4	7.9	6.4	6.3	3.6	32.2							
3분위	3.1	2.6	3.8	5.0	4.1	19.6							
4분위	1.1	2.5	3.6	4.0	6.4	17.4							
5분위	1.1	1.5	1.0	3.0	6.3	13.1							
전체	16.7	17.7	20.3	21.5	23.9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소득, 순자산 결측인 29.2%의 가구는 제외함.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일본의 경우, 노인가구중 저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31% 수준이나, 소득과 순자산이 결측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노인가구 중 소득 결측 15.7%, 순자산 결측 19%)에 유의할 필요

<부표 A-56> 칠레('17)의 처분가능소득-순자산 결합분포(%)

		전체가구						노인가구(6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5.6	4.8	4.5	3.5	2.7	21.0	4.8	2.3	2.7	0.9	0.3
2분위	3.9	4.0	3.8	3.7	2.9	18.4	3.8	2.2	1.6	0.7	0.7	9.0	
3분위	4.5	4.6	3.7	2.7	2.0	17.4	5.6	3.6	2.5	1.5	0.7	13.9	
4분위	4.3	3.8	3.8	4.3	3.7	20.0	9.9	6.8	4.3	4.0	1.8	26.7	
5분위	3.2	1.9	2.8	4.7	10.6	23.2	9.5	5.8	6.4	8.6	8.9	39.3	
전체	21.5	19.0	18.6	18.9	21.9	100	33.6	20.7	17.5	15.8	12.5	100	
		연소 노인가구(65-74세 가구주)						고령 노인가구(75+세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4.6	2.4	3.7	0.7	0.5	11.9	5.1	2.0	1.0	1.3	0.1
2분위	3.9	1.9	1.8	0.8	1.0	9.4	3.5	2.7	1.2	0.7	0.3	8.4	
3분위	5.0	3.6	2.8	1.5	1.2	14.1	6.6	3.6	2.0	1.3		13.5	
4분위	8.3	5.8	4.7	4.8	2.4	25.9	12.5	8.3	3.6	2.7	0.9	28.0	
5분위	8.0	5.3	6.8	8.4	10.2	38.6	12.1	6.7	5.7	9.0	6.9	40.5	
전체	29.8	19.1	19.8	16.2	15.1	100	39.8	23.3	13.6	15.0	8.2	100	
		비노인가구(64세 이하 가구주)											
소득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5.8	5.4	4.9	4.1	3.4	23.6					
2분위	3.9	4.5	4.4	4.5	3.5	20.8							
3분위	4.2	4.8	4.0	3.0	2.3	18.3							
4분위	2.9	3.0	3.7	4.4	4.2	18.2							
5분위	1.6	0.9	1.8	3.7	11.0	19.0							
전체	18.4	18.6	18.9	19.7	24.4	100							

주: 소득 및 순자산 5분위는 균등화·개인화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를 동일하게 적용.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23일).

- 칠레는 노인가구중 저소득-고자산층에 속한 비중이 약 32% 수준임.

A14. LWS 고령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자산 통계

□ LWS 분석대상 9개국의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순자산 결합분포 현황표는 다음과 같음.

<부표 A-57> 호주('18)의 분석변수 현황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AU\$)						
자산	자산	총	1,210	1,143	1,413	1,101	1,488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실물	799	763	905	732	967	80.2	81.0	78.2	80.7	79.3
		금융	197	179	253	175	253	19.8	19.0	21.8	19.3	20.7
	실물	연금	215	201	255	193	269	21.6	21.4	22.0	21.3	22.1
		부동산	682	648	787	622	834	68.5	68.7	67.9	68.6	68.4
		*주거주	501	463	617	450	631	50.3	49.1	53.3	49.6	51.7
	금융	그 외	116	116	118	110	133	11.7	12.3	10.2	12.1	10.9
		예금현금	69	63	90	60	94	7.0	6.6	7.8	6.6	7.7
		투자	125	114	160	113	156	12.6	12.1	13.8	12.5	12.8
	연금	그 외	2	2	3	2	3	0.2	0.2	0.3	0.3	0.2
		생보 등										
		직장										
순자산	사회보장											
	처분가능	811	709	1,123	675	1,156	81.5	75.3	96.9	74.4	94.8	
	조정처분가능											
부채	총	1,026	910	1,378	869	1,425	103.0	96.6	118.9	95.7	116.9	
	총	1,026	910	1,378	869	1,425	103.0	96.6	118.9	95.7	116.9	
	부동산	184	233	36	232	63	18.5	24.7	3.1	25.6	5.2	
소득	*주거주	166	210	31	208	57	16.6	22.3	2.6	23.0	4.7	
	그 외	103	133	13	133	27	10.4	14.1	1.1	14.7	2.2	
	그 외	19	23	5	23	6	1.9	2.5	0.4	2.6	0.5	
						(단위: 천AU\$)						
소득	총	총	117.0	133.7	66.1	133.8	74.4	126.5	129.3	111.9	129.7	113.9
		근로	89.6	113.0	18.7	114.1	27.5	96.9	109.2	31.6	110.6	42.2
		임금	82.1	103.8	16.2	104.7	24.6	88.8	100.3	27.4	101.5	37.7
	자본	비임금	5.5	6.7	2.0	6.8	2.3	6.0	6.5	3.3	6.6	3.5
		이전	8.7	8.1	10.5	8.0	10.4	9.4	7.8	17.7	7.7	15.9
		이전	18.7	12.7	37.0	11.7	36.4	20.2	12.3	62.6	11.4	55.8
	공적	연금	11.7	4.2	34.7	3.1	33.4	12.7	4.0	58.7	3.0	51.2
		연금 외	5.2	6.3	1.9	6.3	2.5	5.6	6.1	3.2	6.1	3.9
		사적	1.8	2.3	0.4	2.3	0.4	2.0	2.2	0.7	2.3	0.7
	공적비소비지출	처분가능	92.5	103.5	59.1	103.2	65.3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22.5	27.8	6.5	28.0	8.4	24.3	26.8	11.0	27.2	12.9
		공적비소비지출										
						(단위: 천호, 천명)						
가구	가구	9,270	6,977	2,294	6,651	2,619	100	75.3	24.7	71.7	28.3	
	가구원	23,876	19,840	4,036	18,737	5,139	100	83.1	16.9	78.5	21.5	

주: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가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10일).

<부표 A-58> 이탈리아('16)의 고령 및 비교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자산	자산	총										
		실물	205	197	219	194	221	88.2	89.3	86.6	89.3	86.9
		금융	27	24	34	23	33	11.8	10.7	13.4	10.7	13.1
		연금										
	실물	부동산	167	153	192	150	192	71.9	69.5	75.8	69.0	75.7
		*주거주	138	128	156	127	155	59.5	58.3	61.4	58.2	61.1
		그 외	38	44	27	44	28	16.3	19.8	10.7	20.2	11.2
	금융	예금현금	15	14	18	14	17	6.6	6.4	6.9	6.4	6.8
		투자	12	9	16	9	16	5.1	4.3	6.5	4.3	6.2
		그 외	0	0	0	0	0	0.0	0.0	0.0	0.0	0.0
	연금	생보 등	2	3	0	3	1	0.8	1.3	0.2	1.3	0.3
		직장	2	3	0	3	0	0.8	1.3	0.0	1.4	0.1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223	207	252	204	252	96.2	94.0	99.6	93.8	99.3
조정처분가능		214	197	245	193	245	92.2	89.2	96.5	88.7	96.3	
통합		215	199	245	195	245	92.9	90.2	96.5	89.7	96.4	
총												
부채	총	9	13	1	14	2	3.8	6.0	0.4	6.2	0.7	
	부동산	8	12	1	12	1	3.3	5.3	0.2	5.5	0.5	
	*주거주	7	10	0	11	1	2.9	4.7	0.2	4.9	0.4	
	그 외	1	2	1	2	1	0.5	0.7	0.2	0.7	0.2	
						(단위: 천€)			(단위: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			
소득	총	33.7	36.6	28.4	36.4	29.6	133.9	137.6	126.0	138.4	126.4	
	근로	22.8	32.3	5.5	33.2	7.0	90.6	121.4	24.5	126.4	30.0	
	임금	16.8	24.3	3.2	25.2	4.3	66.9	91.5	14.4	95.8	18.2	
	비임금	5.8	7.7	2.3	7.8	2.8	22.9	28.9	10.1	29.5	11.7	
	자본	0.5	0.5	0.6	0.4	0.6	2.0	1.7	2.5	1.7	2.4	
	이전	10.4	3.9	22.3	2.7	22.0	41.4	14.5	99.0	10.4	93.9	
	공적	연금	10.1	3.4	22.2	2.3	21.9	40.2	12.9	98.6	8.7	93.4
		연금 외	0.2	0.2	0.0	0.2	0.1	0.7	0.9	0.2	0.8	0.4
	사적	0.1	0.2	0.0	0.2	0.0	0.6	0.8	0.1	0.8	0.1	
	처분가능	25.1	26.6	22.5	26.3	23.4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8.4	9.7	5.9	9.8	6.2	33.2	36.6	26.0	37.3	26.3	
						(단위: 천호, 천명)			(단위: 전체 대비 비중, %)			
가구	25,522	16,459	9,064	15,343	10,179	100	64.5	35.5	60.1	39.9		
가구원	60,243	44,185	16,058	40,793	19,451	100	73.3	26.7	67.7	32.3		

주: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가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7일).

<부표 A-59> 노르웨이('20)의 고령 및 비교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크로네)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자산	자산	총										
		실물	3,237	3,100	3,636	3,069	3,691	77.9	80.5	72.0	80.7	72.3
		금융	920	749	1,417	736	1,417	22.1	19.5	28.0	19.3	27.7
		연금										
	실물	부동산	2,960	2,834	3,326	2,808	3,369	71.2	73.6	65.8	73.8	65.9
		*주거주	2,583	2,472	2,904	2,455	2,928	62.1	64.2	57.5	64.5	57.3
		그 외	277	266	310	260	323	6.7	6.9	6.1	6.8	6.3
	금융	예금현금	559	414	979	403	980	13.4	10.8	19.4	10.6	19.2
		투자	361	335	438	333	437	8.7	8.7	8.7	8.8	8.6
		그 외										
	연금	생보 등	596	594	604	592	609	14.3	15.4	12.0	15.6	11.9
		직장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2,625	2,010	4,410	1,968	4,399	63.1	52.2	87.3	51.7	86.1	
	조정처분가능	3,222	2,603	5,014	2,559	5,008	77.5	67.6	99.2	67.3	98.0	
	통합											
부채	총	1,532	1,839	643	1,837	709	36.9	47.8	12.7	48.3	13.9	
	부동산											
	*주거주											
	그 외	75	98	7	99	9	1.8	2.6	0.1	2.6	0.2	
						(단위: 천크로네)						
						(단위: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						
소득	총	840.6	901.4	664.1	894.4	695.3	134.4	136.5	126.6	136.6	127.0	
	근로	567.0	712.9	143.8	712.7	173.7	90.6	107.9	27.4	108.9	31.7	
	임금	535.3	676.2	127.0	676.4	154.9	85.6	102.4	24.2	103.3	28.3	
	비임금	31.6	36.7	16.8	36.3	18.8	5.1	5.6	3.2	5.6	3.4	
	자본	36.7	35.9	39.1	35.8	39.3	5.9	5.4	7.5	5.5	7.2	
	이전	236.9	152.7	481.1	145.9	482.3	37.9	23.1	91.7	22.3	88.1	
	공적	연금	172.0	69.8	468.4	63.0	465.9	27.5	10.6	89.3	9.6	85.1
		연금 외	64.8	82.8	12.7	82.8	16.3	10.4	12.5	2.4	12.6	3.0
		사적	0.1	0.1	0.0	0.1	0.0	0.0	0.0	0.0	0.0	0.0
	처분가능	625.7	660.5	524.5	654.7	547.3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214.9	240.9	139.6	239.7	148.0	34.4	36.5	26.6	36.6	27.0	
						(단위: 천호, 천명)						
						(단위: 전체 대비 비중, %)						
가구	2,573	1,913	660	1,877	696	100	74.4	25.6	73.0	27.0		
가구원	5,356	4,316	1,039	4,203	1,153	100	80.6	19.4	78.5	21.5		

주: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가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7일).

<부표 A-60> 독일(17)의 고령 및 비고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						
자산	자산	총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실물	182	173	200	171	202	84.2	85.0	82.7	85.1	82.8
		금융	34	30	42	30	42	15.8	15.0	17.3	14.9	17.2
	실물	부동산	154	142	176	141	177	71.1	70.0	73.0	70.0	72.8
		*주거주	118	108	138	107	139	54.6	53.0	57.3	53.0	57.1
		그 외	28	31	23	30	24	13.1	15.0	9.7	15.0	10.0
	금융	예금현금										
		투자										
		그 외										
	연금	생보 등	11	15	3	15	4	5.2	7.5	1.4	7.7	1.5
		직장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187	164	233	162	234	86.7	80.8	96.6	80.5	96.3	
	조정처분가능	199	180	236	177	238	91.9	88.4	98.0	88.2	97.8	
	총합											
부채	총	29	39	8	39	9	13.3	19.2	3.4	19.5	3.7	
	부동산	24	33	7	33	8	11.2	16.2	2.8	16.5	3.1	
	*주거주	18	25	4	25	4	8.2	12.1	1.6	12.3	1.8	
	그 외	5	6	1	6	2	2.1	3.0	0.6	3.0	0.7	
						(단위: 천€)						
소득	총	47.7	55.5	32.1	55.5	33.0	137.1	144.3	116.7	144.7	117.6	
	근로	33.7	48.0	4.7	48.4	5.9	96.7	124.9	17.1	126.2	21.0	
	임금	29.8	43.0	3.1	43.3	4.3	85.6	111.9	11.4	113.0	15.1	
	비임금	3.9	5.0	1.6	5.1	1.6	11.1	13.0	5.7	13.2	5.8	
	자본	2.0	1.9	2.1	1.9	2.1	5.7	5.1	7.7	5.1	7.5	
	이전	12.1	5.5	25.2	5.2	25.0	34.7	14.4	91.9	13.5	89.2	
	공적	연금	9.5	2.0	24.6	1.6	24.3	27.2	5.2	89.4	4.1	86.5
		연금 외	2.3	3.2	0.6	3.2	0.7	6.7	8.2	2.3	8.3	2.4
	사적	0.3	0.4	0.1	0.4	0.1	0.8	1.0	0.2	1.0	0.2	
	처분가능	34.8	38.4	27.5	38.4	28.1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12.9	17.0	4.6	17.1	4.9	37.1	44.3	16.7	44.7	17.6	
							(단위: 천호, 천명)					
가구						100	66.9	33.1	65.3	34.7		
가구원						100	75.4	24.6	73.4	26.6		

주: '1)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가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2) 미국의 가구 및 가구원수 모수 추정치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7일).

<부표 A-61> 핀란드('16)의 고령 및 비고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						
자산	자산	총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실물	199	200	195	196	204	81.7	84.6	75.2	85.1	75.4
		금융	44	36	64	34	67	18.3	15.4	24.8	14.9	24.6
		연금										
	실물	부동산	177	174	185	170	193	72.8	73.4	71.4	73.6	71.2
		*주거주	127	126	127	125	131	52.0	53.5	48.8	54.1	48.3
		그 외	22	27	10	27	11	8.9	11.2	3.8	11.5	4.1
	금융	예금현금	21	17	31	17	31	8.8	7.3	12.0	7.3	11.6
		투자	22	18	31	17	33	9.1	7.8	11.9	7.4	12.1
		그 외	1	1	2	0	2	0.4	0.2	0.9	0.2	0.9
	연금	생보 등	8	8	9	8	9	3.4	3.5	3.3	3.4	3.4
		직장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198	178	249	170	259	81.5	75.1	96.0	74.0	95.5	
	조정처분가능	207	186	258	178	268	85.0	78.5	99.3	77.4	98.9	
	통합											
	총											
부채	총	45	59	10	60	12	18.5	24.9	4.0	26.0	4.5	
	부동산	35	46	6	47	8	14.3	19.7	2.5	20.6	2.8	
	*주거주	31	42	5	43	6	12.9	17.8	1.8	18.7	2.1	
	그 외	10	12	4	13	5	4.1	5.3	1.5	5.4	1.7	
						(단위: 천€)						
소득	총	51.3	57.5	36.3	57.1	38.8	133.1	135.1	125.9	135.3	126.6	
	근로	32.9	44.6	4.2	45.4	5.9	85.3	104.9	14.7	107.4	19.4	
	임금	30.7	42.0	3.2	42.8	4.6	79.7	98.7	11.2	101.3	15.2	
	비임금	2.2	2.6	1.0	2.6	1.3	5.6	6.2	3.5	6.1	4.2	
	자본	2.4	2.5	2.2	2.4	2.4	6.3	5.9	7.7	5.8	7.8	
	이전	16.0	10.4	29.9	9.3	30.5	41.5	24.4	103.5	22.1	99.4	
	공적	연금	11.4	4.1	29.3	2.9	29.7	29.5	9.6	101.4	6.9	96.8
		연금 외	4.4	6.0	0.6	6.1	0.8	11.5	14.1	2.0	14.5	2.6
		사적	0.2	0.3	0.0	0.3	0.0	0.5	0.7	0.1	0.7	0.1
	처분가능	38.6	42.5	28.9	42.2	30.7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12.8	14.9	7.5	14.9	8.2	33.1	35.1	25.9	35.3	26.6	
						(단위: 천호, 천명)						
가구	2,677	1,901	776	1,830	847	100	71.0	29.0	68.4	31.6		
가구원	5,419	4,282	1,137	4,118	1,300	100	79.0	21.0	76.0	24.0		

주: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가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7일).

<부표 A-62> 미국('19)의 고령 및 비고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						
자산	자산	총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실물	483	451	571	448	570	66.5	71.3	57.8	71.3	58.7
		금융	244	181	416	181	401	33.5	28.7	42.2	28.7	41.3
		연금										
	실물	부동산	311	285	382	282	383	42.8	45.0	38.7	44.8	39.4
		*주거주	223	209	263	207	264	30.7	33.0	26.6	32.9	27.1
		그 외	172	166	189	166	187	23.7	26.3	19.1	26.4	19.3
	금융	예금현금	49	40	74	39	73	6.7	6.3	7.5	6.3	7.5
		투자	191	139	334	139	321	26.2	21.9	33.9	22.1	33.0
		그 외	4	3	8	3	8	0.6	0.4	0.8	0.4	0.8
	연금	생보 등	115	93	177	91	175	15.8	14.6	17.9	14.4	18.0
		직장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609	497	919	494	898	83.8	78.6	93.1	78.5	92.4	
	조정처분가능	724	590	1,095	585	1,073	99.6	93.2	111.0	93.0	110.4	
	통합	746	616	1,106	611	1,086	102.6	97.3	112.1	97.1	111.7	
	총											
부채	총	118	135	69	135	74	16.2	21.4	6.9	21.5	7.6	
	부동산	90	105	48	105	53	12.4	16.6	4.9	16.7	5.4	
	*주거주	71	84	35	84	38	9.8	13.3	3.5	13.4	4.0	
	그 외	28	30	20	30	21	3.8	4.8	2.0	4.8	2.1	
						(단위: 천\$)						
소득	총	99.2	104.5	84.3	104.0	87.1	137.9	141.5	127.0	141.5	128.4	
	근로	68.9	84.8	24.7	84.4	29.7	95.8	114.8	37.3	114.9	43.8	
	임금	63.8	79.1	21.5	78.7	26.3	88.7	107.0	32.4	107.1	38.7	
	비임금	5.1	5.7	3.2	5.7	3.5	7.0	7.7	4.9	7.7	5.1	
	자본	13.0	11.8	16.2	11.8	15.8	18.0	16.0	24.4	16.1	23.3	
	이전	17.3	7.9	43.3	7.7	41.6	24.1	10.7	65.3	10.4	61.3	
	공적	연금	13.9	4.3	40.5	4.1	38.7	19.4	5.9	61.1	5.6	57.0
		연금 외	0.7	0.8	0.5	0.8	0.5	1.0	1.1	0.7	1.1	0.8
		사적	2.7	2.8	2.4	2.8	2.4	3.7	3.8	3.6	3.8	3.5
	처분가능	71.9	73.9	66.4	73.5	67.8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27.3	30.6	17.9	30.5	19.2	37.9	41.5	27.0	41.5	28.4	
						(단위: 천호, 천명)						
가구						100	73.4	26.6	71.5	28.5		
가구원						100	80.9	19.1	78.4	21.6		

주: 1)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가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2) 미국의 가구 및 가구원수 모수 추정치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7일).

<부표 A-63> 영국('19)의 고령 및 비고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						
자산	자산	총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실물	327	310	366	304	376	81.2	83.9	76.1	84.0	76.7
		금융	76	59	115	58	114	18.8	16.1	23.9	16.0	23.3
		연금										
	실물	부동산	253	236	291	230	299	62.7	64.0	60.4	63.8	61.1
		*주거주	213	195	255	192	257	52.9	52.8	53.0	53.2	52.4
		그 외	74	74	76	73	77	18.4	20.0	15.7	20.2	15.7
	금융	예금현금	31	25	45	24	46	7.7	6.7	9.3	6.6	9.3
		투자	43	33	69	32	67	10.8	8.8	14.3	8.8	13.7
		그 외	1	0	1	0	1	0.1	0.1	0.2	0.1	0.2
	연금	생보 등	23	26	15	26	17	5.6	7.0	3.1	7.1	3.4
		직장	116	150	36	150	43	28.7	40.6	7.4	41.5	8.8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351	299	472	291	478	87.2	81.1	98.1	80.5	97.5	
	조정처분가능	374	325	487	316	494	92.8	88.1	101.2	87.6	100.9	
	통합	597	533	748	519	762	148.3	144.3	155.5	143.7	155.5	
	총											
부채	총	52	70	9	71	12	12.8	18.9	1.9	19.5	2.5	
	부동산	46	63	6	64	9	11.4	17.1	1.2	17.6	1.8	
	*주거주	39	54	3	55	5	9.7	14.7	0.6	15.2	1.0	
	그 외	5	6	1	7	2	1.2	1.8	0.3	1.8	0.3	
						(단위: 천£)						
소득	총	47.1	53.6	31.9	53.5	33.6	126.3	130.6	111.8	130.9	112.9	
	근로	34.0	45.9	5.8	46.3	7.9	91.1	112.0	20.5	113.4	26.6	
	임금	30.8	42.0	4.7	42.3	6.5	82.7	102.3	16.4	103.7	21.8	
	비임금	3.1	4.0	1.2	3.9	1.4	8.4	9.7	4.1	9.6	4.7	
	자본	2.4	2.2	2.9	2.2	3.0	6.5	5.4	10.2	5.3	10.2	
	이전	10.7	5.4	23.1	5.0	22.7	28.7	13.2	81.1	12.3	76.2	
	공적	연금	7.5	1.7	21.3	1.3	20.7	20.2	4.1	74.6	3.1	69.6
		연금 외	3.0	3.4	1.8	3.5	1.9	7.9	8.4	6.4	8.5	6.4
	사적	0.2	0.3	0.0	0.3	0.0	0.5	0.7	0.1	0.7	0.2	
	처분가능	37.3	41.0	28.5	40.8	29.8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9.8	12.6	3.4	12.6	3.8	26.3	30.6	11.8	30.9	12.9	
							(단위: 천호, 천명)					
	가구	26,410	18,524	7,886	17,925	8,485	100	70.1	29.9	67.9	32.1	
가구원	63,536	50,471	13,064	48,721	14,814	100	79.4	20.6	76.7	23.3		

주: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가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7일).

<부표 A-64> 일본('14)의 고령 및 비고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					
자산	자산	총									
		실물									
		금융	10,066	7,762	13,939	7,112	13,233	100	100	100	100
	실물	연금									
		부동산									
		*주거주 그 외	12,714	11,620	14,608	10,461	15,279	126.3	149.7	104.8	147.1
	금융	예금현금	8,190	6,487	10,991	5,960	10,535	81.4	83.6	78.8	83.8
		투자	1,944	1,232	3,145	1,111	2,831	19.3	15.9	22.6	15.6
		그 외									
	연금	생보 등									
직장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조정처분가능										
	총합	19,213	14,226	27,785	12,531	26,768	190.9	183.3	199.3	176.2	
부채	총										
	부동산										
	*주거주 그 외	3,236	4,728	820	5,006	1,423	32.1	60.9	5.9	70.4	
						(단위: 천¥)					
소득	총	5055.0	5940.0	3611.5	5891.3	4195.8	112.8	114.6	110.3	116.6	
	근로	3571.2	4981.0	1271.5	5133.3	1966.4	79.7	96.1	38.8	101.6	
	임금	3217.3	4598.5	964.5	4816.8	1574.2	71.8	88.7	29.5	95.4	
	비임금	353.9	382.5	307.1	316.5	392.2	7.9	7.4	9.4	6.3	
	자본	190.7	189.1	193.4	144.4	238.3	4.3	3.6	5.9	2.9	
	이전	1293.1	769.9	2146.5	613.6	1991.1	28.9	14.9	65.5	12.1	
	공적	연금	1157.3	585.8	2089.3	425.2	1909.3	25.8	11.3	63.8	8.4
		연금 외	73.4	107.3	18.1	122.0	23.5	1.6	2.1	0.6	2.4
	사적	62.4	76.7	39.1	66.4	58.4	1.4	1.5	1.2	1.3	
	처분가능	4482.0	5183.9	3274.8	5051.3	3855.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851.1	991.7	609.2	990.5	697.5	19.0	19.1	18.6	19.6		
						(단위: 천호, 천명)					
가구	54,322	33,676	20,646	27,527	26,795	100	62.0	38.0	50.7	49.3	
가구원	127,103	85,966	41,138	64,652	62,452	100	67.6	32.4	50.9	49.1	

주: 1)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사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2) 일본의 경우, 총소득에는 결측이 없으나, 처분가능소득과 공적비소비지출에는 결측이 있음에 유의.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7일).

<부표 A-65> 칠레(17)의 고령 및 비고령 가구의 자산구성

항목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전체 가구	가구주 고령여부		가구원 고령여부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비고령	고령		
						(단위: 천페소)			(단위: 실물+금융 자산 대비 비중, %)			
자산	자산	총										
		실물										
		금융	5,629	5,000	8,029	5,002	7,352	100	100	100	100	
		연금										
	실물	부동산	58,996	53,510	79,946	52,307	77,396	1048.1	1070.1	995.8	1045.7	1052.7
		*주거주	41,916	37,171	60,036	36,524	56,747	744.7	743.4	747.8	730.2	771.8
		그 외	4,591	4,898	3,421	4,914	3,703	81.6	97.9	42.6	98.2	50.4
	금융	예금현금	402	411	367	419	354	7.1	8.2	4.6	8.4	4.8
		투자	5,227	4,590	7,662	4,583	6,999	92.9	91.8	95.4	91.6	95.2
		그 외										
	연금	생보 등										
		직장										
사회보장												
순자산	처분가능											
	조정처분가능	58,126	50,157	88,556	48,673	84,126	1032.7	1003.1	1103.0	973.1	1144.2	
	통합	58,126	50,157	88,556	48,673	84,126	1032.7	1003.1	1103.0	973.1	1144.2	
부채	총	11,090	13,251	2,839	13,550	4,325	197.0	265.0	35.4	270.9	58.8	
	부동산	8,391	10,198	1,490	10,484	2,632	149.1	203.9	18.6	209.6	35.8	
	*주거주	6,098	7,454	920	7,738	1,586	108.3	149.1	11.5	154.7	21.6	
	그 외	2,700	3,053	1,350	3,066	1,693	48.0	61.1	16.8	61.3	23.0	
						(단위: 천페소)			(단위: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 %)			
소득	총	17027	18508	11372	18479	13033	100	100	100	100	100	
	근로	13998	15931	6618	16156	8065	82.2	86.1	58.2	87.4	61.9	
	임금											
	비임금											
	자본											
	이전	3029	2577	4754	2324	4969	17.8	13.9	41.8	12.6	38.1	
	공적	연금	1549	1030	3532	872	3413	9.1	5.6	31.1	4.7	26.2
		연금 외	143	104	290	86	298	0.8	0.6	2.6	0.5	2.3
	사적	1337	1443	932	1366	1258	7.9	7.8	8.2	7.4	9.7	
	처분가능	17027	18508	11372	18479	13033	100	100	100	100	100	
공적비소비지출												
						(단위: 천호, 천명)			(단위: 전체 대비 비중, %)			
가구						100	79.2	20.8	73.3	26.7		
가구원						100	83.0	17.0	75.7	24.3		

주: 1) '가구주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주가 비고령인 경우로 구분하며, '가구원 고령여부'에 따른 「고령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령인 경우, 「비고령 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비고령인 경우; LWS DB에서 사용하지 않은 항목(모든 값이 0인 경우)은 빈칸으로 처리.

2) 칠레의 가구 및 가구원수 모수 추정치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

자료: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WS DB(최종접속시점, '23년 7월 10일).